

第9章 에너지産業

第1節 概 觀

에너지는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基礎資源으로 이의 안정적 수급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결되는 요건이다. 에너지 소비는 1950년대 이래 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급속한 증가를 보여왔고, 앞으로도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 수요가 연평균 20~25%의 신장세를 보여왔다. 에너지의 소비패턴도 1960년대~1970년대에는 석탄 및 低級油類가 중심에너지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高級油類 및 가스중심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즉, 1963년도 우리나라의 1차에너지 소비구성비는 석탄 40.9%, 신탄 47.1%, 석유 10.3%, 수력 1.7% 등으로 석탄류에 대한 의존도가 88.0%에 달했으나, 1989년도에는 석탄 30.0%, 신탄 1.3%, 석유 49.6%, LNG 3.2%, 수력 1.4%, 원자력 14.5% 등으로 석유와 LNG 및 원자력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表 9-1〉 韓國의 1次 에너지 消費現況 (석유환산) (단위: 1000톤, %)

구분	총에너지		석 탄		석 유		L N G		수 력		원 자 력		신 탄	
	소비량	비중	소비량	비중	소비량	비중	소비량	비중	소비량	비중	소비량	비중	소비량	비중
1963	10,932	100	4,473	40.9	1,129	10.3	—	—	182	1.7	—	—	5,148	47.1
1970	19,678	100	5,829	29.6	9,293	47.2	305	1.6	—	—	4,251	21.6		
1980	43,911	100	13,199	30.1	26,830	61.1	—	—	496	1.1	869	2.0	2,517	5.7
1989	81,659	100	24,493	30.0	40,523	49.6	2,630	3.2	1,140	1.4	11,841	14.5	1,033	1.3

資料: 동력자원부·에너지 경제연구원, 《에너지 통계연보》, 1990.

그러나 불행하게도 에너지자원이 극히 빈약한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수요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국내의 에너지 확보가 우리나라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¹⁾

1)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제총감》, 1985, p. 612.

大邱地域의 에너지산업을 석탄, 석유, 가스, 도시가스 및 전력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석탄 즉, 煉炭제조업은 1950년대 이후 30여년간 주요燃料로서 대구시민과 애환을 같이해 왔으나, 1986년을 정점으로 급속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石油 또한 자동차의 연료를 비롯하여 산업용 연료로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主油從炭정책으로 석유이용을 권장해 오다가, 1970년대에 불어닥친 석유 파동으로 主炭從油정책으로 바꾸면서 일시적이거나 석탄산업이 재활기를 띠는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또다시 에너지정책이 主油從炭으로 전환하는 등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에너지산업은 여러 번의 기복을 거듭한 것이다.

그리고 交通手段에 사용되어 오던 휘발유, 경유에 이어 부탄가스가 택시에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프로판가스가 취사연료로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1980년대 초 이후 대구지역은 본격적인 LPG연료시대를 맞았다. 특히 1984년부터 대구에도 都市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大邱 에너지산업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대구의 에너지산업은 채굴과 생산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시키는 일종의 流通산업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에너지산업의 발전은 수요측면에서 정책이 펼쳐지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지역의 1989년도 에너지소비현황은 석유제품소비가 868만 1천BbL로 전국의 3.1%, 民需用 무연탄 소비가 126만 1천톤으로 전국의 6.3%, 그리고 電力판매량이 377만 3,640MWH로 전국의 4.6%로 상당한 점유비를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소비는 앞으로도 인구(가구)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더욱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구지역의 大氣 중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시규모의 확대로 산업 및 생활쓰레기 처리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구시의 에너지정책은 물량의 안정적 수급과 유통질서의 확립은 물론, 에너지의 안전성, 환경문제의 개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등을 주요목표로 삼아야 하겠다.

〈表 9-2〉 에너지消費의 全國比重(1989년)

區 分	석유제품 생산량 (단위 : 1000BbL)	민수용 무연탄소비량 (단위 : 1000M/T)	전력판매량 (MWH)
전 국	275,828	20,054	82,191,862
대 구	8,681	1,261	3,773,640
비중(%)	3.1	6.3	4.6

資料 : 〈表 9-1〉과 같음.

第2節 燃料에너지産業

I. 煉 炭

1. 煉炭製造業體

연탄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에너지 부존자원인 석탄을 가지고 제조되는 연료로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후 난방과 취사를 위해 사용해 왔던 장작, 낙엽 등 임산연료가 우리나라에서 연탄으로 본격 대체된 것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라고 할 수 있다.

연탄은 1960년대 이래 198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연료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아직까지도 전체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연탄을 주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대구시의 연탄생산과 수급은 1960년대 초 手作業으로 만들어져서(속칭 곱배탄)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원초적인 가내공업 형태를 이루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수송수단은 오로지 철도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원탄수송이 용이한 대구역 부근의 七星洞, 院垆洞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63년에 대구시의 연탄제조업은 62개,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불과 628명으로 이때부터 10명 내외의 영세가내공업 형태의 연탄공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점차 도시가 확대되고 연탄수요가 늘어나 飛山洞, 南山洞, 三德洞 등으로 확산되어 1960년대 후반에는 100여개의 군소업체가 난립하게 되었다.

공업의 발달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가내수공업형 연탄제조업체들이 공장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생산시설도 動力式 프레스기가 도입되면서 공급능력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때부터 군소업체들은 서서히 통합되기 시작했다. 1970년도에는 고작 24개의 업체가 대구시는 물론 인근지역까지 연탄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공장이 대형화하면서 연탄분진으로 인한 공해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게 되자, 1971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대구 시내에 산재해 있는 모든 연탄제조업체들을 집단화하여 전국 최대규모의 燃料供給基地를 조성함으로써 바야흐로 본격 연탄연료시대가 열렸다.

2. 燃料工業團地の 造成

연탄공급이 갈수록 확대되고 연탄공장들이 점차 대형화되면서 석탄으로 인한 분진, 都

〈表 9-3〉 1960년대 主要 煉炭工場 現況

위 치	업 체 명	위 치	업 체 명
칠 성 동	대성, 대구, 금성, 삼덕, 별표 공영, 경북, 통일, 대영, 동도 일성 등	봉 덕 동	한일, 영남
원 대 동	광성, 구일	방 촌 동	동양
비 산 동	달성, 삼신, 애립, 삼흥	대 봉 동	대영, 삼부, 청구
내 당 동	천일	삼 덕 동	삼화, 삼덕, 대동
남 산 동	남문, 경남, 해성, 대성	신 암 동	대광, 신광
대 명 동	제일	수 성 동	동아, 수성
		동 인 동	풍국, 중외

資料：대구직할시, 《직할시정 10년》, 1991.

市美觀의 저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연탄연료단지의 조성이 시급했고,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당시의 행정구역인 경상북도 慶山郡 安心邑 울암동 431번지일대 3만여평의 부지에 대구시 연료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시내에 산재한 24개의 군소 연탄공장들을 6개공장으로 통폐합하여 입주시켰다.²⁾

〈表 9-4〉 燃料工業團地 立住業體現況

업 체 명	대 표 자	통폐합 이전의 공장
대 성	맹 호 섭	대성 1, 2, 3 공장
영 남	이 정 우	영남, 경북, 경남, 삼성
대 영	김 판 출	왕표, 풍국, 해성
삼 덕	박 영 태	삼흥, 석봉, 동양
한 성	남 춘 환	금성, 한일, 대영
협 성	서 해 술	구일, 달성, 삼진
기 타		강원, 중외, 함태, 광성

資料：〈表 9-3〉과 같음.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행정구역이 확장되자 연료공업단지도 대구시로 자연히 편입되었다. 1990년 현재 대구연료공업단지(일명 半夜月연료단지)에는 입주업체가 6개이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400명이며, 저탄능력은 5백만톤, 1일 생산능력은 360만개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연료단지의 주변일대가 도시의 팽창과

2) 대구직할시, 《시정백서》, 1992, p. 346.

함께,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면서 연탄분진으로 인한 민원문제가 빈번하여 연료단지의 이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988년도에는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연료공업단지내의 주요수송시설인 高架線鐵道(320m×2열, 높이 4m)를 철거하였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공해방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6억 2천여만원을 투입하여 방진벽, 방진망, 살수장치 등 전반적인 공해방지시설의 보강을 추진중에 있다.

〈表 9-5〉 燃料工業團地 主要施設 現況 (상시종업원: 400명)

입주업체	생 산 시 설			수송능력	공 해 방 지 시 설			
	부지면적	생산능력	저탄능력		방진벽	살 수 능 력	집진기	기타
6	28,309평	3,600천개/일(운전기 90대)	500천톤 (18,000 평)	차량 335 대(3,400 천개/일)	높이9m 길이 679m	스프링쿨러81개, 살수전 25개, 살수차2대	2,120m ³ /시간	방진망 70m, 세륜 장 7개

資料: 〈表 9-3〉과 같음.

3. 生産과 消費

대구시내 6개 연탄제조업체의 1일 생산능력은 25공탄을 기준으로 360만개다. 대구는 물론 인근 일부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1990년 현재 대구지역의 가구수는 59만 7천세대로 이 중에서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52%에 해당하는 31만 1천세대이고,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는 1.4%에 해당하는 7만 6천세대이다.

이들 가정에서 소비하고 있는 연탄은 여름과 겨울철 등 계절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충 여름철에는 5인가족 이하는 2개, 5인 이상은 4개정도를 소비한다. 겨울철에는 5인가족 이하는 4개~6개이고, 5인 이상은 6~8개를 사용한다. 따라서 연탄생산은 10월~3월까지는 盛需期로서 풀가동을 해왔고, 4월~9월사이는 非需期로서 설비가동률이 10~20%수준에 머무르곤 했다. 그러나 경제의 발달로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문화생활을 추구함에 따라 1980년대 이후 가정연료의 사용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石油類 연료 특히, 가스연료의 공급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1984년 10월부터 대구에도 도시가스가 보급됨으로써 취사용 연료는 가스로 바뀌어지고, 난방연료는 석유로 대체되면서 연탄소비는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대구시의 연탄소비추이를 보면 1960년대 이후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1970년대를 거쳐 1980

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증가를 보여왔으나, 1986년도에 149만 6,700톤을 정점으로 매년 5~6%정도씩 감소를 보이고 있다. 1990년 말 현재 대구시내 연탄수송차량은 354대이며, 이 중에서 지입차가 340대이고, 회사직영은 14대에 불과하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천여개가 넘었던 煤炭販賣所도 983개소로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들면서 연탄사용가구의 감소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연탄수송인력과 연탄판매 배달원의 부족으로 공급상의 차질을 보여 油類와 가스로의 연료대체를 부추기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表 9-6〉 大邱市内 煤炭流通 現況 (1991年 現在) (단위: 대)

수 송 차 량			판 매 소	연 탄 사 용 가 구	
계	지 입	직 영		난 방	취 사
354	340	14	983개소 (전년대비-43%)	311천가구 (전체가구의 52%)	8.3천가구 (전체가구의 1.4%)

資料: 대구시 상정과

〈表 9-7〉 大邱市内 煤炭所費推移

연 도 별	소 비 량 (톤)	연 도 별	소 비 량 (톤)
1969	699,120	1980	1,397,403
1970	917,070	1981	1,389,614
1971	888,310	1982	1,273,401
1972	799,741	1983	1,328,956
1973	947,714	1984	1,426,836
1974	1,104,720	1985	1,459,096
1975	1,093,604	1986	1,496,705
1976	1,114,776	1987	1,448,493
1977	1,226,180	1988	1,425,320
1978	1,264,809	1989	1,261,012
1979	1,289,098	1990	1,142,386

資料: 〈表 9-3〉과 같음.

4. 供給區域

1974년 이전만 해도 연탄공급은 구역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대구시내의 공장에서 생

산하여 대구시는 물론 경북일대와 慶南의 창녕, 밀양, 거창을 비롯해서 멀리는 全羅道 장수군 지역까지 공급되었다. 그러나 1974년에 석탄수급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대구 시내 연탄제조업체들의 공급구역은 대구시 및 경북의 경산군, 달성군, 고령군, 칠곡군과 경남의 합천군, 창녕군의 일부지역으로 축소되었다.

1991년 4월부터는 石炭合理化計劃에 따른 공급구역의 광역화 추진으로 대구 및 경북 전역과 경남의 합천군, 창녕군 전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1992년도에는 전국의 연탄공급구역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5. 品質管理

연탄의 원료는 江原道탄광지대에서 생산되는 고열량탄(5,000Kcal/kg 8,000Kcal/kg)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석탄에 황토흙을 섞어서 제조하였다. 제조회사마다 규격은 제각기 달랐으나, 무게는 대략 4.5kg~5kg, 열량은 4,600Kcal/kg~5,000Kcal/kg 정도로서 이때만 해도 가정의 취사와 난방을 겸용하여도 연탄 1개로 24시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다.

1965년에 경북의 聞慶炭座가 개방되어 低열량탄인 흑연질 석탄의 사용방법이 특허를 받아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황토흙을 섞지 않고 연탄을 제조하는 것으로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규격은 가정용 小炭을 기준하여 무게 4kg, 구멍수는 19, 22, 23, 25孔 등으로 회사마다 달랐다. 열량은 4,600Kcal/kg 이상이였다. 이외에도 5kg, 7.5kg, 10kg 등의 대형탄도 등장하였다.

한편, 1974년도 제1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국가부존자원의 절약과 에너지 소비절약의 추진을 위하여 같은 해 12월 動力資源部가 연탄의 규격을 제정, 고시하였으며, 이때부터 현재의 기준인 무게 3.6kg 이상, 발열량 4,400Kcal/kg 이상, 그외 지름, 높이, 강도 등의 규격을 정하였으며, 구멍수도 25孔으로 통일하였다.

6. 煉炭價格

연탄가격은 1960년대 초에는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가격을 고시하였으나, 1964년 11월 고시가격을 폐지하고 업계의 協定價格으로 결정되었다. 1974년 4월에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저가격으로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단지 무게를 기준으로 3.6kg 연탄만 고시하고, 4.5kg, 7.5kg 등 특수규격의 연탄은 자율화 조치하였다.

〈表 9-8〉 流通段階別 煉炭 價格 變化 (3.6kg炭) (단위: 원, %)

년 월 일	공장도	판매소도착	판매소판매	가정도	인상률	비 고
1974. 10. 10	24. ⁵⁰	28		31		상공부고시 10560
1975. 4. 2	29. ⁴⁰	33		36	16.7	〃 〃 10601
1976. 5. 14	30. ⁴⁰	34		37	2.9	〃 〃 76-13
1977. 2. 4	38. ⁹⁰	42. ⁸⁰		46	25	〃 〃 77-6
1977. 12. 18	50. ⁵⁰	55. ⁵⁰		61	33.3	〃 〃 77-57
1979. 4. 16	71. ⁵⁰	79	81. ⁵⁰	86. ⁵⁰	41.7	동자부고시 27호
1980. 5. 4	99	108	111. ⁵⁰	117. ⁵⁰	35.3	〃 〃 80-103
1981. 4. 19	119. ⁵⁰	129. ⁵⁰	134	141	20	〃 〃 81-184
1981. 8. 14	134	144	148. ⁵⁰	156	10.9	〃 〃 81-202
1982. 7. 1	138	148	153	161	3.3	〃 〃 82-28
1983. 5. 13	138	148	153	161	0	〃 〃 83-12
1984. 5. 17	138	148	153	161	0	〃 〃 84-12
1985. 4. 14	143	154		169	5.1	〃 〃 85-107
1985. 9. 5	148	159		174	3	〃 〃 85-168
1986. 5. 17	154	166	171	181	4	〃 〃 86-14
1987. 4. 9	160	172	177	187	3.3	〃 〃 87-13
1988. 5. 10	167. ²⁵	180	185	195	4.3	〃 〃 88-20
1992. 8. 31	167. ²⁵	180	185	210	7.6	〃 〃 92-39

資料: 대구연료공업협동조합

7. 向後發展과 諸問題

연탄은 다른 연료에 비하여 사용 후 연탄재의 처리문제, 교체시의 번거로움, 연탄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생활수준의 향상, 도시화의 확산, 핵가족화 추세, 여성 직장인의 증가, 전기·석유·가스와 관련된 취사 난방기구의 개발 등으로 매년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대단위 아파트 증가,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년 사이 국내의 많은 石炭鑛山들이 폐광을 했고, 연탄제조업체들도 생산규모를 계속 줄이거나 경영을 축소해 나아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과 각종 지원도 유류나 가스사용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연탄에 대해서는 갈수록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연탄은 가스·유류·전기 등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도 대구시의 상당수 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연료이다. 특히, 석유·가스 등이 우리나라에서 전혀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거 1, 2차 유류파동과 같은 에너지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공급상의 차질, 가격의 폭등 등으로 국내연료수급에 커다란 혼란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경우 연탄은 庶民燃料로서의 중요성이 새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탄의 생산, 운반, 배달 및 연탄재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민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차원의 연료수급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주거지역에 인접하고 있어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수년 전부터 외곽지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半夜月燃料團地 문제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되어 연탄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지역민은 기대하고 있다.

II. 石 油

1. 供給業所의 變化

대구지역에 석유판매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20년대 중반이었다. 초창기 판매형태를 보면 해방전까지는 주로 일본인들이 세운 朝鮮石油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분배하는 단순한 대리점에 불과했다. 1950년대 초반까지는 대부분의 석유판매점이 일정한 주유시설이나 저장시설 없이 드럼통을 야적하고 판매하는, 오늘날의 석유판매취급소와 거의 비슷한 형태였으며, 취급품목도 등화용인 등유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휘발유, 경유, 벙커C유의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유류판매소는 대형저장탱크 및 현대식 주유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점포의 규모도 대형화하면서 기업의 형태로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1970년 1월 1일 石油事業法(법률 제 2183호)의 제정, 발효 이후 유류공급의 형태가 油公, 湖南精油, 京仁에너지, 雙龍 등 석유정제업체로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공급받아 각 주유소에 공급하는 대리점과, 이들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주유소, 그리고 등유, 경유만을 취급 및 판매하고 있는 석유판매취급소 등으로 체계화되었다.

석유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하여 열효율이 높고, 취급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매년 수요가 급증하였다.³⁾ 이로 인하여 공급에 비해 수요가 항상 초과함으로써 石油代理店은 1970년대 말까지는 호황을 누린 업종이었고, 특히 1차, 2차 유류파동과 더불어 석유대리점 및 주유소 허가는 대표적인 利權化 사업이기도 하였다.

3) 주식회사 유공, 《유공30년사》, 1992, p. 112.

〈表 9-9〉 大邱의 注油所現況 (1985.3 현재) (단위: 개소)

구	분	영 업 소		합 계
		자 영	직 영	
중	구	8	5	13
동	구	14	5	19
서	구	18	4	22
남	구	17	1	18
북	구	17	5	22
수	성 구	7	4	11
합	계	81	24	105

資料: 대구시 상정과

〈表 9-10〉 大邱市内 石油販賣業所現況

구	분	계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1991년 9월말 현 재	업체수(개소)	253	6	130	117
	저장능력(kl)	13,412	6,624	6,788	
1990년말 현 재	업체수(개소)	245	6	128	111
	저장능력(kl)	13,292	6,624	6,668	

資料: 대구시 상정과

하지만 198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注油所 설치의 요건완화와 개방시책에 따라 업소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또한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지면서 수급체제 및 유통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석유판매의 마진이 대폭 줄어들어 석유대리점 및 주유소가 투자우선 유망업종의 우선 순위에서 크게 밀려났다는 점이다.⁴⁾ 이는 1985년에서 1990년사이 대구지역의 油類消費는 100%가 늘어났으나, 석유대리점은 11개에서 13개로 2개만 증가했으며 주유소는 105개에서 128개로 21.9%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2. 油類消費의 變化

1945년, 즉 해방 이전까지는 대구지역의 유류소비는 등화용이 대부분이었다. 1948년 美軍이 주둔하고, 1950년 6.25동란이 발발하면서 차량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휘발유 수요와 경유의 소비도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1961년도의 유류수급형태는 등유 46.7%, 휘발유 38.2%, 경유 12.1% 등으로 등화용과 차량용 유류의 비중이 절대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생활수준의 향상, 눈부신 경제발전, 차량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유류소비의 신장세는 연평균 45%에 이르렀으며, 유종별 소비패턴도 크게 변화했다.

1970년도 종류별 석유소비구성비를 보면, 석유등이 전등으로 대체됨에 따라 석유의 비중은 12.3%로 낮아졌고, 휘발유의 소비비중도 18.3%로 떨어졌으나, 디젤엔진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경유는 25.2%로 점유비가 증대되었다. 특히 산업의 발달에 따른 수요폭증으로 벙커C유는

4)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제총감》, 1985, p. 616.

43.5%의 비중을 나타냈다.

〈表 9-11〉 油種別 油類 消費實績 (단위: KI)

구 분	계	휘 발 유	등 유	경 유	중 유	병커C유
1983	518,063	31,166	55,907	258,609	2,450	169,931
1984	565,011	38,751	62,147	264,096	3,058	196,959
1985	625,642	51,960	61,212	298,246	1,752	212,472
1986	708,185	64,081	65,876	329,216	2,130	246,882
1987	783,494	75,800	68,706	361,024	2,605	275,359
1988	937,646	110,067	91,350	429,718	4,123	302,388
1989	1,069,641	151,541	120,341	463,486	5,198	329,075
1990	1,254,635	199,421	188,993	500,672	5,448	360,101

資料: 대구직할시, 《통계연보》, 각 연도

1971년부터 1980년 사이의 유류소비는 연평균 29.5%의 증가를 보였다. 1차 유류파동 이듬해인 1974년도에는 25.4%, 1977년에는 10%, 그리고 2차 유류파동 이듬해인 1980년에는 25.9%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 기간 동안에 유류종류별 소비추이는 연평균 휘발유가 10%, 등유 26.7%, 경유 46.1%, 중유 17.3%, 병커C유 29.1% 등으로 각각 증가를 나타냈다. 휘발유가 가장 낮은 신장세를 보인 것은 1,2차 油類波動에 따른 정부의 고급유류 소비절약책과 1974년부터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LPG사용 의무화에 따른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이후의 대구지역 유류소비는 1983년에 소비량이 51만 8,063KI에서 1990년에는 125만 4,635KI로서 연평균 30% 이상의 큰 폭의 소비신장세를 나타냈다. 유종별로는 휘발유가 연평균 80%, 등유 42.2%, 경유 24.2%, 중유 27.8%, 병커C유 26.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自家用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연탄보일러의 기름보일러 대체로 인해 휘발유와 등유의 소비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에 환경문제의 등장과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등으로 경유, 중유, 병커C유 등은 1970년대에 비하여 신장세가 둔화되었다.

III. 가 스

1. 國內 LPG供給의 概要

우리나라 가스산업은 LPG, LNG 및 이를 원료로 하고 있는 都市가스산업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96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가스산업은 용기에 충전된 LPG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극히 제한된 일부에만 취사용 연료로 공급되었다.

그러다가 국내 가스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됨에 따라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精油공장이 들어서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LPG가 생산되기 시작한 이후이다. 즉, 1964년 大韓石油公社 울산정유공장의 가동과 함께 원유정제과정의 부산물로서 LPG가 생산됨으로써 국내제품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수요도 크게 늘었다. 수입가스에 비해 값싼 LPG공급으로 이전까지의 해외수입은 국내가스로 완전히 대체되었고, 가스가 대중연료로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가스산업은 초기에는 容器LPG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오던 것이 1972년부터 서울시가 납사분해가스를 LPG의 배관을 통해 가정에 공급하면서 도시가스산업이 출범하였다. 1974년도부터는 영업용택시에 LPG사용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가스수요는 양적 증가는 물론 이거니와 사용범위도 확대되기 시작했다. 또한 LPG수요의 큰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까지는 국내 정유사의 LPG생산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국내소비 후 잔량을 해외로 수출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가정용, 상업용 및 수송용 등으로 용도가 확대되고, LPG의 수요도 더욱 늘어남에 따라 국내의 생산량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LPG의 收率을 늘리기 위한 시설투자를 활발히 추진하였으나, 도저히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 1978년부터 또 다시 LPG수입을 재개했다. 이로 인하여 1980년대 들어서 LPG사업자도 지금까지의 국내정유사들의 獨占에서 정유업체 이외에 LPG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새로운 LPG 전담회사가 별도로 설립, 공급하게 되었다.

2. 大邱의 가스供給

대구지역은 1960년대 중반까지도 LPG수요가 극히 소량에 불과했으나, 1968년도 大成産業 가스부, 1971년도 慶北가스의 부탄 및 프로판가스 판매허가와 1974년도부터 영업용 택시에 대한 LPG사용을 계기로 보급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면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연료의 고급화·간편화 추세에 따라 가스는 종전까지 취사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이 난방용·산업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그 영역을 확대해 가게 되었다.

또한 농촌소득향상과 가스機器의 보급 확대에 의해 대구 인근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가스의 공급범위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가스都賣業體 및 가스기기관련산업도 크게 발전했

다. 특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편리한 가정연료 사용을 위하여 대구시내에도 1984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가정연료의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대구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지역내의 공공건물과 신축 공동주택, 기타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 사용을 의무화하여 보급을 촉진시키고 있다.

한편 都市가스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을 장기저리의 조건으로 용자·지원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시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공급하고 있는 LPG공급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이미 세워져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구시내의 가스공급체계는 용기에 의한 취사 및 난방용 가스공급은 크게 줄어들고, 거의 대부분이 도시가스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 말 현재 대구시내의 가스取扱業所는 제조업소 136개, 저장업소 15개, 충전소 25개, 집단공급 11개, 판매소 281개 등 총 468개소가 있으며, 음식점, 다방 등 法定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가스사용 신고업소도 4,892개소가 있다. 그러나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면서 公害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가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유용한 에너지이지만, 한편으로는 취급 상에서 부주의가 있을 때는 다른 어느 에너지보다도 위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더우기 가스는 무색, 무취의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므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가 극히 어렵다.

또 가스는 氣體상태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차량의 연료나 가정용 연료로 쓸 때는 액화시켰다가 사용해야 하므로, 팽창계수가 높아 특수한 환경조건에는 항상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이 때문에 가스취급시에는 다른 어느 에너지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가스 취급관련 법규도 엄격하다. 실제로 1990년도 消防當局의 발표에 의하면 가스사고는 LPG가 전체사고의 6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사고의 약 56.4%가 취급부주의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시 대형 및 가스취약시설에 대한 1991년도 安全占檢결과, 1,099개 업소가 안전미비로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9-12〉 가스取扱業所 및 使用申告業所 現況 (단위: 개소)

계	가 스 취 급 업 소						사용신고 업 소
	소 계	제조업소	저장업소	충전소	집단공급	판매소	
5,360	468	136	15	25	11	281	4,892

資料：대구시 상정과

3. LPG消費現況

국민소득의 증대와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에 따른 고급연료 선호로 대구지역의 LPG소비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1980년도 대구지역의 LPG소비는 1만 3,859톤에 불과했으나, 1985년도에는 7만 3,029톤이었고, 1990년도에는 15만 3,669톤으로 약 10년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가스 종류별로는 산업발전과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주로 工業用과 營業用 택시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탄가스는 1980년도에 3,775톤에서 1985년에는 5만 505톤으로, 1990년도에는 6만 9,674톤으로 10년 사이에 17배가 늘어났다. 대부분 가정의 취사 및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판가스는 1980년도 1만 084톤에서 1985년도 2만 2,523톤, 1990년도에는 8만 3,995톤 등으로 10년사이에 7배가 증가했다.

〈表 9-13〉 대구地域 LPG消費量 推移 (단위: 톤)

연	도	계	프	로	판	부	탄
1980		13,859	10,084			3,775	
1983		51,952	13,769			38,138	
1985		73,028	22,523			50,505	
1990		153,669	83,995			69,674	

資料: 가스협회 대구지부

대구지역 LPG소비의 전국비중을 보면, 1985년에는 7만 3천톤으로 전국의 소비량 110만 2천톤의 6.6%를 점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전국은 매년 20% 이상의 소비증가를 가져온 데 비해, 대구는 16%정도의 신장세를 보였다. 1990년에는 15만 3천톤으로 전국의 소비량 269만톤의 5.7%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1985년 이후에는 부탄가스의 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부탄가스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 시내 營業用택시 대수는 처음 사용당시인 1974년도에 2,091대에 불과 했으나, 1990년 현재 1만 600대로 크게 늘어났다.

〈表 9-14〉 LPG消費趨勢 (단위: 千톤)

구	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평균증가치
전	국	1,102	1,549	1,624	1,995	2,289	2,690	20
대	구	73	84	99	119	132	153	16
비	율(%)	6.6	6.5	6.1	6.0	5.8	5.7	—

資料: 동력자원부

〈表 9-15〉 大邱市内 LPG使用 택시 現況

연 도	대 수	연 도	대 수
1974	2,091	1983	5,064
1975	2,293	1984	6,249
1976	2,218	1985	6,303
1977	2,229	1986	6,753
1978	2,888	1987	7,448
1979	3,191	1988	8,503
1980	4,698	1989	9,027
1981	4,716	1990	10,600
1982	5,105		

資料：대구택시사업조합

〈表 9-16〉 大邱市内 暖房施設別 住宅現況 (단위：세대, %)

구 분	계	채래식 아궁이	연 탄 아궁이	연 탄 보일러	단독기름 보 일 러	단독가스 보 일 러	중앙난방 보 일 러	전 기 보일러	기 타
1985	245,551 (100.0)	2,674 (1.1)	37,334 (15.2)	185,890 (75.7)	9,452 (3.8)	796 (0.3)	9,058 (3.8)	—	347 (0.1)
1990	597,150 (100.0)	4,002 (0.7)	62,652 (10.5)	371,446 (62.2)	96,631 (16.2)	33,460 (5.6)	24,773 (4.1)	2,018 (0.3)	2,168 (0.4)

資料：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

〈表 9-17〉 大邱市内 取捨燃料別 世代數 現況 (단위：세대, %)

구 분	계	연 탄	유 류	가 스	전 기	임산연료	기 타
1985	499,592 (100.0)	367,205 (73.5)	18,297 (3.7)	101,425 (20.3)	9,534 (1.9)	2,304 (0.5)	827 (0.1)
1990	597,150 (100.0)	76,070 (12.7)	13,017 (2.2)	490,491 (82.1)	14,175 (2.4)	362 (0.1)	3,035 (0.5)

資料：〈表 9-16〉과 같음.

1991년 말 현재 대구시내 가스공급업소는 프로판가스 9개소, 프로판 및 자동차용 부탄가스겸용 6개소, 자동차전용 14개소 등 모두 29개소에 이르고 있다. 한편 經濟企劃院 조사 통계국에서 실시한 199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대구시내 난방시설별 주택

현황에서 單獨가스보일러는 3만 3,460세대로 대구시내 총 59만 7,150세대의 5.6%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취사연료별 구분에서는 가스사용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82.1%에 해당하는 49만 491세대에 이르고 있다.

IV. 都市가스

1. 大邱都市가스 建設沿革

대구의 도시가스는 오랫동안 진통을 겪고 난 이후에 시공을 보게 되었다. 1980년대 초에 설계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고, 1982년 7월 1일에 도시가스 사업자가 지정되었다. 대구의 中央路와 정부선철도를 경계로 서남부지역은 大成産業(株)이 출자한 大邱도시가스주식회사가



〈사진 9-1〉 대구도시가스(株) 전경

말고, 북동부지역은 嶺南에너지주식회사가 각각 맡아서 시공토록 지정되었다. 같은 해 12월에 공장건설부지 도시가스 시설결정이 있었고, 1983년 8월에 기공식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시설공사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듯 하다가, 영남에너지주식회사의 부실로 말미암아 대구의 도시가스도 이원적인 공급체계에서 일원화되어 1984년 4월에 대구도시가스주식회사가

대구시 전역에 가스를 공급기로 되었다.⁵⁾

대구도시가스공급의 주요일지

- 1982. 7.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지정(內認可)
- 1982. 12. 7 공사건설부지시설 결정
- 1983. 4. 1 일반도시가스사업 본인가

5)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제총감》, 1985, p. 621.

- 1983. 8. 2 기공식
- 1984. 4. 30 大邱도시가스(주)에서 영남에너지(주)를 인수
- 1984. 5. 23 도시계획사업시행변경허가
- 1984. 9. 20 嶺南에너지(주) 통합승인
- 1984. 10. 18 준공식 도시가스 공급개시
- 1989. 12. 2 공급栓 5만栓 돌파
- 1990. 4. 2 공급지역의 확대 변경(대구직할시 전역, 경북 일부)
- 1990. 8. 19 供給栓 6萬栓 돌파
- 1991. 7. 23 供給栓 7萬栓 돌파
- 1991. 11. 27 供給栓 8萬栓 돌파
- 1992. 2. 29 供給栓 9萬栓 돌파
- 1992. 6. 24 공급지역의 확대 변경(대구직할시 전지역과 경상북도의 경산시, 경산군, 달성군 전역)
- 1992. 7. 15 供給栓 10萬栓 돌파

2. 都市가스 供給現況

대구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는 精油社에서 생산된 LPG에다가 공기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24,000Kcal/LPG 1m³을 15,000Kcal/도시가스 1m³으로 희석한 것이다.⁶⁾ 대구의 도시가스는 공급이 개시된 첫 해인 1984년도에는 1,800세대에 2만 4천m³를 공급했고, 稼動率은 겨우 5%수준에 머무르는 저조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도시가스는 다른 가스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가정용, 공업용, 냉난방용, 전력생산용 등 용도면에서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부분의 연료는 공해발생의 원인이 되고 찌꺼기, 오물 등이 남기 때문에 뒷처리가 필요하며 생활환경면에서 많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도시가스는 汚物이 전혀 남지 않고 무공해이기 때문에 현대의 공동생활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도시가스의 공급규모는 1987년에 2만 6천세대에 409만m³, 1990년에 6만 5천 3백세대에 2,442만m³, 1993년에는 14만 6천세대에 6,691만m³에 이르는 등 1980년대 중반 이후 공급세대수와 공급량이 매년 50%정도의 급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구도시가스가 LPG공급이었기 때문에 안전성과 가격면에서 타도시에 비해 다소 부담이 있었다. 1995년부터 계획대로 값이 훨씬 저렴하고 안전성이 높은 LNG가 공급되게 된다면, 대구도 이제 완전한 도시가스시대가

6)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제총감》, 1985, p. 622.

열리고, 대기오염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表 9-18〉 都市가스 供給現況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3
공 급 가 구 (戶)	전 국	466,241	577,500	730,196	944,902	1,219,984	2,839,579
	대 구	19,800	25,959	36,292	51,100	65,250	145,879
	비율(%)	4.2	4.5	5.0	5.4	5.3	5.1
판 매 량 (천m³)	전 국	120,272	181,752	226,011	412,635	674,342	2,065,808
	대 구	1,820	4,090	8,400	14,598	24,423	66,911
	비율(%)	1.5	2.3	3.7	3.5	3.6	3.2

註: 열량은 15,000 Kcal/m³

資料: 도시가스협회

第3節 電力事業

I. 電力産業의 嚆矢

電氣는 B.C. 600년경 희랍의 탈레스라는 사람이 琥珀(Electhiam)을 천으로 마찰시켜 전기를 일으키는 실험을 했던 것을 계기로 많은 과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기 시작했다. 전기는 1879년 10월 21일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Thomas A. Edison)이 탄소 필라멘트의 백열전구를 발명함으로써 실용화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發電機의 발명은 1821년 영국의 화라테가 전자유도의 현상을 발견한 데서 비롯되어, 1832년 프랑스의 피그시가 전자유도의 원리를 응용하여 발전기 제작에 착수하였다. 그 후 각국의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개발되어 오늘날 문명의 이기로서 근대산업사회를 이룩하는데 절대적 요소로 등장한 전기는 전화, 조명, 동력, 熱 등으로 널리 이용되며, 공기나 물처럼 우리의 일상생활과 국가경제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많은 과학자들의 피땀어린 노력에 의해 탄생된 전기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여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뒤지지 않는다.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 白熱電球를 발명한지 불과 7년여 밖에 되지 않았고, 미국과 영국이 전기를 실용화하여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부터는 5년만이었다. 일본의 백열전등 실용화보다는 2년 7개월 늦은 1887년 3월쯤에 미국의 에디슨전기회사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電燈이 乾靑宮에 점화되었다.

평소 전기문명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高宗皇帝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1898년 5월 4일 동대문과 홍화문 사이에 전차를 개통시킨 것이 우리나라 전력사업의 창시였다. 또한 전차의 야간운행에 따라 승객이용이 많은 매표소 주변의 조명을 위해 1900년 4월 1일 서울 鍾路에 3개의 가로등을 점등하였는데, 이것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점등이었다. 대구의 전기사업은 이보다 11년이 늦은 1911년 5월 9일에 徐相敦 등 한국인 유력자와 小倉武之助 등 일본인 20여명이 자본금 10만圓으로 설립한 大邱電氣株式會社가 그 시초이다.

II. 1960年代以前 大邱의 電氣事情

대구전기주식회사가 발족한 1911년 당시 대구는 가구수가 7,304호, 인구는 2만 8,240명이었고, 전기공급은 10燭光으로 환산해 볼 때 80여燈(약 320호) 정도였으며, 발전량은 50KW에 불과하여 동력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기공급이 시작되면서 각급기관이나 부유층 가정을 중심으로 가입수요가 크게 늘어나, 1913년에는 2,600燈으로 늘어났고, 1917년에는 5,700여燈, 그리고 1919년 3월에는 전등이 9,700燈이나 되었고, 동력은 102마력에 이르렀다. 1933년말 현재 대구의 전등화율은 22.7%에 달했으나, 이 중 일본인 가구가 97.5%나 되었고, 한국인 가구수는 아직도 15.2% 정도에 불과했다.

한편 전기공급이 당초에는 대부분 전등용으로만 이루어졌으나, 대구에도 纖維를 비롯한 각종 공장들이 하나 둘씩 서서히 생겨나고, 재래식 가내수공업들이 동력전달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공업용 전력수요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해방을 전후해서 대구지역의 산업용 전력수요는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北韓으로부터의 일방적인 단전조치는 남한의 산업을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없었다. 즉, 당시의 전기생산은 出力에 있어서는 남한은 14%이고, 북한은 86%였으며, 평균 발전량은 남한이 8%에 불과한 데 비하여, 북한은 92%로서 거의 모든 전력공급이 북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대구지역도 해방 전 927개소에 이르던 공장수가 1949년에는 겨우 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300여개만이 가동을 계속하였다. 더우기 6.25동란으로 인해 남한의 발전시설마저 대폭 파괴되어 전기생산이 거의 불가능해짐에 따라 전력공급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전력공급의 악화상태는 196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大邱의 電力供給事業所 沿革

1911. 8. 大邱電氣(株) 발족

1918. 8. 4. 大興電氣(株)로 개칭

1937. 3. 10. 南鮮合同電氣(株)大邱支店으로 개편

1947. 10. 南鮮電氣(株)大邱支店으로 변경

1961. 7. 1. 3사통합과 함께 韓國電力(株) 慶北支店으로 개편

III. 1960~1970年代的 電力需給

1961년에 기존의 전기 3사를 통합하여 韓國電力株式會社가 설립되었다. 이에 맞추어 대구지역도 한국전력(주) 경북지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전기공급, 관리, 요금체계 등이 대폭 정비, 보완, 통일되고 체계화되었으며, 정부의 경제발전계획과 맞추어 전력수급계획이 세워지고 전력공급능력도 크게 확충되었다.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이후 계속 되어왔던 制限送電이 1964년 처음으로 해제되고, 본격적인 전기문명시대가 전개되었다. 1961년도 대구지역의 전기수급을 살펴보면, 당시의 대구 시내 총 가구수는 12만 5,240세대였는데, 이 중에서 전력수용 가구수는 전등 4만 4,628세대와 동력 2,423세대를 합하여 4만 7,051세대로 전력공급률이 37.6% 수준에 불과했다. 수용전력도 전등이 1만 1,193등 밖에 되지 않았고, 동력도 3만 9,867KW로 보잘것 없었다.

그러나 제1,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대대적인 공업화가 추진되고, 서민가구에 대한 전기공급의 확대, 각 가정의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보급에 따른 전력소비증가 등으로 10여년 사이에 대구지역의 전력수요도 엄청나게 증가를 보였다.

1970년도 대구지역의 전력수용가구수는 전등 9만 814세대, 동력 4만 327세대를 합쳐 총 9만 5,141세대였다. 이것은 1961년에 비하여 약 2배 이상이 늘어났으며, 또 수용전력도 전등이 45만 4,678등, 동력이 12만 9,370KW 등으로 10년 사이에 전등은 무려 40배, 동력은 3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급속한 都市化로 인해 전체 가구수가 21만 7,666세대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력보급률은 아직도 43.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970년대 들어서도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정부의 집중투자로 가정용 전기의 공급이 더욱 확산되고, 가로등의 설치확대, 경제발전에 따른 商業用 전기수요의 급증, 대형건물의 신축, 유흥

〈表 9-19〉 1960년대 大邱의 電氣架設 現況

연별	가구수	전 력 용 가 구 수				수 용 전 력	
		계	전 등	동 력	기 타	전 등(등)	동 력(Kw)
1961	125,240	47,051	44,628	2,423	—	11,193	39,867
1962	127,669	52,308	49,773	2,535	—	13,499	44,800
1963	135,520	57,669	55,011	2,658	—	17,496	51,993
1964	142,329	60,952	58,836	2,116	—	307,401	55,033
1965	151,672	64,603	63,263	1,345	—	325,052	62,928
1966	161,873	72,479	69,720	2,669	90	326,702	76,051
1967	171,699	80,615	77,487	3,024	104	351,502	86,297
1968	187,899	84,218	80,705	3,430	83	367,403	96,441
1969	204,088	87,226	83,430	3,796	—	438,445	112,231
1970	217,666	95,141	90,814	4,327	—	454,678	129,370

資料：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 연도.

〈表 9-20〉 1960년대 大邱의 電力需給 現況

연도	정 액 등			종 량 등		
	호 수(戶)	등 수(등)	KWH	호 수(戶)	등 수(등)	KWH
1961	27,641	52,514	2,306,505	16,987	159,940	10,960,624
1962	22,583	44,592	2,486,822	27,190	202,417	13,217,217
1963	18,297	83,550	2,383,218	36,735	243,530	15,848,682
1964	36	795	1,641,769	58,800	306,606	21,960,555
1965	16	34	13,053	63,237	308,617	26,200,523
1966	7	22	2,942	69,720	325,800	30,170,627
1967	7	24	3,492	77,487	347,082	34,270,525
1968	6	23	5,576	80,699	363,647	38,877,818
1969	5	20	23,128	83,340	434,364	49,533,825
1970	3	8	15,450	90,724	453,519	58,496,703

資料：〈表 9-19〉와 같음.

업소의 증가 등으로 전력소비는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나 1,2차 오일쇼크로 인한 에너지節約運動의 전개 등으로 전력소비의 신장세가 1960년대에 비하여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에는 대구지역의 전력소비가 연평균 44%의 높은 증가를 나타냈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증가율이 연평균 14%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1970년대 후반에는 汎國家的인

에너지 절감운동으로 전력소비증가율은 연평균 9% 수준에 머물렀고, 이 중에도 향락소비성 에너지의 집중규제로 영업용 전력소비는 연평균 1.6% 증가에 그쳤다.

〈表 9-21〉 用度別 電力使用 現況(1976년~1980년) (단위: Mwh)

연도	총 계	가 정 용	영 업 용	산 업 용	농 사 용	가로등·기타
1976	1,211,205	161,818	113,596	928,190	6,531	1,070
1977	1,369,066	188,907	112,564	1,056,640	8,681	2,274
1978	1,609,791	234,641	121,020	1,240,324	10,080	3,726
1979	1,744,615	285,144	125,366	1,324,698	7,387	2,020
1980	1,761,923	289,980	122,821	1,339,667	7,230	2,225

資料: 한국전력(주) 대구지점

IV. 1980년 이후의 電力需給

1. 電力消費 現況

대구는 1981년 7월 1일 直轄市로의 승격과 함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행정구역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리고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주민소득수준의 향상, 대규모의 공업단지조성 등으로 전력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대구시의 1981년도 전체 전력수용호수는 22만 870호이었으나, 1990년 말 현재에는 39만 717호로 10년 동안에 약 1.8배의 증가를 보였다. 電力販賣量도 1981년 191만 7,000MWH에서 1990년에는 424만 3,000MWH로 약 2.2배가 늘어났으며, 판매수입 또한 1981년 1,566억 5,800만원에서 1990년에는 2,370억 2,800만원으로 약 1.5배의 증가를 나타냈다.

또한 1990년 말 현재 대구지역의 전력수용 가구수는 전국의 총수용 가구수 931만 5,000호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表 9-22〉 大邱市内 用度別 電力使用 變化推移 (단위: Mwh, %)

구 분	계		주거용		공공용		서비스업		산업용	
			점유비	점유비	점유비	점유비	점유비	점유비	(제조업)	점유비
1981	1,917,079	100	292,748	15.3	71,618	3.7	153,667	8.0	1,399,046	73.0
									1,385,672	(72.3)
1982	2,028,481	100	323,139	16.0	78,638	3.9	165,059	8.1	1,461,645	72.0
									1,447,828	(71.4)

구 분	계		주거용		공공용		서비스업		산업용	
		점유비		점유비		점유비		점유비	(제조업)	점유비
1983	2,386,400	100	415,752	17.4	76,830	3.2	199,110	8.3	1,694,708 1,688,530	71.0 (70.8)
1984	2,550,044	100	467,447	18.3	78,617	3.0	223,506	8.8	1,780,474 1,774,021	70.0 (69.6)
1985	2,616,406	100	495,635	18.9	110,024	4.2	227,518	8.7	1,783,229 1,772,151	68.2 (67.7)
1986	2,730,251	100	528,400	19.4	113,399	4.2	244,051	8.9	1,844,401 1,837,445	67.6 (67.3)
1987	3,270,714	100	600,818	18.4	126,445	3.9	284,159	8.7	2,259,292 2,247,948	69.1 (68.7)
1988	3,527,899	100	696,259	19.7	134,743	3.8	346,403	9.8	2,350,494 2,336,665	66.6 (66.2)
1989	3,773,640	100	808,915	21.4	146,030	3.9	423,664	11.2	2,395,031 2,379,838	63.5 (63.1)
1990	4,243,166	100	956,448	22.5	104,367	2.5	583,094	13.7	2,599,257 2,572,220	61.3 (60.6)

資料：대구직할시, 《대구시 통계연보》, 각 연도.

2. 電力消費패턴의 變化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의 전력소비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住居用이 1981년의 29만 2,748 MWH에서 1990년에는 95만

〈表 9-23〉 우리나라의 夏季와 冬季 最大電力 比率 (단위：천Kw)

연도	여름철 최대전력(A)	겨울철 최대전력(B)	A / B
1981	6,144	5,875	1.046
1982	6,661	6,489	1.027
1983	7,602	7,200	1.056
1984	8,811	7,817	1.127
1985	9,349	8,392	1.114
1986	9,915	9,437	1.051
1987	11,039	10,952	1.008

資料：한국전력(주), 《한국전력 100년사》, 1989. 11.

6,448MWH로 3.3배 증가했다.

서비스산업도 1981년의 15만 3,667MWH에서 1990년에는 58만 3,094MWH로 3.8배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반면에 産業用은 1981년의 139만 9, 046MWH에서 1990년에는 259 만 9,257MWH로 1.9배 증가에

그쳤고, 公共用은 1981의 7만 1,618MWH에서 1990년 10만 4,367MWH로 상대적으로 낮은 신장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전력소비의 용도별 점유비도 크게 바뀌어졌다. 먼저 주거용은 1981년 15.3%에서 1990년 22.5%, 서비스업도 1981년 8.0%에서 1990년에 13.7%로 점유비가 각각 크게 높아졌으나, 産業用은 1981년의 73.0%에서 1990년에는 61.3%로 엄청나게 낮아졌다. 특히 이 중에서도 製造業의 전력소비 점유비가 1981년 72.3%에서 1990년 60.6%로, 크게 떨어짐으로써 전국의 제조업 전력소비 점유비 66.6%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대구는 도시의 대형화와 함께 생산중심의 도시에서 商業 및 소비도시로의 산업구조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전력소비형태에서도 여실히 나타낸다.

〈表 9-24〉 月別 電力消費 變化 推移 (단위 : MWH)

구 분	1981	1985	1990
계	2,001,903	2,616,406	4,243,166
1 월	157,019	215,556	354,952
2 월	146,938	201,041	326,882
3 월	155,203	202,638	324,704
4 월	163,019	217,141	348,975
5 월	161,420	213,265	331,152
6 월	168,935	212,168	358,189
7 월	170,528	226,989	372,685
8 월	178,166	241,819	393,702
9 월	175,020	235,058	383,590
10 월	177,623	211,161	327,429
11 월	173,309	216,655	368,453
12 월	174,723	222,915	352,453

資料 : 韓電慶北支社

그리고 생활수준이 낮았던 1960년대, 1970년대에는 照明, TV 및 난방 부하의 비중이 커서 겨울철 부하가 더 증대됨으로써 최대 전력소비는 겨울철 조명시간대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시민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등 냉방부하가 급격히 증대되었다. 따라서, 1981년 이후 전력피크가 계절적으로는 겨울철에서 여름철로 변경되었고, 시간대 별로도 초저녁시간에서 오후 낮시간대로 바뀌어졌다.

여름철 전력수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매년 급증추세를 보였다. 1991

년도에는 전력예비율이 적정수준(15%)에 못미치는 10.5% 수준까지 떨어지는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전력당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피크타임」대의 전력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여타 계절에 비해 최고 50~70%까지의 전력요금을 추가시키고 있다. 그래서, 전력소비량이 많은 鑄物제조업체를 비롯하여 대구지역 대부분의 생산업체에서는 이러한 계절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 산업용 전력요금이 경쟁관계에 있는 中國은 1KWH 35원, 인도네시아 34원, 美國 38원, 말레이시아 44원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7원으로 경쟁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을 약

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⁷⁾

〈表 9-25〉 産業用 電力料金(甲)

구 분	적용범위 (표준전압)	기 본 요 금	전 력 량 요 금	
			여름철	그밖의 철
저 압 전 력	110V 이상 380V 이하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3,280원	KWh당 46.60원	KWh당 36.00원
고 압 전력 A	3,300V 이상 66,000V 이하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3,250원	KWh당 46.40원	KWh당 35.70원
고 압 전력 B	154,000V 이상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3,020원	KWh당 46.00원	KWh당 35.50원

産業用 電力料金(乙)

구 분	적용범위 (표준범위)	기 본 요 금	전 력 량 요 금	
고압전력 A	3,300V 이상 66,000V 이하	요금적용 전력 에 대하여 KW 당 3,250원	여 름 철	심야시간대에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25.30원
				주간시간대 사용전력에 대하여 KWh당 63.50원
				저녁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46.10원
			그 밖 의 철	심야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25.30원
				주간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37.20원
				저녁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46.10원
고압전력	154,000V 이상	요금적용 전력 에 대하여 KW 당 3,020원	여 름	심야시간대에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24.70원

7) 대구상공회의소, 《1993년도 사업보고서》, 1994, p. 62.

구 분	적용범위 (표준범위)	기 본 요 금	전 력 량 요 금	
B			철	주간시간대 사용전력에 대하여 KWh당 61.80원
				저녁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44.80원
			그 밖 의 철	심야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24.70원
				주간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37.00원
				저녁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44.80원

資料 : 한국전력공사 경북지사.

3. 變·配電 施設

송·변전시설의 공급방식이 중전의 154KV 및 22.9KV의 收指相에서 345KV로 격상된 간선과 전국에 걸친 154KV 계통망으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전국의 변전시설이 1981년에 변전소 363개소, 시설용량 2만 1,264MVA였던 것이 1990년에는 변전소는 319개로 감소했으나, 總施設用量은 2.4배인 5만 1,684MVA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구지역은 1981년에 7개였던 변전소가 1991년 현재 10개로 증가하였으며, 변전시설용량도 1981년에 422MVA에서 1991년에는 3.2배인 1,376MVA로 늘어났다.

〈表 9-26〉 大邱市内 變電施設現況

연 도	변 전 소 (개소)				변 전 소 시 설(MVA)			
	계	154KV	66KV	22KV	계	154KV	66KV	22KV
1988	8	7	0	1	—	—	—	—
1989	8	7	0	1	—	—	—	—
1990	9	8	0	1	—	—	—	—
1991	10	9	0	1	1,543	1,529.5	0	13.5

資料 : 한국전력공사 경북지사

配電施設에 있어서도 전력수요증가 및 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설을 대폭 확장하고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1991년 현재 선로구장 4,081Km, 支持物 8만 7,690基, 변압기 2만 5,240대, 설비용량 99만 7,830KVA를 확보하고 있다.⁸⁾

한편 도시미관과 전력의 안전공급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선의 地中化사업은 대구의 경우 1984년 9월 시민운동장 주변노선에서 시작되었으며, 1990년 현재 전체 노선의 8.9%가 지중화되어 전국의 지중화율 4.1%보다 상당히 앞섰다.

〈表 9-27〉 線路別 配電施設 現況

연 도	선 로 구 장(Km)			선 로 연 장(Km)		
	계	고 압	저 압	계	고 압	저 압
1988	3,688	1,742	1,946	11,450	6,059	5,391
1989	8,363	1,814	2,049	12,569	6,872	5,697
1990	4,050	1,941	2,109	13,211	7,316	5,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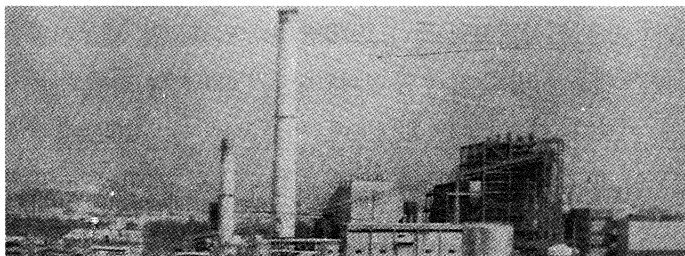
資料 : 〈表 9-26〉과 같음.

〈表 9-28〉 支持物 및 變壓器別 配電設備 現況

연 도	지 지 물 (본)						변 압 기	
	계	철 탑	CP	WP	강관주	철 주	대수(대)	용량(KVA)
1988	74,048	7	71,385	1,075	1,207	374	21,985	862,731
1989	79,042	5	77,631	548	502	356	23,821	919,550
1990	85,522	4	83,956	527	688	347	24,984	921,930

資料 : 한국전력공사 경북지사

4. 染色工團의 熱併合發電所



〈사진 9-2〉 열병합발전소 전경

大邱飛山염색공단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熱에너지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熱併合發電所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에서는

8) 대구직할시, 《대구경제백서》, 1991, p. 503.

1987년부터 열에너지를 생산하여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廢熱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여 입주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1990년 현재 열병합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은 3만 9,400KW이고, 발전량은 22만 2,600KWH이며,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업체수는 112개로 공단내 전체입주업체이다.

〈表 9-29〉 熱併合發電所 施設現況

연 도	발전시설용량 (Kw)	발 전 량 (KwH)	전 력 공 급 업 체 수(개)	계 약 전 력 (Kw)
1988	39,400	185,054	107	58,131
1989	39,400	238,038	107	58,131
1990	39,400	222,617	112	66,151

資料：대구염색공업공단

5. 220V 昇壓事業

우리나라는 交流에 의한 전등의 전력공급을 개시한 이래 100V를 표준전압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유럽지역의 대부분과 선진 여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력강하의 방지와 전력손실의 감소 등 전력공급회사 및 수용가 쌍방에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장점을 들어서 220V/380V~240V/415V의 공급전압을 사용해 왔다.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전력사용이 늘어나고 전력공급정책이 체계화하면서 1963년 220V로의 전력승압계획이 추진되고, 1973년부터 220V전력이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승압으로 인하여 1970년대 말까지는 220V에 맞는 家電機器가 잘 공급되지 못하고, 綜合降壓機를 설치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과 비용상의 손실 등 애로사항이 매우 많았다. 1980년대 들어서야 100V와 220V의 겸용기기의 보급이 본격화되었고, 애로사항이 거의 해소되었다.

우리나라에서 220V 승압전력공급이 처음 시작되었던 것은 1973년 10월이었으며, 대구지역은 이보다 9년 늦은 1982년 東區 평광동 일대를 시발로 해서 추진되었다. 1990년 말 현재 전국의 승압추진화율은 85.2%이고, 대구는 이보다 다소 낮은 82.4%에 머물고 있다. 100%승압추진완료 예정년도는 전국이 1998년도이고, 대구는 1997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第 10 章 物價 및 消費動向 推移

第 1 節 大邱地域의 物價動向 推移

I. 概 說

우리나라는 1962년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높은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都市와 農村과의 不均衡, 首都圈의 經濟力集中,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二重構造, 높은 物價上昇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면을 노정시켰다. 국내물가는 解放 이후 인플레이션의 역사라고 할 만큼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1982년 이후 다행히 한자리 숫자의 안정세를 보였다. 1982년 이후 전국의 소비자물가는 크게 안정되었으나, 상대적으로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약간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1992년에 다소 안정되어 前年末比 4.5%가 상승했다. 1993년에도 前年末比 5.8%가 상승하여 年末 억제목표선인 5%를 넘어섰다. 生産者物價指數도 1982년 이후 크게 안정되었다. 그 이유는 油價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데다 工產品價格이 상대적으로 크게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품은 계절변동 요인으로 어느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消費者物價는 1982년 이후 다소 안정되었지만, 경쟁상대국인 日本이나 대만,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즉, 1983년에서 1992년까지 한국은 58.4% 증가했으나, 日本은 17.1%, 대만은 20.3%, 싱가폴은 16.3%씩의 증가율에 그쳤다.¹⁾

大邱地域의 消費者物價도 1982년 이후 크게 안정되었지만, 1988년과 1990~1991년에 9.0%가 넘는 다소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1993년에는 前年末比 6.2%가 증가하여 全都市 평균 5.8%보다 다소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1983년에서 1992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5개 直轄市 중에서 가장 높은 61.5%의 상승률을 보였다. 동 기간 동안 全都市 평균은 58.4%, 서울은 58.1% 부산은 59.1%, 대전은 58.4%씩의 증가율을 보였다.

本 節은 대구지역의 물가상승 동향을 解放 이후에서 최근까지의 기간을 2개의 기간, 즉 해방 이후에서 1960년대의 기간과 1970년에서 1993년까지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1) 統計廳, 《消費者物價》, 1993. 7, p. 44.

해방 이후에서 1960년대의 기간에서는 小賣物價動向에 관한 자료는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으나 都賣物價指數에 대한 동향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수집 가능한 統計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설명하였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대구지역의 都賣物價에 관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消費者物價指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本節의 構成은 먼저 解放 이후에서 1960년대의 기간에서는 小賣物價와 都賣物價動向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1970년에서 1993년까지의 기간에서는 消費者物價를 중심으로 消費者物價의 上昇構造와 特徵 및 構造的 要因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公共料金 및 地價動向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課題와 展望을 서술하였다.

II. 解放 以後에서 1960年대의 期間

1. 小賣物價動向

해방 이후에서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의 혼란기 동안 大邱의 중요한 사회 경제문제는 人口의 급격한 증가와 社會의 혼란에 따른 流通秩序의 파괴 및 食糧을 비롯한 物資不足과 物價高였다. 日帝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식량을 수탈해 갔는데, 해방직전인 太平洋戰爭期間에는 軍糧米의 확보를 위해 韓國米의 거의 대부분을 빼앗아 갔다. 해방이 되자 韓國國內에 적재해 두었던 일부 軍糧米가 市中에 풀리긴 했으나, 급증하는 식량수요에는 크게 부족이었다. 이러한 食糧難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京鄕各地에서는 매일같이 食糧‘데모’가 일어났으며, 物價는 치솟았다. 해방 1년만에 大邱府內 生必品の 小賣物價는 <表 1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4배 이상 올랐으며, 쌀값은 4.5배, 밀값은 5.2배, 大豆값은 11.1배, 광목은 10.7배나 상승했다.

美軍政當局은 폭등하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1946년 7월 15일 生必品에 대한 最高價格制를 실시하였으나, ① 최소한의 국민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物資의 확보, ② 완전한 配給網의 정비, ③ 最高價格 산출의 정확성, ④ 規格品質의 規定化, ⑤ 商人이 가지고 있는 在庫量의 조사 등 그 전제조건이 따르지 못해 실패하고 말았다. 그해 9월 19일부터 物價當局은 米穀의 自由搬入과 自由賣買를 강력히 단속하기 시작했으나, 쌀의 端境期인데다가 콜레라가 만연하던 시절이라 단속은 오히려 食糧難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²⁾

2) 大邱商工會議所, 《大邱經濟總鑑》, 1985. 6, pp. 52~53.

한편 朝鮮總督府는 해방직후 美軍의 進駐가 늦어지자, 한반도에서의 철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通貨濫發을 하였다. 즉 1945년 7월 말의 47억圓이었던 통화량이 同年 8월 말에는 80억圓으로 1개월에 무려 70%가 늘어났다. 게다가 인플레이션과 物資需給의 不均衡이 加勢되어 物價는 크게 올랐다.

〈表 10-1〉 大邱府內 小賣物價 變動(1945.8~1946.7) (단위: 圓)

商品名	規 格	1945. 8	1946. 7	增加倍數	서 울	釜 山
白 米	1말	220	1,000	4.5	920	1,200
大 頭	1말	45	500	11.1	450	630
밀	1말	95	500	5.2	570	450
설 탕	1근	15	250	16.6	210	145
소 금	1되	10	45	4.5	50	32
쇠 고 기	1근	15	56	3.7	70	64
계 란	10개	25	48	1.9	40	57
건 명 태	20마리	12	80	6.6	75	65
광 목	1마	13	75	10.7	65	60
옥 양 목	1마	13	95	7.3	120	75
장 작	1평	350	550	1.6	850	640
숯	6관	45	75	1.6	120	75
세 탁 비 누	1개	4	35	8.7	14	15
양 말	컬레	250	22	8.8	20	25
고 무 신	컬레	40	70	1.7	80	90
가 죽 구 두	컬레	250	700	2.8	600	700
운 동 화	컬레	35	90	2.5	85	110

資料: 朝鮮銀行 調査部

또한 美軍政廳은 1948년 1월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6배나 인상했고, 2월에는 철도요금을 50% 인상하는 등 公共料金の 현실화를 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 1948년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되어 安定化政策을 강력히 추진하여 1949년에는 어느 정도 中間安定期를 맞았으나, 1950년의 6.25 動亂으로 인한 戰時 인플레이션은 〈表 10-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방 직후의 物價暴騰期를 훨씬 앞질렀다. 大邱의 小賣物價指數는 1947년을 100으로 볼 때 休戰이 성립된 1953년에는 8,248을 나타내, 1947년대비 82배가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연료의 가격이 127배나 크게 증가했고, 음식품이 84배, 의료품이 45배 정도 증가했다.

해방 이후에서 1953년까지 국내 인플레이션의 본질적 要因은 2차 대전후의 경제적 혼란과

통화팽창에 따른 超過需要에 있었다. 해방에 뒤따른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産業의 생산활동은 급격히 저하되어 生活必需品의 부족은 극심한 상태에 이르렀다. 반면에 해방 전후의 通貨膨脹은 우리나라 經濟의 超過需要狀態를 더욱 조장했다. 또한 해방 직후 및 동란 당시의 政治·社會的 不安定은 物價上昇率을 가속화시킨 중요 요인이었다.

〈表 10-2〉 大邱市内 小賣物價指數 推移

年 度	總指數	飲食品	衣料品	燃 料	雜 品
1946	59.1	71.8	35.5	37.3	31.3
1947	100.0	100.0	100.0	100.0	100.0
1948	157.0	149.0	166.4	199.0	132.2
1949	199.6	189.6	217.8	272.0	147.3
1950	453.4	436.3	355.3	249.1	248.0
1951	2,220.5	2,290.9	1,712.5	2,987.8	1,045.2
1952	5,644.3	6,531.6	2,599.2	6,494.5	1,920.7
1953	8,248.1	8,358.6	4,462.4	12,712.2	3,133.6

資料：韓國銀行, 《經濟年鑑》, 統計篇, 1955, p. 180.

그리고 해방 이후 主要都市別 小賣物價指數는 〈表 10-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7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57년에 전국평균은 266배가 증가했다. 主要 都市別로는 釜山이 281배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그 다음 大田이 269배, 大邱가 266배, 光州가 264배, 仁川이 260배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1947년을 기준으로 본 1949년 평균 물가지수는 서울小賣物價와 全國小賣物價가 각각 2.0배 상승하였으며, 6.25사변 직전인 1950년 5월에 이르러서는 서울小賣物價가 2.9배, 全國小賣物價가 3.2배로 상승하였다. 6.25사변이 발발하자 物價는 급등하였는데, 사변 직후인 1950년 7월에는 1947년에 비해 7배나 양등하였다. 그 후 1952년 9월경까지 매월 20%내지 30%의 수준으로 급등하여 1952년 9월에는 사변당시에 비하여 서울小賣物價가 24배, 全國小賣物價가 19배나 상승하였다.³⁾

1950년 6월에서 1953년 2월 14일까지 전국의 소매물가변동률〈表 10-4〉은 23.6배 증가했는데, 품목별로는 연료가 25.7배, 음식품이 25.2배, 衣料品이 14.7배 등으로 증가했다. 都市別로는 대구가 28.7배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부산이 25.9배, 청주가 23.9배, 서울이 23.4배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⁴⁾ 1953년 10월부터 곡물가격의 저조로 물가상승률은 다소 완만해졌으며,

3) 한국은행, 《경제연감》, 1955, p. 193.

4) 위의 책, p. 199.

1953년 2월 14일 긴급통화조치 이후 시중구매력의 흡수와 계속되는 外貨貸出로 輸入貿易이 촉진된 결과 물가는 1954년 6월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⁵⁾

〈表 10-3〉 解放이후 大邱地域의 小賣物價指數 (1947=100)

區分	全國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
1946	55.9	54.6	59.2	59.1	53.1	..	58.2
19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48	158.3	153.6	168.4	157.0	164.2	154.3	160.4
1949	197.8	195.1	206.8	199.6	195.4	204.7	197.4
1950	531.5	564.7	473.8	453.4	559.3	390.4 ¹⁾	504.1 ²⁾
1951	2,128.5	..	2,352.7	2,220.5	..	1,971.4	2,012.3
1952	5,243.6	4,841.1	5,802.6	5,644.3	5,232.8	5,611.1	5,550.5
1953	7,618.8	7,383.9	8,203.6	8,248.1	7,027.1	7,488.1	7,127.9
1954	10,319.5	10,125.9	11,233.6	10,832.3	10,337.3	9,332.9	8,983.8
1955	17,483.3	17,057.7	18,487.4	17,023.4	18,125.9	16,886.1	17,700.0
1956	21,694.7	21,047.8	23,448.8	21,544.9	20,880.5	21,368.9	21,571.2
1957	26,613.3	25,984.8	28,109.4	26,644.7	26,044.8	26,379.5	26,918.1

註：1) 8.9월 이외의 10개월 평균

2) 8월이외의 11개월 평균

資料：한국은행, 《경제연감》 통계편, 1958, pp. 252~253.

〈表 10-4〉 6.25동란시의 地域別 小賣物價變動率

區分	1950년 말 (동란당월비；%)	1951년 말 (전년말비；%)	1952년 말 (전년말비；%)	1953. 2. 14 (동란당월비；倍)
서울	161.4	221.4	108.8	23.4
부산	198.5	236.8	104.8	25.9
대구	151.7	245.5	138.8	28.7
인천	137.9	230.2	111.5	20.0
대전	150.4	213.8	119.8	22.0
광주	100.3	324.0	100.7	22.0
목포	137.8	246.4	109.0	20.2
청주	120.8	23.9
전주	110.4	277.0	116.5	21.6

資料：한국은행, 《경제연감》, 1955, p. 199.

5) 한국은행, 《경제연감》, 1956, p. 185.

6.25동란기에 100%를 上廻하였던 年間 通貨膨脹은 1953~1960년간의 戰後 復興期에는 많이 鈍化되었는데, 이러한 둔화는 UN 및 美國의 막대한 無償援助달러의 賣却代金인 對充資金 形式으로 원화를 흡수했기 때문이었다. 대구지역의 物價도 1953년 이후에 크게 안정되어 1954년에는 前年比 31.3%의 상승에 그쳤다. 1957년에는 穀物價格의 급격한 상승에 의해 前年比 57.1%가 증가했고, 그 후 1956년에는 26.7%, 1957년에 23.7%의 증가에 그쳤다.

1957년과 1958년에 계속된 농산물의 풍작으로 1958년과 1959년의 곡물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그 후 1961년 5월의 軍事革命은 1960년 4.19革命에 뒤따른 政治的 不安定 및 經濟的 沈滯期를 연장시켰다. 非農林水產業의 成長率은 1955~1959년 간에는 5~10%였는데 반해, 1960년과 1961년에는 각각 4%와 0%에 불과했다. 年間 국내 물가상승률은 1961년에는 16% 수준까지 急騰했다. 1961년에 軍事政府는 財政安定計劃을 중단하고, 成長이 완만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擴張政策을 채택했다. 軍事政府의 확장정책은 1962년에 景氣浮揚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었지만 국민경제는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정부는 過剩 通貨膨脹을 억제하기 위해서 1963년 후반기부터 다시 財政安定計劃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安定計劃으로 1963년에는 通貨量 증가율을 2%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⁶⁾

그러나 1963년과 1964년에는 전국이나 대구지역의 물가가 年 20%이상 급등하였는데, 이는 凶作에 따른 곡물가격의 양등과 1964년 5월 원貨의 100%에 가까운 平價切下와 外國援助의 감소 등으로 輸入財貨의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1962년 6월 10월에 단행된 화폐개혁과 通貨 및 財政投融資의 확대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物價上昇은 정부가 추진해 오던 고도성장 일변도의 경제계획을 安定基調를 병행한 경제정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1965년부터는 비교적 안정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1968년 이후 정부의 高米價政策은 정부 추곡수매가격을 어느 정도 상승시켰지만, 물가가 안정추세를 나타낸 것은 輸出이 증대하고, 外資導入이 활발히 이루어져 외환사정이 호전되어 환율이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점진적 개방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輸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輸入物價의 안정을 기할 수 있었던 데 기인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후반의 대구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表 10-5)는 비교적 안정된 연평균 11%내외의 상승률을 보였다. 1965년에서 1970년까지 대구지역 소비자물가 총지수의 상승률은 83.5%였다.

6) 김광석, 《韓國 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한국개발연구원, 1973, p. 29.

이를 品目別로 보면 食料品과 주거비가 크게 증가하여 각각 89.0%, 85.9% 상승했고, 피복비와 잡비의 상승률은 다소 떨어져 각각 64.4%, 78.6%씩 증가했다.

2. 都賣物價動向

대구지역의 都賣物價動向은 物價指數에 의한 통계는 없고, 다만 부분적으로 品目別 都賣物價指數와 大邱商工會議所가 부분적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 6월에서 1957년 7월까지 7년간 대구지역의 品目別 都賣物價推移는 <表 10-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쌀 82배, 쇠고기 72배, 설탕 32배, 廣木 37배, 시멘트 75배, 板유리 30배, 세탁비누 47배, 성냥 70배, 갱지 31배라는 엄청난 暴騰을 나타냈다. 이것들은 戰爭, 戰後 復舊期の 物資不足으로 인한 물가양등이었다.

<表 10-5> 1960年代 後半의 大邱地域 消費者物價指數 (1970=100)

구 분	총지수	식료품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 비
1965	54.5	52.9	53.8	55.6	60.8	56.0
1966	61.1	57.3	66.3	73.1	70.7	61.7
1967	68.3	62.8	83.0	85.4	81.2	67.1
1968	76.4	69.2	93.2	83.1	89.8	80.8
1969	85.3	80.9	95.4	83.6	94.4	89.3
197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경제기획원, 《1975 물가연보》, 1976, pp. 68~73.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板유리, 세탁비누, 갱지, 廣木 등의 工產品 보다도 쌀, 쇠고기 등 食料品の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1960年代 이후의 物價上昇構造와 현저한 대조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食糧의 自給을 기할 수 없는 農業生産構造의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政府는 막대한 양의 外穀를 도입하였으면서도 食糧難을 해결하지 못해 해마다 絶糧農家가 속출하였으며 보릿고개가 반복되었다. 1956년 봄에는 大邱市内에서만 2천戶(총 농가호수 7,288戶)의 절량농가가 발생되었다. 한해 農事만 흉작이 들면 쌀값이 폭등하고, 都市와 農村에서는 飢餓者가 속출하는 社會與件이었던 만큼 당시의 物價構造는 상당히 불안하였다.

그리고 大邱商工會議所가 조사한 1960년대 중반의 大邱地域 都賣物價指數 現況(表 10-7)은 總指數가 1963년 1월의 113.6에서 1967년말에는 260.0으로 증가하여 128.9%가 상승했다. 이 중 生産財指數는 이 기간 중 112.3%가 증가했고, 消費財指數는 145.6% 증가하여 生産財에

비하여 消費財의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았다. 이 기간의 증가율을 品目別로 보면, 廣木, 綿絲, 스프링, 판유리, 연탄, 更紙, 金 등은 약간의 기복을 보였지만, 대체로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였다.⁷⁾

〈表 10-6〉 1950年代 大邱市內의 主要品目別 都賣物價 推移 (단위: 원)

品 目	單 位	1950. 6	1955. 1. 1	1956. 1. 1	1957. 1. 1	1957. 7. 1
쌀	斗	46	1,020	1,600	3,200	3,750
보리쌀	〃	26	640	1,590	2,560	2,100
콩	〃	28	850	1,320	1,640	2,100
쇠고기	10근	80	4,100	3,900	4,800	5,780
달걀	100개	45	2,000	2,000	2,900	2,800
설탕	100근	650	11,000	11,800	16,000	21,000
맥주	상자	95	4,800	5,760	6,720	8,810
광목	필	160	6,500	6,300	7,200	6,000
옥양목	〃	180	7,900	6,600	10,200	12,000
角木(국산)	才	90	70	70	70	85
板木(4分)	坪	1,000	960	920	920	1,150
시멘트	포	22	1,000	1,400	1,450	1,650
板유리	50m ²	220	6,800	6,600	7,300	6,500
무연탄	톤	77	8,720	9,050	11,900	11,580
장작	坪	114	8,800	10,500	12,000	12,500
휘발유	드럼	334	13,000	10,700	13,320	12,000
세탁비누	100개	150	4,500	10,000	8,000	7,000
쟁지	연	180	3,800	3,900	5,300	5,700
성냥	상자	120	6,000	7,200	7,200	8,200

資料: 大邱商工會議所, 《大邱商工會議所 70年史》下, 1977, p. 107.

7) 大邱商工會議所, 《1967 통계연보》, 1968. 1, pp. 45~99.

〈表 10-7〉 1960년대 大邱地域의 都賣物價指數 現況

區分	月別 年度別	1	3	6	9	12
生産財指數	1963	114.0	116.2	120.1	136.7	165.9
	1964	169.0	166.8	182.6	190.6	196.0
	1965	201.0	200.5	202.6	206.7	209.0
	1966	212.3	210.6	210.6	217.4	230.4
	1967	228.8	225.8	232.3	238.6	242.0
	1968	122.0	124.3	124.4	126.2	127.8
消費財指數	1963	113.2	118.6	132.4	152.2	158.5
	1964	165.2	188.8	283.3	216.6	208.6
	1965	205.3	210.3	213.6	220.5	219.5
	1966	221.5	231.7	250.8	247.1	250.8
	1967	256.4	263.4	275.0	280.8	278.0
	1968	134.6	134.0	138.4	138.6	138.7
總指數	1963	113.6	117.4	126.3	144.4	162.2
	1964	167.1	117.8	192.9	203.6	200.1
	1965	202.7	205.4	208.1	213.6	214.3
	1966	216.9	221.2	231.7	232.3	240.6
	1967	242.6	244.6	253.7	259.7	260.0
	1968	128.3	129.2	131.4	132.5	133.3

註：1963~67년도=1961년도 기준, 1968년도=1965년도 기준임.

資料：대구상공회의소, 《1969 통계연보》, 1969. 11, pp.73~74.

III. 1970年에서 1993年까지의 期間

1. 消費者物價의 上昇構造와 特徵

1970년대 이후 대구지역 消費者物價는 제 1, 2차 석유파동기간인 1974~1975년과 1979~1981년의 기간에는 年 20%이상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그외 기간은 상대적으로 다소 安定되었으며, 특히 1982년 이후부터는 한자리 숫자의 안정세를 보였다.

1970년대 上半期 大邱地域 消費者物價指數는 〈表 10-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차 석유파동기간인 1974년과 1975년의 물가상승률이 각각 前年比 23.8%, 23.7%씩 크게 증가하였다.

品目別로는 非食料品에 비하여 食料品の 가격 상승률이 크게 높았다. 즉 1970년에서 1975년까지 食料品の 가격상승률은 135.3%가 증가했는데, 非食料品인 광열비는 96.0%, 잡비는

88.8%, 피복비는 77.7%, 주거비는 38.9%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후 1993년 7월까지의 변동률(表 10-9)을 보면 제2차 石油波動期間인 1979~1981년의 기간에 크게 상승했고, 1982년 이후 크게 안정되었다.

〈表 10-8〉 1970年代 上半期の 大邱地域 消費者物價指數 (1970=100)

年 度	總指數	食料品	住居費	光熱費	被服費	雜 費
197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71	116.4	123.0	106.4	112.0	105.1	114.1
1972	128.1	135.1	113.6	126.8	113.4	127.5
1973	133.4	139.5	118.6	130.0	134.5	129.2
1974	165.1	180.0	130.4	167.3	164.0	153.6
1975	204.3	235.3	138.9	196.0	177.7	188.8

資料: 경제기획원, 《1975 물가연보》, 1976, pp. 68~73.

1976년부터 이를 食料品과 食料品 이외 品目으로 분류하여 分期別 資料를 가지고 분석하면, 〈圖 1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료품 이외 가격은 1979년 2/4分期~1980년 2/4分期, 1981년 4/4~1984년 3/4分期, 1986년 3/4~1987년 2/4分期, 1989년 3/4~1990년 1/4分期 등에 식료품가격 상승률에 비해서 더 높았다. 반대로 그외 기간은 식료품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 특히 1987년 3/4~1989년 2/4分期, 1990년 2/4分期 후부터는 식료품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 결국 1987년 3/4分期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식료품의 가격이 物價上昇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부터 1993년 말까지의 上昇率을 보면, 식료품이 29.2% 상승하여 식료품 이외 품목의 상승률 23.2%보다 6.0% 「포인트」가 더 높았다. 食料品價格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同期間 외 식비가 45.0%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고, 채소·해초류가 41.1%, 果實이 41.0%, 어패류가 37.4%, 빵 및 과자류가 36.0%씩 상승한데 기인한다. 식료품 이외 품목은 住居費가 35.7%로 가장 높게 상승했고, 教育 및 教養娛樂費가 26.4%, 피복 및 신발류가 21.1%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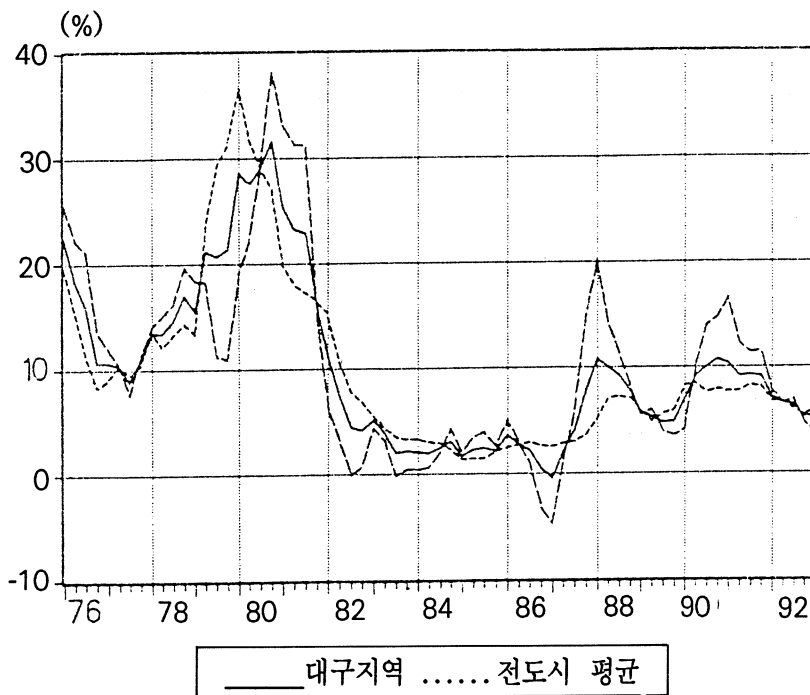
1993년 말 현재 前年末比 上昇率은 식료품이 7.8%, 식료품 이외 품목이 5.6%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2%가 증가했다. 이는 食料品中에서 果實과 海草·菜蔬가 크게 상승했고, 식료품 이외 품목은 其他 雜費와 教育·教養娛樂費, 被服 및 신발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즉, 食料品은 果實과 海草·菜蔬가 前年末 比해 각각 43.3%, 21.0%씩 증가했고, 非食料品은 教育·교양오락비가 前年末에 비해 9.0%나 크게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하였고, 其他 雜費가 6.8%, 被服 및 신발비가 5.7%, 住居費가 5.7%, 家具·가사용품비가 4.7%, 交通·通信費가 3.6%씩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5.6% 상승하였다. 특히 각급학교 납입금·학원비 및 참고서류와 양복 세탁료, 가정부 임금 등이

크게 상승했다.

全都市 平均에 비해 대구지역의 消費者物價는 〈圖 10-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 3/4分期~1988년 4/4分期 및 1990년 2/4~1991년 2/4분기의 상승률이 전국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추세는 식료품과 식료품 이외 품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도 비슷하였다. 이러한 요인이 1982년 이후 대구지역의 소비자물가가 여타도시에 비해 높은 하나의 이유이다. 그리고 주요 도시별 消費者物價의 年度別 推移는 〈表 10-10〉과 같다.

1975년 1/4분기부터 1993년 1/4분기까지 大邱地域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도시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간의 변동 추이를 보면, 두드러진 特徵은 住居費의 상승률은 대구지역이 전국평균보다 1987년 후반기부터 최근까지 크게 높았고, 교통·통신비의 상승률은 전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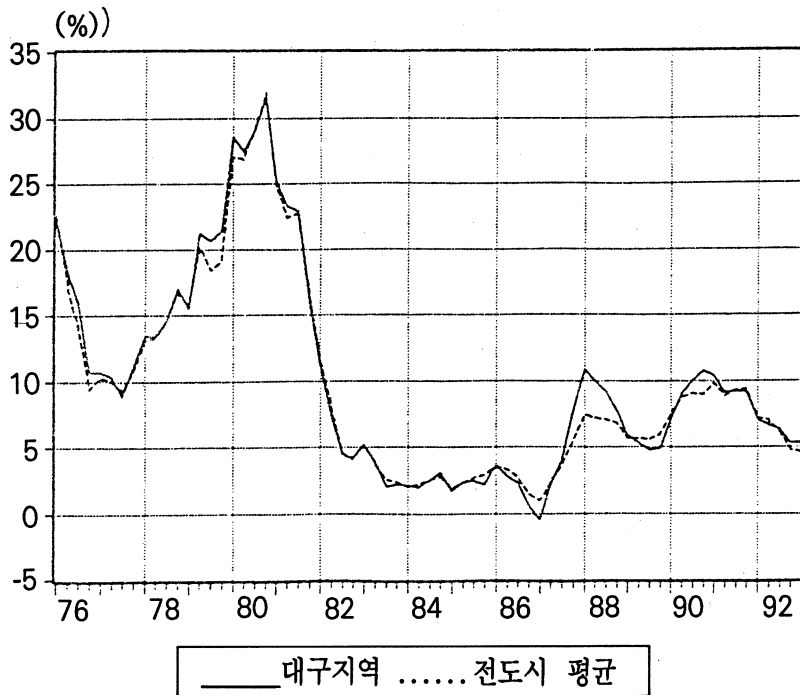


註: 전년동분기비 증가율임.(이하 동일)

〈圖 10-1〉 大邱地域의 消費者物價 上昇率 推移

대구지역보다 1988년 이후부터 더 높았다는 점이다. 다른 品目은 약간의 기복을 보이면서 비슷한 상승추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食料品 이외의 가격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는데, 1987~1990년의 대구지역 消費者物價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식료품 가격은 1976~1986년까지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1987~1988년과 1990, 1992년의 기간은 대구지역이 전국평균보다 더 높았다. 住居費의 상승률은 다소 큰 폭의 차이를 보였는데, 1976~1978년, 1981~1983년, 1985~1987년의 기간에는 대구지역의 상승률이 낮고 그 밖의 기간에는 大邱地域의 物價가 전국보다 더 높았다. 특히 최근에는 大邱地域이 크게 높았다. 그 밖에 光熱, 水道費와 피복·신발, 교육·교양, 교통·통신 등은 약간의 기복을 보이면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圖 10-3, 10-4 참조)



〈圖 10-2〉 大邱地域과 全都市 平均 消費者物價 上昇率 推移

〈表 10-9〉 大邱地域의 年度別 基本分類別 消費者物價 推移(前年比) (단위: 지수, %)

연 도	전 체		식 료 품		식료품 이외	
1975	23.6	—	23.1	—	24.0	—
1976	27.5	16.5	27.7	19.9	27.2	13.3
1977	30.3	10.2	30.5	10.1	29.9	9.9
1978	34.7	14.5	35.5	16.4	33.8	13.0
1979	41.6	19.9	40.7	14.6	42.1	24.6
1980	53.7	29.1	51.8	27.3	55.1	30.9
1981	65.4	21.8	65.9	27.2	64.9	17.8
1982	69.7	6.6	67.5	2.4	71.4	10.0
1983	72.0	3.3	68.7	1.8	74.4	4.2
1984	73.7	2.4	70.0	1.9	76.5	2.8
1985	75.3	2.2	72.1	3.0	77.7	1.6
1986	77.0	2.3	73.1	1.4	79.8	2.7
1987	79.6	3.4	76.1	4.1	82.2	3.0
1988	87.1	9.4	86.2	13.3	87.7	6.7
1989	91.6	5.2	90.3	4.8	92.5	5.5
1990	100.0	9.2	100.0	10.7	100.0	8.1
1991	109.4	9.4	112.8	12.8	107.9	7.9
1992	116.3	6.3	120.2	6.6	114.6	6.2
1993	122.6	5.4	125.2	4.2	121.5	6.0

註: 前年比 增加率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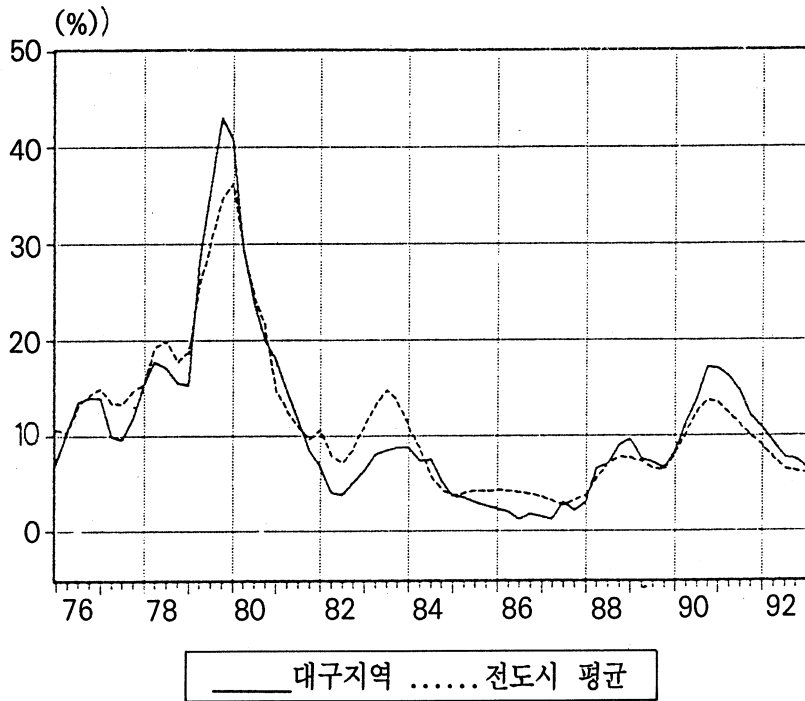
資料: 統計廳, 《KOSIS》, 1993. 12 및 《消費者物價》, 各年度, 1993. 12.

〈表 10-10〉 主要 都市의 年度別 消費者物價 推移(前年比) (단위: 지수, %)

연 도	전도시		대 구		서 울		부 산		대 전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1982	70.9	—	69.7	—	70.8	—	71.5	—	71.7	—
1983	73.3	3.4	72.0	3.3	73.3	3.5	73.9	3.4	73.4	2.4
1984	75.0	2.3	73.7	2.4	74.9	2.2	75.5	2.2	75.4	2.7
1985	76.8	2.4	75.3	2.2	76.8	2.5	77.6	2.8	77.1	2.3
1986	78.9	2.7	77.0	2.3	78.8	2.6	79.5	2.4	79.3	2.9
1987	81.3	3.0	79.6	3.4	81.4	3.3	81.4	2.4	82.9	4.5
1988	87.1	7.1	87.1	9.4	87.0	6.9	87.2	7.1	88.4	6.6
1989	92.1	5.7	91.6	5.2	91.9	5.6	92.8	6.4	93.0	5.2
1990	100.0	8.6	100.0	9.2	100.0	8.8	100.0	7.8	100.0	7.5
1991	109.3	9.3	109.4	9.4	109.7	9.7	109.7	9.7	108.4	8.4
1992	116.1	6.2	116.3	6.3	115.9	5.7	117.6	7.2	116.3	7.3
1993	121.7	4.8	122.6	5.4	121.7	5.0	122.6	4.3	123.7	6.4

註: 前年比 增加率임.

資料: 統計廳, 《消費者物價》, 1993. 12, pp. 5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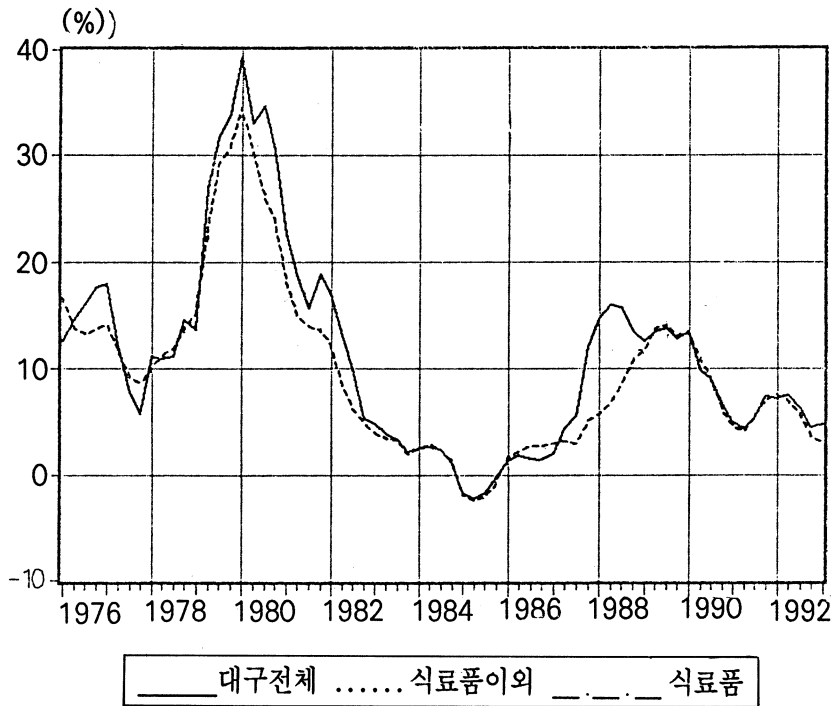
〈圖 10-3〉

住居費의 上昇率 推移

2. 物價上昇의 構造的 要因分析

일반적으로 물가를 변동시키는 요인은 需要側 요인과 供給側 요인 및 社會·心理的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밖에 農産物의 경우 季節的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수요측 요인으로는 通貨量, 政府財政支出, 民間消費 및 建設投資 등을 들 수 있다. 비용측 요인으로는 單位勞動費用이나, 賃金, 金利, 輸入原資材價格과 換率, 流通費用, 地價와 賃貸料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消費支出構造의 변화, 부동산투기심리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계절적 요인은 농수산물의 需給의 불균형, 기상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확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物價變動要因은 각각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경제가 1962년 이후 연간 약 20%이상의 물가상승을 보인



〈圖 10-4〉

피복·신발비의 上昇率 推移

기간은 1963~1964년과 1974~1975년, 1979~1981년의 기간이었다. 대구지역도 전국의 물가상승률과 장기적인 추세는 비슷하였다. 1963~1964년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1965~1973년의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1965년부터 다소 안정된 것은 공급면에서 제1차 계획기간 중 집중투자한 제조업부문의 생산능력 증대에 따른 공산품의 공급이 증대된 데다, 對 월남 및 유엔군 무역외수지 증대, 순조로운 長·短期 외자도입, 저환율정책의 실시 등으로 外貨保有額이 증대됨에 따라 輸入物資供給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수요면에서는 金利引下와 支拂準備率의 탄력적 운영 등 총수요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운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저생산 부문인 農水產品의 物價는 계속적인 공급애로 요인으로 계절변동폭이 심했고, 정부의 高米價政策의 실시로 주곡의 정부수매가격이 대폭 인상된 것이 物價上昇에 다소 기여했다. 동 기간 대구지역의 소비자물가는 非食料品에 비해서 食料品의 가격상승률이 크게 높았다.

197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國際原資材 價格의 상승으로 우리경제는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즉, 1972년 말의 穀物波動으로 시작된 국제자원파동과 1973년 10월의 中東戰爭을 계기로 야기된 제1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의 물가도 1974~1975년에 각각 23.7%, 23.9%씩 크게 상승했다. 이는 석유를 비롯한 輸入原資材價格이 크게 상승한데다, 政府 糧穀放出價格의 인상과 價格統制의 일부해제 및 1974年末에 단행된 換率引上, 수요품목의 價格引上調整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1976~1978년의 기간은 세계경제가 石油波動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인 안정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 우리경제는 해외건설용역 수입의 현저한 증가에 따른 유동성의 팽창과 일부 農産品의 需給不均衡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있었지만, 해외 원자재가격의 안정과 정부의 강력한 總需要管理政策으로 어느 정도 안정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동안 대구지역의 消費者物價는 연평균 13.7%정도 증가했다. 동 기간에는 食料品의 가격상승률이 비식료품의 가격상승률보다 높았다.

그러나 1979년부터는 이란의 內戰으로 야기된 제2차 石油波動으로 원유 등 기초원자재의 수입가격이 폭등하고, 國內政情이 불안해짐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다시 겪게 되었다. 그 밖에 農産物의 凶作과 換率引上으로 1979~1981년의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동 기간 대구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79년에 前年比 19.9%, 1980년에 29.1%, 1981년에 21.8%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 기간에는 비식료품의 가격상승률이 식료품의 가격상승률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

1982년부터 우리경제는 물론 대구지역의 소비자물가도 前年比 6.6%가 증가하여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다. 1982년에 물가가 크게 安定된 것은 농산물 가격이 풍작으로 낮은 가격수준을 유지하였고, 대두, 원당 등 주요 原資材의 輸入價格이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⁸⁾ 또한 健全財政이 운용된데다 세 차례에 걸친 金利引下와 임금상승률의 둔화 등으로 원가상승압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 후 1987년까지 물가가 다소 안정되었다. 특히 1983년에서 1987년까지 5년간 대구지역의 物價는 年 3%내외에서 안정되었다.

1987년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각종 欲求가 분출하고 勞使紛糾의 확대와 國際收支黑字에 따른 해외부문의 通貨量 증가 등에 따라 物價가 다소 올랐다. 또한 1988년에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국내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換物心理가 고조되어 不動產投機가 발생하여 안정기조가 흔들렸다. 이에 따라 1988년에서 1991년까지 다소 높은 물

8) 경제기획원, 《物價年報》, 1982, p. 15.

가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대구지역의 특수한 構造的 要因을 반영하고 있겠지만 韓國經濟의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의 需要側 要因은 내수위주의 高成長과 地價 및 賃金上昇 등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消費需要가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내수위주의 건설이나 서비스 산업은 非交易財產業으로 국제적인 價格競爭壓力이 적기 때문에 쉽게 물가상승을 수반하며, 換率引上을 유발하여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기간에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조기달성과 土地超過利得稅 시행에 따른 租稅負擔 회피를 위한 建築需要 등으로 건설투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人力需要가 건설부문으로 집중되어 勞賃上昇을 초래하였고, 이는 다른 부문의 인력난과 인건비의 同伴上昇을 유발하였다. 비용측 요인은 노동생산성을 증가하는 임금인상과 地價의 상승 및 物流費用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勤勞者의 소득보상욕구와 노사분규가 증가함으로써 賃金은 매년 약 20%수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해 物價上昇要因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1986년부터 1989년의 국제수지 흑자로 해외로부터 유입된 通貨量 중 상당부분이 부동산투기자금화함으로써 地價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집세와 임대료의 가격을 상승시켜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⁹⁾

〈表 10-11〉 單位勞動費用 推移 (단위: 증가율, %)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명 목 임 금	9.2	11.6	19.6	25.1	20.1	16.9
노 동 생 산 성	15.0	11.5	10.0	7.4	11.0	12.1
단 위 노 동 비 용	-5.8	0.1	9.6	17.7	9.1	4.8
인 건 비 비 중 ¹⁾	46.7	47.0	48.9	51.2	52.3	53.3

註: 1) 부가가치 구성비임.

資料: 經濟企劃院, 《1992 物價動向과 物價政策》, 1993. 4, p.133.

사회·심리적 요인은 1987년 이후 계속된 勞使紛糾로 사회적 불안감이 팽배하였고, 부동산투기 과열, 물가오름세심리 지속 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만연되었다. 그밖에 과일과 채소류 가격의 계절적 변동폭이 심했다.

이에따라 1988년 이후 대구지역의 消費者物價는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1988년과 1990년 및 1991년의 物價上昇率은 각각 9.4%, 9.2%, 9.4%씩으로 다소 높게 증가했다. 1992

9) 경제기획원, 《1992 物價動向과 物價政策》, 1993. 4, pp.129~133.

년에는 다소 안정되어 前年比 6.3%가 증가했다.

한편 대구지역은 製造業에 비해서 서비스산업의 구성비가 훨씬 높다. 1992년 말 대구지역의 산업별 취업구조를 보면, 광공업에 종사하는 就業者는 전체의 31.1%이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就業者는 전체의 67.1%였다.¹⁰⁾ 임금이 生産原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비스산업의 경우 賃金引上和 함께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물가 수준도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¹¹⁾ 우리나라의 消費者物價 變動推移를 보면, 「스칸디나비아」 모형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서비스와 농업부문은 製造業部門 보다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은 製造業과 同調化되는 경향이 있다. 즉 1973~1989년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평균 名目賃金 上昇率은 22%와 20%로 거의 비슷하였으나, 勞動生産性 上昇率은 제조업이 7%인데 비해, 서비스 부문은 3%에 그쳐 서비스부문의 單位 勞動費用 상승률이 製造業보다 훨씬 높았다.¹²⁾ 따라서 서비스업의 임금인상압력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3. 公共料金 및 地價動向

대구지역 公共料金 및 서비스 동향은 대구상공회의소가 1971년부터 조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1971년 이후 대구지역 公共料金の 上昇率은 <表 10-12>과 <表 10-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2년과 1974년에서 1981년까지가 두자리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1982년부터는 한자리 숫자의 상승률을 보였다.

公共料金の 상승률을 대구지역의 消費者物價 上昇率과 비교해 보면, <圖 10-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6년에서 1983년까지는 1980년을 제외하고는 公共料金の 상승률이 더 높았고, 1984년에서 1992년까지는 반대로 消費者物價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公共料金の 상승률을 項目別로 보면, 電氣料金は 1978년에서 1981년까지 年 19%에서 43%까지 크게 상승했고, 1982년에서 1991년까지는 오히려 前年에 비해서 하락하거나 동결되었다. 水道料金は 1979년에서 1983년까지는 크게 증가했지만, 1984년에서 1990년까지는 거의 동결되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10) 대구직할시, 《大邱統計月報》, 1993. 5, p. 38.

11) 이영훈, 《서비스 부문확대가 通貨 物價關係에 미치는 影響》, 韓國經濟研究院, 1992. 11, pp. 20~21.

12) 유병하·조희근, <우리나라의 物價變動構造> 《調査統計月報》, 韓國銀行, 1992. 2, p. 29.

〈表 10-12〉 公共料金上昇率 推移 (年平均 上昇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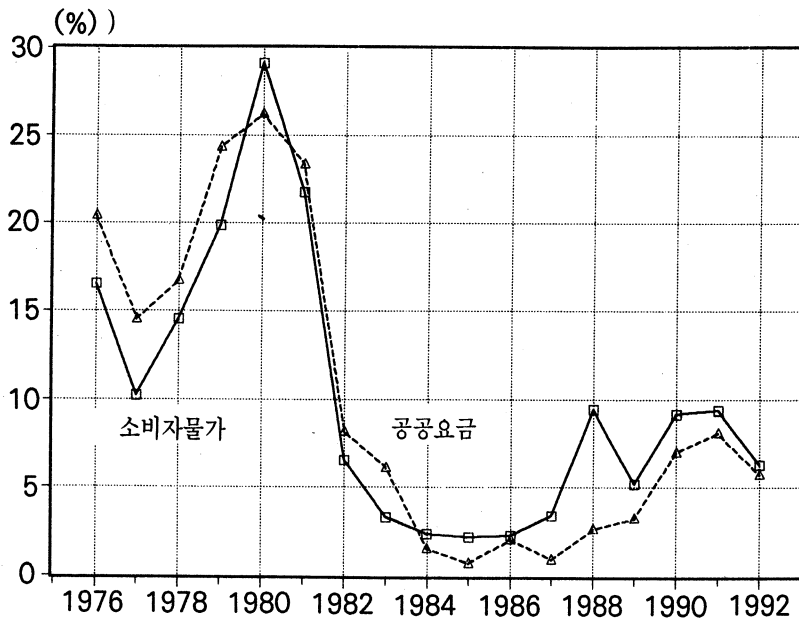
年 度	總 平 均	電 氣 料	水 道 料	交 通 料	遞 信 料	教 育 料	保 衛 生 健 料	宿 建 物 食 使 用 料 料	開 關 係 저 料	行 言 政 論 서 關 비 係 스 料
1971	5.8	0	0	0	0	8.6	27.0	0	2.2	0
1972	15.1	14.8	16.0	16.5	3.5	13.5	25.9	20.3	14.1	0
1973	5.7	0	0	0	0	0	16.3	0	6.6	13.6
1974	17.7	44.5	28.9	22.3	11.9	32.8	10.7	27.4	13.8	15.9
1975	27.2	33.0	0	18.2	59.2	54.1	19.2	18.1	39.3	6.6

資料：大邱商工會議所, 《1981年度 大邱地方 公共料金 및 서비스料金動向》, 1982. 2. 13, 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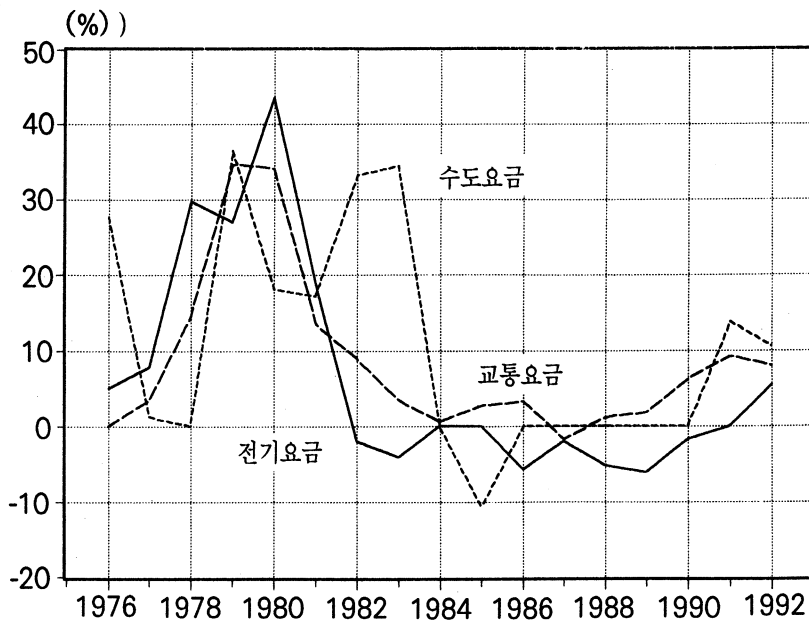
〈表 10-13〉 公共料金動向 推移

年 度	總平均		電氣料金		水道料金		交通料金	
	指數	前年比 上昇率 (%)	指數	前年比 上昇率 (%)	指數	前年比 上昇率 (%)	指數	前年比 上昇率 (%)
1976	28.3	20.4	43.4	5.1	32.7	27.7	31.8	0
1977	32.4	14.5	46.8	7.8	33.1	1.2	32.9	3.5
1978	37.8	16.7	60.7	29.7	33.1	0	37.7	14.6
1979	47.0	24.3	77.1	27.0	45.2	36.6	50.8	34.7
1980	59.3	26.2	110.6	43.5	53.4	18.1	68.1	34.1
1981	73.1	23.3	131.4	18.8	62.6	17.2	77.3	13.5
1982	79.1	8.2	128.8	-2.0	83.4	33.2	84.2	8.9
1983	83.9	6.1	123.5	-4.1	112.1	34.4	87.1	3.4
1984	85.2	1.5	123.5	0	112.1	0	87.6	0.6
1985	85.8	0.7	123.5	0	100.0	-10.8	90.0	2.7
1986	87.5	2.0	116.5	-5.7	100.0	0	93.0	3.3
1987	88.3	0.9	114.2	-2.0	100.0	0	91.3	-1.8
1988	90.6	2.6	108.3	-5.2	100.0	0	92.4	1.2
1989	93.5	3.2	101.7	-6.1	100.0	0	94.1	1.8
1990	100.0	7.0	100.0	-1.7	100.0	0	100.0	6.3
1991	108.1	8.1	100.0	0	113.8	13.8	109.3	9.3
1992	114.3	5.7	105.5	5.5	125.8	10.5	118.0	8.0

資料：大邱商工會議所, 《1992年度 大邱地域 公共 서비스資金動向 調査報告》, 1993. 2, p.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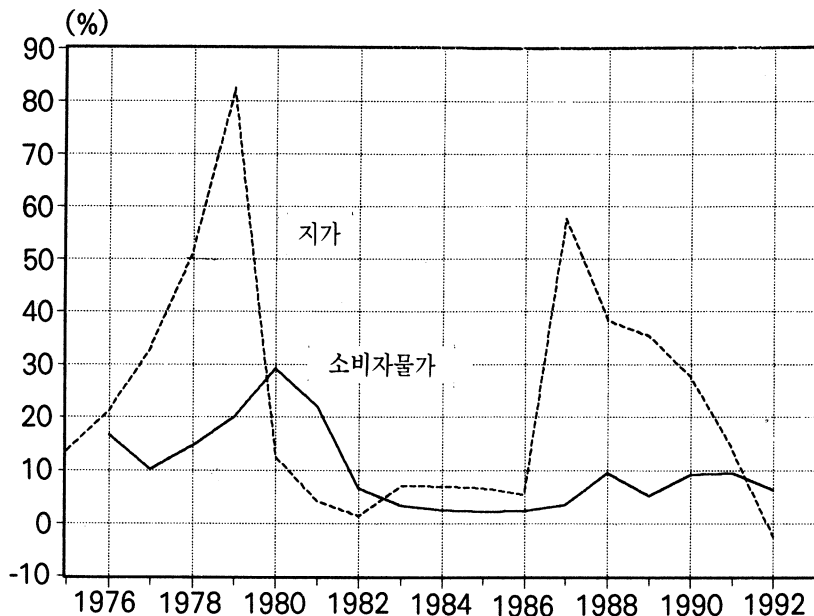
〈圖 10-5〉 大邱地域의 公共料金上昇率 推移



〈圖 10-6〉 大邱地域의 電氣·水道 및 交通料金上昇率 推移

그러나 教育 關係料金과 保健衛生 關係料金, 숙박료 및 건물사용요금, 레저관련요금 大邱地域 등은 비교적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¹³⁾ 그리고 전기·수도 및 교통요금의 상승률 추이는 〈圖 10-6〉과 같다.

한편 大邱市의 地價動向은 〈圖 10-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지역의 消費者物價 上昇率 보다 대체로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975년에서 1991년까지의 기간에서 1980년에서 1982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地價의 상승률이 消費者物價 상승률 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있었던 1977년에서 1979년과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 大邱市의 地價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1978년과 1979년에는 前年比 51.5%와 82.6%나 급등 1987년과 1988년에도 57.7%와 38.2%나 상승했다.



〈圖 10-7〉 大邱地域의 地價上昇率 推移

13) 大邱商工會議所, 《1992년도 대구지역 公共 서비스料金動向 調査報告》, 1993. 2, pp. 35~43.

IV. 課題와 展望

이상에서 대구지역의 물가상승 동향을 해방 이후에서 최근까지의 기간을 해방 이후에서 1960년대의 기간과 1970년에서 1993년까지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해방 이후에서 1960년대의 기간에서는 小賣物價動向에 관한 자료를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으나 都賣物價指數에 관한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수집가능한 통계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설명하였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일관성 있게 정비된 消費者物價指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해방 이후 1948년 8월 정부수립기간동안 대구의 사회·경제문제는 人口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의 혼란에 따른 유통질서의 파괴 및 식량을 비롯한 物資不足과 物價高였다. 그 후 1950년의 6.25동란으로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물가는 폭등했다. 즉, 1950년 6월에서 1953년 2월 14일까지 전국의 小賣物價는 23.6배 증가했는데, 都市別로는 大邱가 28.7배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釜山이 25.9배, 淸州가 23.9배, 서울이 23.4배씩이나 증가했다. 대구지역의 물가는 1953년 이후에 크게 안정되어 1954년에는 前年比 31.3%의 상승에 그쳤다. 1946년에서 1957년까지 12년간 大邱地域의 小賣物價는 약 450배나 증가했고, 전국 평균과 서울은 476배, 釜山은 475배씩 증가했다.

1960년대에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工業化段階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1963년과 1964년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곡물가격의 앙등과 1964년 5월 원화의 100% 가까운 平價切上 및 外國援助의 감소 등으로 年 20%이상의 다소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그 후 1960년대 말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1970년대에서 최근까지의 기간은 제1, 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1974년~1975년 및 1979~1981년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고, 1982년 이후부터는 한자리 숫자의 안정세를 보였다.

그리고 대구지역 消費者物價의 上昇要因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通貨主義에 의한 모형과 聯立方程式에 의한 모형 모두 대체적으로 잘 적용되었다.¹⁴⁾ 通貨變數가 物價에 미치는 것은 약 2~3년의 時差가 존재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分析되었고, 화폐유통속도의 증가는 물가를 다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한 실질 GNP의 증가는 물가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변수도 物價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海外輸入 인플레이션 요인은 임금변수나 기대변수보다는 보다 작은 탄력치를 보였다. 그리고 賃金과 物價의 관계는 相互因果關係에 있지만 대구지역의 경우 物價가 賃金에 미치는 탄력치보다

14) 李春根, 〈大邱地域 消費者物價의 上昇要因에 관한 實證分析〉《市政研議》, 大邱直轄市, 1993. 10, pp. 120~140.

賃金이 物價에 미치는 영향이 약간 더 컸다.

이상의 文獻的 研究와 實證分析을 토대로 巨視經濟的인 政策的 課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구지역의 物價도 전국의 物價推移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체의 거시경제적인 運用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通貨量의 적정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2~3년 時差를 두고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통화공급목표 자체를 下向調整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通貨指標 M_2 는 비통화 금융기관의 비중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할 때 限界가 많으므로, 市中流動性은 어느 한 지표의 흐름보다는 M_2 나 M_3 , 본원통화, M_2A , M_2B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여건이 변화하면 목표통화증가율을 변경해 나가는 등 通貨量이 規制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注視의 대상이라는 점을 중시하는 신축적인 통화량의 운용방법이 필요하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利率이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제반 金融環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利率을 자유화하는 것이 當面課題라 하겠다.

또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불식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不動產 投機心理나 不勞所得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투기심리의 근절없이 물가를 잡을 수 없으며, 實物經濟의 회복도 그 만큼 늦어진다고 하겠다. 최근의 일련의 改革은 이런 점에서 큰 效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不動產投機가 차단되면 市中浮動資金은 생산자금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地價上昇率이 物價上昇率보다 훨씬 더 높았는데, 이는 물가오름세 심리를 고조시켜 물가를 상승시킨다. 부동산 투기에 따른 不勞所得의 확대는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고, 국민들의 換物心理를 부추켜 시중부동자금이 生産資金으로 유입되는 것을 왜곡시킨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제반시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겠다.

賃金과 物價의 관계는 어느 정도 相互作用의 관계에 있지만 최근 몇년과 같이 勞動生産性을 크게 上廻하는 賃金引上은 물가에 압력을 미친다. 또한 우리나라는 GNP에서 차지하는 임금의 비중이 40%이상 차지하고 있으므로 賃金引上의 적정선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별책-보상형의 租稅에 기반을 둔 所得政策(tax-based incomes policy)의 도입을¹⁵⁾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구지역 소비자물가의 특이한 構造的인 特徵은 1990년부터 1993년 말까지 대구지역의 소비자물가가 全國平均에 비해서 크게 높는데, 그것은 주로 食料品 중 外食費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데다, 非食料品 중 住居費의 상승이 전국 주요도시 중 가장 높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15) 崔龍浩·李春根, 〈所得政策에 관한 一研究〉《經商大學論集》, 慶北大學校 經商大學, 1987, pp. 23~60.

따라서 外食費와 住居費의 가격상승을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同期間 非食料品の 가격상승률은 23.2%인데, 食料品の 가격상승률이 29.2%를 나타내, 食料品の 가격상승률이 6.0% 포인트가 더 높았다. 식료품의 가격변동은 季節的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流通施設을 확충하고, 社會間接資本의 확대를 통해 物流費用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公營都賣市場을 확충하고, 공동 集配送團地를 확대하여 地域間 輸送手段間의 연계운송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지역의 消費者物價의 상승보다 公共料金 및 서비스가격의 上昇率이 1975년에서 1982년까지는 훨씬 더 높았다. 다행히 1983년부터 1992년까지는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안정된 상승률을 보였다. 公共料金 및 서비스요금은 일시에 대폭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物價에 미치는 압력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 요금의 安定的 管理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구지역과 같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통적인 總需要管理政策에 의한 물가안정대책의 실효성이 그 만큼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서비스부문으로부터의 물가상승압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産業構造 調整側面에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單位當 勞動生産性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自動化 施設이나 技術革新 등에 보다 많은 投資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物價上昇目標을 무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物價指數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의 價格動向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物價管理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물가지수 加重値의 합리적 조정, 물가지수 대상품목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 인위적인 物價指數管理는 감각물가와 지수물가와와의 차이를 확대하여 物價指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物價安定을 위한 一貫性 있는 政策을 10년 내지 20년 이상 실시하여 물가안정이 地域經濟에 체질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대책이 상호 유기적이고 複合的으로 추진될 때 대구지역의 物價는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展望된다.

第2節 大邱地域의 消費動向 推移

I. 概 說

우리나라의 消費生活에 대한 통계자료는 일제하에서 1942년 1월부터 국민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家計調査를 실시한 바 있으나 해방과 동시에 중단되었다. 그 후 한국은행이 1951년 7월부터 1962년까지 매년 家計調査를 실시하였다. 1963년 1월부터 정부통계 강화책의 일환으로 家計調査를 경제기획원에서 담당하다가 1990년부터는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구직할시의 消費實態를 파악하는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직할시로 승격되기 이전에는 慶尙北道에서 1969년 1월부터 1971년 12월까지 도시 및 농촌가계의 家計調査를 실시하였다. 1972년 4월에서 1980년까지는 계획을 변경하여 경상북도내 5개 도시(大邱, 浦項, 慶州, 金泉, 安東市)만을 대상으로 하는 都市家計調査를 실시했다. 그리고 직할시 승격(1981년)이후에는 대구시의 家計調査를 독자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전국 도시가계조사로 대체하였다. 따라서 대구직할시에 대한 消費生活는 1970년대에는 비교적 자세한 자료가 제시되어 자세히 분석할 수 있지만 他年度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조사만 되어 있어서 가계의 消費生活를 자세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本節에서는 수집가능한 자료에 의해서 대구시의 消費生活를 해방 후 혼란기와 1960년대, 1970년대 및 1980년 이후에서 1992년까지의 기간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本節의 構成은 먼저 解放後 混亂期의 소비생활에서는 所得의 추이와 消費生活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1960년대의 소비생활은 費目別 消費支出의 구성비와 家口形態別 消費構造를 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자료가 비교적 일관성있게 정비되어 勤勞者家口의 소득추이와 소비지출의 구성추이, 가구 인원수별 소비구조, 가구의 직업별 소득과 소비구조, 가구형태별 소비구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어 1980년 이후에서 1992년까지는 대구지역의 消費動向에 관한 통계가 없어서 전도시평균자료를 가지고 소득의 추이와 1980년대의 소비생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課題와 展望을 제시하였다.

II. 解放後 混亂期의 消費生活

日帝의 35년간 압박에서 解放된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南北이 분단되었고, 日帝가 남긴 기형적인 식민지 遺産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방 후 생산 기반시설은 마비되었고, 해방직전에 남발된 通貨量에 의해서 물가상승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하여 국민의 消費生活는 기초적인 生計費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해방 직후에 美軍政은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臨時彌縫策으로 援助物資를 받아들여 악화된 消費生活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해방 후 1950년대의 대구시 消費生活에 관한 자료는 거의 작성되어 있지 않고, 몇몇 統計年鑑이나 統計月報, 統計年報에 단편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들의 자료에서도 발행기관마다 통계치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時計列로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內務部 統計局에서 발간된 大韓民國 統計年鑑을 이용하였다.

1. 所得의 推移

解放後 사회적 혼란기의 勤勞者家計의 소득에 관한 자료는 해방 후 1950년까지는 찾아 볼 수 없고, 1951년~1953년까지 서울시 근로자가구에 대한 자료가 있고, 1954년~1958년까지 대구시에 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 나타난 총수입의 구성을 보면 總收入은 근로자의 實收入과 實收入 이외의 수입으로 구분된다. 다시 實收入은 가구주의 주수입과 부수입, 가구원 수입, 근친자로부터의 생계보조 등으로 나눌 수 있고, 實收入 이외의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借金, 貯蓄金引出, 貸金回收, 家財放賣金 등으로 구성된다.

1955년을 기준으로 하여 대구시의 근로자가계의 소득구성을 <表 10-14>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액면에서 총수입이 8만 896원이고, 實收入이 5만 4,929원, 實收入 이외의 수입이 2만 5,967원이다. 實收入을 다시 세분하면 家口主의 주수입이 3만 7,108원, 부수입이 6,312원, 가구원수입이 2,258원, 근친자로부터 생계보조가 9,251원이다.¹⁶⁾ 구성비면에서 총수입 중 實收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에 불과하다. 實收入 중에 가구주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7.6%, 부수입은 11.5%, 가구원수입이 4.1%, 근친자로부터 생계보조가 16.8%이다.

이처럼 가구주의 主要 收入이 높은 것은 근로자들의 수입이 안정되어 가족의 생계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950년대 후반에 근로자의 가계가 점차 안정화되었다. 그리고 1950년대 근로자 가계의 實收入과 消費支出 推移는 다음 <圖 10-8>과 같다.

또한 소득의 推移를 근로자가구와 봉급자가구로 나누어 보면 봉급자가구의 소득이 월등히 높았다. 전국을 기준으로 할 때 1955년 기준 봉급자가구의 實收入은 3만 8,569원인데 비해서 근로자가구는 3만 5,599원으로 나타났다.¹⁷⁾ 이는 봉급자가구의 수입이 순조롭게 증가한 데

16) 內務部 統計局, 《大韓民國統計年鑑》, 1957, p.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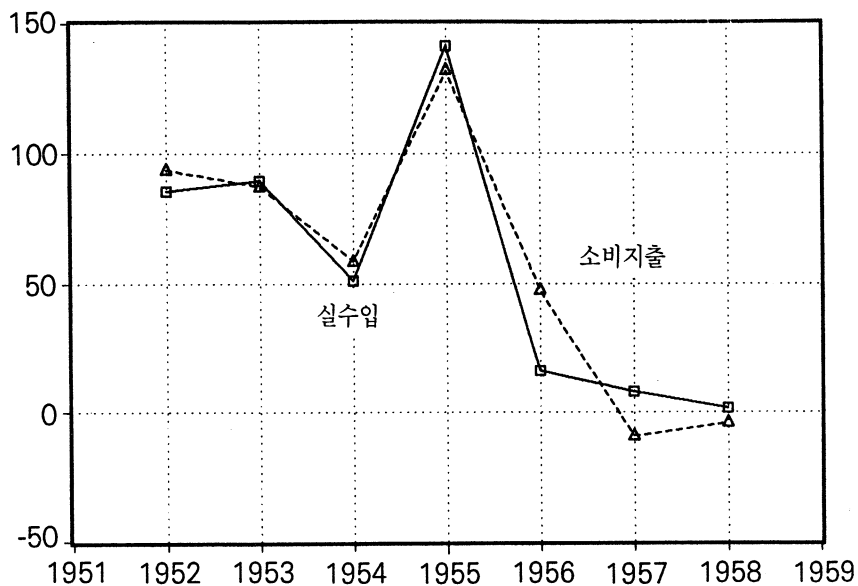
17) 위의 책, p. 263.

대해서 근로자가구의 收入增加率이 낮게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表 10-14〉 1950년대 實收入과 消費構造 推移 (단위: 원, %)

구 분	실수입	소비지출	소비성향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 비
1951	4,280	4,680	1.09	47.0	4.1	6.2	12.4	22.4
1952	7,940	9,060	1.14	62.8	3.5	4.4	9.8	19.4
1953	15,042	16,968	1.13	50.9	9.0	7.9	12.9	19.3
1954	22,754	26,895	1.18	37.8	9.9	8.1	11.9	32.2
1955	54,929	62,405	1.14	39.7	8.3	5.6	18.7	27.8
1956	63,773	91,943	1.44	45.0	6.7	12.2	16.4	19.8
1957	68,775	83,125	1.21	43.7	7.1	9.6	13.2	26.2
1958	69,706	79,407	1.14	43.4	9.7	4.5	12.8	29.6

註: 1951년~1953년 서울시 자료임. 1954년은 부산, 대구, 대전 등 8개도시의 평균치임, 其他 年度는 大邱市 資料임.
資料: 內務部 統計局, 《大韓民國 統計年鑑》, 1952~1959.



〈圖 10-8〉 1950년대 勤勞者 家計의 實收入과 消費支出 推移

특히 휴전후 우리나라의 국민생활은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해마다 개선되어 왔으며, 1957~1958년에 와서는 戰前水準을 능가하였다. 또한 固定換率策定 時期인 1955년을 중심으로 하여

援助物資의 도입에 의하여 왕성한 국내투자는 공업생산부문을 발전시켰고, 이와 함께 1957년, 1958년의 풍작은 생활기조를 더욱 견고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1955년을 기준으로 1958년에는 勤勞者 家計收入 및 支出은 76.1%, 76.4%로 증가한데 비하여 消費者物價指數는 46.7%가 상승함으로써 소득수준이나 소비수준이 향상되었다.

2. 解放後 消費生活

해방 직후 消費者의 생활수준은 한마디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해방과 더불어 생산위축과 6.25동란으로 인한 생산기반의 파괴는 消費生活를 극도로 악화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소비성향은 1보다 큰 비정상적인 家計收支를 나타냈다. 대구시의 경우 1955년에서 1958년까지의 實收入과 消費支出關係를 나타내는 平均消費性向은 1을 초과하는 1.23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차대전 후 패전국과 저개발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대구시의 平均消費性向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일반적인 법칙성을 발견하기는 힘들고, 1956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알 수 있는 費目別 支出構成의 特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勤勞者들의 가계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엔겔계수(Engel's Coefficient)가 저하되고, 文化費에 대한 지출비율이 높아졌다. 엔겔계수는 1951년에 47%에서 1952년에는 60.8%로 증가하다가, 1958년에 가서는 43.4%로 하락하였다. 文化費에 해당하는 雜費의 구성비는 1951년에 22.4%에서 1953년에 최저수준인 19.3%를 보이다가, 1958년에 가서는 29.6%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雜費의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안정에 따른 국민생활의 안정으로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교제비 등 문화면으로서의 지출요구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住居費에 대한 지출비 구성은 消費支出 중 3.5%에서 9.7%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전쟁 후 휴전시기인 1953년 이후에 급증하였다. 이것은 휴전후 住宅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주거비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 광열비의 구성은 4.4%에서 12.2%까지 그 변화가 다양하다. 각 연도에 따라서 변동비가 매우 불규칙적으로 나타나서 시계열분석이 극히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被服費의 구성은 9.8%에서 18.7%로서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 1955년에서 1956년에 피복비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는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지만, 당시의 국내 紡織業의 질적인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III. 1960年代의 消費生活

1960년대 초반기는 4.19와 5.16 軍事 쿠데타 등 정치·사회적으로 대변혁의 와중에서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업,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생활은 惡化되었다. 이에 정부는 경제난국에 대처하기 위해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것은 장기적 정체성을 가져왔던 한국경제를 의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된 계획추진이었다. 貧困에 대한 숙명론이나 체념에서 탈피하고 한국민의 의지에 의해서 자립경제성장을 일으켜 보자는 노력이 이때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말까지 國民의 食生活마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는 가난속에서 살고 있었으며, 보릿고개라는 숙명적인 용어를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1950년대보다는 크게 개선되었다.

1960년대 대구시의 消費生活에 대한 자료는 대구통계연보에 費目別 支出額과 總消費額에 대한 내용은 조사되어 있지만, 家口主의 직업별 消費構造, 가구원수에 따른 消費支出 調査는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制限된 자료를 가지고 消費生活의 실태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1. 1960年代 大邱市 消費의 概觀

1960년대 民間消費에 대한 消費構造는 1950년대에 격심하게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으로 1960년대 초반이나 후반기에 큰 변화가 없었다. 단지 消費財의 공급이 수입소비재로 부터 국산소비재로 바뀌었다.

〈表 10-15〉 1960年代 大邱地域의 消費構造 推移 (단위: 원, %)

年 度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 비
1961	5,750	50.6	14.4	8.0	6.6	20.4
1962	5,140	52.3	15.4	6.4	9.7	16.5
1963	6,890	51.7	13.5	6.0	7.8	21.0
1964	7,180	61.9	10.3	5.3	5.8	16.7
1965	8,090	58.2	12.2	5.4	8.9	15.3
1966	11,590	48.5	16.5	6.6	10.4	18.0
1967	16,120	45.9	16.2	6.5	11.4	24.3
1968	20,770	40.9	18.8	4.6	11.4	24.3
1969	26,070	40.9	18.5	5.1	10.8	24.7

註: 1962년은 영남지방통계임, 1961년과 1963년~1969년까지는 대구시 전가구 통계임.
 資料: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1969 및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1967, 1968

대구시의 근로자가구에 대한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상태로는 없고, 消費支出 규모만

大邱統計年報에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表 10-15〉에서 보면 消費支出規模는 1961년의 5,750원에서 1969년에는 2만 6,070원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이는 1961년을 100으로 할 때 1969년은 453.4로 나타났다. 특히 消費支出 증가율이 1967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1960년대 후반기에 들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으로 인하여 高度成長과 流動性 팽창에 따른 구매력의 증가, 貿易自由化로 인한 原資材의 원활한 도입, 輸入代替産業 완공에 따른 國內消費財商品의 공급 등이 소비수준을 증가시킨 요인이었다.¹⁸⁾ 消費性向은 소득주계에 대한 조사가 없어서 알 수는 없으나 전국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대체로 勤勞所得에 대한 消費支出은 1보다 큰 수치를 나타냈다.

2. 費目別 消費支出의 構成

1960년대의 消費支出에 대한 費目別 構成을 〈表 10-15〉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시의 消費支出規模는 市民所得의 증대와 物價上昇을 반영하여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960년은 자료의 미비로 알 수 없고, 1962년은 嶺南地方의 통계치이고, 1961년과, 1963년에서 1969년까지는 大邱市 全家口 平均을 나타낸 統計値이다. 이 〈表 10-15〉에서 나타난 消費支出構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식료품비의 구성은 최저 40.9%에서 최고 61.9%로 그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다. 1964년에 음식물비의 구성이 61.9%로 제일 크게 나타났고, 점차로 낮아지다가 1969년에는 40.9%로 크게 낮아졌다. 1964년과 1965년에 英鎊계수가 높아진 것은 흉작에 따른 穀價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英鎊계수가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내어 消費構造의 高度化 현상을 반영해 주고 있다.

그리고 住居費의 구성은 대체로 10.3%에서 크게는 18.8%로 나타났는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대체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기에 住居費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가구시설비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난방용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구, 보급이 증가된 TV세트 등의 耐久消費財에 대한 수요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전체소비지출에 대한 光熱費의 구성비는 4.6%에서 8.0%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1961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차로 저하하다가 1966년에 약간 증가하다가 다시 하락하였다. 1966년에 약간 증가한 이유는 煉炭需要의 증가와 아울러 난방용기구의 이용증대에 따른 석유의 수요증대가 가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18) 經濟企劃院 企劃調整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평가 보고서》, 1967, pp. 80~81.

중에 연탄과 電源開發事業이 주요하였던 결과 석탄과 전력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어 이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소비자들의 消費支出에 대한 被服費의 구성비는 5.8%에서 12.0%까지로 나타났다. 被服費의 구성이 가장 낮은 연도는 1964년 5.8%이며, 가장 높은 연도는 1967년 12%이다. 1964년에 피복비가 낮은 것은 1964년 이후 급증한 纖維製品에 대한 輸出需要의 영향으로 국내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현상을 나타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피복비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消費支出 중에서 雜費의 구성비는 대체로 15.3%에서 24.7%로 나타났다. 1960년대 초반기에 20%수준을 유지하다가 중반기에 가서 약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후반기에 가서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960년대 후반기에 가계소비 중 所得彈力性이 높은 文化費를 포함한 잡비지출의 현저한 증가는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으나, 이는 특히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일부 서비스산업의 高成長과 流通機構의 확대 및 消費構造의 多樣化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잡비 중에서도 교통·통신비, 담배, 유흥오락비의 증가가 현저하였는데, 이와 같은 실질수준의 향상에는 단순한 물량의 증가 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 대구시의 消費生活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飲食物費의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雜費·住居費의 비중이 높아져서 시민들의 消費生活이 점차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3. 家口形態別 消費構造

1960년대 대구시의 全家口를 봉급자 가구, 노무자 가구, 근로자의 가구로 나누어 생활수준을 비교하면, 1969년을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消費支出은 봉급자 가구가 2만 7,090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勤勞者외 가구로 2만 5,080원이며, 勞務者 가구는 1만 7,040원으로 제일 낮다. 이는 봉급자 가구의 消費支出을 100으로 할 때 노무자 가구는 62.9이며 근로자의 가구는 92.6이다. 이와 같이 家口形態別로 생활수준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생활수준의 차이에 따른 消費構造의 변화를 費目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엔겔계수는 봉급자 가구가 40.4%로 가장 낮고, 다음이 근로자의 가구로 41.6%이며, 노무자 가구는 46.9%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피복비, 잡비 등 文化的 비목은 생활수준이 향

상됨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였는데, 노무자 가구는 피복비와 잡비의 지출이 10.7%, 21.7%인데 반해서 봉급자 가구는 11.8%, 25.2%였다. 특히 잡비 등 教育費에 있어서는 봉급자 가구를 100으로 하였을 때 노무자 가구는 50.5 밖에 되지 않았다.¹⁹⁾ 이와 같이 1960년대에는 俸給者 家口의 생활수준이 가장 향상된 생활을 하였고, 다음이 근로자의 가구이고, 노무자 가구가 가장 열악한 消費生活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IV. 1970年代의 消費生活

197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의 高度成長期로서 제1차, 2차에 걸친 石油波動을 겪었고, 특히 1979년 말에는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서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대한 대구시의 消費에 관한 자료는 당시 慶尙北道에서 발간된 都市 家計年報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대구시의 消費構造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 勤勞者 家口의 所得推移

1970년대 대구시 전가구의 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1970년에 5.4명에서 1979년에는 4.4명으로 1명이 감소하였고, 가구당 就業人口數는 1.2명으로서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所得推移는 〈表 10-16〉에서와 같이 1970년에 3만 1,669원에서 1980년에는 25만 1,110원으로 명목상으로는 약 7.9배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가구당 인구수를 감안한 실질소득수준으로 보면, 2.4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1976년에서 1979년 사이에 소득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成長期로써 所得의 증대가 두드러진 시기였다.

消費水準도 所得의 증가에 따라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 시기에 消費構造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住居에 있어서 아파트분과 함께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보급의 확대,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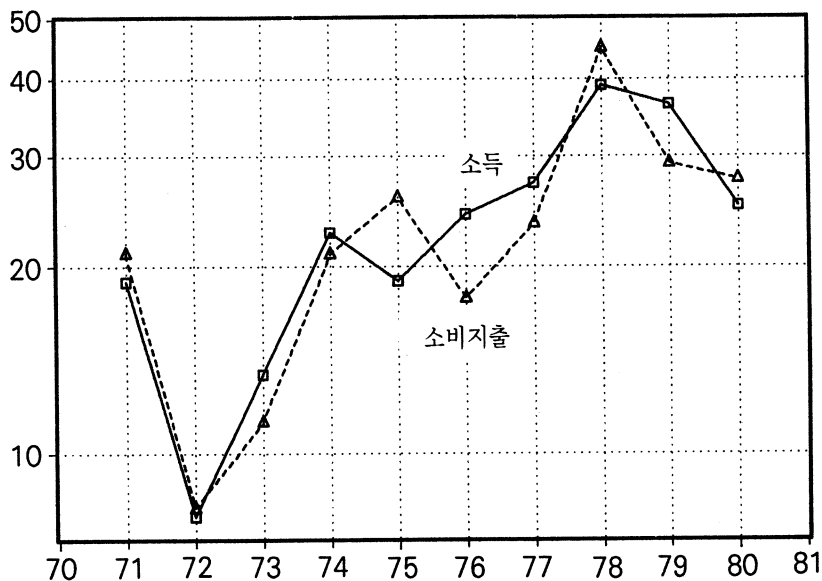
勤勞者 家口의 소득구조를 세분화하면, 勤勞所得과 其他 所得으로 구분된다. 勤勞所得은 가구주 및 가구원이 근로처에서 정신적 및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한 보수로서 받는 일체의 收入(봉급, 임금, 상여금)을 말한다. 其他 所得은 勤勞所得 이외의 경상소득으로서 수입이자, 배당금, 방세 등의 재산소득과 부업소득을 말한다.

19)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報告書》, 1970.

〈表 10-16〉 大邱市 勤勞者 家計의 所得 및 消費支出 構造 (단위: 원, %)

연 도	소 득	소비지출	평 균 소비성향	비목별 지출 구성				
				음식물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 비
1970	31,669	26,892	0.849	42.7	19.2	5.3	10.2	22.7
1971	37,660	32,520	0.864	41.4	18.3	5.5	10.0	24.8
1972	40,638	35,171	0.865	45.4	16.8	4.6	8.6	24.6
1973	46,088	39,117	0.849	44.1	15.5	4.2	9.3	26.9
1974	56,512	47,300	0.837	43.7	15.4	5.2	8.4	27.3
1975	67,220	59,470	0.885	44.3	15.9	5.5	7.6	26.7
1976	83,470	70,040	0.839	45.0	15.3	4.7	7.9	27.1
1977	106,080	86,400	0.815	43.0	16.5	4.6	8.2	27.7
1978	147,460	125,110	0.848	41.0	17.4	4.7	8.6	28.3
1979	200,990	161,560	0.804	38.3	17.7	5.0	9.2	29.8
1980	251,110	205,910	0.820	39.9	17.1	5.5	8.2	29.3
평균	—	—	0.843	42.6	16.8	5.0	8.8	26.8

資料: 慶尙北道, 《都市家計年報》, 1971~1980.



〈圖 10-9〉 1970年代 勤勞者 家計의 所得 및 消費支出增加率 推移

勤勞者 家口의 勤勞 所得과 其他 所得의 推移를 <表 10-17>에서 보면 勤勞所得의 비중은 1970년에 76.8%에서 1980년에는 83.4%로 높아진 반면, 其他 所得은 23.2%에서 16.6%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계소득이 勤勞所得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1974년에 勤勞所得에 대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최초로 公務員들에게 賞與金이 지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表 10-17> 大邱市 勤勞者 家口의 勤勞所得과 其他 所得의 構成推移 (단위: %)

구 분	1970	1971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8	1979	1980
근로소득	76.8	76.8	75.0	76.2	78.3	79.2	82.1	83.0	84.4	82.9	83.4
기타소득	23.2	23.2	25.0	23.8	21.7	20.8	17.9	17.0	15.6	17.1	16.6

資料: <表 10-16>과 같음.

1974년도는 1973년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명목상으로는 22.9%가 증가했으나, 消費者物價上昇率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수준은 오히려 1.1% 감소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이 감소한 이유는 1974년 중에 雇傭增大과 賃金引上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되어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石油波動 이후 만연한 國際景氣의 불황과 이로 인한 국내경기의 침체로 이례적인 물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976년도는 1975년도에 비해서 명목상으로 소득은 24.1%, 消費는 18%가 증가하였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수준으로는 가구당 所得이 8.5%, 消費支出이 3.7%가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율은 1970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로써 國際的인 資源波動을 겪고난 후 처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실질임금상승률이 훨씬 앞선 결과이며, 이로써 家計貯蓄이 점차 늘어났던 것이다.

1974년에서 1979년까지는 고도성장시기로서 1979년은 1978년에 비해서 실질소득수준으로 14.7%, 實質消費支出이 8.5%가 증가했다. 이것은 공무원의 精勤手當 支給과 企業體의 賃金引上, 住宅價格 상승에 따른 地價評價額의 증가 등에 기인된 것이다. 또한 소득이 증가한 만큼 消費支出에 있어서도 큰 증가를 보였다. 消費性向은 전년에 비해서 4.4% 「포인트」나 줄었다.

1980년에는 1979년에 비해서 家計收支가 대체로 악화되었다. 명목상으로는 소득이 25.1%, 消費支出이 27.5%의 증가하였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수준으로는 소득이 2.8%, 消費支出이 0.9% 각각 감소하였다. 消費性向도 80.4%에서 82%로 1.6%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10.26事態 이후에 발생한 정치·사회적 혼란과 2차 石油波動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근로자의 家計收支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消費支出의 構成推移

消費支出의 構成推移를 엥겔이 분류한 5대 비목별로 나누어 시계열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表 10-18〉은 1970년대 대구시의 消費推移를 나타낸 것이다.

연도	소득금액	소비지출	소비성향	음식물비	주 거 비	광 열 비	피 복 비	잡 비
1970	31,669	26,892	84.9	42.7	19.2	5.3	10.2	22.7
1971	37,660	32,520	86.4	41.4	18.3	5.5	10.0	24.8
1972	40,638	35,171	86.5	45.4	16.8	4.6	8.6	24.6
1973	46,088	39,117	84.9	44.1	15.5	4.2	9.3	26.9
1974	56,512	47,300	83.7	43.7	15.4	5.2	8.4	27.3
1975	67,220	59,470	88.5	44.3	15.9	5.5	7.6	26.7
1976	83,470	70,040	83.9	45.0	15.3	4.7	7.9	27.1
1977	106,080	86,400	81.5	43.0	16.5	4.6	8.2	27.5
1978	147,460	125,110	84.8	41.0	17.4	4.7	8.6	28.3
1979	200,990	161,560	80.4	38.3	17.7	5.0	9.2	29.8
1980	251,110	205,910	82.0	39.9	17.1	5.5	8.2	29.3

資料: 〈表 10-16〉과 같음.

먼저 飲食物費는 勤勞者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필수 비목으로서 그 구성은 크게 주식비와 부식비, 과자·과일·음료, 외식비로 나눌 수 있다. 음식물비의 전체비중을 〈表 10-18〉에서 보면 1970년에 42.7%이던 것이 1980년에는 39.9%로 2.8% 「포인트」 하락했다. 이것은 勤勞者들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엥겔계수를 기준으로 보면, 1970년대 초반보다 후반기에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엥겔계수만을 가지고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수치상으로는 엥겔의 계수가 크게 떨어져 消費構造의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購入物量面에서 볼 때 전혀 변화가 없었다면 사실상 생활의 질적 향상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식료품 가격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 그 이외의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식료품 이외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하므로 飲食物費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1970년대 大邱市의 엥겔계수를 보면 1972년이 가장 높은 45.4%이고, 1976년에 45%를 제외하면 대체로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1972년에 엥겔의 계수가 높아진 이유는

채소류를 비롯한 육·어패류 등 각종 副食品價格의 상승과 越冬用 김장비의 지출규모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1980년에 엔겔계수가 1979년에 비해서 높아진 것은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음식물비 가격이 평균물가상승률 보다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대구시 勤勞者의 食생활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음식물비의 構成推移를 살펴 본다. <表 10-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飲食物費를 100으로 할 때 主食費의 구성은 1970년에 52%에서 1980년에는 35%로 17%포인트나 크게 감소한 반면, 副食費의 구성은 37%에서 42.6%로 5.6%포인트 증가하였다. 과자·과일·음료에 대한 지출구성비는 11%에서 13.75%로, 外食費의 비중은 1974년에 4.6%에서 1980년에는 8.7%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1970년대 대구시의 勤勞者 家計의 食생활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質的인 향상을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表 10-19> 大邱市 勤勞者家口의 飲·食物費 構成推移 (단위: %)

구 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음식물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식	52.0	51.2	50.8	51.9	50.4	46.2	46.4	40.5	34.0	35.1	35.0
부 식	37.0	36.2	36.4	35.1	34.5	36.8	38.0	42.5	43.0	43.0	42.6
과자·과일	11.0	12.6	10.2	9.7	10.5	10.8	10.2	13.6	13.4	13.7	13.7
외 식	—	—	—	—	4.6	6.2	5.4	4.4	7.5	8.2	8.7

資料: <表 10-16>과 같음.

이를 연도별로 특징적인 것을 보면, 1973년에 主食費의 비중이 약간 증가하고 부식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곡가인상에 따른 主食費의 비중이 증대되어 부식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또 1976년도의 구조를 보면 주식인 穀物의 비중은 46.4%, 부식의 비중은 38%로 전년도에 비해서 0.2%, 1.2%포인트씩 증가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기호식품과 外食費의 지출이 전년에 비해서 각각 0.6%, 0.8%포인트씩 낮아졌다. 이것은 1976년 한해동안 높은 물가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嗜好食品을 억제하여 필수비목인 곡물과 부식비를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1974년부터는 주식비 구성의 급격한 하락과 부식비 구성의 급격한 상승으로 그 구성이 역전되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1979년도의 副食費의 구성이 하락하고 주식비의 구성이 약간 상승한 것은 부식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고추, 마늘 등 조미료 가격이 전년에 비해서 인상폭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住居費는 勤勞者 家口에 있어서는 식료품비와 함께 생활필수품목이다. 1970년대 住居費의 구성은 <表 10-18>에서와 같이 근로자 전체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2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슈바베(H. Schwabe)는 1868년 베를린시의 가계조사를 통해서 엥겔법칙 중 住居費의 관한 부분을 수정하고, 다음의 법칙을 수립하였다.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 중 주거비에 대한 절대지출액은 증가하지만, 상대적 지출액인 지출비율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에서는 대체로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住居費의 구성비가 점차로 작아지다가, 1978년 이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光熱費의 구성은 1차, 2차 석유파동을 겪은 후의 시기인 1973~1975년, 1978~1980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1973년에는 연탄값의 안정으로 광열비가 최저수준에 있었으나 하반기에 발생한 石油波動으로 인해서 1974년에는 전년보다 1%정도 증가하였다. 1976~1977년도 광열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1976년 중에 광열비의 주종인 煉炭價格이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1974년에서 1980년에는 광열비의 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석유가격 및 電氣料金이 두차례에 걸친 인상과 1979년 4월의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燃料費 支出增加에 기인된 것이다. 1980년에는 전기요금(2회), 연탄가격, 석유류 가격(2회)의 인상으로 광열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1970년대의 被服費의 구성은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7~10%정도를 나타냈다. 이것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거의 일정한 수준을 나타냈다. 1973년의 경우 피복비 구성이 상승한 것은 1973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국제적인 資源難과 에너지 파동으로 원면을 비롯한 화학섬유의 가격급등으로 의복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1974년 역시 경기불황에 따른 각 가정의 소비억제로 인하여 피복비는 전년비 0.8% 감소하였다. 1976년도의 피복비가 1975년 대비하여 증가한 것은 실질소득의 증가와 함께 그동안 구입을 억제하여 온 衣服, 織物類, 신발류 등에 대한 지출이 증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생활수준이 낮아 식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급급하여 의복을 구입할 여유가 적었으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피복비에 대한 지출의 여유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1979년도의 피복비 증가는 衣類品의 가격이 크게 인상된 데 기인하며, 1980년 피복비의 감소는 가계의 소득증가보다는 물가상승률이 높아 선별적 지출과 실질소득이 적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文化生活을 측정할 수 있는 문화적 비목인 雜費는 대체로 전체소비지출의 22~33%정도를 나타냈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했다. 1974년에 잡비의 구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도시가계의 생활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1976년 잡비의 증가는 잡비 중에서도 教育費와 醫療費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 외에 담배와 기타 잡비의 지출이 다소 증가하였다. 1979년에는 1979년부터 醫療保險制度의 확대 실시로 전년에

비하여 약방을 이용하던 가구가 醫療機關을 찾는 경향이 많아졌다. 또한 해가 거듭할수록 사람위주의 衛生과 美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教育費의 비중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980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0.5%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잡비를 구성하고 있는 의료비, 교양·오락, 문방구, 기타 잡비의 실질수준은 감소하였고, 교육비, 미용위생, 교통·통신비는 증가하였다. 이것은 경기침체와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감소하였으나 교육열에 의한 教育費의 증가, 理·美容 및 沐浴料金の 인상, 交通料金の 인상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雜費에 대한 지출증가는 물가상승세의 진정에 따라 실질소득의 증가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인다.

3. 家口 人員數別 消費構造

가구인원은 가계소비의 규모 및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가구인원수의 변화에 따른 消費支出의 규모와 변화를 분석하여 보면 일정한 법칙성을 갖고 있다. 消費의 규모나 구조가 변동하는 데는 가구인원수의 變動과 相關性을 가짐은 물론 가구구성원의 성분 즉 연령, 성별 등의 구성상의 차이나 사회적인 慣習 또는 전통적인 生活方式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가구인원수별 消費構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효과분석을 해야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자료의 제약성 때문에 다만 가구인원수의 변화에 따른 消費支出의 경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表 10-20〉은 가구인원수별 消費構造의 推移를 나타낸 것이다. 가구인원수의 증가에 따른 消費支出 증가는 2인가구의 지출을 100으로 볼 때 4인가구는 132.5이고, 8인가구는 226.7로 나타나 4인가구의 경우는 2인가구에 비해서 평균 32.5% 증가하였고, 8인가구는 126.7%가 증가하였다.

〈表 10-20〉 大邱市 家口人員數別 消費構造의 推移 (2인가구: 100, 단위: %)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비지출	100	118.6	132.5	155.5	177.9	194.1	226.7
음식물비	100	118.6	138.4	161.4	182.7	199.3	236.9
주 거 비	100	114.6	124.9	133.9	150.9	162.6	168
광 열 비	100	107.1	118.8	135.5	147	162.2	175.5
피 복 비	100	114.3	127.9	136.7	163.7	175.8	216.7
잡 비	100	129.2	135.2	177.3	207.7	227	267.5

註: 1971~1980년까지 평균치임.

資料: 慶尙北道, 《都市家計年報》, 1971~1980.

이 表에서 볼 때 消費支出의 증가는 가구인원수의 증가에 따라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인가구에서 3인가구와 7인가구에서 8인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가구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消費支出의 증가는 가구인원수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구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인당 가계비는 체감한 것이다. 또한 가구인원수로 본 엔겔계수는 4인, 5인, 8인 가계가 대체로 높고 그 외 2인, 3인 가계의 엔겔계수가 낮게 나타났다(表 10-21 참조).

〈表 10-21〉 大邱市 家口人員數別 消費構造 (단위: %)

구 분	평균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음식물비	41.5	40.4	40.3	42.4	42.1	41.5	41.4	42.4
주 거 비	16.5	18.6	17.8	17.5	15.9	15.6	15.6	14.6
광 열 비	5.1	5.8	5.2	5.2	5.0	4.8	4.8	4.6
피 복 비	8.9	9.7	9.2	9.2	8.4	8.7	8.7	8.8
잡 비	28.1	25.6	27.4	25.9	28.8	29.5	29.5	29.7

註: 1971~1980년까지 평균치임.

資料: 〈表 10-20〉과 같음.

住居費의 경우에는 가구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구성비는 체감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가구 인원수가 적은 가구일수록 자기집을 갖지 않고 셋방살이를 하기 때문에 주거비의 비율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光熱費는 주거비와 같은 경향으로 그 구성비가 체감하고 있고, 被服費는 가구원의 증가에 별다른 특징을 나타내지 않았다. 雜費의 경우에는 가구인원수의 증가에 따라 구성비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4. 家口主의 職業別 所得과 消費構造

도시가계조사 대상가구를 그 직업에 따라 勤勞者 家口와 勤勞者 以外の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勤勞者 家口를 다시 공무원 가구, 일반사무원 가구, 일반기능 및 노무자 가구, 자유노무자 가구로 분류하고, 근로자 이외의 가구를 상인 가구, 관리 및 경영자 가구, 기타 가구로 각각 분류하여 所得과 消費構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所得構造

근로자 이외의 家口에 대한 소득은 자료의 미비로 알 수 없고, 勤勞者家口만을 대상으로 한

所得額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 기준으로 教育公務員 가구가 50만 1,980원으로 월소득이 제일 높고, 다음이 一般事務員 가구가 35만 650원, 一般公務員 가구가 33만 4,730원, 一般技能 및 常用勞務者 가구가 21만 9,740원, 自由勞務者 가구가 15만 6,910원 순으로 되어 있다.²⁰⁾

도시가계조사자료에 의하면 생산종사직보다도 事務職의 소득수준이 월등히 높고, 그 중에서도 교육공무원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구조는 勤勞所得과 其他 所得으로 구성되어 있다. 勤勞所得은 총소득의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써 가구주의 勞動에 의한 賃金과 가구원의 勤勞所得으로 구성되어 있고, 其他 所得은 勤勞所得 이외의 現金所得으로서 수입이자, 배당금, 방세, 지세수입, 부업수입, 이전소득,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가구주의 職業別 소득구조를 〈表 10-22〉에서 보면 總所得 중에서 勤勞所得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유노무자가 82.2%, 일반기능 및 노무자가 81.2%, 일반사무원가구가 79.4%, 공무원가구가 75.1%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勤勞所得에 의존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에, 其他 所得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공무원가구가 타가구에 비해서 其他 所得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공무원의 가계유지에 副業 및 보조가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表 10-22〉 大邱市 家口主의 職業別 所得과 消費支出 構成 (단위: %)

구 분	근로자가구				근로자의 가구		
	공무원	일반사무원	일반기능및노무자	자유노무자	상인	관리및경영자	기타
소 득	100.0	100.0	100.0	100.0			
근로소득	75.1	79.4	81.2	82.2
기타소득	24.9	20.6	18.8	17.8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	100.0	100.0
음식물비	37.9	39.1	44.3	47.6	44.6	39.0	41.1
주 거 비	17.7	16.9	15.7	13.6	14.8	14.8	17.3
광 열 비	4.5	4.6	5.1	5.8	5.1	4.3	5.6
피 복 비	8.6	8.4	9.0	8.5	9.4	10.6	8.7
잡 비	31.3	31.0	25.9	24.6	26.3	31.4	27.4

註: 10년간 평균치임.

資料: 〈表 10-20〉과 같음.

20) 경상북도, 《도시가계연보》, 1980, p. 23.

2) 消費構造

가구주의 직업에 따른 消費支出額을 보면 소득수준에서와 같이 교육공무원 가구가 제일 높은 지출을 하였고, 다음이 일반사무원 가구, 일반공무원 가구, 일반기능 및 상용노무자 가구, 자유노무자 가구로 나타났다.²¹⁾

消費性向面에서 보면 일반공무원 가구가 74.9%로 가장 낮고 자유노무자 가구는 92.9%로 높게 나타나서 저소득층일수록 消費性向이 높게 나타났다. 消費支出 구성을 <表 10-22>에서 보면 소비자지출 중 음식물비의 구성인 엔겔계수는 공무원 가구가 37.7%로 가장 낮고, 자유노무자 가구가 47.6%로 가장 높아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엔겔계수가 낮게 되어 엔겔법칙을 입증하였다.

住居費는 공무원 가구가 17.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유노무자 가구가 13.6%로 가장 낮았다. 光熱費는 관리경영자 가구가 4.3%로 가장 낮고, 자유노무자 가구가 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직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被服費는 관리경영자 가구가 10.6%로 구성비가 높고, 일반사무원 가구의 구성비가 8.4%로 낮은 편이나 큰 변화가 없었다.

雜費의 비중은 관리경영자 가구가 31.4%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일반공무원 가구, 일반사무직 가구, 자유노무자 가구가 24.6%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따라서 雜費의 지출은 사무직과 생산직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職種間의 생활수준에 심한 격차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要約하면 1970년대 가구주의 職業別 所得과 消費支出을 보면 대체로 공무원과 사무직 가구가 소득수준이 높았고, 消費支出額도 많았으며 消費性向이 낮았다. 반면에 生産職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수준과 消費水準이 낮아 消費性向이 높았다. 消費支出 구성면에서 공무원과 사무직 종사자들은 엔겔계수가 낮고, 잡비의 구성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했던데 비해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가구는 엔겔계수가 높고, 잡비의 구성비가 낮아 빈곤한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家口形態別 消費構造의 分析

대구시의 가계조사 대상가구를 가구주의 所得形態에 따라서 勤勞者 家口와 勤勞者外 家口로

21) 198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각 家口別 消費支出額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 35만 9,980원, 일반사무원 27만 160원, 일반공무원 23만 9,140원, 일반기능 및 상용노무자 18만 2,310원, 자유노무자 14만 4,530원으로 나타났다. (慶尙北道, 《都市家計年報》, 1980, p. 23).

구분하고, 勤勞者 가구를 다시 俸給生活者 가구와 勞務者 가구로 구분하여 생활수준을 비교하기로 한다. 이같은 비교에서 소득과 消費의 내용을 비교하면 바람직하나 勤勞者外 가구의 소득에 대한 조사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주로 消費生活의 規模에 대해서만 비교하였다. 가구당 平均消費支出이 가장 큰 가구는 1974년을 기준으로 할 때 俸給生活者 가구로서 6만 1,806원이며 勤勞者外 가구가 5만 3,059원, 노무자 가구가 3만 8,461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俸給生活者 가구의 消費支出 규모를 100으로 할 때 勤勞者外 가구가 85.9이며, 노무자 가구는 62.2로 나타나 노무자 가구가 俸給生活者 家口의 절반수준을 조금 넘는 消費水準을 보였다.

다음으로 消費支出 구성에 대해서 <表 10-23>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消費支出 중 飲食物費에 대한 지출구성은 俸給生活者 가구가 가장 적은 40.9%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이 勤勞者外 가구로 42.7%이며, 勞務者 가구가 4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engel계수가 낮아진다는 원칙도 이 경우에 적용되었다. 飲食物費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주식과 부식, 과자 과일 음료, 외식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노무자 가구가 주식(곡물)의 구성비가 54.1%로 상당히 높았다. 다음이 勤勞者外 가구로서 47.1%, 봉급자 가구가 44.5%로 가장 낮다. 그리고 부식과 과자·음료·과실, 외식의 비중은 봉급자 가구가 가장 높고, 勤勞者外 가구, 노무자 가구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俸給生活者 가구의 食生活 수준이他家口에 비해서 보다 나은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住居費에 대한 구성비는 봉급자 가구가 消費支出總額의 16.8%, 勤勞者 가구가 15.6%, 노무자 가구가 14.2%를 지출하여 금액상으로는 지출비율로나 俸給生活者 가구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光熱費는 봉급자 가구가 금액상으로는 가장 많이 지출을 하였고, 다음이 勤勞者外 가구이며 노무자 가구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지출구성비에서는 勤勞者外 가구가 4.9%, 勞務者 가구가 4.8%, 봉급자 가구가 4.6%로 나타났다. 被服費의 구성은 勤勞者外 가구가 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무자 가구가 9.3%, 봉급자 가구가 가장 낮은 6.3%를 나타냈다. 그러나 雜費의 구성은 봉급자 가구가 27.9%로 제일 높고, 다음이 勤勞者外 가구 27.5%이며, 제일 낮은 비중을 나타낸 가구는 노무자 가구로 24.7%를 나타냈다.

이상의 가구형태별 消費支出構造를 살펴 본 결과, 봉급자 가구가 가장 나은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다음이 勤勞者外 가구로서 이 두 가구는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노무자 가구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소득층의 지출경향인 생활필수적인 비목에 많은 지출비중을 보였다.

〈表 10-23〉 大邱市 全家口當 消費支出 構成 (단위: %)

구 분	전 가 구	근 로 자 가 구			근 로 자 외 가 구
		소 계	봉 급 자	노 무 자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음식물비	43.2	43.9	40.9	47.1	42.7
주 거 비	5.6	15.5	16.8	14.2	15.6
광 열 비	4.8	4.9	4.6	4.8	4.9
피 복 비	9.2	8.9	6.3	9.3	9.4
잡 비	27.3	27.1	27.7	24.7	27.5

註: 1971년~1980년까지 평균치임.

資料: 〈表 10-20〉과 같음.

〈表 10-24〉 大邱市 家口形態別 飲·食物費 構成 (단위: %)

구 분	전 가 구	봉 급 자	노 무 자	근로자와의 가구
음 식 물 비	100.0	100.0	100.0	100.0
주 식 비	48.4	44.5	54.6	47.1
부 식 비	36.2	38.1	32.1	37.4
과 자 · 과 실 · 음 료	11.3	12.4	9.8	12.0
외 식	4.1	5.0	3.5	3.5

註: 1971~1980년까지 평균치임.

資料: 〈表 10-20〉과 같음.

V. 1980年 以後의 消費生活

1980년대 우리나라의 經濟狀況은 대체로 중반기까지는 안정화되었으나, 後半期에는 過消費의 풍조에 따라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이 시기에 대한 所得과 消費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는 1981년 7월 1일자로 直轄市로 승격되었다.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대구시에 대한 家計調査를 하지 않아서 消費生活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資料는 없다. 그 대신 經濟企劃院에서 전국 都市家計調査를 하고 있다. 따라서 1980년대 대구시의 消費生活은 전국 勤勞者家計의 조사내용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밖에 없다. 全國과 大邱直轄市와의 消費支出에 관한 수치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 구성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여 대구시의 消費構造를 추측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所得의 推移

1980년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平均所得은 1981년 28만 953원에서 1992년에는 135만 6,100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명목상으로 볼 때 1981년 가구당 平均所得을 100으로 할 때 1992년에는 482.7로 약 4.8배 증가한 것이다. 勤勞者의 소득증가율이 1987년 이후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이는 1987년 6.29선언 이후 勞動運動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勞使協義에 의한 임금인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은 가구주의 주소득과 가구원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소득은 사업 및 부업,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자의 총소득은 <表 10-25>에서 보면 勤勞所得이 평균 87.1%, 其他 所得이 12.9%를 차지하였다. 또한 總所得에서 家計支出을 제외한 黑字率은 1981년에 21.1%에서 1992년에는 27.9%로 6.8%포인트로 증가해서 근로자가계의 생활이 다소 윤택해졌음을 알 수 있다.

<表 10-25> 勤勞者 家口의 所得과 消費支出 推移 (단위: 천원, %)

연도	소득액			가계지출			흑자율
		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1981	281.0	88.6	11.4	224.0	95.3	4.7	21.1
1982	317.1	89.7	10.3	255.4	93.6	6.4	20.5
1983	364.0	89.0	11.0	285.5	92.6	7.4	22.9
1984	402.3	88.9	11.1	312.4	92.3	7.7	23.8
1985	431.2	87.8	12.2	336.2	92.1	7.9	23.5
1986	481.0	87.1	12.9	369.4	91.8	8.2	24.8
1987	561.7	85.9	14.1	425.2	91.3	8.7	26.0
1988	657.2	86.2	13.8	503.0	90.2	9.8	25.4
1989	805.0	86.3	13.7	631.3	89.0	11.0	23.6
1990	943.3	85.8	14.2	723.0	89.9	10.1	25.3
1991	1,158.6	85.1	14.9	859.0	90.7	9.3	27.8
1992	1,356.1	85.3	14.7	1,007.7	89.6	10.4	27.9

資料: 經濟企劃院, 《도시가계연보》, 1981~1992.

2. 1980年代의 消費生活

1980년대의 소비패턴은 과거와는 크게 다른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음식물 소비수준이 고도화되었고, 旅行이나 健康, 教育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과거의 貧富隔差에 따른 소비수준의 차이에서, 1980년대 후반기에는 서양문물의 급속한 도입과 經濟成長에 따라서 연령별 차별화가 발생하였다. 大衆媒體의 영향력에 의해서 廣告宣傳에 의한 소비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서구문화의 일반적 수용으로 해외 有名商標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1) 消費生活의 概況

1980년대의 消費生活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消費支出 수준을 보면 <表 10-27>과 같다. 1982년에 23만 9,100원에서 1992년에는 90만 2,500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1992년에는 377.5로 나타난다. 가계지출구성은 消費支出과 非消費支出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消費支出은 음식물비, 주거비, 광열비 등으로 분류되고, 非消費支出은 조세, 사회보장부담금, 이자, 기타 非消費支出 등으로 구분된다. 연도별로 이들의 構成比推移를 <表 10-25>에서 보면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지출비중이 줄어들고, 사회보장비, 조세 등 非消費支出에 대한 구성비가 커졌다.

1981년 이후 가처분소득에 대한 消費支出比率인 平均消費性向을 <表 10-26>에서 보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平均消費性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88년에서 1989년까지는 사회전반에 과급된 과소비 풍조의 영향으로 限界消費性向이 78.3%, 85.9%로 높아짐에 따라 平均消費性向도 74.2%, 76.4%로 높아졌다. 그러나 1992년에는 다시 限界消費性向이 71.6%로 낮아짐에 따라 平均消費性向도 72.1%로 안정되었다.

<表 10-26> 勤勞者 家口의 消費性向 推移 勤勞者 家口의 消費性向 推移 (단위: %)

구 분	1981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평균소비성향	78.9	75.8	76.1	74.8	73.6	74.2	76.4	74.7	72.2	72.1
한계소비성향	85.2	66.1	79.9	63.8	66.0	78.3	85.9	65.5	62.0	71.6

資料: 統計廳, 《都市家計年報》, 1992.

2) 費目別 消費支出의 特徵

일반적으로 볼 때 1980년 消費支出은 지속적인 物價安定과 所得増大의 영향으로 기본적 지출이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류에 대한 지출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각종 사회제도의 발전에 따라 家具·家事用品費,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각종 회비와 교제비를 포함하는 雜費의 지출비중은 높은 증가를 보였다. 이들 費目別 지출의 특징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飲·食物費는 1980년대의 근로자 가계의 총소비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 구성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매년 저하하였다. 따라서 엔겔계수도 낮아져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 <表 10-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엔겔계수인 음식물비의 비중은 1982년에 40.7%이던 것이 1992년에는 30.4%로 10.3%포인트나 크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그 구성비가 낮아진 만큼 食生活의 형태에 큰 변화가 있었다.

<表 10-27> 勤勞者 家口의 月平均 消費支出 構成 (단위: 백원, %)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소 비 지 출 액	2,391	2,645	2,884	3,096	3,390	3,883	4,539	5,618	6,500	7,796	9,025
음 식 물 비	40.7	38.8	37.6	36.8	35.6	34.8	34.1	32.4	32.5	31.8	30.4
주 거 비	4.3	4.5	4.7	4.6	4.6	4.3	4.2	4.2	4.6	4.4	4.2
광 열 수 도 비	7.7	7.3	7.2	7.3	6.7	6.2	5.4	4.6	4.5	4.1	4.1
가 구 가 사 용 품	4.3	4.7	4.8	4.8	5.1	5.3	5.5	5.9	5.8	5.8	5.5
피 복 신 발 비	8.1	8.3	7.8	7.6	7.6	7.8	8.2	8.6	8.4	8.1	8.0
보 건 의 료 비	7.3	7.5	7.6	7.7	7.7	7.5	7.5	5.5	5.3	5.4	5.5
교 육 교 양 오 략	9.6	9.9	10.0	10.0	10.7	10.7	10.7	12.0	11.9	12.4	13.3
교 통 통 신 비	6.5	6.3	6.3	6.4	6.3	6.6	7.2	8.2	8.4	8.8	9.2
기 타 소 비 지출	11.5	12.7	14.0	14.8	15.7	16.8	17.3	18.6	18.6	19.1	20.0

資料: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82~1989.

統計廳, 《都市家計年報》, 1990~1992.

<表 10-28> 勤勞者 家計의 飲食物費 推移 (단위: 원, %)

연 도	음식물비	주식비	부식비	기호식품	외식 및 기타
1981	90,239	34.8	45.6	13.0	6.6
1982	97,252	34.5	42.9	15.6	7.0
1983	102,533	32.1	44.3	16.1	7.5
1984	108,553	29.4	46.1	16.4	8.1
1985	113,927	28.4	46.9	16.2	8.5
1986	126,658	27.8	46.1	17.0	9.1
1987	141,216	25.7	44.9	17.1	12.3
1988	162,827	23.8	44.6	17.6	14.0
1989	189,532	20.4	41.8	18.2	19.6
1990	219,539	19.1	42.8	17.5	20.6
1991	256,900	16.9	43.2	18.4	21.5
1992	283,000	14.9	42.8	18.7	23.6

資料: <表 10-27>과 같음.

飲·食物費의 구성을 주식과 부식, 기호식품 등으로 세분해서 보면 <表 10-28>과 같다. 1981년 음식물비 전체를 100으로 할 때 主食費는 34.8%이던 것이, 1992년에는 14.9%로 19.9%포인트나 크게 감소하였다. 부식비의 구성은 45.6%에서 42.8%로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기호식품이 13.0%에서 18.7%로 5.7% 상승하였고, 外食 및 其他 飲食費는 6.6%에서 23.6%로 크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飲食物費의 구성은 주식과 부식 비율이 점점 감소한 반면 外食과 기호식품의 비중이 증가하여 소비수준의 질적인 향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表 10-28>에서와 같이 1980년대 총소비지출 중에서 住居費가 차지하는 비중은 4.2%에서 4.7%로 일정한 수준을 보였다. 이것은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전체 消費支出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광열수도비는 <表 10-27>에서와 같이 7.7%에서 4.1%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매년 저하하였다. 이것은 原油價格의 안정에 따른 전기요금, 연탄, 등유 등의 가격안정으로 消費支出金額이 다른 비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구·가사용품의 구성비는 4.3에서 5.9%까지이며,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증가하다가 과소비가 가장 심하게 나타났던 1989년에 최고수준을 이루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989년에는 家電製品의 자동화와 대형화에 따른 가정용 기구와 주방용품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피복신발에 대한 지출구성비는 7.6%에서 8.6%이며, 소득수준에 따라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保健醫療費 지출구성비는 7.7%에서 5.3%이며,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教育·教養·娛樂에 대한 지출구성비는 9.6%에서 13.3%이며,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것은 所得水準이 증가함에 따라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각종 學院에 대한 보충교육비의 지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娛樂費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交通·通信費는 6.3%에서 9.2%로 높아졌으며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자가용·승용차 購入 및 維持費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其他 消費支出에 대한 費目은 각종 회비, 교제비, 부조, 경조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의 지출구성은 11.5%에서 20.0%수준이다.

이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각종 교제를 위한 雜費와 慶弔費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VI. 課題와 展望

이상에서 대구지역의 消費動向 推移를 해방 이후 혼란기,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서 1992년까지의 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大邱市の 消費實態에 관한 자료는 해방 이후에서 1960년대까지는 부분적인 자료만 있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1970년대의 자료는 비교적 일관성있게 정비되어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러나 1980년 이후에는 대구지역의 소비동향에 관한 자료는 없어서 全都市 平均資料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설명하였다.

해방후 혼란기의 대구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은 1보다 큰 비정상적인 가계수지를 나타냈다. 즉 1955년에서 1958년까지 實收入과 消費支出關係를 나타내는 平均消費性向은 약 1.23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차대전 후 패전국인 저개발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1960년대의 대구시민의 消費生活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음식물비의 지출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雜費나 住居費의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1960년대에는 봉급자 가구의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았고, 노무자 가구가 가장 열악한 소비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70년대 대구지역 가구주의 직업별 消費支出을 보면, 대체로 공무원과 사무직 가구가 소득수준이 높았고 소비성향이 낮았다. 반면에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이 낮아 소비성향이 높았다. 消費支出 구성면에서는 공무원과 사무직 종사자들은 엔겔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잡비의 구성비가 높았다. 반면에 생산직 근로자 가구는 엔겔계수가 높았고 잡비의 구성비가 낮았다. 1980년대의 대구시의 소비생활은 전도시 평균 근로자가계의 조사내용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밖에 없다. 1980년대의 소비패턴은 과거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즉, 소비구조면에서 기본적 생계비인 飲食物費나 住居費, 被服費에 대한 비율이 감소하고, 文化費에 대한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생활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구시 가구에 대한 소비수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에 관한 정확한 統計資料의 작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대구시 家計消費支出에 관한 자료의 미비로 정확한 消費水準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統計廳이나 유관기관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地域別 가계소비조사를 전도시평균이나 서울지역만 발표하지 말고, 전국의 주요도시나 道別로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초자료의 정비없이 균형있는 地域發展은 더욱 더 힘들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자료의 작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된다.

消費生活의 변천과정을 보면 해방 후에서 60년대까지는 궁핍한 생활에서 의식주해결에 몰두한 나머지 계획에 따른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단지 최소한의 생활유지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197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과정을 겪으면서 증가한 소득수준으로 소비면에서 계획성을 가지고 종래의 임기응변적인 양적인 소비형태에서 질적인 면을 고려한 소비형태로 발전해 왔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輸入自由化率이 높아짐에 따라서 외국상품이 國內市場을 잠식해가자 外國商品消費가 크게 증가해 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와서는 過消費 현상이 나타났고, 여러가지 信用 카드의 보급으로 소비면에서 또 다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각종 通信販賣制度, 각종 편의점의 등장 등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소비의 전문화 현상이 크게 대두될 것 같다. 또한 종래의 소득계층별 소비수준의 차이에서 탈피하여 연령별 소비수준의 차이로 이행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구지역은 소비성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은데, 地方自治團體에서는 향후에는 건전한 서비스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시민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業務團地를 조성하여 中樞管理機能을 제고시키고, 情報 通信産業이나 金融 保險産業 및 유통서비스 산업 등을 質的 高度化하여 實物經濟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第 11 章 企業, 企業人 및 企業經營

第 1 節 總 括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계, 기업 및 정부는 經濟의 主體이다. 이중 家計는 주로 소비를 담당하며, 政府는 다른 두 주체들의 경제활동을 결정짓는 지침을 설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주로 담당한다. 이들 가계 및 정부와는 달리 企業은 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창출하는 주체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나 지역의 經濟는 이들 세 경제주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생산주체인 企業과 그 企業의 經營者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제상황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는 지역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企業과 企業人에 대한 이해가 필수불가결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大邱地域의 경제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던 기업과 기업인의 足跡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구지역의 모든 企業과 企業人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資料의 限界性和 지면의 제한 때문에 지면제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입수가 가능한 企業과 企業人에 주로 전개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本章의 집필을 위해 필자는 《大邱府史》, 《大邱市史》, 각종 신문, 각종 연감과 통계연보, 《大邱纖維產業史》, 《大邱經濟年鑑》, 《大邱商議八十年史》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社史 등도 참조하였다. 나아가, 대구지역의 주요 企業들에 대해서는 직접 우편이나 전화 요청 등을 통해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企業人들이나 관계 전문가들과의 면접 등을 통해서도 자료를 보완하였다.

本章의 구성은 주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사건을 중심으로 한 시대구분에 따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방까지(~1945),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의 격동기(1945~1953), 전후 재건기(1954~1961), 경제개발 초기(1962~1971), 수출주도 성장기(1972~1980), 그리고 직할시 승격 이후(1981~1991)의 6단계로 나누어 전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企業經營도 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구분을 바탕으로 各節은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각 시대의 經營環境에 관한 논의이다. 企業經營은 그 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의 한 결과이므로 특정기업이나 기업인을 논하기에 앞서 그 당시의 環境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분은 企業에 관한 논의이다. 이 부분에서는 각 시대의 기업들에 관한 전반적, 포괄적인 모습과 주요 기업들의 동향을 살피고자 한다. 셋째 부분은 企業人에 관한 논의이다. 이 부분에서는 각 시대를 주도하였던 주요 企業人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부분의 논의를 위해서는 이미 출간된 기존자료를 참고한 뒤,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대구지역 주요 기업체에 직접 자료요청을 위한 書信을 띄웠으며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面談도 병행하였다. 그러나 자료를 제공한 기업체는 극히 소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를 위한 기업인의 선택은 주로 그 기업이 속한 기업의 地域經濟나 業界에서의 重要性和 資料의 入手可能性에 의존하였다. 그리하여 논의의 포괄성과 객관성은 제약받게 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마지막 부분은 각 시대의 개략적이고 전반적인 企業經營上의 特徵에 관한 논의이다. 이 부분에서는 앞 부분에서 개별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숲속의 나무를 고찰한 데 따른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숲 자체를 살펴보고 그 特徵的 現象과 면모를 요약하고자 한다. 마지막 節에서는 상기 각 節의 내용을 종합·요약한 뒤, 향후 관심을 두어야 할 연구상, 經營上 問題點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앞으로의 전망도 간략히 관측해 보고자 한다.

第2節 解放까지의 大邱 企業, 企業人 및 企業經營

I. 企業經營環境

해방 이전까지의 企業經營環境은 環境의 특성상 舊韓末의 環境과 日帝占領下의 環境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大邱商工會議所七十年史》와 《大邱商議八十年史》, 《大邱經濟總鑑》 등에 따르면, 舊韓末 지역 기업을 둘러싼 대구의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 환경은 대구의 大都化, 경제도시로의 발전, 開港에 따른 변화, 그리고 京釜鐵道 개통에 따른 대구의 개방으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朝鮮朝 50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는 토지국유제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제 아래에서 봉건적 농업경제 성격을 띠고 있었다.¹⁾ 工業은 농촌의 가내부업으로서 자급자족을 주목적으로 하는 手工業 수준에 머물렀다. 조선조 시대의 수공업은 봉건사회의 권력기구인

1) 대구상공회의소, 《大邱經濟年鑑》, 1985, p. 29.

官署가 중심이 되었으며, 특히 최고 권력기구인 조정 및 中央官署에 의존하였다. 그리하여, 일반대중의 工業의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私營手工業은 수적인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 비교가 안될 만큼 낙후되었다.

그러나, 16세기 말 壬辰倭亂을 겪고 부터는 官營手工業이 점차 쇠퇴하는 반면, 私營手工業이 성장하게 되었다. 官營手工業이 붕괴된 이유는 다음의 네가지이다. 첫째, 관영수공업에 대한 국가의 대우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둘째, 지배계층의 횡포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셋째, 工匠들의 기술이 퇴폐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貨幣 및 交換經濟가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대구는 大都會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經濟都市로 발달하였다. 大邱가 다른 지방에 비해 농업 외 산업이 비교적 빨리 발달되기 시작한 이유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이다. 즉, 大邱는 교통의 요충이자 군사 행정도시로서, 人口가 集中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 배후에 광대한 평야가 있어서 物貨의 생산과 집산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시장이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朝鮮朝 후기에는 大邱市場이 전국 大鄕市로 손꼽혔다.²⁾

《大邱府邑志》에 따르면, 당시 大邱의 場市는 西上面 달서천변에 있었던 邑場이 대표적이었는데, 이는 大邱에 大邱驛이 축성되자 西門 밖에 위치하게 되어 西門市場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때 場市의 상인들은 일정한 상설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날에만 모여 물건을 팔고는 철시하여 다음 장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場軍(장꾼)들이었다. 大邱는 특히 開港場인 釜山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巨邑인데다 落東江 舟運을 이용하여 오래동안 商業의 去來를 하여 왔기 때문에 일찌기 근대적 상업이 발달될 수 있었다.

한편, 조선시대의 工業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유치하고 원시적인 家內副業의 手工業 수준에 머물렀다. 그 당시 공업에 종사하였던 工匠人들은 良人이나 천민층에 속하였던 사람들로서, 순조 25년(1825)에 작성된 大邱府帳籍에 따르면 46종에 550명으로, 그 당시 大邱 총인구의 8~9%에 해당하였다.³⁾

구한말의 企業經營環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前近代的이었다. 이에 관해 일본인 사학자인 四方博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⁴⁾

2) 대구상공회의소, 《大邱商議八十年史》, 1986, p. 36.

3) 위의 책, p. 55.

4) 대구상공회의소, 《大邱商工會議所七十年史》, 1977, p. 81.

開港(1976년) 당시의 한국에는 자본의 축적이 없고 기업적 정신이 충만한 계급도 없었으며 대규모적인 生産을 감당할 기계도 기술도 없었다. 그리고 이들의 존재에 희망을 걸 사정도 필요케 할 조건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오직 米麥을 생산하는 농민과 여가노동에 가까운 手工業者 그리고 여가생산물 및 사치품의 교통자인 商人과, 그들 위에 서서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모든 잉여를 흡수하는 管吏兩班이 있다. 자본주의 성립조건과는 무릇 정반대되는 요소 뿐이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중지부를 찍게 한 것이 高宗 13년(1876) 2월 江華府 鍊武堂에서 修好條規에 조인함으로써 이루어진 釜山의 開港이었다. 1876년에 釜山을 개항시킨 일본은 대리공사 花房義質로 하여금 1879년과 1883년에 각각 원산과 인천을 개항시켰다.

釜山의 개항은 특히 大邱經濟를 크게 변혁시켰다. 왜냐하면, 釜山의 개항으로 낙동강의 舟運을 통해 일본상품이 大邱로 엄청나게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 상인들도 大邱로 진출하였는데, 大邱에 일본상인이 처음 진출한 것은 1893년 9월이었다.⁵⁾ 그들은 釜山에서 장사를 하던 漆付와 室이란 성을 가진 자들로서, 南門內(지금의 종로)에서 의약품 잡화상을 경영하였다.

전근대적 지방 행정도시였던 大邱가 일본인에 의해 완전 開放되었던 또 하나의 계기는 京釜鐵道의 부설이었다. 경부철도 공사는 1901년 8월 21일에 永登浦에서 기공식을 가졌고 한달 뒤에는 草梁-高館에 남부 기공식을 가졌다. 1904년 2월에 露日戰爭이 일어나 공사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됨에 따라 이 해 12월에 永登浦-草梁간 全線이 개통되었다.

首都 서울과 항구도시 釜山을 연결하는 경부철도의 부설은 내륙도시인 大邱의 都市化와 경제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다. 그리하여 大邱는 근대 商業都市로의 탈바꿈을 가속화하였다. 왜냐하면, 大邱가 경부철도 통과 驛 가운데 가장 큰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예견한 釜山의 일본인들이 대거 大邱로 진출하여 토지매입에 착수하는 동시에, 대구구간 공사가 끝나 철도공사 관계자들이 떠난 뒤에도 많은 일본인들이 大邱에 남아 상업활동을 하면서 상공업을 전파시켰기 때문이다.⁶⁾ 또한 1905년부터는 釜關 연락선을 이용하여 일본의 東海道 본선, 山陽線 및 九州線 등 철도와의 連帶運輸를 통해 일본인의 대구진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들이 근대적인 상공업을 전파하였기 때문이다.

대구 近代的 工業의 효시는 1906년에, 일본인 宮崎유끼가 大邱 新洞에 자본금 3,000圓으로

5) 대구상공회의소, 《大邱商議八十年史》, 1986, p. 65.

6) 대구상공회의소, 위의 책, pp. 69~70.

종업원 13명을 고용하여 설립한 기와공장이다.⁷⁾ 이렇게 시작된 大邱의 공업화는 일본 軍國主義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성쇠를 거듭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日帝 36년 동안 大邱의 工業化過程은 1910년에서 1928년에 이르는 대구공업의 發生期, 세계 대공황기의 沈滯期,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의 復興期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1910~1928년의 發生期는 일본자본의 진출에 의하여 농업부문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면서 近代의 工業이 이식된 시기로서, 그 당시는 消費財 일변도의 공업구조적 특성을 띠었다.⁸⁾ 大邱 근대공업의 이식은 朝鮮總督府에 의해 會社令이 발표된 1910년 전후에 武力的 배경을 지닌 일본인의 자본과 은행의 선도적인 역할에 의해 이식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일부 한국인의 토지자본이 工業資本으로 전환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⁹⁾

이렇게 시작된 大邱의 工業化와 함께 1920년대에는 회사령이 철폐되고 관세제도가 개정됨으로써 日本의 資本이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 일본은 1931년 滿洲事變과 1941년 대동아 전쟁을 치루면서 패망할 때까지 한국을 일본의 병참기지화 하였다. 그러므로 日帝末期의 대구공업은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었다.

이러한 공업화와 더불어 商業面에서도 철도망의 확장과 도로망의 정비 등에 힘입어 당시 大邱의 商權은 크게 뻗어났다. 그리하여 1917년경에는 종전의 釜山商圈에서 벗어나 大邱商圈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在來市場의 거래량도 크게 늘어났다. 西門市場의 경우 당시에 每市마다 약 10만여명이 모여 3만여원의 거래를 하곤 하였다.¹⁰⁾

商業의 발전과 더불어, 1905년에는 大邱에 최초로 銀行이 등장함으로써 은행금융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최초의 은행은 日本第一銀行으로서, 그해 부산지점이 대구에 出張所를 개설하였던 것이다. 1906년에는 大邱農工銀行이 설립되었고, 1912년에는 대구 최초의 민간 은행인 鮮南銀行이 설립되었다. 이에 자극을 받아, 1913년에는 鄭在學 중심의 지역인사들이 최초의 한국인 지방은행인 大邱銀行을 설립하였다.

요약하면, 1910년의 韓日合併으로 한국의 경제는 日本資本主義 경제기구의 한 구성부분으로 전락하였다. 그리하여 日帝 36년간 한국경제는 植民地從屬經濟로서의 변화과정을 걸어왔다.¹¹⁾ 대구도 植民政策과 戰爭遂行을 위한 거점역할을 담당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大邱의

7) 대구상공회의소, 앞의 책, p. 105.

8) 대구상공회의소, 《大邱經濟總鑑》, 1985, pp. 33~34.

9) 대구시, 《大邱市史》 제2권, 1973, p. 236.

10) 대구상공회의소, 《大邱商議八十年史》, 1986, p. 104.

11) 대구상공회의소, 《大邱經濟總鑑》, 1985, p. 29.

企業環境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II. 企 業

前述한 대로, 大邱에 근대공업이 이식된 시기는 朝鮮總督府에 의해 회사령이 발포된 1910년 전후이므로 大邱에서 기업다운 기업 역시 주로 이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주로 이 시기를 起點으로 대구기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大邱에 건설된 공장은 주로 수출산업의 加工部門이나 輸入商品의 비경쟁부문에 국한되어 있었다. 수출산업의 가공부문으로서는 精米業이, 수입상품과의 비경쟁부문으로서는 煙草製造業, 양조업 및 기와공장 등이 있었다. 이때 생겨난 연초공업은 三南地方을 주시장으로 하였는데, 지금도 大邱 공업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08년에 설립된 石井染物工場과 實業傳習所 機業工場 및 1912년에 설립된 大邱刑務所 附屬工場 등은 대구 직물공업의 효시이다.¹²⁾

한국인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직물공장은 1915년에 설립된 秋仁鎬의 東洋染織所이었다. 1910년의 大邱工場은 <表 11-1>과 같다. 이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당시 대구 지역의 기업은 일본인에 의해 주도되었다.

1910년대의 특기사항은 일본의 거대 製絲業體들이 대구에 진출하여 山十製絲(1918년), 片倉製絲(1919년) 및 朝鮮製絲(1919년)를 설립함으로써 대구를 전국적인 제사공업의 중심지이자 蠶業都市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일본 제사공장의 大邱 進出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인들이 대거 대구에 들어와 식품공업, 직물공업, 인쇄공업 및 鐵工業에도 진출하였다. 1910년대 大邱 生絲業體는 <表 11-2>에 요약된 바와 같다. 生絲業의 경우에도 일본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으나, 유일하게 李千同은 예외였다.

12) 위의 책, 1985, p. 34.

〈表 11-1〉 1910년 大邱의 企業

명 칭	위 치	창립년월	공장주명	자본금 (圓)	종 업 원 수	
					한국인	일본인
石井染物工場*	(香村洞) 村上平路町	1908年 5月	石井朱吉	100	1	2
下條鉄工所*	(太錦) 錦町	1907年 3月	下條榮太朗	2,000	5	2
南川鉄工場*	(七七) 星星洞	1909年 4月	南川重太朗	3,500	3	4
鉄工場*	(七七) 星星門路町	1907年 3月	崔斗星	1,800	20	—
安松製所*	(西本) 公平洞	1907年 5月	安松勘太朗	6,500	1	1
片木屋酒造場*	(公南) 龍岡町	1909年 11月	片木海吉	2,500	3	9
禹文日釀造場*	(仁堅) 橋洞	1902年 3月	禹文日	1,000	1	—
山田醬油釀造場*	(東門) 東門洞	1909年 8月	山田菊太朗	50,000	2	1
寶城醬油釀造場*	(東仁) 東仁雲門路町	1909年 5月	寶城齊	30,000	4	1
井上菓子店*	(西本) 公平洞	1909年 3月	井上萬之助	1,000	2	1
田中豆腐工場*	(七七) 星星平路町	1906年 11月	田中龜一郎	17,000	8	7
精米工場*	(太錦) 東門洞	1907年 3月	田中善次朗	3,000	1	1
若松商會精米部	(東門) 東門洞	1908年 12月	若林誠助	10,000	12	1
大野精米工場	(太錦) 公平路町	1910年 4月	大野峯太朗	5,000	2	1
前園煙草製造工場	(東城) 東城平路町	1908年 10月	前園甚五衛門	60,000	350	20
大石煙草製造工場	(太錦) 公平路町	1910年 3月	大石勘吉	20,000	325	3
기와工場	(大邱) 新面新洞	1906年 3月	宮崎유끼	3,000	5	8
기와工場	(大邱) ()	1906年 5月	川谷德太朗	1,500	3	7

명 칭	위 치	창립년월	공장주명	자본금 (圓)	종 업 원 수	
					한국인	일본인
기 와 工 場	(新 川 洞) 大邱面新川町	1910年 3月	金 潤 聲	3,000	34	7
기 와 工 場	(〳) 〳	1910年 4月	徐 炳 桎	800	7	1
기 와 工 場	(〳) 〳	1910年 5月	鄭 鎭 一	2,400	8	2
기 와 工 場	(〳) 〳	1910年 6月	李 章 洛	3,000	3	8
土 器 製 造 工 場	(大 新 洞) 大邱面新洞	1906年 4月	木 下 三 朗	1,00	2	4
煉 瓦 工 場	(新 岩 洞) 大邱面新岩洞	1908年 7月	杉 原 新 吉	4,000	3	3
實 業 傳 習 所 機 業 工 場	(桂 山 洞) 明 治 町	1908年 3月	古 莊 幹 實	3,400	22	5

註：* 표는 1930年版《慶北統計年報》에 나와 있는 會社임. 나머지는 《大邱府史》(1943年)에 나와있는 會社임.
資料：大邱市, 《大邱市史》第2卷, pp. 237~238.

〈表 11-2〉 1910년대 大邱의 生絲業體

設立 年月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종업원
1911. 4	原蠶種製造所	官 署	대구·수성동	
1914. 4	農事試驗場	〳	달성·성서	
1915. 8	李千同製絲所	李 千 同	대구동인동	
1917. 6	(中)製絲所	中 島 茂 市	大邱辛町	
1918. 2	山十製絲株式會社 大邱製絲所	信 澤 柴 樓	〳 東雲町	14
1919. 4	片倉製絲紡績株式會社 大邱製絲所	武 居 孝 次 朗	〳 大鳳町	945
1919. 5	朝鮮生絲株式會社 大邱製絲所2	石 澤 助 太 朗	〳 東雲町	401
1919. 5	蠶業取採所	官 署	〳 三德洞	

資料：《大邱市史》, 第2卷 및 《朝鮮統計年報》, 昭和 15年에서 작성
大邱商工會議所, 《大邱商議》1985年 2月號, p. 55에서 再引用

그리하여 1910년까지 대구에는 20여개의 新工場이 들어섰으나 1911년에서 1919년 사이에 규모가 더욱 커지고 근대화한 공장수가 늘어났다. 《大邱府史》에 따르면, 1911년 말 大邱의 工場數가 15개소(자본금 12만 3,600원)이었던 것이 1921년 말에는 26개소(418만 5,000원)로 크게 늘어났다. 이 시기에는 특히 경북 일원의 蠶業을 배경으로 일어난 제사공업이 단연 전국

제일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대구 織物工業의 기틀을 잡는 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¹³⁾

1920년 말 현재 大邱의 産業은 <表 11-3>과 같다. 이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20년대가 되면서 대구의 기업은 株式會社와 合資會社 등의 근대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業種도 상당히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表 11-3> 1920年末 大邱의 企業 (단위: 원)

會社名	形態	資本金	創立	備考
大興電氣株式會社	株式	500,000	1918. 8	火力發電
大邱起業(株)	〃	200,000	1916.12	土地建物매매
鮮南殖産(株)	〃	10,000	1909. 3	
丸三合資會社	合資	10,000	1910. 7	
馬場吳服店	〃	10,000	1914. 5	
寺田釀造	〃	15,000	1914.12	清酒
金谷商社	合名	30,000	1917. 5	
大東社	株式	80,000	1920. 2	
大秦商店	合資	2,000	1918.12	
朝鮮物産商會	株式	100,000	1919. 4	穀物위탁판매
大邱印刷(合)	合資	20,000	1911. 3	
大邱酒造(株)	株式	350,000	1919.10	
大慶北煙草(合)	合資	50,000	1919.11	煙草판매
大邱製造(合)	〃	50,000	1907. 4	製造業
杉原商店	〃	80,000	1918. 3	木材·肥料판매
朝鮮陶器(株)	株式	30,000	1918. 4	製造業
東亞磷寸(株)	〃	200,000	1919. 8	製造業
大邱魚菜(株)	〃	60,000	1914.12	市場
朝鮮中央鐵道(株)	〃	12,000,000	1916. 4	
大邱蠶業(合)	合資	10,000	1918.12	
集紅舍	〃	7,000	1919.	
大邱精米(株)	株式	1,000,000	1920. 4	加工業
長光商店	〃		1920.10	
前田商店	合資		1920.10	
東洋杞柳(株)	株式	2,500,000	1920. 8	製造業
大邱企業(株)	〃	200,000	1920.11	
大邱穀物信託	〃		*	金融
日之出製菓	〃			

13) 대구상공회의소, 《大邱商議八十年史》, 1986, p. 109.

會社名	形態	資本金	創立	備考
大東貿易公社	〃			
大邱煙草元賣捌會社	〃			
伊藤吳服店	〃			
大正商會	〃			
大邱木材會社	〃			
松村商店	合資			
大邱物產貿易社	〃			
大平薪炭會社	〃			
壽商社	〃			
平野商店	〃			
梅根商店	〃			
河村商店	〃			
松本商店	〃			
南鮮飲料社	〃			
平埜支店	〃			
東興商會	合名			

資料：《慶北産業誌》1920, 《現朝鮮之研究》1922.

1929년의 세계 大恐慌으로 대구의 공장도 沈滯期를 맞았다가, 1937년에는 日帝의 전쟁 수행을 위한 特需로 인해 공장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表 11-4〉와 같이 직물공장, 식료품 공장, 제사공장 및 鐵工場이 현저하게 늘어났다. 日帝末期에 올수록 生絲, 직물, 內衣製造 등의 직물공업의 비중이 높아져 대구가 직물공업 特化都市로서의 성격을 더욱 드러내기 시작하였다.¹⁴⁾

大邱工業의 대중을 이루었던 製絲工業의 설립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10~1919년 사이에 5개이던 것이 1920~1930년 동안에 24개, 1931~1940년 동안에 17개 업체로 늘어났다. 이중 1930년대 설립된 17개 업체중 韓國資本으로 설립된 공장은 4개로 전체의 5%에 불과하였다. 〈表 11-5〉는 1920~1930년대의 製絲業體의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¹⁵⁾

14) 대구상공회의소, 《大邱經濟總鑑》, 1985, pp. 37~38.

15) 섬유기술진흥원, 《大邱纖維産業史》, 1990, p. 133.

〈表 11-4〉 日帝末期 大邱의 企業

業種別	種別	工場數(개)			從業員數(명)			生産額(千圓)		
		1939	1940	1941	1939	1940	1941	1939	1940	1941
生糸工業		40	37	7	2,842	2,666	1,798	5,890	7,762	7,073
織物工業		30	53	68	513	703	1,336	1,250	4,851	4,542
鐵工業		43	41	68	1,222	1,290	1,307	1,912	2,124	2,771
精米業		33	13	61	531	285	399	9,561	3,166	7,471
內衣製造業		20	17	16	244	441	245	426	509	381
食料品工業		18	1	135	478	266	939	1,565	230	6,701
窯業		12	8	27	192	146	322	70	135	476
印刷製本業		11	10	18	294	385	204	1,257	968	537
製材 및 木製 品工業		5	6	120	56	68	597	140	109	1,762
고무製品工業		3	3	8	90	99	414	182	192	921
化學工業		3	—	27	33	—	165	87	—	689
自動車製造業		1	—	—	27	—	—	52	—	—
其他工業		35	66	372	569	1,733	2,468	2,536	5,402	5,396
合計		254	255	927	7,091	8,082	10,194	24,927	25,448	38,719

資料：大邱府, 《大邱府史》府政篇, 1943. p. 160.

〈表 11-5〉 1920~30年代 大邱의 製絲業體

設立 年月	業 體 名				代 表 者	住 所(現)	從業員
1920. 6	金	一	製	絲 所	李 長 達	大邱 南山洞	—
1920. 7		製	絲 所	望 月 桂	〃 太平路	14	
1923. 7	金	南 洙	製 絲 所	金 南 洙	〃 東仁洞	—	
1924. 6	金	澤	製 絲 工 業	金 澤 健 雄	〃 德山洞	20	
1925. 5	金	八	製 絲 所	金 善 業	〃 新岩洞	—	
1925. 7	岩	井	製 絲 所	岩 井 定 次 郎	〃 太平路	17	
1925.	朝 鮮	蠶 絲 株 式 會 社		—	〃 太平路	—	
1926. 3	東	洋	製 絲 所	秋 信 鎬	〃 桂山洞	—	
1926. 6	小 野 田	製 絲 工 場	小 野 田 清 作	〃 七星洞	35		
1926. 6	山 田	製 絲 工 場	山 田 穆 助	〃 三德洞	8		
1926. 10	新 川	製 絲 所	李 起 桂	〃 七星洞	47		
1927. 4	中 川	製 絲 工 場	中 川 富 次 郎	永川 內 外	5		
1927. 4	柳	製 絲 工 場	柳 萬 藏	〃 琴 湖	9		
1927. 9	李 之 世	製 絲 所	李 之 世	大邱 大新洞	—		
1927. 9	山 小	製 絲 所	小 木 曾 保 造	〃 七星洞	—		

設立 年月	業 體 名	代 表 者	住 所(現)	從業員
1928. 3	日 共 製 絲 所	池 汪 源	大邱 七星洞	—
1928. 4	尔 製 絲 所	小 林 曾 保 造	〃 七星洞	11
1928. 6	尹 龍 漢 製 絲 所	尹 龍 漢	〃 德山洞	—
1928. 7	永 興 製 絲 所	張 永 薰	〃 太平路	—
1928. 10	朴 章 根 製 絲 工 場	朴 章 根	〃 東山洞	—
1929. 7	金 仁 碩 製 絲 工 場	金 仁 碩	〃 東山洞	—
1930. 4	李 用 朱 製 絲 所	李 用 朱	〃 七星洞	—
1930. 6	三 光 製 絲 工 場	李 起 柱	〃 七星洞	—
1930. 10	洪 璣 欽 製 絲 所	洪 璣 欽	〃 東仁洞	—

資料:《대구시사》제2권 및 《조선통계연보》1940.

設立 年月	業 體 名	代 表 者	住 所(現)
1931. 9	崔 金 相 製 絲 所	崔 金 相	대구 七星洞
1932. 4	洪 穆 製 絲 工 場	洪 穆	〃 達城洞
1932. 5	慶 一 製 絲 工 場	張 仁 得	〃 東仁洞
1932. 7	佐 佐 木 製 絲 所	佐 佐 木 彦 松	〃 七星洞
1932. 9	大 邱 製 絲 株 式 會 社	小 口 筆	〃 東仁洞
1932. 6	小 野 田 製 絲 合 資 會 社	小 野 田	〃 七星洞
1933. 3	金 日 權 製 絲 工 場	金 日 權	〃 七星洞
1933. 7	朴 方 九 製 絲 所	朴 方 九	〃 達城洞
1934. 4	李 正 石 製 絲 工 場	李 正 石	〃 東山洞
1934. 7	郭 永 福 絲 工 場	郭 永 福	〃 七星洞
1934. 5	橫 南 製 絲 工 場	李 南 松	〃 七星洞
1934. 9	金 星 社 製 絲 所	金 教 式	〃 仁橋洞
1935. 4	達 山 製 絲 所	朴 聖 業	〃 北内洞
1935. 9	三 興 製 絲 所	徐 聖 洙	〃 七星洞
1937. 7	丸 永 製 絲 所	金 永 洙	〃 飛山洞
1938.10	金 光 製 絲 工 場	任 仁 光	〃 院岱洞
1939. 7	張 志 激 製 絲 工 場	張 志 激	〃 仁橋洞

註: 大邱製絲(株)는 山十製絲(株)의 變更設立社임.

資料:《대구시사》제2권, 1973, 및 《조선통계연보》1940.

일제하의 大邱企業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表 11-6〉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1910년에 職工 5인 이상의 업체가 15개이었던 것이 1925년에는 207개로, 그리고 1941년에는 927개로 각각 13.8배와 61.8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종업원수와 생산액도 크게 늘어났다.

〈表 11-6〉 日帝下 大邱工業의 推移

年 度 別	工 場 數	從 業 員 數	生 產 額(千圓)
1910	15	926	—
1911	15	855	—
1919	26	2,700	5,700
1921	26	3,090	5,324
1924	170	5,254	19,446
1925	207	5,762	23,011
1926	224	4,875	22,305
1928 ¹⁾	104	5,967	22,617
1935 ¹⁾	140	4,158	12,547
1936 ¹⁾	173	3,788	8,228
1937 ¹⁾	146	4,327	6,310
1939	254	7,091	24,927
1940	255	8,082	25,448
1941	927	10,194	38,719

註：職工 5人 以上임.

資料：大邱府, 《大邱府史》, 1943, pp. 153~154, p. 160.

大邱府, 《大邱府勢一斑》, 1939, p. 66.

大邱市, 《大邱市史》第2卷, 1973, pp. 237~238, p. 243.

III. 主要 企業人

해방 이전까지 大邱經濟를 움직인 企業人들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주로 일본인들이었다. 그러나 소수의 한국인들은 벌써 이때부터 기업을 일구고 財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한국인들은 크게 세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開港과 더불어 시작된 상업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徐相燾, 鄭在學 및 朴基敦 등이 속한다. 둘째는 섬유업을 바탕으로 사업을 일구어 낸 사람들이다. 金聖在와 秋仁鎬가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을 창시한 사람들이다. 李秉喆, 金成坤 및 呂相源 등이 여기에 속한다.

本節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사업의 沿革과 經營哲學 등에 초점을 맞추어 해방까지의 주요 大邱 企業人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개항과 더불어 시작된 商業資本家로서 대구지역 경제를 이끌어 왔던 徐相燾, 鄭在學 및 朴基敦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徐相燾은 대구 큰장(西門市場)의 「장돌뱅이」로 입지의 꿈을 키워 大邱 최고의 부자로

성장하여 격동하는 韓末 대구경제를 이끌었던 巨木이었다.¹⁶⁾ 그는 1849년에 독실한 天主教 신자였던 徐哲淳의 맏아들로 태어나 1859년 哲宗 10년에 그의 처가인 대구로 이주하였다. 그의 가족이 처음 정착한 곳은 大邱城 남문 밖 뽕나무골 부근으로서, 속칭 앞박거리라는 상설시장을 끼고 있었으므로 그는 어릴 때부터 자연히 장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徐相燾은 처음 한 商家의 심부름꾼으로 고용되어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가 워낙 성실하고 정직하였으므로 곧 주인의 신임을 받았으며 악착스럽게 저축하였다. 그리하여 17, 8세 경에는 독립하여 장사를 할 수 있었다. 당시의 장사법에 따라 그도 등금장수로 이 장터 저 장터를 전전하며 면포, 소금, 건어물 및 일용잡품 등을 팔았다. 그의 장사를 위해서는 당시 巨商이자 천주교 지도자였던 장인 金鍾學이 크게 지원하였다. 장사가 번창하자 그는 落東江의 배편을 이용하여 소금, 쌀, 면포, 한지 등을 거래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 특히 경남 宜寧 지방에서 생산되는 韓紙는 그가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당시 落東江의 뱃길은 龜浦에서 출발하여 安東의 映湖津에 이르는 800리 길이였는데, 대구 상인들은 주로 高靈의 開浦나 花園의 沙門津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의 근거지도 開浦였는데, 그때 이미 그는 이 일대에서 인심 좋은 상인으로 소문이 자자하였다. 그의 사업이 날로 번창할 즈음, 韓日守護條約이 체결됨에 따라 부산이 개항되었다. 開港에 따라 일본 상인들이 서구의 사치품을 들고 釜山港을 들락거렸고, 이때 부산에서 虎列刺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때마침 호열자에는 소금이 名藥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리하여 소금장수들은 벼락경기를 맞게 되었고 대구 巨商들도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천주교 대구교회가 생겨 초대 주임신부로 金保綠(아실루트 로베로)이 부임하였다. 1891년 이 金신부에 대한 폭행사건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항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慶尚監領이 교체되었고, 이때부터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줄어들었다. 徐相燾은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를들면, 어려운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면, “이보게, 나는 천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일세. 돈을 번 것도 모두가 천주님의 뜻이었고, 이제 돈을 쓰는 것도 천주님의 뜻을 쫓아서 행해야 하네. 그러니 여보게, 자네 聖敎를 믿을텐가? 믿는다면 기꺼이 청을 들어 주겠네.”라고 할 정도였다. 천주교가 大邱에서 빛을 보면서 그의 사업은 한층 더 번창하여 각처의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청하였다. 그의 덕망이 주위에 알려지자 趙秉鎬 慶尚視察使는 그에게 視察官을 맡겼다. 시찰관

16) 徐相燾에 관한 논의는 大邱商議뉴스, 1979년 4월 15일부터 1980년 12월 30일까지 게재된 朴英圭의 “大邱財界先覺人들”을 축약한 것임.

때에도 그는 청렴결백하여 道民의 칭송을 받았다.

1918년 경 徐相燾의 재산은 이미 3만석을 넘었다. 그 이후 그는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師範學校를 설립하여 自強策을 강구하는 한편, 大邱民議所를 세워 理事廳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또한 1927년 國債報償運動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공포되자 그는 杜門不出하고 오로지 천주교 일에만 전념하였으며, 자신의 재산을 聖母堂, 桂山聖堂, 그리고 大建學校 등의 건립을 위해 쾌척하기도 하였다. 만년에 그는 식산은행의 전신인 大邱農工銀行을 창립하기도 하였다. 요약하면, 崔正福의 《大邱天主教會史》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는 구한말 대구를 이끈 巨商이면서 금융계의 선각자, 빈민들의 慈父 및 대구 천주교 발전의 代父이었다.

鄭在學은 哲宗朝 10년(1859년) 6월 12일에 迎日 鄭氏 가문에서 1남 3녀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1940년 82세를 일기로 영면한 일제하 대구에서 大邱銀行을 설립하여 頭取를 지냈던 지방은행의 개척자이며 당대의 巨物 企業家였다.¹⁷⁾ 남달리 몸집이 크고 힘이 세었던 그는 불우한 집안환경으로 어린 시절에는 투전판 뒷전을 맴돌며 타락한 생활을 일삼았으나, 20이 갓 넘었을 때 마음을 고쳐 먹고 서문밖 貸金業者의 고용살이를 시작하였다. 그는 품삯으로 받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고 원산 명태장수들과 사귀면서 商術을 익혔다.

나이가 30세 되었을 때, 鄭在學은 그동안 모은 돈과 신임을 얻은 주인에 1천냥 가까운 돈을 빌려 元山 명태장사에 나섰다. 첫해에는 代를 물리며 장사를 하던 토박이 巨商들 틈에 밀전을 축내었으나, 좌절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3년 동안 돈을 모아 대구로 귀향하였다.

당시 巨商들은 낙동강을 오르내리면서 소금과 쌀 등을 교역하였으므로 그도 원산 명태장사로 잡은 밀천으로 배 한척을 구입하여 소금장사를 시작하였다. 釜山에서 소금을 사들여 낙동강의 기항지인 開浦, 왜관, 新村(尙州), 그리고 映湖津(安東) 등을 거쳐 오는 동안 소금과 쌀을 교환하였다. 1886년 지금의 콜레라인 듯한 怪疾이 번지면서 그의 사업은 크게 번창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당대의 부자 徐相燾에 버금가는 재산가로 성장하게 되어 그의 나이 33살이 되던 1892년에는 南一洞에 富의 상징인 99칸 골기왓집을 건축할 정도였다. 이때 부터 그는 大邱財界의 지도적 인물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鄭在學은 배우지 못한 것이 늘 부끄러웠으므로 이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기 시작, 詩作에 몰두하는 등 晩學을 거듭하였다. 그의 나이 48세때 드디어 順興(豐基)郡守를 할 기회가 주

17) 鄭在學에 관한 논의는 大邱商議뉴스 1981년 1월부터 8월까지 게재된 朴英圭의 “大邱財界先覺者들”과 〈大邱每日新聞〉, 1984년 7월 25일자 “巨富野話 <7>”을 참고 하였음.

어졌고, 이어 開寧(善山)郡守를 지냈는데, 善政을 베풀어 행정가로도 인정을 받았다. 1908년에 벼슬을 그만 둔 그는 大邱農工銀行에 대주주로 참여, 취체역 이사로 금융계에 첫발을 들여 놓았다. 나아가 그는 나라는 비록 빼앗겼지만 백성의 생존바탕인 經濟權을 뺏겨서 안된다는 생각에서 1912년 7월 민간은행을 설립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大邱商務所(현재 商工會議所) 위원들과 자본금 50만원 규모의 은행을 세우기로 합의하고, 李一雨, 李柄學, 그리고 張吉相 등과 함께 발기하여 1913년 1월에 大邱銀行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5월에 열린 창립총회에서 그는 대표취체역 頭取가 되었다.

鄭在學은 탁월한 경영솜씨를 발휘하여 1919년 창립 7주년이 되었을 때는 자본금이 200만원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1928년에는 조선총독부의 朝鮮銀行이 대구은행에 자금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경남은행과 합병 1929년 慶尙合同銀行으로 발족했다. 그는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그해 주주총회에서 다시 대표취체역이 되었고, 194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일제가 太平洋戰爭에 대비한 기업정비를 단행하는 바람에 慶尙合同銀行은 1941년 漢城銀行에 합병되었고, 그후 漢城銀行은 東一銀行과 합병, 1943년 지금의 朝興銀行이 되었다. 그리하여 대구에서 발족한 최초의 民族界 地方銀行인 大邱銀行은 30년을 일기로 자취를 감추었지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뒷골목 투전판을 맴돌며 청년기를 보낸 鄭在學, 그리고 돈에의 강한 집념을 가지고 대구 西門市場을 발판으로 은행가로 대성한 鄭在學은 금세기 초에 지방 민간은행을 설립한 大邱金融街의 開拓者로 요약될 수 있다.

徐相燾 및 鄭在學과 더불어 구한말 대구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또 한분의 선각자는 朴基敦이다.¹⁸⁾ 徐相燾이 대구 巨商의 효시였고 鄭在學이 대구금융인의 효시였다면, 그는 대구 상공인단체의 전신인 상공회의소의 개척자이었다. 그는 徐相燾이나 鄭在學과는 달리, 유복하고 빼대있는 집안 출신이었다. 즉, 그는 高宗 10년(1873년) 음력 정월 초 사흘, 中樞院 議官을 지낸 從二品 嘉善大夫 朴文煥의 2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당대의 권세가 朴定陽의 비서직을 오래 맡아 총애를 받았던 그의 實兄 基福과 朴定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朴基敦은 어릴 때부터 성품이 활달하여 글보다는 말타기와 활쏘기 등 武藝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부친의 당부로 漢學者 이시암을 만난 후 晩學의 열정을 불태웠다. 그리하여 배움을 받기 3년에는 협천 일대에서 명필로 소문이 났고, 학문적 수준도 높았다. 그의 나이 28세 되던 1901년에 당시 大韓帝國 量地衙門 총재로 있던 朴定陽은 그에게 量地委員이라는 벼슬을

18) 朴基敦에 관한 논의는 《月刊 大邱商議》1982년 4월 1일부터 1983년 3월 1일까지 게재된 朴英圭의 “大邱財界先覺者들”의 내용을 축약하였음.

주었다. 그 즈음, 국정은 상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甲午更張을 통해 성립된 金弘集 내각은 商業興旺을 목표로 하는 요즈음의 상공회의소에 해당하는 商業會議所의 規例를 만들었다. 金弘集의 친일내각이 무너지고 朴定陽이 총리대신이 되자, 이 규례를 폐기하고 상무사를 설립하여 商務를 가르치고 연구하도록 章程을 공포하였다. 이 장정에 따라 商務社는 1903년에 商工學校를 설립하였는데, 그는 교관에 임명되었다. 中樞院의 장이 된 朴定陽은 1905년에 그에게 中樞院 議官의 자리를 주었다. 그 후 4개월만에 그는 正三品 通政大夫의 서품을 받았다.

乙巳保護條約이 이루어지자, 朴基敦은 낙향하여 당시의 망명가 金光濟와 徐相燾 등 대구 유지와 함께 설립한 大邱民議所와 國債報償運動에 관계하였다. 1909년 초에 그는 그의 호를 따서 매산출판소라는 인쇄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실패하였다. 그 후 그는 徐相燾과 합자로 대구 西門路에 大邱木材所를 세웠으나, 이 또한 실패하였다. 1910년 초에는 서울사람 李觀化와 합資로 大邱木材所 자리에 普惠藥房이라는 製藥會社를 차렸다. 이것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후 製紙工場과 이발소 경영에도 실패를 거듭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조약이 조인되던 해, 朴基敦은 大邱商務所 소장직에 추대되었다. 그는 대구상무소의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대구약령시 진흥을 도모하였다. 그의 나이가 42세 되던 1915년, 朝鮮總督府는 한일 상공회의소의 합병을 시도하였고, 이는 그 이듬해에 실현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鄭在學 등과 함께 合併된 大邱商業會議所의 평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요약하면, 구한말 격동기에 태어난 매산 朴基敦은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애국자였으며, 大邱商務所長을 역임한 개화기의 경제인이었으며, 대구운동협회 회장을 지낸 향토 체육계의 원로이며, 私財를 털어 육영사업을 한 교육자였다.

이상 살펴본 徐相燾, 鄭在學, 그리고 朴基敦은 대구 상업과 금융계의 선각자였다. 그러나 이들을 근대적 산업가로 보기는 어렵다. 대구 산업, 특히 섬유업은 다음에서 살펴볼 金聖在 및 秋仁鎬에 의해 본격적으로 소개·발전되었다.

金聖在는 1897년 1월 13일 성주군 용암면 용정동 456번지에서 金海 金氏 通政大夫 金正彦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차남으로 태어났으므로 공부를 하지 못한 그는 농사일만 하다가 14세가 되던 해, 具南順과 결혼하였다.¹⁹⁾ 통이 큰 호걸풍의 부인 具南順은 일만하는 남편을 설득하여 가출을 단행, 大邱로 나왔다. 그는 처음 직물 붓집장수로 출발하여 나중에는 포목장사로

19) 金聖在에 관한 논의는 《大邱商議》 1984년 9월 1일부터 1985년 5월 1일 사이에 게재된 朴英圭의 “大邱財界의 先覺者들”의 내용을 축약하였음.

큰 재산을 모았다. 그리하여 大邱府 本町二丁目一 지금의 중소기업은행 대구지점 자리의 흰 타일 건물의 전면직물 무역상 金聖在商店을 차렸고, 이는 한때 대구 직물업계의 핵이었다. 한국인, 일본인 할 것 없이 전직·면직물을 취급하는 모든 大邱商人의 거래량을 합한 것 보다 金聖在商店 한 군데의 거래량이 더 많을 정도였다.

이런 재력으로 金聖在는 1940년에는 자기 상점의 지배인 片茂柞와 함께 나란히 大邱商業會議所 상공위원이 되었다. 1945년에는 재단법인 公山中學校 재단이사장에 취임하였다. 이 학교는 후일 계성중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해방후 그는 직산기업인 片倉製絲를 인수하여 엄청난 富를 축적하였으나, 1947년에는 폭리상인으로 몰려 복역하기도 하였다. 1946년 부인의 타계와 이로 받은 심리적 충격 때문에 그는 인생을 정리할 마음으로 片倉과 풍기의 대규모 인삼농장을 매각하여 장남 允坤에게는 동화직물을, 차남 漢坤에게는 공화직물을, 그리고 四男 海坤에게는 청수직물을 사주었다.

나이 60에 金聖在는 製絲業을 다시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여기에서 말년에는 재산분규 등으로 고통받았다. 1961년 1월 11일 그는 계성학교 밴드부원들의 구슬픈 조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옥포못 앞산 유택에 안치되었다. 요약하면, 그는 製絲業으로 대구경제를 주도한 대표적 기업인이었다.

앞서 기술한 대로, 직물도시인 오늘의 大邱가 된 시기는 한일합방을 즈음해서이다. 당시에는 군데군데서 수직기 2~3대로 똑딱거리면서 가내수공업에서 탈피하여 工場制生産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번째가 바로 1915년 秋仁鎬가 설립한 東洋染織所였다.

秋仁鎬는 일본에서 누마쓰 중학교를 마치고 부인과 함께 제직기술을 습득한 후 귀국하여 公山面 智沙洞에서 足踏機 1대로 직물공장을 시작하였다.²⁰⁾ 그는 1915년에 공장을 仁橋洞으로 옮기고 東洋染織所로 개칭하였다. 1916년에는 죽담기가 당초 1대에서 20대로 늘어났고, 1920년에 공장을 확장하여 達成洞으로 옮기면서 직기 100대로 늘었다. 1928년에 그는 대구 최초로 일제 동력직기 40대를 갖추는 큰 기업인으로 발돋움하였다. 당시의 자본금은 5만원으로서, 연 생산액은 13만 5,500원에 이르렀다. 그는 그의 아우들에게도 독립된 직물공장들을 세워주었다. 즉, 1925년 둘째 아우인 의호에게는 전북 이리에서 동양염직을, 1929년에는 셋째 아우인 겸호에게 경남 진주의 동양염직을, 넷째 아우인 지호에게는 대구 인교동의 대동염직을, 그리고 다섯째 아우인 신호에게는 대구 桂山洞의 동양제사염직을 설립해 주었다.

20) 秋仁鎬에 관한 논의는 1990년 섬유기술진흥원이 발간한 《大邱纖維産業史》, pp. 136-140과 徐相浩가 쓴 〈每日新聞〉 1971년 4월 1일자 “織物이야기 ①”을 참고 하였음.

秋仁鎬의 영향을 받아 당시 대구에는 직물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예를 들면 1920년대에는 洪在龍이 달성공원 근처에 合同織物工場을, 李承駿이 大邱織物工場을 설립하고 각각 직기 50대씩을 갖추었다. 1930년대에는 李根享, 金文植, 손영희, 李鍾完, 이복바우, 그리고 김병필 등이 직물제직업에 종사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달성동 근처에는 베풀소리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1927년 東洋染織所는 합자회사로 발전하여 李相武를 사장으로 추대하였다. 이는 대구 지역사회에서 근대적 회사의 효시이다. 李相武는 당대 명문출신 자산가인 동시에 뛰어난 경영자였다. 그는 詩人 李尚火의 중형으로서, 일찍부터 의류업과 무역업 등에 종사한 선구적 기업인 이었다. 1928년 당시 그의 회사는 자본금 50만원, 종업원 200명, 그리고 생산액 14만 8,500원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秋仁鎬는 대구 직물업계의 元祖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1920년대 후반 이후 그의 사업에 관한 자료는 구할 수가 없었다.

金聖在와 秋仁鎬가 대구섬유를 출발시켰다면, 다음에서 살펴 볼 李秉喆, 金成坤 및 呂相源은 대구에서 근대적 산업을 일으킨 대표적 기업인들로 사료된다. 湖巖 李秉喆은 1910년 2월 12일 경남 의령군 중교리 723번지에서 父 李纘雨와 母 安東 權氏의 2남으로 출생하였다.²¹⁾ 어릴적 조부가 세운 서당 文山亭에서 한학을 수학하였고 1927년 中東中學教 4년을 수료한 후, 1928년 渡日하여 1929년 와세다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신병으로 1931년 학업을 중단하고 귀향하였다.

1934년 李秉喆은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부친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畚 300석분을 分財받았다. 당시 대도시는 모든 경제권을 日人이 독점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는 소자본으로 가능한 精米業에 손을 대고 馬山에서 1986년 정현용 및 金正壽와 함께 協同精米所를 차렸다. 그리고 동년 日出自動車會社를 인수하여 트럭 20대로 운수업에도 손을 대는 한편, 金海平野의 논 40만평을 매입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여 나갔다. 그러나 中日戰爭의 발발로 대출이 중단됨으로써 1937년 협동정미소, 일출자동차회사 및 토지사업을 모두 정리하였다. 그러다가 1938년 11월 1일 대구 수동에 최초의 본격적인 사업으로 三星商會를 설립하였다. 현재 第一毛織 대구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대구시내에 자리를 잡고 2만원의 자본으로 설립된 三星商會는 소규모의 製粉製麵 시설을 가동하는 한편, 靑果類와 건어류를 국내 각지에서 수집하여 만주지방 등지로

21) 李秉喆에 관한 논의는 1974년 제일모직주식회사에서 발간한 《毛織20年史》, 1989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湖巖의 經營哲學》, 전용옥·한정화 공저, 1994년 김영사 발간의 《삼성의 성장과 변신: 초 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 및 〈영남일보〉 1993년 4월 14일자 “기업항로”를 참고하였음.

수출하였다. 삼성상회의 번창으로 1943년에는 朝鮮釀造를 인수하였다.

해방되던 1945년 9월에 李秉喆은 대구에서 뜻을 같이하는 실업인들로 구성된 乙酉會라는 친목단체를 만들었다. 그는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신문의 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년 10월에 당시 朝鮮民報를 大邱民報로 개칭하고 경영에 참가하였다. 해방 후 경제상태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지나쳤다. 그리하여 李秉喆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수입하기 위해 무역업에 착수, 1948년 서울 중구 을지로 2가에 三星物産公社를 설립하였다. 三星物産公社는 2년만에 100여 무역회사중 상위 10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50년 6.25동란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대구로 피난하였다.

李秉喆은 대구에서 재기의 자원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朝鮮釀造를 맡아 경영해 온 李昌業과 金在炤로부터 받은 이익금 3억원이었다. 그는 이 돈으로 1952년 부산에서 신설형식으로 三星物産株式會社를 설립하였다. 삼성물산은 수입무역을 통해 1년내에 10배 성장이라는 급성장을 거듭, 1954년에는 사무소를 서울로 이전하고 東京支店까지 설치하였다.

한편, 李秉喆은 긴밀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당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1953년 자본금 2,000만원으로 第一製糖을 설립하였다. 이어 1954년 9월 15일에는 대구시 북구 침산동 일대 7만 5천여평의 부지 위에 자본금 1억원의 第一毛織을 설립하였다. 이 제일모직은 그 후 三星그룹의 母胎가 되었다. 李秉喆은 그의 자서전인 호암자전에서 第一毛織 창업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당시 대개 양복이라고는 미군복을 염색한 것 뿐이었고 이른바 마카오 복지는 한벌에 웬만한 봉급생활자의 월급 석달분이 넘었다.……외제에 못지 않은 값싸고 질 좋은 복지를 생산, 국민 모두가 손쉽게 양복을 입을 수 있게 됐으면 하는 소망에서 나온 것이 毛織工場 建設案이었다.

大邱에서 출발한 第一毛織은 현재 대구공장을 비롯, 구미공장(1978), 안양공장(1981), 그리고 여천공장(1989) 등을 갖고 있다. 大邱工場은 곧 이전할 계획이므로 얼마가지 않으면 대구에서 출발한 삼성의 모태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제일모직으로 기반을 잡은 李秉喆은 그후 사업을 크게 확장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재벌그룹의 총수가 되었다. 그러나 확충한 기업의 기반이 大邱가 아니므로 삼성의 李秉喆에 관해서는 이 정도에서 줄이고자 한다. 요약하면, 그는 대구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이었다.

省谷 金成坤은 1913년 달성군 玄風面 龜川에서 태어나 달성보통학교, 大邱高普 및 普成專門을 거쳐 大邱府廳에 4개월, 大邱商工銀行에 1년반 직장생활을 한 후, 1940년 大邱高普 동창인 崔

在滄과 李鍾健의 자금지원으로 대구 칠성동에 三共유지합자회사를 설립하였다.²²⁾ 일제 말엽 모든 生必需品이 품귀, 폭등하자 비누도 크게 달렸으므로, 단단한 비누는 물론이거니와 폐유로 처리되었던 물비누도 상품화되어 이 역시 동이 났다. 해방 후 비누 원자재가 품귀현상을 빚자 그가 비축한 1만 드럼의 大豆油는 삼공유지가 그룹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해 1년동안 물가상승률은 무려 370%였으므로 비누공장을 통한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33세인 1946년에 金成坤은 徐相日과 만나 建準 慶北財政部長을 맡고 영남일보 창간과 1947년 高麗火災海上保險 창업 멤버로도 참여하다가 대구의 기업무대가 좁고 비누기업이 계속 번창하리란 보장도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 진출을 결심하였다. 또한 평소 흠모하던 仁村 金性洙 선생의 전철을 밟기 위해 그는 仁村이 운영하였던 방직업종에 큰 매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安養에 있는 朴興植의 朝鮮紡績工場을 인수, 1948년 서울 소공동에 자본금 1억원의 金星紡績株式會社를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본격적인 기업인의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1949년에는 三共油脂를 처분하여 서울로 완전 이주하였다.

6.25로 金星紡織工場이 전소하자 金成坤은 다시 대구로 내려와 그해 12월 七星洞에 金星染織工場을 세웠다. 당시 대구에는 임의 단체인 경북직물조합이 운영하는 대구염색공장과 金星染織이 자웅을 겨루었는데, 대구염색공장이 심한 부실경영으로 도산하자 金星이 이를 인수하여 社勢를 확장하였다.

金成坤은 1959년에 海公 申翼熙 선생이 설립하여 이끌어 왔던 國民大學을 인수하여 재단이사장이 됨으로써 육영사업에도 진출하였다. 自由黨 말기인 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로 접어들었다. 5.16혁명 때 金星紡織의 부정축재 혐의로 그는 1억 4천만원의 벌금을 물기도 하였다. 1962년에 그는 쌍용양회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듬해에는 共和黨에 입당하여 달성 고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1967년 강원도 北坪의 대단위 시멘트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大韓農産을 운영하던 朴龍學에게 대단위 시멘트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大韓農産을 운영하던 朴龍學에게 金星紡織을 넘기기로 함에 따라 대구의 金星染織工場도 朴龍學에게 넘겼다. 1967년 12월에 그는 舊 大邱大學과 靑丘大學이 통합된 영남대학의 재단이사으로 선임되었다. 1971년에는 大邱文化放送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1972년 吳致成 내무장관 해임안 가결과 관련된 소위 「10.2 抗命波動」으로

22) 金成坤에 관한 논의는 〈每日新聞〉 1985년 7월 19일, 22일, 24일 및 29일에 게재된 “향토서 자란 대기업: 雙龍그룹”과 1990년 섬유기술진흥원이 발간한 《大邱纖維産業史》를 참고하였음.

그는 공화당을 떠났고, 1975년 12월 타계하였다.

요약하면, 省谷 金成坤은 대구가 낳은 우리나라의 큰 기업인이었다. 그의 기업들은 아들 錫元에 의해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구지에 쌍용차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아직도 지역과 연계를 맺고 있다.

李秉喆과 金成坤이 사업성공 후 사업의 중심을 대구지역에서 서울로 옮긴 반면, 대구지역에서 사업의 기반을 계속 유지한 대구지역 초창기 기업인은 呂相源이다.²³⁾ 呂相源은 1904년 경북 성주군 벽진면 해평리 958번지에서 呂東淵의 맏아들로 태어나, 지금의 중동고등학교 전신인 中東學校 특과를 졸업한 후 사업을 하기 위해 他地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그는 1940년초 일본인과 더불어 南鮮제뉴라는 섬유회사를 설립하였다. 당시 그는 경남 의령에서 대구로 나온 李秉喆과 인연을 맺었고, 그 후 오랫동안 사업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呂相源은 1947년 李秉喆의 조선양조주식회사의 취체역 회장에, 1953년에는 제일제당주식회사의 취체역에, 그리고 1954년에는 제일모직주식회사의 초대 임원을 맡았다. 해방되던 해 呂相源은 李秉喆과 함께 침묵단체인 乙酉會를 만들었다.

해방후 呂相源은 남선제뉴주식회사를 東信纖維株式會社로 개칭하고 군화끈과 운동화끈을 생산, 軍納과 함께 민간판매를 통해 재산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1948년에는 撚絲를 생산하였다. 1945년에는 또한 을유회 멤버를 중심으로 인수한 大邱民報의 전무로 취임하였다. 이 신문은 1953년에 大邱日報로 탈바꿈하였고, 그는 이 신문사의 경영권을 장악하여 1972년 폐간 때까지 운영하였다. 1947년 그는 대구공예협회장을 거쳐 1954년에는 大邱商工會議所의 초대회장에 선출되어 1968년 6대 중반까지 15년간을 大邱商議 회장과 大韓商議 수석부회장을 역임하였다. 1957년 무역업체인 東信洋行을 설립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선풍기를 생산, 미군에 납품하였기도 하였다. 1967년에는 大邱銀行을 설립, 명예회장에 취임하였다.

1965년에는 화재로 동신양행이 전소되었고 資金難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68년에는 東信纖維가 부도났고, 1972년에는 大邱日報가 폐간되었다. 한 때 19개의 공식 직함을 가지고 대구 경제계를 움직였던 呂相源은 1975년 9월 27일 빈털터리로 조용히 인생을 마감하였다. 東信纖維는 부도, 은행관리, 경매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유족의 손에 넘겨져 지금은 충북 음성에서 東信産業社라는 이름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23) 呂相源에 관한 논의는 1977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大邱商工會議所七十年史》와 毎日新聞1994년 1월 1일, 6일, 13일 및 27일의 “대구경제인: 呂相源, 대구상의 회장”을 참고하였음.

IV. 經營特徵

해방 이전까지 企業經營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들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일합병 이전까지는 전근대적인 수공업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또한 西門市場을 중심으로 한 상업을 기반으로 그러한 수공업적 기업의 기반을 닦았다.

둘째, 일제점령시 부터 본격적인 新工業이 소개되어 근대적인 기업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대부분이 일본인에 의해 운영되었거나 日本資本의 영향을 면치 못하였다. 일제말기에 이르면서 民族資本에 의한 기업이 소수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해방 이전 부터 대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잠업, 제사, 그리고 방적 등이 소개되고 장려됨으로써 纖維都市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第3節 激動期 大邱의 企業, 企業人 및 企業經營

I. 企業經營環境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政治的 解放을 맞이하였다. 우리의 광복은 타율적이었으므로 광복의 기쁨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美蘇冷戰의 국제정세에 휩싸여 남북이 분단되는 아픔을 겪어야 하였다. 또한 美軍政, 過政,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그리고 6.25 동란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다.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일제 식민정책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하였으므로 經濟基盤은 매우 취약하고 산업구조도 불균형을 이루었다. 더우기 국토의 분단으로 北韓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자원과 공업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입장이었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일본인이 경영하던 歸屬事業, 영세한 민간기업체, 그리고 미국의 對韓經濟援助의 3중구조로 형성되어 있었다. 南韓의 이같은 산업구조적 취약성은 해방 후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經濟的 不安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국민경제적 현상은 大邱經濟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해방에서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 混亂期 대구의 주요 문제는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된다.²⁴⁾

24) 대구상공회의소, 앞의 책, p. 71.

첫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失業과 社會不安이었다. 해방 전에 대구 인구는 20만 7천명이었는데, 해방 2년만인 1947년 11월에는 29만 3천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났고, 이로 인한 사회적 不安이 증대되었다.

둘째, 식량을 비롯한 물자의 부족에 따른 物價高이었다. 일제 때 일본이 군량미 확보를 위해 韓國米를 대부분 수탈해 갔으므로 식량이 크게 모자랐다. 이것은 식량 이외의 대부분의 다른 물자도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물가가 크게 올라 해방 1년만에 大邱의 쌀값은 4.5배, 大豆값은 11.1배로 치솟았다.

셋째, 좌익분자와 민중동요에 따른 社會不安 및 流通秩序의 파괴였다. 해방 직후의 大邱에서는 이상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1948년에는 大韓民國 정부가 수립되었고, 1949년 7월 4일에는 大邱府가 大邱市로 개명되었다. 이 때 또한 경제안정화 노력과 미국의 경제원조가 병행되었다. 이로 인해 1950년초에는 물가상승률은 낮아지고 생산활동도 차츰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돌발적인 6.25동란으로 우리나라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전쟁기간을 통해 大邱 人口는 다시 늘어나 1953년 말에는 12만명의 피난민이 대피함으로써, 격동기 8년 동안에 大邱의 인구는 20만에서 40만으로 2배 증가하였다. 더불어 失業率도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大邱는 타 지역에 비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나아가 戰爭特需를 유발한 6.25동란은 대구가 공업도시로 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6.25동란은 대구를 국방상의 兵站基地로 만들었으며, 京仁地域의 방직공장들이 크게 파괴됨으로써 대구의 직물공장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市場狀況을 보면, 해방 이듬해인 1946년 10월 七星洞에 北門市場(지금의 七星市場)이 개설되고, 1947년에는 院垈市場과 三德市場이 개설되어 해방 전부터 상거래의 중심지였던 西門市場과 南門市場의 기능을 보강하였다. 전쟁중인 1952년 12월에는 國際市場(교동시장 또는 자유시장이라고도 하는 속칭 양키시장)이 무허가로 개설되었다.

요약하면, 6.25동란은 대구의 商業史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²⁵⁾ 왜냐하면 6.25로 인해 피난민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인구가 급팽창되었고, 전쟁으로 인해 物資去來가 활발해졌고, 직물공업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생존을 위한 상업인구의 증대에 따라 도소매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金融機關의 기능도 강화되었다.

25) 앞의 책, p. 71.

II. 企 業

해방 당시 大邱의 工場數는 일제의 철수에 따른 간접적 피해, 기술자 부족, 원재료 확보난, 그리고 전력부족 등으로 줄어들었다. 1946년 현재 대구의 企業體數와 從業員數는 <表 11-7>과 같다. 즉, 총 공장수는 288개로서, 방직공업과 기계공업과 기계기구공업 관련 공장이 대종을 차지하였다.

<表 11-7> 1946年 11月 現在 大邱의 企業體 (단위: 개, 명)

業 種 別	大 邱		慶 北		南 韓	
	工場數	從業員數	工場數	從業員數	工場數	從業員數
金 屬 工 業	37	382	90	921	499	8,966
機 械 器 具 工 業	65	1,136	112	1,811	878	17,394
化 學 工 業	19	694	66	1,274	574	19,171
共 益 事 業	3	25	5	39	78	2,711
窯 業 및 土 石 業	2	51	113	1,065	726	9,693
紡 織 工 業	95	3,782	149	4,440	615	36,269
製 材 및 木 製 品 工 業	23	194	91	990	584	6,502
食 料 品 工 業	18	241	85	661	696	8,383
印 刷 工 業	15	338	30	415	233	4,540
土 木 建 築 業	4	40	29	571	175	5,598
其 他 工 業	7	88	13	127	156	2,932
合 計	288	7,071	773	12,314	5,296	122,159

資料: 朝鮮銀行 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8, pp. 111~152.

한편 섬유공업의 경우는 이러한 전반적 추세와는 달리, 기업의 왜축을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1948년에 원료난이 해소되면서 織物業界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1-8>과 같다. 이 表는 해방이후 1949년 까지 설립된 纖維工場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당시에 이미 大邱地域 섬유산업을 이끌어온 인물들 — 남선직물의 尹經普, 대원직물의 崔翼成, 동아직물의 朴禹欽, 평화직물의 白潤基, 그리고 동산양말의 李禹鉉 등 — 이 企業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表 11-8〉

解放後 1949년까지 設立된 纖維工場

業 種	工 場 名	代 表 者	住 所	設立年月
生 絲 絹 · 人 絹 織	大韓生絲株式會社	金 仁 根	東仁 220	1942. 5
	大剛産業株式會社	金 文 植	東人 3가1	1947. 8
綿 織	南鮮織物工場	尹 經 普	太平路 154	1945. 11
	大新織物工場	權 泰 亨	新川 1200	1938. 3
綿 織	大院織物工場	崔 翼 成	院代洞 1198	1943. 2
	大昌織物工場	金 聲 千	內唐洞 896	1938. 3
綿 織	東成織物工場	金 路 東	東仁 1907	1948. 3
	東亞織物工場	朴 禹 欽	太平路 135	1947. 7
綿 織	東洋織布合資會社	安 成 虎	院垈洞 1165	1923. 10
	相芑織物工場	金 相 芑	飛山 152	1947. 3
綿 織	永進織物工場	鄭 浩 永	飛山 402	1945. 10
	昌潤織物工場	金 子 俊	七星 636	1949. 6
綿 織	合同織物工場	洪 鍾 九	大新 179	1947. 8
	慶北호남工場	金 洙 旺	飛山 181	1947. 11
綿 織	錦城織物工場	崔 起 出	飛山 171	1949. 10
	大協織物工場	權 敦 允	七星 609	1949. 10
綿 織	東洋毛織(株)	具 滋 業	砧山 430	1945. 10
	東興織物工場	金 基 出	飛山 418	1945. 3
綿 織	三聖織物工場	金 晚 煥	內唐 940	1939. 5
	桑香織物工場	徐 五 松	飛山 151	1947. 10
綿 織	鮮光織物工場	朴 學 俊	飛山 171	1947. 10
	平和織物工場	白 潤 基	內唐洞	1947. 5
綿 織	信成織物工場	金 炳 五	內唐 897	1948. 3
	信興織物工場	朴 在 春	新川 1190	1948. 3
綿 織	榮光織物工場	金 在 龍	砧山 183	1948. 3
	嶺南織物工場	趙 三 俊	飛山 171	1947. 3
綿 織	日滿織物工場	夏 二 祚	院垈 922	1940. 12
	鮮光織物工場	朴 學 俊	飛山 171	1930. 10
綿 織	和興織物工場	李 暎 植	新川 538	1942. 1
	大興毛紡織(株)	愚 海 杵	達城 146	1945. 4
毛 織 其 人 絹 織	大三信織物工場	孫 七 煥	泛魚 802	1948. 3
	三星進織物工場	鄭 圭 燮	太平路 123	1945. 3
毛 織 其 人 絹 織	星州絹織工場	車 達	七星 648	1946. 6
	京紡織物工場	崔 八 守	飛山 180	1949. 10
毛 織 其 人 絹 織	大鮮絹布工場	金 學 宣	院垈 1187	1949. 9
	韓守絹織工場	韓 碩 愚	東仁 351	1949. 5
毛 織 其 人 絹 織	三和織物工場	閔 慶 宅	砧山 116	1923. 1

業 種	工 場 名	代 表 者	住 所	設立年月
綿 織	金 剛 織 物 工 場	金 益 祚	飛山 401	1948. 10
	錦 城 織 物 工 場	金 在 億	砧山 1513	1947. 12
	大 邱 織 物 工 場	李 東 佑	砧山 186	1942. 5
	成 和 織 物 工 場	裴 德 用	砧山 1463	1948. 2
	進 旭 織 物 工 場	林 進 煥	內唐 77	1945. 1
메 리 야 스	興 安 產 業 織 物 工 場	金 鳳 學	東仁 165	1943. 11
	南 一 메 리 야 스 工 業 社	李 命 天	南山 8	1945. 3
	三 信 메 리 야 스 工 業 社	金 外 寬	東山 123	1946. 10
	月 星 메 리 야 스 工 業 社	金 永 根	鳳山 230	1946. 3
	前 進 메 리 야 스 工 業 社	金 在 根	西門路 69	1949. 7
양 말	鍾 光 纖 維 工 業 社	方 聖 奉	達城 110	1944. 5
	白 洋 양 말 工 場	白 鳳 根	三德 157	1946. 4
	新 韓 工 業 社	車 正 夏	仁僑 165	1935. 7
	韓 一 양 말 工 業 社	康 相 鼎	西城路 69	1949. 7
	華 仁 양 말 工 業 社	金 冠 五	壽昌 40	1949. 3
장	工 和 工 業 社	姜 成 德	東山 40	1940. 6
	德 化 양 말 工 業 社	林 德 八	東山 48	1943. 5
	東 山 양 말 工 業 社	李 禹 鉉	南山 452	1940. 5
	三 護 양 말 工 業 社	金 在 洙	仁僑 124	1947. 7
	天 桃 양 말 工 業 社	申 仁 俊	飛山 449	1946. 4
장	東 一 工 業 社	鄭 越 卓	七星 148	1944. 9
	大 地 工 業 社	宋 鍾 律	泛魚 792	1946. 8
	三 具 장 갑 工 業 社	具 泰 浩	泛魚 606	1946. 8
	龍 票 장 갑 工 業 社	具 茲 用	泛魚 774	1947. 10
	日 成 工 業 社	金 道 述	泛魚 78	1948. 10
染 色	進 成 掌 匣 工 場	具 在 萬	泛魚 774	1949. 10
	慶 北 織 物 工 場(株)	申 大 均	砧山 129	1945. 8
	德 山 染 色 工 場	許 達 雨	砧山 69	1943. 10
	大 陸 染 織 工 場	黃 鍾 聲	大鳳 196	1948. 3

註: 1) 《大邱商工名鑑》, 1964, 《大邱商工會議所報》중에서 1949以前 設立工場 발체.

2) 1950年 이후 分은 《大邱商工名鑑》, 1967에서 발체하여 追加시킨 것임.

이러한 경향은 특히 紡績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졌다. 즉, <表 11-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구의 3대 방적인 朝紡, 三護 및 内外紡은 격동기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하여 전국비중이 1947년에 1.2%이었던 것이 1953년에는 37.3%로 크게 늘어났다.

〈表 11-9〉 大邱의 紡績設備 推移

年 度 別	國內總設備 (A)	大 邱 市				B/A (%)
		朝紡大邱	三護紡	内外紡	計 (B)	
1947	275,390	3,200	—	—	3,200	1.2
1948	288,256	10,000	—	—	10,000	3.5
1949	304,522	12,000	—	—	12,000	3.9
1950	94,592	14,800	4,800	—	19,600	20.7
1951	79,794	15,600	4,282	—	19,882	24.9
1952	137,797	21,661	12,976	—	34,637	25.1
1953	117,432	20,768	12,976	10,000	43,744	37.3

資料：大邱銀行, 《大邱地域經濟分析》, 1976年 3~4月號, p. 52.

대구의 機械金屬企業들은 해방 후 농기구, 가정용구, 그리고 鑄物工業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일부는 기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변모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귀속된 機械金屬業體는 〈表 11-10〉과 같다. 이 업체들의 대부분은 소규모이었으나, 그 중 몇몇 업체는 상당한 규모를 갖추었다. 예를 들면, 建國鐵工所는 종업원 107명, 朝鮮機械는 78명, 八谷製鐵所는 58명, 그리고 大邱自動車 (株)는 57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업체 중 현재까지 존속한 기업은 찾기 어렵다.

〈表 11-10〉 大邱府内の 機械金屬業 歸屬事業體

工 場 名	管 理 者	住 所	生 產 品	形態	人員	資本金(圓)
勝 利 鑄 物 工 場	慕 文 錦	壽 昌	鐵物	個人	45	113,308
慶北自動車工業株式會社	鄭 基 文	太 平	自動車工業	株式	—	(97%)2,400
南 鮮 重 工 業 株 式 會 社	宰 聖 祚	壽 昌	重工業	〃	—	(75%)3,600
大 邱 重 工 業 株 式 會 社	安 炳 鎔	〃	〃	〃	34	(91%)10,000
株 式 會 社 大 邱 製 作 所	李 判 述	東 仁	鐵工	〃	16	(9.85%)2,000
朝 鮮 鐵 工 株 式 會 社	羅 彬 彩	北 城	鐵工	〃	—	(79.8%)6,000
朝 鮮 機 械 製 造 株 式 會 社		壽 昌	機械製造	〃	78	10,000
朝 鮮 등 사 관 工 業 株 式 會 社	金 秉 轍	榮 洞	등 사 관 工 業	〃	—	(3.06%)3,600
建 國 鐵 工 所	朴 來 鳳	太 平	鐵工	合資	107	(21.34%)140,000
吉 田 製 車 工 場	崔 在 茂	太 平	製車	個人	5	29,914

工 場 名	管 理 者	住 所	生 產 品	形態	人員	資本金(圓)
菊 地 鐵 工 所	李 萬 斗	丸 山 洞	鐵工	〃	4	20,300
朝 鮮 農 機 具 製 造 株 式 會 社	李 壽 祥	砧 山	農機具製造	株式	25	42,280
大 邱 自 動 車 株 式 會 社	徐 台 龍 壽 昌	自 動 車 修 理	〃	57	84,216	
大 林 製 作 所	石 貴 奉 達 城	農具	個人	5	122,698	
渡 邊 鐵 工 所	權 海 出 西 邊	鐵工	〃	11	18,600	
上 村 鐵 工 所	李 東 制 壽 昌	〃	〃	—	300,000	
薪 茂 登 鐵 工 所	楊 泰 根 錦 町	〃	〃	15	62,000	
田 中 鐵 工 所		砧 山	〃	〃	—	—
中 村 鐵 工 所		八 雲	〃	〃	—	—
下 條 鐵 工 所	玄 玉 牙 太 平	〃	〃	12	32,760	
達 城 制 車(野中)	鄭 來 俊 達 城	製車	〃	5	50,600	
大 燦 鐵 工 所	李 高 義 壽 昌	機械	〃	5	38,800	
末 廣 鐵 工 所	李 龍 淳 太 平	〃	〃	5	9,500	
八 谷 製 鐵 所	安 貞 植 壽 昌	鐵工	株式	58	168,717	
大 邱 製 車 (氏家)	尹 壽 慶 太 平	製車	個人	6	60,000	
高 須 賀 製 車	金 學 述	製車	〃	—	—	
山 崎 (大平) 農 機 具	金 世 祚 太 平	鐵工	〃	10	73,830	
谷 金 鋼 工 場	李 達 凡 西 門	金鋼	〃	—	—	
三 輪 度 量 衡 修 理 所	李 正 魯 文 化	도량형기	〃	—	—	
岩 井 農 機 具	張 八 鳳 東 仁	鐵物	〃	16	38,900	

原資料：韓國銀行, 《韓國統計年鑑》, 1949.

資料：大邱市, 《大邱機械金屬工業의 實態分析과 開發方向 調查報告書》, 1973年 1月, p.180에서 再引用.

III. 主要 企業人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종료까지 激動期에 企業을 일군 지역기업인들은 대단히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료의 입수가 가능하였던 기업인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섬유업에서는 鄭在護,

李源萬, 朴在甲, 白煜基, 朴城亨, 朴龍寬, 崔翼成, 그리고 李禹鉉 등이고, 기계금속·비금속업에서는 吳一龍, 張景翼, 그리고 金建基 등이다. 기타 업종에서는 具本興, 李潤碩, 그리고 金壽根 등을 들 수 있다.

本節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激動期 대구의 기업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격동기 섬유업계를 주도한 기업인들 중 자료의 입수가 가능하였던 기업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 자본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방직공장은 三護紡績이다. 이것은 1949년에 鄭在護가 敵産인 溪網會社를 불하받아 1951년에 대구시 북구 원대동에 세운 기업으로서, 1950년대 중에는 한국 방직공업의 상위기업이었다.²⁶⁾

鄭在護는 1929년 양말공장을 설립하여 섬유공업에 투신하였다. 그 이후 1936년에는 三護메리야스공장을 설립하여 1941년에는 豊田纖維公司에 매각하였다. 그는 1943년에 鑄物工場을, 1946년에 메리야스 製針工場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섬유공업 외에도 손을 대어 성공하였다. 1952년에는 삼호방직이 대한방직을 추월하면서 우리나라 財界에 두각을 나타내었던 바, 三護紡績의 연혁은 〈表 11-11〉과 같다.

한때 우리나라의 재벌로 까지 군림하였던 鄭在護의 사업은 그후 차츰 쇠퇴하여 지금은 三護紡績마저 없어져 버렸다.

〈表 11-11〉

三護紡績의 연혁

1949年 3月	資本金 3億圓으로 設立하고 紡機 6,000鍾 建設에 着手함.
1949年 11月	紡機 2,800鍾를 設置 完了하고 操業을 開始함.
1950年 12月	紡機 3,200鍾 設置함.
1951年 12月	資本金 10億圓으로 增資함. 業體를 株式會社로 改編하고 取締役社長에 鄭載護 就任함.
1952年 3月	紡機 1,200鍾를 增設함.
1953年 6月	政府弗 471,000弗을 貸付받음. 建物 1,200坪 증설
1953年 11月	織機 100臺를 新設함. (紡績部, 織布部, 메리야스部, 漁網部, 鉄工部 등 5個部
1954年 2月	設置) 織機 8,000鍾(新機)를 增設함.
1954年 10月	資本金 1千萬圓을 增資함.
1956年 1月	紡機 3,200鍾를 增設함.
1956年 2月	自家發電機 2臺(디－젤機關發電機 臺當 720馬力)를 設置함.
1957年 1月	紡機 31,600鍾, 織機 300臺로 操業. 商標: 廣木: 웅(太白山票)

26) 鄭在護에 관한 논의는 1990년 섬유기술진흥원이 발간한 《대구섬유산업사》, pp. 227~228과 1985년 대구상공회의소가 발간한 《대구경제총감》, p. 58을 참고하였음.

李源万은 경북 영일군 신광면 牛角洞에서 태어나, 열여덟살에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 영일에서 산림기수보 생활을 10년만에 청산하고 일본으로 떠났다.²⁷⁾ 일본에 건너간 그는 처음 신문배달을 거쳐 알미늄공장의 工員生活을 통해 사업의 경험을 쌓았다. 1951년 그는 일본에서 三慶物産이라는 합작 무역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이듬해 말 三井物産에서 일하던 이소베라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나일론의 한국판로를 개척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일론의 眞価를 안 그는 국내 제직업체를 상대로 거래를 트자 날개돋힌 듯 팔림으로써 많은 돈을 모았다.

해방 이후 李源万은 旭(아사히) 공예사란 일본 공장을 그의 동생 源千에게 맡긴 뒤, 전재산 180만엔을 갖고 귀국하여 대구 종로에 慶北企業株式會社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누푹생산을 독점하였다. 1957년에는 대구시 수성구 수성 4가의 1만여평 부지위에 자본금 2억원으로 韓國나일론株式會社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1977년에 주식회사 코오롱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81년에는 주식회사 코오롱폴리에스터와 합병하여 (주) 코오롱이 되었다. 현재 코오롱 그룹은 22개 계열사에 연간 매출액 약 3조원을 올리는 거대기업군이 되었다.

朴在甲은 경북 포항에서 1923년 4월 13일 朴春煥의 3남 3녀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 13세때 가족을 이끌고 滿洲로 가 중국인 장시연의 집에서 목동일을 시작하였다.²⁸⁾ 17세 되던 해에 그는 발동기가 달린 柳何精米所를 설립하여 돈을 모았다. 그러나 그의 부친은 제2차 세계대전의 終戰과 더불어 24세때 모든 재산을 장씨에 맡긴 채 무일푼으로 경남 馬山에서 정착하다가 6.25의 발발과 더불어 마산의 집을 처분하여 大邱로 이주, 대신동에 전세집을 얻었다. 당시 29세였던 朴在甲은 西門市場에서 포목상을 하던 누님 武任의 권유로 1951년 봄 인평직물 20필을 사업 밑천으로 信漢商會라는 포목상을 시작하였다. 6.25가 발발하자 물량이 품귀되어 그의 장사는 크게 성장하여 1956년에는 직기 24대와 종업원 40여명으로 대구 원대동에 信漢織物을 설립하였다. 1958년에 그는 신한직물합병회사를, 1966년에는 東洋纖維工業社를, 1970년에는 信漢絹織株式會社를, 1974년에는 甲乙絹織株式會社를, 그리고 1976년에는 甲乙紡績(株)을 설립

27) 李源万에 관한 논의는 1985년 7월 1일, 3일, 5일 및 8일자 <每日新聞>의 “향토서 자란 대기업 : 코오롱그룹,” 1993년 6월 9일자 <嶺南日報>의 “기업항로 : 대구지역 업체들의 어제, 오늘, 내일,” 1994년 2월 3일, 17일, 24일자 <每日新聞>의 “대구 경제인 : 이원만 코오롱 명예회장,” 1993년 4월 26일, 5월 3일, 7일 및 10일자 <每日新聞>의 “내고장 상공인,” 그리고 1990년 섬유기술진흥원이 발간한 <대구섬유산업사>, pp. 572~577을 참고하였음.

28) 朴在甲에 관한 논의는 1990년 섬유기술진흥원이 발간한 <大邱纖維産業史>, pp. 583~586, 1985년 8월 9일, 12일, 14일 및 16일자 <每日新聞> “향토서 자란 대기업 : 갑을그룹” 및 갑을그룹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참고하였음.

하였다. 1981년에는 株式會社 甲乙 비산염색공장을 설립하는 등 급성장하여 그룹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는 東國의 白煜基와 함께 대구섬유업계를 이끈 巨木이었다.

白煜基는 1919년 11월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경북 달성군 城西面 장기동 309에서 漢學을 한 白南道의 4남 1녀중 장남으로 태어나 어릴 적 書堂을 다니면서 소학통감을 읽었고, 5년제 노동학원을 졸업했으며, 16세때 결혼하여 곧바로 대구로 나와 장삿길로 접어들었다.²⁹⁾

처음에는 현풍, 구지, 고령 등지를 돌며 염료, 목판 행상으로 모은 돈으로 현 시민극장 맞은 편에 비단을 취급하는 白潤基商會(潤基는 煜基의 어릴 때 이름)를 마련하여 서문시장에 진입할 전초기지를 만들었다. 白潤基商會는 일시에 「신용과 의리가 있는 상회」로 소문나 서문시장을 드나드는 전국 도매상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매출액은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러나 1942년 일 제말기 강제 기업정리에 휘말려 점포를 정리하여야만 하였다. 그는 해방이 되기까지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과수원을 운영하다가 1948년 내당동에 목재직기 20대로 平和織物工場을 설립 하였다. 그러나 6.25동란으로 섬유가 잘 팔리지 않아 고전하던 중, 번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쓴 뒤 1953년 다시 서문시장으로 돌아와 平和商會를 개점하였다. 서문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그는 1950년에 실패한 바 있던 직물공장에 다시 도전하였다. 즉, 1953년 대구시 북구 노원동 1가에 亞洲纖維工場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직기 40대로 두번째 시도한 이 직물공장은 성공 적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第二의 富를 축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 때 그는 崔翼成, 尹經普, 金壽福 및 鄭相溶 등과 임의단체인 경북직물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섬유업계를 위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수출시장에 눈을 돌려야 되겠다고 판단한 白煜基는 1965년에 자본금 500만원으로 東國貿易을 설립하여 3弟인 白永基에게 맡겼다. 1970년에는 염색가공업계에도 진출, 비산염색공단에 東國化纖을 세웠고, 1972년에는 동국직물 반야월공장을 건설하였고, 1973년에는 우일산업을, 그리고 1974년에는 성서 협업단지를 조성하였다. 1976년에는 구미에 東國紡織을 세웠고, 1983년에는 東國合纖을 외자 1,700만불, 내자 150억원을 투입하여 설립하였다. 1977년 東國綜合電子(株)도 설립하였다. 그의 동생들은 모두 그룹에 참여, 기업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독일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景基는 동국전자(주)를, 高大를 나온 永基는 동국무역을, 서울대를 나온 性基는

29) 白煜基에 관한 논의는 1990년 섬유기술진흥원이 발간한 《大邱纖維産業史》 pp. 578~583, 1985년 7월 31일, 8월 2일, 5일 및 7일字 〈每日新聞〉의 “향토서 자란 大企業: 東國그룹,” 1991년 5월 22일字 〈嶺南日報〉의 “경영과 인맥: 동국그룹,” 그리고 1993년 2월 10일 및 10월 19일字 〈每日經濟新聞〉의 “스타일”을 참고하였 음.

동국합섬을 맡고 있다. 그의 장남 文鉉은 동국방직과 아주직물을 맡고 있다. 차남 仁鉉은 한승과 한승전직을, 三男 珉鉉은 우일산업을, 그리고 四男 寶鉉은 동보섬유를 맡아 경영하고 있다.

국내 대다수 재벌 그룹들이 중화학과 첨단산업 등 복합적인 업종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데 반해, 東國의 白堙基는 우직할 정도로 섬유 하나에 집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업종으로는 국내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別名은 외모를 따서 「등소평」 혹은 그의 역할에 비추어 섬유업계 「代父」로 불려지고 있다. 그는 面前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섬유업계의 리더로서, 실제 배후 실력자로서 대구지역 섬유와 관련된 주요 결정에는 언제나 그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朴城亨은 경북 경산군 진량면 文川洞에서 朴在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여러가지 장사를 하다가 죽담기 2대로 직물을 짜서 자전거로 실어 서문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함으로써 섬유와 인연을 맺었다.³⁰⁾ 당시 6.25 사변으로 물자가 절대 부족하였으므로 사업은 번창하였고, 이렇게 장만한 밑천으로 그는 1953년 서울 五大洋紡織에서 직기 27대를 구입하여 명화직물을 설립하였다. 이 명화직물은 1977년 신라염직과 통합 新羅纖維로 바뀔 때까지 존속, 신라그룹의 富의 원천이 되었다. 그는 명화직물에서 제직한 직물을 서문시장에 東亞商會란 포목상을 차려 판로를 개척하였다. 戰後 그는 불하받은 달러로 원사를 사들여 제직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었고, 東大門市場까지 진출하였다. 1967년에는 新羅交易을, 1968년에는 신라염직을 설립하였는데, 신라염직에서는 당시 크게 히트한 「新羅 깔깔이」를 제직함으로써 신라가 대기업으로 도약케 하는 자금을 마련하였다.

많은 대구 섬유인들과는 달리, 朴城亨은 수산업에도 진출하였다. 즉, 1971년에 1,100톤짜리 한일호를 구입하여 新羅水産을 설립하고 원양어업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에 성공하여 1974년에는 5,600톤급 신라호를 들여오고 23척의 선단을 구성하였다. 1976년에는 신라교역을 企業公開하고 1977년에는 新羅纖維株式會社를, 1978년에는 眞興相互信用金庫를, 그리고 1983년에는 신안화섬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87년에는 신라엔지니어링을 건설하고, 1988년에는 현곡개발(주) 등을 설립함으로써 그룹 면모를 갖추었다. 1988년 부터 3년간 그는 대구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30) 朴城亨에 관한 논의는 1985년 8월 19일, 21일, 23일 및 26일字 <每日新聞>의 “향토에서 자란 대기업: 新羅,” 1993년 4월 30일字 <每日新聞>의 “내고장 商工人(9),” 그리고 신라그룹으로 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참고하였음.

朴城亨이 이끄는 신라그룹은 현재 9여개의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진은 주로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는 아직도 그룹 전체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朴龍寬은 1953년 11월 목재직기 20대의 星安織物을 시작으로 오늘의 성안그룹을 일구어낸 기업인으로서, 1970년대 후반 부터 본격적으로 대구 섬유업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³¹⁾ 1970년에 그는 성안직물 원대공장을, 1976년에 성안섬유공업주식회사를, 1979년에 성안직물 서대구공장을, 1980년에 星安染織工業社를, 1983년에 진안섬유를, 그리고 1985년에 한명섬유 주식회사를 각각 신설하거나 증설하였다. 1989년에는 (株) 星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최근에는 성안오피스텔도 건립하였다. 그는 경영을 아들 3형제에게 맡겨 수업시키고 있는데 장남 商兌는 (주) 성안의 부사장으로서, 서울사무소에서 무역과 재정을 총괄하고 있다. 차남 商元은 비산염색공단의 星安染織사장으로, 3남 商赫은 성안오피스텔 상무로 있다. (주) 성안은 전문 경영인 李昇禧를 승진시켜 맡기고 있다.

崔翼成은 1914년 7월 20일 경남 울주군 (지금은 울산군) 삼남면 교동리에서 태어나, 1932년 울산농업학교를 졸업하였다.³²⁾ 그는 일본의 수탈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물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믿고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 일신공업학교 섬유공학과를 1935년 졸업하였다. 그 이듬해 그는 大院織物工業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서문시장 부근에 공장이 있었으므로 그는 경기동향을 민첩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사업은 크게 성장하여 1943년에는 원대동으로 확장이전하였다. 1947년 무렵, 그는 이미 경북전직공업조합의 이사장을 지냈으며, 1983년 12월 타개할 때까지 섬유기술진흥원과 대구경북전직물조합 등을 창립하고 섬유회관을 건립하는 등 대구지역 섬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섬유업계에 남긴 이같은 그의 공적과는 달리, 그 자신의 개인적 이익 추구에는 어두워 남긴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게 정평이다. 그리하여 大院織物工場은 그의 사위인 정상익이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李禹鉉은 경북 달성군 논공 출신으로서, 1947년 5월에 대구시 중구 동산동에서 東山양말공업사를 설립하여 양말류 생산 외길을 46년간 달려온 대구 양말업계의 원로이다.³³⁾ 당시 대구에는

31) 朴龍寬에 대한 논의는 1987년 8월 每日新聞의 “慶北企業仁—自轉의 면모,” 1993년 4월 30일자 〈每日新聞〉의 “내고장 商工人 <8>,” 그리고 1990년 섬유기술진흥원이 발간한 《大邱纖維產業史》, pp. 586~588을 참고하였음.

32) 崔翼成에 관한 논의는 1994년 3월 22일자 및 29일 〈每日新聞〉의 “대구경제인 <12>”와 직접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하였음.

33) 李禹鉉에 관한 논의는 회사로 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 1993년 6월 28일자 〈嶺南日報〉의 “기업항로 <7>,” 그리고 1991년 10월 26일자 〈每日新聞〉의 “나의 기업경영” 등을 참고하였음.

공화, 농진, 인화양말 등 큰 양말업체가 있었다. 거기다가 동산양말의 뒤를 이어 복조, 칠북, 석산, 동덕, 그리고 화신 등 대구지역을 대표한 5~6개의 양말 메이커들이 설립되어 전국 생산의 절반을 담당함으로써 대구가 양말 메카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東山을 제외한 이들 양말 메이커들은 50, 60년대를 거치면서 모두 사라졌다. 그가 양말과 인연을 맺은 것은 21세 때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평양, 신의주 등을 돌며 양말도매업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는 1954년 공화양말을 인수하여 동산양말을 내당동으로 옮기면서 재도약하였다. 1976년에는 東山纖維工業株式會社로 바꾸면서 노원동 현재 본사 자리로 이전하였다. 1982년에는 비산염색 공단에 염색공장을 설립하였고, 1990년에는 KS마크를 획득하였다. 현재는 동생인 李國鉉이 사장을 맡고 있으며, 양말업계로서는 국내 최초로 中國 山東省 青島에 제2공장을 건립함으로써 中國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격동기 대구지역 기계·금속업을 이끌었던 기업인들 중 자료의 입수가 가능하였던 吳一龍, 張景翼 및 金建基를 살펴보고자 한다.

吳一龍은 1923년 8월 29일 경북 상주군 사벌면 금촌리에서 부친 岩回公과 모친 수원 白씨 사이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소학교를 마친 뒤, 15세 되던 해에 외삼촌이 있는 대구 북성로의 공구상에 취업하였다.³⁴⁾ 그는 여기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저축해서 모은 돈으로 1946년 외삼촌의 점포를 인수하여 東一農蠶具社를 설립함으로써 오늘날 東一그룹의 기초를 다졌는데, 여기서 번 돈으로 그는 1955년 부산에서 第一研磨工業社를 창립하였다. 5년 뒤인 1960년에는 오늘의 東一의 직접적인 뿌리가 된 東一工業社를 대구시 중구 태평로 1가에 설립, 선반작크와 연마포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이 회사는 1967년에 東一鐵鋼工業株式會社로 상호를 변경하고 법인체로 전환되면서 신암동으로 옮겨졌다. 이때 부터 그는 철강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 그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나갔으며, 그 결과 1974년에는 동일전공(주)을 포항에 설립하였다. 또한 그는 1967년 8월 부터 1976년 6월까지 大邱商工會議所 제 6, 7, 8대 회장을 역임하였는데,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재임시 대구은행의 설립과 대구직할시 승격추진 등 대구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다. 1980년 2월 급환으로 별세하고, 당시 장남인 舜澤이 34세의 젊은 나이로 그의 사업을 승계하였다.

34) 吳一龍에 관한 논의는 《나눔터》, 1993년 여름호 pp. 44~49의 황건하가 쓴 〈동일산업의 창업과 조양 吳一龍 회장〉, 1993년 7월 28일자 〈嶺南日報〉의 “기업항로: 대구 지역 업체들의 어제, 오늘, 내일,” 1973년 2월 20일자 〈嶺南日報〉의 “企業人: 동일 철강 오일룡 사장,” 그리고 東一로 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참고하였음.

張景翼은 경북 구미시 인동면 출신으로서, 일제 때 일본에서 관련기술을 습득하였다.³⁵⁾ 이를 바탕으로 그는 1947년 7월 20일에 현재의 대구시 북구 침산동 100번지에 南鮮輕金屬工業社를 설립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 27세였다. 당시 널리 사용되던 낫그릇은 무겁고 녹이 잘 쏘였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이 양은 그릇이 각광을 받았다. 설립 3년 후 6.25를 맞아 군수품까지 생산하게 됨으로써 성장기반을 구축하였다. 60년대 들어서 社勢는 더욱 확장되어 1962년에는 KS마크를 획득하였고, 1965년에는 현재 본사 위치인 방촌동으로 옮겼으며, 1973년에는 남선경금속공업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1978년 창업자인 張景翼이 작고함으로써 당시 30세인 장남 亨洙가 代를 잇게 되었다.

金建基는 자동차 부품에 손을 대 성공한 대구 기업인들 중의 한 사람이다.³⁶⁾ 그는 처음에는 지우개와 고무신을 만드는 회사로 부터 출발하였는데, 이것이 1950년에 설립된 平和産業社이다. 그후 그는 1975년에 이를 법인화하여 방진제품, 호스제품, 그리고 진동완충장치 등도 생산하면서 자동차 부품회사로 키웠다. 1970년에는 평화클릿치공업(주)을, 1975년에는 평화오일셀을 1985년에는 평화기공(주)을, 1989년에는 한국게이즈와 평화부품판매(주)를, 그리고 1993년에는 (주)평화를 설립하였다. 1986년에 기업을 公開함으로써 平和는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는 三立産業과 함께 공개회사에 속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섬유와 기계·금속업 이외의 산업계에서 사업을 일구었던 대표적 기업인들 중 자료입수가 가능하였던 具本興, 李潤碩 및 金壽根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具本興은 1920년 경북 칠곡에서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신용·친절·근면·절약」을 경영신조로 삼고 일생동안 流通業界에 몸담아 온 대구 유통업의 선구자이자 원로이다.³⁷⁾ 그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20세 때 대구로 나와 일본인이 차린 조그마한 가게를 빌려 장사를 시작하다가 1944년에 일본인 주인으로부터 이 가게를 인수하였다. 이 가게는 지금의 大邱百貨店 자리에 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일대는 상권이 크게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신용과 친절을 信條로 부지런히 장사에 몰두하였다. 그후 1962년에 그는 당시 대구지역에서 최대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大邱驛 앞(교동시장내)으로 가게를 옮겨, 상호를 大邱百貨店으로 불렀다. 그러나 그는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어느날 원인 모를 火災가 발생하여 매장내 물건과

35) 張景翼에 관한 논의는 1993년 5월 26일자 〈嶺南日報〉의 “기업항로” 및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참고하였음.

36) 金建基에 관한 논의는 1993년 5월 10일자 〈每日經濟新聞〉의 “내고장 상공인 <11>”과 회사로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하였음.

37) 具本興에 관한 논의는 1972년 10월 25일자 〈嶺南日報〉의 “企業人 ③,” 1993년 4월 21일자 〈嶺南日報〉의 “기업항로 <2>,” 그리고 회사로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참고하였음.

백화점 건물을 모두 태워버리는 등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재기하여 현재 대구 백화점 땅을 조금씩 사 모음으로써 7년만인 1969년에 당시로선 대구에서 가장 높았던 12층 짜리 빌딩을 지어 현재의 大邱百貨店을 마련하였다.

70년대 후반 들면서 백화점의 대형화 추세에 힘입어 영업은 급성장하였고, 1978년에는 職制를 개편하여 사위인 李廷武와 만아들인 永謨에게 경영을 맡겼다. 1984년에는 대백상호 신용금고도 설립하였다. 그는 1985년 부터 장남인 永謨에게 사업을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50년전 15평의 구멍가게로 출발한 具本興은 대구백화점은 물론 유통계열사만도 본점과 함께 포항 대백쇼핑, 대백프라자 등을 가진 한강 이남의 최대 流通業體의 총수이자 대백가구, 대백종합건설, 대홍양행, 대백기획, 대백상호신용금고, 그리고 대백관광 등을 거느린 그룹 총수가 되었다.

李潤碩은 3.1운동이 일어나기 두 해 전인 1917년 음력 9월 2일, 경남 밀양군 무안면 성덕리에서 벽진 李씨인 부친 李貞和와 모친 光山 金씨 사이에서 3남 1녀중 3남으로 태어났다.³⁸⁾ 그의 집안은 대대로 이어 온 富農이었으며, 1922년에는 경북 월성군 천북면 신당리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당시 300석군이였다. 1932년 삼촌 李暲和의 사업실패로 가정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는 대구에 나가 도다구미(長門組) 건설회사에서 경주~감포간 도로공사를 하청받아 공사해 오던 삼촌의 권유로 이 工事의 현장업무를 도와주게 되었다. 이 공사에서 실무를 익힌 그는 17세 되던 1934년에 도다구미 건설회사 대구지사에 정식으로 입사하였고, 2년 후에 그는 현장 소장으로 발탁되었다. 22세가 되던 1939년에 그는 만주로 건너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다 해방되기 한달 전에 귀국하였다. 1945년 10월 1일에 그는 현재의 남산동에 합자회사 三和土木을 건설하였다.

삼화토목은 1946년 8월에 주식회사로 바뀌었다. 6.25동란과 전후 복구 등을 거치면서 三和는 계속 발전하였고, 1958년 9월 1일에는 중구 동인동 현 홍구석유 뒤편에서 법인체인 和成産業(株)으로 출범되었다. 그는 설립 때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주로 토목공사를 주종으로 성장하여 80년대 중반부터 주택건설업계에 본격적으로 진출, 1971년 중구 동문동에 있는 교동 상가아파트(현 동아백화점)를 수주받아 공사에 들어갔으나 건축주의 부도로 위기를 맞았다. 공사 대금을 받지못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건물을 떠안게 된 그는 1972년 8월 여기에 동아백화점을

38) 李潤碩에 관한 논의는 1990년 화성산업(주)과 동아백화점이 발간한 《和成産業(株)·東亞百貨店 三十年》, 1973년 1월 26일자 〈嶺南日報〉의 “企業人 <58>,” 1980년 8월 20일자 〈每日新聞〉의 “경북기업인 그 자전적 면모 ⑤,” 1991년 1월 〈嶺南日報〉의 “경영과 인맥-흔맥,” 그리고 1993년 5월 12일자 〈嶺南日報〉의 “기업 향로 <4>”등을 참고하였음.

개점, 영업활동에 들어갔다. 이것이 그가 유통업계에 투신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1983년에 장남 仁中에게 사업을 맡기고 회장으로 물러났다. 같은 해에 동아쇼핑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에 문을 열었다. 그는 건설사업으로 企業을 시작하여 지금은 화성산업을 비롯, 동아백화점, 동아쇼핑, 포항 동아백화점, 신평백화점, 덕산무역, 동진건설, 한라산업, 그리고 동진해운 등 12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그룹 총수가 되었다.

大成그룹의 창업주 金壽根은 1947년 대구 칠성동에서 大成産業공사라는 연탄공장을 설립, 기업을 시작하였다.³⁹⁾ 그가 연탄산업에 뛰어든 것은 日帝時代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大邱商業學校를 나온후, 가정 사정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하고 日人이 경영하던 미꾸니 (三國) 석탄상회에 취직하였다. 그는 매우 성실하였으므로 곧 인정을 받아 당시 三國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메다(梅田) 석탄상회 日人社長이 그를 탐내 스카우트하려 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의리를 내세워 이를 거절하는데, 이를 안 미꾸니 사장이 거액을 그에게 주었다. 그 돈으로 金壽根은 日本大를 다녔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 온 그는 금융조합이사 시험에 합격하여 永川 금융조합 이사로 재직할 당시 해방을 맞았다. 여러 사업을 생각하던 중 연탄업에 손을 대어 60년대 이후엔 대구 최대 연탄공장으로 키웠다. 大成이 국내 최대의 에너지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석유와 가스 등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다. 金壽根의 아우인 義根은 현재 대성산업 사장을, 文根은 대성탄좌 사장을 맡고 있다.

IV. 經營特徵

해방과 6.25동란의 激變中에서도 이 기간의 지역 기업들은 향후 크게 발전할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기간 중 주요 기업들의 경영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섬유업의 기반형성이다. 주로 서문시장에서 포목상으로 재산을 모은 다수 기업인들이 섬유업에 뛰어들었으므로 대구가 纖維都市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그 대표적인 예가 朴在甲, 白煜基, 朴成亨, 그리고 朴龍寬 등이다.

둘째, 機械金屬業界의 태동이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鐵鋼, 자동차부품 등 기계·금속업체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39) 金壽根에 관한 논의는 1985년 7월 10일, 12일, 16일 및 18일字 〈每日新聞〉의 “향토서 자란 대기업 <10>~<13>,” 1993년 12월 30일字 〈每日經濟新聞〉의 “스타일,” 그리고 1993년 4월 26일자 〈每日經濟新聞〉의 “내 고장 상공인 <7>” 등을 참고하였음.

셋째, 流通業界의 태동이다. 지금 대구 유통업계를 이끌고 있는 大邱百貨店과 東亞百貨店의 양대 백화점이 이 시기를 전후하여 태동되었거나 태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다.

넷째,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기업의 수준은 아직 前近代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시기에 시작한 기업들은 대개 규모가 적고 연륜이 낮으므로 創業主의 一人體制에 의해 움직여졌다. 아울러 대부분의 경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였으므로 고도의 經營合理化도 그리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다. 이 시기에는 사업에 대한 創意性和 자금조달이 경영의 가장 큰 관심사를 이루었다.

第4節 戰後再建期の 大邱 企業, 企業人 및 企業經營

I. 企業經營環境

이 시기에 政府는 6.25동란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고, 생산을 활성화하며, 통화가치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었다. 한국경제에 있어 戰災復舊와 產業再建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對韓援助였다. 이 기간중의 원조액은 21억 달러를 넘었다.

이러한 원조를 활용한 복구사업의 결과로 한국경제는 1953~1960년 중 연평균 4.9%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1953~1957년 중 복구추세는 더 급속하여 이 기간중 연평균 성장률은 5.5%에 달하였다. 1958년을 전후하여 한국경제는 戰後의 복구를 어느 정도 매듭짓고 표면적으로는 安定勢를 유지하였다.⁴⁰⁾ 그러나 1959년부터는 다시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인플레이가 再燃되었다. 아울러 미국의 원조도 감축되고 無償에서 유상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다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1960년에는 「2.28학생의거」와 「4.19革命」으로 제1공화국이 막을 내리는가 하면, 그 이듬해에는 「5.16군사혁명」으로 張勉政權이 短命으로 끝나는 등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수선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大邱는 전쟁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입은 지역이었으므로 戰後의 再建도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러나 전쟁때 몰려온 피난민 때문에 人口 증가가 현저하였고, 전후 生必品の 생산이나 유통기지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되었다.⁴¹⁾ 이로 인해 都市化가 급진전됨으로써 비교적 값싼 노동력을 풍부하게 제공받아 지역 경제발전에는 도움이 되었다. 반면,

40) 대구상공회의소, 《大邱經濟總鑑》, 1985, p. 76.

41) 위의 책, p. 78.

이로 인해 실업율이 증가되고 판자촌이 늘어났으며, 범죄가 격증되는 등의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이 시기에 大邱의 工業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상대적인 입지가 강화되었다. 또한 동란시 경상도 지역이 군수물자와 국민의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중심지역으로 등장함에 따라 동란 후 외국인조에 의한 工場建設도 늘어났다. 이에 대구는 纖維都市로서의 기반을 굳히게 되었다.

한편, 1950년대 대구의 商業도 섬유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크게 발달되었다. 소비인구의 격증에 따른 소비의 급증은 大邱商業의 발전을 크게 자극하였으며, 직물공업의 발달은 대구의 都賣機能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金融機關도 대폭 개편되었다. 그리하여 은행 점포수도 크게 늘어나고 은행업무와 기능도 분화되었다.

이 시기 末에는 산업시설이 복구되고 경제가 정상을 되찾음에 따라, 경제활동의 중심지도 首都圈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따라서 재건기 말기의 大邱는 경제적 위치면에서 다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II. 企 業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섬유공업의 경우에 두드러졌다. 즉 <表 11-12>와 같이, 대구의 섬유공장수와 종업원수는 戰後 1950년대 중반까지는 증가하다가 1960년대 초에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機械·金融 및 食飲料工場의 경우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리하여 이들 업종은 1954년에 공장수가 각각 15, 18 및 41개에서 1961년에는 103, 107 및 71개로 대폭 증가되었다.

<表 11-12> 戰後 再建期 大邱의 工場 (단위: 개, 명)

業 種	工 場 數				從 業 員 數			
	1954	1956	1960	1961	1954	1956	1960	1961
合 計	280	1,666	1,136	1,225	14,275	33,456	26,613	28,379
纖 維	149	1,368	594	599	11,367	26,059	19,230	19,929
機 械	15	66	97	103	308	1,345	2,042	2,138
金 屬	18	62	83	107	430	1,377	1,205	1,934
電 氣 機 器	—	—	6	7	—	—	162	176
燃 料	—	—	43	62	—	—	492	628

業 種	工 場 數				從 業 員 數			
	1954	1956	1960	1961	1954	1956	1960	1961
製 材	13	21	37	33	147	205	189	176
化 學	14	52	31	39	305	1,307	410	429
紙 類 · 文 具	1	4	22	23	29	158	363	383
印 刷 · 出 版	16	17	21	21	353	258	172	177
食 料 品	41	25	64	71	950	710	494	504
고 무 · 皮 革	—	17	20	19	—	975	432	428
其 他	13	34	118	141	386	1,062	1,124	1,477

資料：1954年分은 大邱市, 1954年版《市勢一覽》, 1955年 7月, p. 109.

工場數와 從業員數가 過少計上되어 있는것 같음.

1956年分은 韓國銀行 大邱支店, 《慶尙北道 産業變遷史》, 1957年 11月, pp. 632~767에서 작성

1957年 3月 商工部와 慶尙北道 商工課과 합동으로 調査한 것으로 精度가 높음.

1960年, 1961年分은 大邱市, 第2回《統計年報》, 1962. p. 85.

1950년대 대구의 주요 기업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紡織業의 경우는, 삼호방직, 내외방직, 그리고 대한방직 대구공장이 主役企業들이었다. 1950년대 초반 대구 섬유공업의 전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던 新興工業과 太陽紡織은 〈表 11-13〉과 같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社勢가 기울어졌다. 반면, 195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第一毛織과 韓國나이론은 지역 섬유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960년대에 와서도 대구 섬유공업의 상징적인 기업들로 부상되었다.⁴²⁾

〈表 11-13〉 戰後 再建期 大邱의 주요 紡織業體 (종업원 100명이상) (단위: 명)

業 體 名	代表者	住 所	從 業 員 規 模			生 產 品
			1954	1957	1960	
內 外 紡 績(株)	李淳熙	砧山269	507	397	680	綿 絲
大韓紡大邱工場	薛卿東	七星20	2,052	960	1,807	綿絲 · 綿織物
三護紡織(株)	鄭在護	院垞1070	1,054	1,408	2,295	〃
新興工業(株)	金甲珍	東仁140	112	—	—	〃 生絲
太陽紡織(株)	車泰雲	砧山277	130	—	—	毛 織 物
第一毛織(株)	李秉喆	砧山105	—	573	1,550	毛紡 · 毛織物
韓國나이론(株)	李源万	新川1090	—	—	245	나일론絲加工

資料：《大邱商工名鑑》, 1957, 1964, 《全國製造業要覽》, 1955.

42) 섬유기술진흥원, 《大邱纖維産業史》, 1990, p. 259.

生絲工業의 경우는 대한생사와 경북잠사가 이 기간 대구 잠사공업을 이끈 주역들이었다. 新興工業과 達成製絲는 전반부에 두각을 나타낸 반면, 中央生絲와 相信工業은 후반에 생산이 활발하였다. 〈表 11-14〉는 이 기간 대구의 주요 잠사기업들을 요약해 주고 있다.

〈表 11-14〉 戰後 再建期の 주요 蠶絲業體 (종업원 100명이상) (단위: 명)

業 體 名	代表者	住 所	從 業 員 規 模		
			1954	1957	1960
新 興 工 業(株)	金甲珍	東仁140	2,520	—	—
達 城 製 絲 工 業(株)	李瑞求	大鳳97	511	120	—
大 韓 生 絲(株)	具載龍	東仁165	253	220	492
慶 北 蠶 絲 工 業(株)	李慶溶	東仁128	204	126	126
中 央 生 絲 工 業(株)	郭泰淳	七星371	—	—	155
相 信 工 業(株)	鄭相溶	七星640	—	—	122

資料: 《大邱商工名鑑》, 1957, 1964.

《全國製造業要覽》, 1955.

織物工業의 경우는 남산직물, 동흥산업, 삼화직물, 그리고 동양직포들이 이 기간 전체를 통하여 활발하였다. 종업원 100명 미만의 규모이면서 이 기간 중 각종 경제단체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기업은 동국직물, 동신직물, 조양직물, 그리고 동화직물 등이었다.⁴³⁾

이 시기의 주요 직물기업들은 〈表 11-15〉와 같다. 경북기업의 李源万, 남산직물의 尹經普, 그리고 오복직물의 朴在甲 등이 눈에 띈다.

〈表 11-15〉 戰後 再建期 大邱의 주요 織物業體 (종업원 100명 이상)

業 體 名	代表者	住 所	從 業 員 規 模			生 產 品
			1954	1957	1960	
慶 北 機 業(株)	李源万	砧山255	139	139	—	毛・本絹・人絹織
(株)慶北共同織物	金洪官	砧山353	113	95	—	梳毛・스프織
東 和 織 物(株)	金潤坤	新岩1259	158	109	—	人 絹 紋 織
平 和 染 織(株)	金喜欽	東城3-51	111	—	—	綿 服 地

43) 앞의 책, p. 261.

業 體 名	代表者	住 所	從 業 員 規 模			生 產 品
			1954	1957	1960	
協 和 工 業(株)	金能秀	壽昌21	176	176	—	人絹・本絹・毛織物
東 洋 織 布 工 場	黃月祥	大鳳193	114	69	90	毛織・人絹・綿織
南 鮮 織 物 工 場	尹經普	太平154	178	136	160	本 絹 ・ 人 絹
京 紡 織 物 工 場	崔八守	飛山180	—	105	91	本 絹 ・ 人 絹 織
東 興 產 業(株)	鄭淳化	新川819	76	147	285	毛 服 地・軍 服 地
三 和 織 物 工 場	閔庚宅	砧山116	74	126	108	本・人絹・뉴퐁・양단
吳 服 織 物 工 場	朴在甲	達城116	—	107	70	人 絹 平 織
日 謹 交 織 社	權演洙	七星640	—	149	—	人 絹 文 織
大 東 織 物 工 場	李鴻魯	飛山1025	—	—	141	아 세 트 양 단
三 益 織 物 工 場	鄭禹燮	院垵1135	—	78	161	인 건 양 단
榮 豐 織 物 工 場	崔榮集	砧山	—	—	102	포 플 린
慶 北 機 業 (株)	禹漲海	砧山255	—	—	130	毛 服 地
大 興 毛 紡(株)	禹海祚	達城146	—	—	183	紡 毛 絲

資料：섬유기술진흥원, 《대구섬유산업사》, 1990, p. 260.

메리야스공업의 경우, 1950년대 초반에는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군이 없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삼호공업사와 대구메리야스 외에 석산섬유가, 중반에는 대구양행이 두각을 나타내었다. 1940년대 말 慶北 메리야스공업을 이끌어 왔던 공화공업, 동부양말, 선일공업 등은 1950년대 초반에 이미 쇠퇴하였다.⁴⁴⁾ 이 기간중 대구의 주요 메리야스업체는 〈表 11-16〉과 같다.

44) 앞의 책, p. 261.

〈表 11-16〉 戰後 再建期 大邱의 주요 메리야스業體 (종업원 50명 이상)

業 體 名	代表者	住 所	從 業 員 規 模			生 產 品
			1954	1957	1960	
三 護 工 業 社	鄭載護	大新115	51	37	—	內 衣 類
和 信 메 리 야 스 工 場	宋萬洙	達城143	60	46	—	〃
公 平 메 리 야 스 工 場	鄭圭燮	公平56	28	62	—	〃
大 韓 興 産(株)	李時和	太平24	12	53	—	〃
大 邱 메 리 야 스 公 司	李淳熙	砧山269	50	61	—	〃
東 邦 메 리 야 스 工 場	鄭 明	大鳳271	23	55	—	〃
石 山 纖 維 工 業(株)	崔錫麟	東仁234	15	125	351	양 말
鮮 光 工 業 社	金德鎭	院垈1193	42	56	—	內 衣
西 一 메 리 야 스 工 場	李錫俊	壽昌50	45	76	26	〃
(合)大 邱 洋 行	朴聖岩	南一56	23	31	152	〃
東 山 양 말 工 業 社	李禹鉉	南山452	26	35	52	양 말
東 元 양 말 工 業 社	趙東坤	南山559	—	26	65	〃
日 星 工 業 社	金道述	범어778	—	—	69	掌 匣
進 成 장 갑 工 場	具在萬	범어774	—	12	60	〃

資料：섬유기술진흥원, 《대구섬유산업사》, 1990, p. 261.

染色工業의 경우는 〈表 11-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50년대 전반에 걸쳐 존속한 기업은 거의 없었다. 1950년대 중반까지 금성방직과 대구염색 등이 있었으나, 중반에는 社勢가 약화되었다. 중반에는 경북메리야스염색가공, 신진염공, 그리고 대구염색공업의 전신인 경북염색공업이 출범하였다.

〈表 11-17〉 戰後 再建期 大邱의 주요 染色業體 (종업원 50명 이상)

業 體 名	代表者	住 所	從 業 員 規 模		
			1954	1957	1960
金 星 紡 (株) 大 邱 工 場	金成坤	七星404	88	66	—
大 邱 染 色 工 業 (株)	崔翼成	砧山219	73	121	—
大 邱 메 리 야 스 公 司	李淳熙	々	50	△ 44	—
美 代 染 色 工 場	裴廷遠	達城	50	—	—
大 建 化 學 工 業 (株)	鄭行祿	砧山253	—	131	—
兄 弟 染 色 所	張奉石	桂山5	—	52	5
大 東 染 色 工 場	林炳台	南山651	—	52	—
慶 北 染 色 工 業 (株)	申大均	砧山219	—	—	148
慶北 메 리 야 스 染色 加工	李炳鎬	院堡1070	—	—	125
慶 新 染 工 社	金斗錫	南山580	—	—	51
邱 一 染 色 工 場	金洪柱	太平116	—	5	67
金 星 골 렌 染 織	全東善	砧山123	—	—	64
美 成 機 械 捺 染	車在淳	砧山133	—	—	51
三 協 染 工 社	黃夏鍾	大鳳206	—	13	68
相 昌 染 織	朴昌奉	壽城641	—	—	68
新 進 染 工 (株)	金周錫	大新69	45	33	105

資料 : 섬유기술진흥원, 《대구섬유산업사》, 1990, p. 262.

機械·金屬業의 경우는, 이 기간중 재래식 농기계 생산업체와 경금속 업체가 크게 늘어난 반면, 수송기계와 산업기계 및 금속제품업체는 상당히 줄어 들었다. 특히 조광산업, 선학알미늄, 그리고 남선경금속이 전국시장을 거의 석권하였다. 農機械工場 중에는 건국철공소, 산남공업사, 그리고 아세아산업 등이 큰 기업에 속하였다. 纖維機械부문에서는 삼성제침, 명성금속공업 등 제침업이 일찍부터 발달하였고 승리기계가 담직포기를 생산할 정도였다. 自動車部品 메이커로는 삼립산업, 대구철공소, 그리고 평화산업사 등이 가동되었다.

1960년도 대구의 機械金屬業體 규모는 〈表 11-18〉과 같다.

〈表 11-18〉 1960년 大邱의 機械金屬業體

業 種 別	業 體 數	從 業 員 數	生 產 實 績
合 計	46	1,377	—
製 鐵	3	34	500%
鐵 筋	1	15	1,500%
食 罐	2	30	7,100個
알미늄製品	5	370	666%
鐵 釘	3	28	39%
볼트, 나사	5	131	244%
發 動 機	4	200	222臺
工業用보이러	1	32	41%
除 草 機	3	152	
人 力 脫 穀 機	1	65	72臺
旋 盤	3	60	221%
絹 織 機	1	6	27%
綿 織 機	1	56	215%
編 織 機	1	7	37%
製 粉 機	1	15	2%
印 刷 機	1	21	27%
變 壓 機	5	62	72%
電 球	2	25	228,000個
電 氣 아 이 룡	1	25	17,000%
電 氣 콘 로	1	20	6,000%
소켓트	1	23	14,520%

資料：慶尙北道, 《主要行政統計 調査綜合報告》, 1966, pp. 193~201.

이 시기의 其他産業으로는 〈表 11-19〉와 같이 제재, 인쇄·출판, 그리고 연탄업체 등이 많았다.

〈表 11-19〉 1960년 大邱의 其他 工業體

業 種 別	業 體 數	從 業 員 數	生 產 實 績
合 計	132	1,767	—
搗 精 業	10	71	8,616%
製 水	1	5	1,500%
製 材	13	130	798,852m ³
印 刷 用 紙	6	192	6,186%
印 刷, 出 版	17	206	—

業 種 別	業 體 數	從 業 員 數	生 產 實 績
고 무 벨 트	5	32	295,700PLY
工 業 用 카 스	2	12	38,000m ³
카 바 이 트	4	56	2,320%
其 他 工 業 用 品	11	67	—
化 學 製 品	11	199	3,139%
비 누	32	544	330,409%
煉 炭	1	46	76,600%
마 세 크	4	31	748,000板
기 와	6	35	3,932,000個
벽 돌	8	101	1,232%
一 般 유 리 製 品	1	40	125,600個
陶 磁 器 食 品			

註：印刷用紙는 白上紙, 中質紙, 書籍用紙, 켄트紙 및 其他 인쇄用紙의 合計임.
 資料：慶尙北道, 앞의 책, pp. 181~193.

III. 主要 企業人

전후 再建期에 사업을 일구고 기반을 잡은 대구의 주요 기업인들중 자료입수가 가능하였던 기업인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즉, 섬유공업에서는 洪載善, 尹經普, 鄭相溶, 그리고 韓壽一 등이며, 기계·금속·비금속업에서는 姜在邱, 李海俊, 陳禹成, 그리고 金秋虎 등이다. 기타 공업에서는 金泓殖이 대표적이다.

우선 재건기의 지역섬유인들 중 자료입수가 가능하였던 대표적 기업인들은 洪載善, 尹經普, 鄭相溶, 및 韓壽一 등이다. 洪載善은 30대 초반 서문시장의 포목상으로 기반을 잡아 1957년 三共織物工場을 설립하고, 나일론 타프타를 주로 생산하여 온 나일론 직물업체의 代父이다.⁴⁵⁾

그는 일본 大阪에서 복도공업학교를 다니며 신기술을 개발하여 창업초기 스스로 기술개발을 주도하였으며, 5.16군사혁명 이후에는 나일론 타프타를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였다. 나일론 타프타로 성공한 그는 1964년에 회사명을 汎三共物産으로 바꾸고 수출을 전문으로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회사는 1976년에 다시 (株) 汎三共으로 회사명이 바뀌었다. 1971년에 그는 삼공

45) 洪載善에 관한 논의는 1990년 섬유기술진흥원이 발간한 《大邱纖維産業史》 pp. 589~590, 1972년 12월 12일 字 嶺南日報의 “企業 <33>,” 1991년 6월5일字 <嶺南日報>의 “경영과 인맥-흔맥,” 1991년 11월 23일字 <每日新聞>의 “나의 기업경영,” 1993년 4월30일字 <每日經濟新聞>의 “내고장 상공인 <8>,” 그리고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참고하였음.

섬유가공(주)과 1976년에 삼공화섬(주)을 설립하는 등 사업을 계속 확장하여 나갔다. 그는 대부분의 지역 섬유업체들과는 달리, 나일론 타프타 생산을 전문화하면서 質的 향상에 주력하여 왔으므로 현재 나일론 타프타만 20년 생산하고 있으며 4개의 유관 계열사를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경영은 1985년 차남인 鍾潤에게 이양하고, 그는 중국 靑島에 현지공장 설립을 구상중이다.

尹經普는 일찌기 서문시장에서 포목상을 경영하여 모은 돈으로 1967년 南鮮織物을 설립하고 무역을 본격화하면서 대기업으로서 터전을 닦았다.⁴⁶⁾ 수출업을 시작한지 1년만에 그는 정부로부터 산업포상을 받을 정도로 급성장하여 섬유, 철강 등 모두 9개의 계열사를 거느렸으며 1983년에 이미 수출랭킹 상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기불황과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에 따라 그는 남선물산을 1987년 法定관리로 넘기고, 현재는 4개 공장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相信工業의 鄭相溶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서, 일본 와세다대학 상과를 나와 1940년 日生製絲工場을 설립하면서 섬유업계에 투신하였다.⁴⁷⁾ 1959년에는 생사와 견연사를 주로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하였다. 현재 아우인 乙溶이 사장을 맡고 있으며 鄭鎬溶 국회의원도 그의 아우이다.

韓壽一은 1956년 동구 신천동에 西都産業社를 설립하여 30여년간 손수건 하나만을 고집해 온 외길 섬유인이다.⁴⁸⁾ 평남 맹산에서 4형제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만주 봉천 남만공업학교를 졸업하고 성장기와 학창기를 만주에서 보냈다. 해방 이후 그는 1949년 26세의 젊은 나이로 평양에서 타월공장을 시작하였으나, 이듬해 6.25로 문을 닫고 1.4후퇴때 월남하여 1956년에 西都産業을 세웠다. 처음에는 타월을 생산하였으나, 1961년 부터 손수건 전문생산업체로 전환하였다. 1977년에는 한달에 50만타를 미국, 유럽, 동남아, 그리고 일본 등 27개국에 수출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는 고급화에 치중하고 있다. 1985년에는 서도염직을 세우고, 1991년에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주) 제로포인트란 팬시제품의 생산 유통업체를 설립하였다. 그는 손수건 외길로 국내외 명성을 획득한 지역 성공기업인들 중의 한사람이다.

섬유 이외의 업종중 재건기에 기업을 일군 기업인들 중 자료입수가 가능하였던 기업인 金秋虎와 金泓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6) 1990년 섬유기술진흥원이 발간한 《대구섬유산업사》, pp. 593~594를 참고하였음.

47) 위의 책, p. 595를 참고하였음.

48) 韓壽一에 관한 논의는 1972년 12월 26일자 〈嶺南日報〉의 “기업인 <43>,” 1991년 8월 14일자 〈嶺南日報〉의 “앞서가는 기업인,” 1993년 6월30일자 〈嶺南日報〉의 “기업향로 <11>,” 그리고 1993년 3월 24일 〈每日經濟新聞〉의 “화재기업”을 참고하였음.

金秋虎는 1945년 32세의 나이로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 亞細亞産業工社를 설립하여 약 40년간 농기계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⁴⁹⁾ 1971년 그는 공장을 제3공단으로 옮기면서 경운기 생산을 본격화하였다. 경운기의 매출증대로 회사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70년대 후반 들면서 대기업 계열의 농기계 업체로의 진입 등으로 고전하였다. 이때 그는 회장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대신 雄吉, 信吉, 그리고 春吉 등 2세를 경영전면에 나서게 하였다. 이들은 외국 농업기계화 현장 등을 다니면서 연구하였고, 그 결과 亞細亞는 1982년에 동력분무기 전기종에 대해 국내 최초로 KS마크를 따내었다. 1990년 부터는 관리기 외에 트랙터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해외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金泓殖은 1928년 경북 안동군 길안면 松仕洞에서 삼포 및 약초를 경작하며 한약방을 운영하던 金相鎬의 5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⁵⁰⁾ 의성보통학교에 입학한 후 경성공업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17세때 만주 봉천으로 가 일본군 군수공장인 후지꾸라(藤倉)공장에 취직, 봉천공업전문학교에 다니면서 학업을 계속하였다. 8.15 해방을 맞자 그는 봉천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21세때 송정수와 결혼하였는데, 그의 장인이 開城주정회사 전무였다. 그는 1951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주정공업사에서 소주에 대한 기술 및 경영을 익히고, 1954년에는 대구 동인로타리 부근에서 대동상회라는 주류 도매상을 시작하였다. 또한 그는 장인이 전무로 있던 豐韓주정의 대구영업소장도 겸하였다.

金泓殖은 술배달과 함께 주정판매로 많은 돈을 벌었고, 이 돈으로 1959년에 三山양조 합작회사를 세웠다. 이 때 그는 원대동 일대에서 기업을 하던 白煜基, 尹經普 등과 함께 「8.1同心契」를 조직하여 인맥을 넓혀 나갔으며, 1971년에는 삼산양조장을 합작회사 금복양조장으로 개칭하였다. 그는 1975년에 금복양조장을 주식회사 금복주로 개칭하고, 1983년에 경주 법주양조를 경주법주주식회사로 개칭하였다. 1979년에 그는 화원동산을 매입하였다. 사업성과 더불어 그는 1982년에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됨으로써 정치계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그는 장남 東求에게 경영을 맡기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왕성한 사회·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金泓殖은 대구지역 음료업계의 대표적 인물로서, 지역 경제계의

49) 金秋虎에 관한 논의는 1973년 2월 23일자 <嶺南日報>의 “기업인 <70>,” 1993년 6월 23일자 <嶺南日報>의 “기업향로 <10>,” 1980년 8월 27일자 <每日新聞>의 “경북기업인 ⑦ 과 ⑧,” 그리고 직접 수집한 자료를 참고하였음.

50) 金泓殖에 관한 논의는 1987 (株)金福耐가 발간한 《金福耐 三十年史》, 1972년 11월 8일자 <嶺南日報>의 “기업인 913,” 그리고 1985년 9월 2일, 4일, 9일 및 11일자, <每日新聞>의 “향토서 자란 대기업 <31>~<34>”을 참고하였음.

원인으로 지칭되고 있다.

IV. 經營特徵

전후 再建期の 경영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격동기에 창업한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하였다. 특히 지역의 섬유업체들은 전후 特需로 사업을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섬유업체들은 이 시기 후반에 사업의 쇠퇴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호방직이다.

둘째, 기계·금속공업이 성장하였다. 특히 알미늄 제조 및 농기구 제조업체들이 성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식음료업의 성장이 현저하였고, 특히 이 업종이 근대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第5節 經濟開發初期 大邱의 企業, 企業人 및 企業經營

I. 企業經營環境

1960년대는 우리 나라에서 두 차례의 종합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됨으로써 한국경제가 후진 농업형에서 新生 工業型으로 탈바꿈한 시기이다.⁵¹⁾ 1962년부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었는데, 그 결과 國民總生産이 1962년에 비해 1971년에는 2.3배 증가하였고 1인당 GNP는 1962년 87달러에서 1971년 278달러로 향상되어 그 기간 중 3.2배 증가하였다. 특히 輸出의 경우는 1962년에 비해 1971년에 19.5배나 증가되었다. 또한 1962년부터 1971년까지 10년간 연평균 經濟成長은 9.9%로서, 같은 기간 중 세계 성장률 5%를 훨씬 앞질렀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대구지역의 경제도 1960년대에 상당히 발전하였다. 그러나 지역 경제의 발전속도나 성장수준은 전국 평균을 밀돌아 相對的으로 落後되는 경향을 보였다. 왜냐하면,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공업정책은 서울과 부산을 거점으로 그 주변 지역인 울산, 마산, 그리고 여수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구의 工業構造가 섬유를 주종으로

51) 대구상공회의소, 《大邱經濟總鑑》, 1985, p. 103.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타산업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구지역의 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자본으로 운영되었고 변화하는 시대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1960년대 大邱의 商業은 도시화와 공업화의 진전으로 상당히 성장하였다. 예를 들면, 대구시내 도소매 업체수는 1962년~1971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2.7배가 늘어났고, 이 분야의 從事者는 무려 4배가 증가되었다. 1960년대 대구경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정부의 수출주도를 통한 성장전략이 가동됨에 따라 貿易活動이 활발해졌다는 점이다. 1960년대 후반기에는 각종 특수은행과 地方銀行이 설립되는 등 금융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대구시의 금융기관도 1960년대에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다. 특히 1967년 10월7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은행인 大邱銀行이 창립됨으로써 지방은행 시대가 부활되었고, 금융의 대중화가 크게 촉진되었다.

II. 企 業

앞서 記述한대로 1960년대 대구의 공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전국에 비한 상대적인 비중은 낮아졌다. 동기간중 업종별 企業體數와 종업원수의 구체적 내역은 〈표 11-20〉과 같다.

〈表 11-20〉 經濟開發 초기 大邱의 企業(1960年代 業種別 工場數) (공장수: 개)

年度別 業種別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合 計	1,206	1,218	1,255	1,462	1,288	1,398	1,914	2,254	2,187	1,933
飲 料 ¹⁾	—	26	26	—	50	3				
食 料 品	71	34	35	—	64	67	157 ²⁾	228 ²⁾	238 ²⁾	193 ²⁾
纖 維	584	651	657	—	594	641				
皮 革	7	8	9	—	7	5	914	1,076	1,010	873
製 材	33	20	21	—	22	18				
家 具	53	24	25	—	36	32	100	103	101	107
製 紙	23	13	14	—	10	17				
印 刷・出版	21	26	27	—	43	28	56	109	119	102
煉 炭	62	58	58	—	34	34				

年度別 業種別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化學	38	68	72	—	63	62	92	108	118	88
고무	12	15	16	—	14	13				
유리·土石	—	18	18	—	17	43	156	102	110	106
1次 金屬	—	38	38	—	26	28	24	31	35	26
金屬製品	106	50	53	—	94	122				
機械	103	78	83	—	117	85				
電氣機器	7	15	16	—	17	24	379	456	415	402
輸送機械	—	27	28	—	32	62				
其他	86	49	59	—	48	114	36	41	41	36

註: 1)은 양조업이 추가 됨.

2)는 담배 공장이 포함됨.

資料: 大邱市, 《統計年報》, 1963~1973.

經濟開發初期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발전은 가히 혁명적이었다.⁵²⁾ 왜냐하면 첫째는 상업 자본이 공업자본화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내수위주에서 수출우선으로 근대화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60년대 들면서 서문시장에서 포목상으로 번 자금을 공장을 짓거나 설비증대를 위해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미 제조업에 손을 댄 기업인들도 輸出企業으로 변신하고 있었다. 동국직물, 갑을섬유, 이가직물 및 보국직물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기간중 대구지역을 先導하였던 企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織物工業의 경우, 이 기간은 나일론사를 주원료로 하는 化纖織物 생산이 중심이 된 소위 「나이롱」 시대로서, 동국직물, 신한견직, 신흥직물, 이가직물, 보국직물, 삼공직물, 남선물산, 신도실업, 청구직물, 그리고 동아견직 등이 이를 선도하였다.⁵³⁾ 구체적으로는 구극직물이 죠세트로, 동아직물이 자카드로, 동신섬유가 자수직물로, 이가직물이 트리코트로, 서도산업이 손수건으로, 대성직물이 강업으로, 상신직물이 데님으로, 동국직물이 지짐이와 양단으로, 고려홍업이 낙하산지로, 유신섬유가 밉크직물로, 그리고 삼공직물이 테피터로 유명하였다.⁵⁴⁾

52) 섬유기술진흥원, 《大邱纖維産業史》, 1990, p. 303.

53) 앞의 책, p. 331.

54) 앞의 책, p. 332.

〈表 11-21〉 1960年代 業種別 從業員數 (종업원수: 명)

年度別 業種別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合 計	27,860	42,310	43,138	48,245	46,380	50,452	67,742	72,236	66,896	53,525
飲 料 ¹⁾	—	427	427	—	668	77				
食 料 品	504	619	624	—	641	597	4,793 ²⁾	6,205 ²⁾	6,084 ²⁾	3,627 ²⁾
纖 維	19,756	29,544	29,812	—	28,369	32,732				
皮 革	201	373	393	—	407	219	42,762	44,251	38,018	31,336
製 材	176	205	210	—	192	176				
家 具	425	361	366	—	387	320	1,152	941	885	920
製 紙	383	410	430	—	573	892				
印 刷	177	346	351	—	494	193	1,846	2,295	2,520	2,127
煉 炭	628	980	980	—	574	602				
化 學	421	936	1,099	—	958	953	2,355	2,422	4,013	2,167
고 무	217	423	443	—	446	317				
유 리 · 土 石	—	311	311	—	446	634	1,635	1,057	1,289	1,173
1次 金屬	—	1,289	1,289	—	1,585	2,406	828	848	1,027	1,109
金 屬	1,924	1,400	1,460	—	2,389	2,206				
機 械	2,138	1,804	1,864	—	2,433	2,358				
電 氣	176	707	727	—	479	515	10,718	12,161	11,144	9,651
輸 送	—	1,005	1,025	—	936	1,601				
其 他	724	1,170	1,327	—	4,403	3,654	1,653	2,056	1,916	1,415

註: 1)은 양조업이 추가 됨.

2)는 담배 공장이 포함됨.

資料: 大邱市, 《統計年報》, 1963~1973.

메리야스공업의 경우, 1960년대 초 대구의 內衣生産을 주도한 기업은 대성메리야스, 청포도 메리야스, 경북메리야스, 조일메리야스, 그리고 동명섬유 등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 와서는 다보탐메리야스, 회전니트, 그리고 아폴로메리야스 등이 나타나 오늘에 와서는 전국의 우수한 기업으로 등장하였다. 양말업체로서는 동산양말, 복조양말, 그리고 칠복양말 등이 유명하였다.

1960년대 경편직의 개척자는 이가직물이었다. 絹織物의 경우, 달성견직, 동신양행, 삼경물산, 그리고 남선물산 등이 주도하였다. 染色工業의 경우는 경북염색과 태양염직 등이 있었다.

한편 纖維機械工業의 경우는 승리기계, 금룡기계, 대건기계, 그리고 청송기계 등이 1960년대 활약한 기업들이다.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는 한국경제의 약진기였는데, 특히 機械金屬工業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이는 <表 11-22>에서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表 11-22> 1960년대 大邱의 機械金屬業體 (단위: %)

業 種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一 次 金 屬	—	38	38	54	26	28	24	31	35	26
機 械 金 屬	216	170	180	233	260	293	379	456	415	402
小 計(B)	216	208	218	287	286	321	403	487	450	428
全 製 造 業(A)	1,206	1,218	1,255	1,462	1,288	1,398	1,914	2,254	2,187	1,933
B/A (%)	17.9	17.1	17.8	19.7	22.2	22.9	21.1	21.6	20.6	22.1

資料：大邱市, 《大邱統計年報》, 1968, 1973.

III. 主要 企業人

이 기간 중 기업을 일구었고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영자들 중 자료입수가 가능하였던 기업인들은 纖維業에 이승주, 광열규, 노희찬, 함정웅, 그리고 안도상 등이다. 그리고 姜在祚와 金垓成도 이 시대에 괄목할만한 경영자들이었다. 이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섬유인들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昇柱는 국제염직 사장으로서, 두드러진 재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국내 최초로 減量技術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염색공업 근대화의 기수로 인정받고 있다.⁵⁵⁾ 그는 6.25동란으로 휴학, 1971년 만학으로 연세대 상대를 졸업하는 해 世一工業社를 설립했는데, 현재는 폴리에스테르직물, 염색가공업체인 국제염직(주), 직물제직업체인 국제공업염직공업사, 봉제품 제조업체인 (주) 서울스타일을 경영하고 있다. 그는 對外活動도 활발하여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대구경북 중소기업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朝邦物產의 郭烈圭 역시 대구 염색업계의 산 증인이다. 그는 협천 태생으로서, 경대 사대 화학과를 졸업한 후 삼호방직 및 조선방직에서 10년동안 근무하다 지난 1970년 동진산업사를

55) 李昇柱의 관한 논의는 1990년 섬유기술진흥원이 발간한 《大邱纖維產業史》 p. 595와 1993년 5월 3일자 <每日經濟新聞>의 “내고장 상공인” 등을 참고하였음.

창업하였다.⁵⁶⁾ 1973년에는 東海染織가공공장을 창업하면서 염색업계에 투신하였다. 그후 1982년에는 조방물산을, 1983년에는 조방나염을 설립하였다. 그는 현재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盧喜燦은 삼일염직 사장겸 三一紡績 사장으로서, 대구에서 맨손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자수 성가형 기업인이다.⁵⁷⁾ 그는 대구공고 방직과를 나와 내외방직에 근무하다 영남대 화공과를 졸업한 후, 豊韓産業에서 근무한지 2년만에 삼일섬유가공업사라는 염색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1973년에는 三一染織으로 회사명을 바꾸고 재력을 키워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1987년에는 남선직물, 남선방직 및 보성섬유를 인수해 대구상공업계를 놀라게 하였다. 1991년 그는 大邱染色工業公團 이사장에 재직하였다.

威正雄 회전니트사장은 26세때 염색공장인 옥일섬유를 설립, 지금까지 스포츠의류 및 메리야스의류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⁵⁸⁾ 그는 1966년 자신의 업체를 가지기 전까지 두 차례나 공장을 옮겨가며 기술을 연마하였다. 그가 1976년에 설립한 회전니트는 內實있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그는 大邱染色公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安道相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서, 고려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와 건국대 전임강사를 하다 1970년 달성염직을 설립함으로써 기업인의 길로 들어섰다.⁵⁹⁾ 그후 1978년에는 달성전직이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부친 安永祿이 물려준 가업이기도 하다. 그의 부친은 1952년에 달성염직이라는 소규모 공장도 세운 바 있고, 1960년대는 달성전직을 통해 훌치기 생산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사회활동도 활발하여 대구경북 전직물조합 이사장과 대구경북 섬유산업협의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姜在祚는 동양주물제작소 사장으로서 현재 대구상공회의소 소장을 맡고 있는 대구 재계의 지도자이다.⁶⁰⁾ 동양주물제작소는 그의 형 故 강재구가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72년 8대

56) 郭烈圭에 관한 논의는 1990년 섬유기술진흥원이 발간한 《大邱纖維産業史》 p. 595와 1993년 5월 3일자 〈每日經濟新聞〉의 “내고장 상공인” 등을 참고하였음.

57) 喜燦에 관한 논의는 1993년 5월 3일자 〈每日經濟新聞〉의 “내고장 상공인 〈9〉”를 참고하였음.

58) 威正雄에 관한 논의는 1979년 1월 4일자 〈每日新聞〉의 “젊은 기업인 ②,” 1992년 3월 31일자 〈每日新聞〉의 “경제인 초대석,” 그리고 1993년 5월 3일자 〈每日經濟新聞〉의 “내고장 상공인 〈9〉” 등을 참고하였음.

59) 安道相에 관한 논의는 1991년 5월 17일자 每日新聞의 “나의 기업경영,” 1993년 5월 3일자 〈每日經濟新聞〉의 “내고장 상공인 〈9〉,” 그리고 1990년 섬유기술진흥원이 발간한 《大邱纖維産業史》 p. 351 등을 참고하였음.

60) 姜在祚에 관한 논의는 1972년 11월 7일자 〈嶺南日報〉의 “기업인(12),” 1980년 10월 1일자 〈每日新聞〉의 “경북기업인 (16), (17),” 1993년 7월 7일자 〈嶺南日報〉의 “기업향로 (12),” 그리고 1993년 5월 7일자 〈每日經濟新聞〉 내고장 상공인 〈10〉 등을 참고하였음.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에게 운영도 맡긴 것이다. 그는 1957년 고대를 졸업하고 59년 같은 대학에서 민법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1963년까지 국민대학과 영남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도 있다.

金垞成은 원래 금융인으로 출발해서 한때 복조양말공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그가 영향력을 크게 미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최초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장을 역임하면서 부터였다.⁶¹⁾ 그는 大邱銀行長 재임시 대구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후일 그는 외환은행장을 거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역임함으로써 대구지역경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쳤다.

IV. 經營特徵

1962년부터 1971년까지의 경제개발 초기 대구지역 기업들의 經營特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자본을 공업자본화하였다. 특히 서문시장에서 포목상점을 경영하여 자금을 모은 巨商들이 제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섬유업의 경우에 두드러졌다.

둘째, 내수시장에서 수출시장으로 지향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내수일변도로부터 탈피하여 輸出指向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지역자본을 집대성하고 금융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실현되었다. 즉, 해방 이후 최초의 地方銀行인 대구은행이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자금의 효과적인 축적과 활용이 도모되기 시작하였다.

第6節 輸出主導成長期 大邱의 企業, 企業人 및 企業經營

I. 企業經營環境

앞서 記述한 대로 1960년대는 제 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 경제가 산업화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1970년대는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성장기였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직면했던 主要課題는 전형적인 산업개발, 기술 및 숙련노동 집약적인

61) 金垞成에 관한 논의는 1987년 대구은행이 발간한 《大邱銀行 20年史》를 참고하였음.

산업의 육성, 자력성장 구조의 실현, 그리고 사회개발의 추진 등이었다.⁶²⁾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第3次 經濟開發計劃期間(1972~1976)의 중점목표로 새마을운동을 주축으로 한 농어촌 경제의 혁신적 개발,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 중화학공업의 건설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第4次 經濟開發計劃期間(1976~1981)에는 자력성장 구조의 실현, 사회개발의 추진, 기술혁신과 능률의 향상이 중점목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1973년에 제 1 차 석유파동, 1979년에 제 2 차 석유파동이 일어났고 10월 유신, 10.26사태 등의 어려운 사건도 이 기간 중에 일어났다.

이러한 국내 경제상황에 상응하여 大邱地域 經濟도 1970년대는 전반적으로 성장 시기였다. 특히 대구지역의 주종산업인 섬유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에 들어 와서도 대구지역은 상대적인 낙후를 면치 못하였다.

1970년대에는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던 공장들을 團地化시킴으로써 공업단지 조성이 활발한 시기였다. 한편, 1970년대는 대구지역의 상업부문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1970년 7월에 慶釜高速道路가 개통되었고 계속적으로 경제력이 서울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구조가 매우 다변화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대구지역에서 가장 특기할 사항은 수출의 급격한 증가였다. 특히 섬유업의 輸出增大는 괄목할만 하였다. 그런데 70년대 후반에는 대구의 수출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II. 企 業

1970년대 大邱地域의 工場은 <表 11-2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70년대 초반에는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후반에 이르러서는 크게 증가되지 않았다.

대구의 주종산업인 纖維業은 1970년대 정부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수출산업화가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수출과 内需의 비중이 7:3으로 수출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1970년대 대구의 주요 섬유업체는 다음과 같다.

62) 대구상공회의소, 《大邱經濟總鑑》, 1985, p. 138.

〈表 11-23〉 1970년대 大邱의 工場 (단위: 개, 명, 원)

年 度 別	工 場 數	從 業 員 數	附 加 價 值
1972	2,277	64,029	36,600
1973	2,105	77,384	1,701
1974	2,268	72,499	95,443
1975	2,359	82,659	140,700
1978	2,854	138,917	434,229
1979	3,028	148,461	541,747
1980	2,807	140,195	661,289
1981	3,126	144,004	734,813
1982	3,586	148,276	842,000
1983	3,459	150,800	968,600

資料: 大邱市, 《統計年報》, 1975.

經濟企劃院,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81, 1982, 1983, 《産業센서스 暫定集計結果報告書》, 1984. 12.

나일론 타프타의 경우 信漢絹織, 삼공직물, 그리고 선경직물 등이 주도하였다. 폴리에스테르 가공사직물의 경우는 선경직물, 신성섬유, 구극직물, 그리고 신라염직 등이 주도하였다. 한편, 방직의 경우에는, 1973년 嶺南紡績이 경산에 설립되었고 구미에는 윤성방직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76년에는 동국방직과 감을방직이 구미와 대구에 각각 설립되어 1977년부터 생산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자수직물의 경우는, 1971년까지만 해도 전국 자수기의 보유대수가 81대에 불과하였던 것이 1975년 3월에는 대구지역에만 19개 업체에 136대를 보유하여 전국 총대수의 60%를 차지하였다. 공장별 보유대수는 〈表 11-24〉와 같다.

〈表 11-24〉 大邱의 刺繡業體 (1975년 3월 현재)

業 體 名	代表者	住 所	保有台數 ⁽¹⁾	增設計劃	系列商社 ⁽²⁾
三 寶 產 業	정 대 호	원대6가 183-1	7	4	普 國 物 產(系)
永 光 織 物	●李 應 峻	칠성2가 355	5(1)		〃 (下)
德 榮 織 維	權 祭 喆	원대6가 58-6	5	4	普 國, 南 鮮(下)
水 月 織 物	朴 海 道	龜尾工團	2		普 國(下), 內 需
東 國 織 物	白 煜 基	원대4가 232	6(3)	9	東 國 貿 易(系)
宇 一 產 業	秋 淵 淙	경산군 안심읍	20		〃
東 國 化 織	白 煜 基	원대6가 62	10		〃
東 洋 織 維	朴 在 甲	원대3가 1128-3	16	7	東 國 實 業(系)

業 體 名	代表者	住 所	保有台數 ⁽¹⁾	增設計劃	系列商社 ⁽²⁾
信 漢 絹 織	〃	원대2가 186	4(2)		〃
보 성 織 維	尹 欽 普	태평로6가5	5(1)	7	南 鮮 物 産(系)
南 都 織 維	윤 수 길	원대6가 31	15		〃
二 和 織 維	朴 東 植	침산 901	6	2	具 阜 라 더(下)
明 華 織 物	朴 城 亨	내당1구 77	2	2	新 羅 交 易(系)
大 普 織 物	尹 仁 普	원대2가 57	4(1)		新 漢 城 物 産(下)
昌 一 織 物	沈 仁 燮	원대6가177의1	7		第 一 貿 易(系)
東 信 産 業	呂 聖 述	침산 435	8(6)		星 日 産 業(下)
大 一 織 物	李 達 錫	태평로6가5	5		三 起 物 産(系)
新 興 織 物	金 鍾 弼	내당 1126	6(2)		信 興 社(系)
삼 한 금 수	김 순 명	칠곡군 칠곡읍	3		漢 城(下), 內 需

註: (1) ()內 10yd 기계이며, 나머지는 15yd 기계임.

(2) (系)는 系列工場, (下)는 下請工場을 뜻함.

섬유산업 외에 특히 이 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산업은 住宅建設事業이었다. 예를 들면 광명주택, 우방주택, 보성주택, 그리고 청구주택 등이 기반을 잡기 시작하였다. 주택·건설업 이외에도 이 기간 중에 流通業도 事業이 본격화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대구백화점의 도약과 동아백화점의 성장이었다. 아울러 금복주 및 범양식품 등과 같은 대규모 食飲料業體도 이 기간 중 기틀을 잡았다.

III. 主要 企業人

수출주도의 成長期인 1970년대 대구지역을 주도하였던 기업들중 자료입수가능했던 기업의 경영자들은 다음과 같다. 즉, 纖維業에서는 蔡炳河, 李忠基, 그리고 權星基 등이, 機械·金屬業에서는 吳舜澤이, 建設·住宅業에서는 李秀王, 張壽弘, 李淳牧, 그리고 金相耆 등이, 그리고 기타업에서는 具永謨 등이 사업을 크게 확장하였다.

이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蔡炳河는 영남대 상학과를 나온 후 원사를 판매하다 1973년 대하섬유를 설립하였다.⁶³⁾ 그는 1977년 1월 대하통상으로 상호를 바꾸고, 1978년에는 구미공장을 건설하였다. 1985년에는

63) 蔡炳河에 관한 논의는 1993년 5월 3일자 <每日經濟新聞>의 “내고장 상공인 <9>,” 1979년 1월 9일자 <每日新聞>의 “젊은 기업인 ④,” 그리고 1991년 11월 2일자 <每日新聞>의 “나의 기업경영” 등을 참고하였음.

대하염공을 설립하는 등 사업을 크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權星基는 영남대를 졸업한 후 1962년 대구에서 회생당한약방을 개업, 15년동안 약제사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1976년 泰旺纖維를 설립하면서 섬유업계에 진출하였다.⁶⁴⁾ 1980년에는 태왕물산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현재는 서대구공단에 다섯개의 제직공장과 한개의 염색 공장에 종업원 2천명을 둔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1992년 중국 靑島에 부지 2만5천평, 종업원 750여명의 제직공장을 설립, 주목을 받고 있다.

吳舜澤은 1980년 부친 吳一龍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34세의 젊은 나이에 家業을 이어 받은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2세 경영자이다.⁶⁵⁾ 1980년 遺業으로 이어 받은 3개 업체를 현재 5개 법인 6개 공장으로 확장하였다. 1988년에는 세명기업을 설립하였고, 1992년에는 동일연마공업(주)을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 비해 양적으로는 10배가 증가되었다. 그는 1946년 대구에서 3남 7녀중 맏이로 태어나 연세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그의 동생 庚寅과 吉峯이 경영일선에서 그를 돕고 있다. 그는 선친의 경영시절부터 사용한 화목단결을 아직도 社訓으로 삼고 있다.

李秀王은 한 때 급성장하다 갑자기 망한 불운의 기업인이다.⁶⁶⁾ 그는 1978년 2월에 光明住宅을 설립하였고, 1981년에는 건설도급 한도액 65위까지 올려 놓았다. 그리고 주력기업인 광명건설의 광명임업, 광명상호신용금고, 광명개발, 그리고 광명무역 등 산하에 5개 계열 기업사들을 거느리는 새로운 신진그룹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1983년 부도를 낸으로써 光明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1942년 경북 칠곡군 인동면에서 태어난 張壽弘은 경북대 사대부고를 나와 부산대 섬유 공학과를 졸업하고, 한때 조선방직에 근무하기도 하였다.⁶⁷⁾ 그가 주택건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시절부터였다. 조선방직 퇴사 후 벽돌공장과 LPG충전소를 차려 2년만에 2천만원을 벌어서 이 돈으로 1973년 靑丘住宅을 건설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에 뛰어들었다.

64) 權星基에 관한 논의는 1993년 5월 3일자 <每日經濟新聞>의 “내고장 상공인 <9>”를 참고하였음.

65) 吳舜澤에 관한 논의는 1989년 12월 25일자 <每日新聞>의 “뉴스메이커,” 1993년 7월 28일자 <嶺南日報>의 “기업향로 <15>,” 1991년 6월 7일자 <每日新聞>의 “나의 기업경영” 및 직접 수집자료들을 참고하였음.

66) 李秀王에 관한 논의는 1982년 1월 26일자 <每日新聞>의 “불황을 헤쳐간다”와 1984년 11월 3일자 <大邱每日新聞>의 “대구경제 아직도 「光明」 몸살” 등을 참고하였음.

67) 張壽弘에 관한 논의는 1993년 (주)靑丘에서 발간한 <청구 20년사>, 1979년 1월 1일자 <每日新聞>의 “젊은 경영인 ①,” 1993년 4월 28일자 <嶺南日報>의 “기업향로<3>,” 1993년 5월 12일자 <每日經濟新聞>의 “경영인,” 1991년 7월 20일자 <每日新聞>의 “나의 기업경영,” 1991년 2월 4일자 <韓國經濟新聞>의 “이사람 이 기업,” 그리고 1993년 5월 10일자 <每日經濟新聞>의 “내고장 상공인 <11>” 등을 참고하였음.

초창기 주택사업부터 그는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체계를 잡고 기술력을 다져 나갔다. 1976년에는 靑丘住宅을 법인체로 전환하고 1978년에는 주식회사 청구주택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87년도에는 지역건설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로 진출하여 중계동에 청구아파트를 건설하였다. 1991년에는 주식회사 靑丘住宅을 독립시키고 경일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고 대구 지하철 1호선 공사를 수주하였다. 1992년에는 심벌마크와 로고 등을 변경하고 국내 40대 기업집단군에 진입하였다. 1992년 현재 매출액은 4천5백억원으로서 도급순위 1군 건설업체로서 7개 계열사를 갖고 있다. 그는 흔히 아파트 건설업체의 신데렐라, 주택업체의 무서운 아이, 또는 건설업체의 신화창조자로 불리우며 유통·금융·종합레저산업 및 첨단산업으로의 다각화를 구상 중이다.

友邦住宅의 李淳牧은 청구의 장수홍과 어깨를 겨루는 지역의 건설인으로서, 영남대 상학대를 나온 후 대구상고에서 10년동안 교편을 잡다 1978년 우방주택을 건설하였다.⁶⁸⁾ 1986년에는 광명을 인수하였고 1987년에는 우방랜드를 조성, 1992년에는 대구타워를 개관하였다. 그는 현재 우방랜드, 우방개발, 동해관광, 팔공조경, 우방건설, 그리고 조방산업 등의 계열사와 정화교육재단 및 구미전문대학 등을 거느리고 있다. 그는 또한 수도권 新都市에 진출하여 기록적인 청약률의 신화를 낳기도 하였으며 중국에서 아파트를 건설중이다.

金相耆는 성주군 수륜면에서 태어나 1959년 경북대학을 졸업한 후 한때 축산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 대구로 나와 스테이트, 합판 등 건자재를 취급하면서 重機도 대여해 주는 유신상사를 차렸다.⁶⁹⁾ 그러면서 그는 단독주택을 몇채씩 지어 팔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그가 주택 건설업체에 뛰어든 계기가 되었다. 1974년에는 三甫住宅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주택건설 업체에 뛰어 들었고, 1980년에 이를 甫誠住宅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그는 보성건설, 보성개발, 대성토건, 동림개발, 그리고 대보종합건설 등을 거느리고 있으며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베트남 등의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具永謨는 대구백화점 창업자인 구본홍의 2남 4녀중 장남으로서,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중 부친의 권유로 1985년에 사장으로 취임하였다.⁷⁰⁾ 취임후 그는 1986년에 大百家具를, 1987년에

68) 李淳牧에 관한 논의는 1993년 3월3일자 <慶北經濟新聞>의 “창업세대 <3>,” 1993년 6월 16일자 <嶺南日報>의 “기업향로 <9>,” 그리고 1993년 5월 10일자 <每日經濟新聞>의 “내고장 상공인 <11>” 등을 참고하였음.

69) 金相耆에 관한 논의는 1992년 1월 11일자 <每日新聞>의 “나의 기업경영,” 1993년 7월 14일자 <嶺南日報>의 “기업향로 <13>” 등을 참고하였음.

70) 具永謨에 관한 논의는 1991년 5월 24일자 <每日新聞>의 “나의 기업경영,” 1993년 4월 21일자, <嶺南日報>의 “기업향로 <2>” 및 직접 수집자료들을 참고하였음.

포항 대백쇼핑을, 1989년에 대백종합건설과 대흥양행을, 그리고 1991년에 대백기획과 대백관광을 설립하는 등 社勢를 크게 확장하였다. 또한 1989년에는 중구 대봉동에 지방 최대규모의 대백프라자를 착공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1992년에 타계하였다.

IV. 經營特徵

成長期 대구지역 기업경영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建設業體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인구증가와 정부의 주택정책, 그리고 부동산경기의 상승 등으로 지역에 주택건설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급성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구주택, 우방주택 및 보성주택이다.

둘째, 2세 경영자의 부상이다. 동일철강의 吳舜澤, 대구백화점의 具永謨, 삼풍직물의 丁哲圭 등 창업 2세들이 경영을 이어 받아 크게 성장시켰다.

셋째, 신흥 섬유산업 엘리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국제염직의 李昇柱, 대하섬유의 蔡炳河, 삼일염직의 노희찬, 태왕섬유의 權星基, 옥방섬유의 朴鍾玉, 그리고 회전니트의 威正雄 등이 여기에 속한다.

第7節 直轄市 昇格以後 大邱의 企業, 企業人 및 企業經營

I. 企業經營環境

韓國經濟는 1970년대의 제 3,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됨으로써 1960년대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한편, 경제규모가 보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970년대의 산업정책은 또한 정치의 경직화로 인하여 經濟에 대한 政府의 直接介入이 강화되었고, 가격 구조는 이중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기업경영은 정부의존적이 되도록 움직여졌다.

1982년부터 시작된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1~4차 계획이 경제개발에 역점을 둔 반면, 社會發展에도 역점을 두어 국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목 부터 「經濟社會發展計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동 기간중 경제, 정치적 환경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에는 10.26 사건의 마무리, 5공화국의 정당화 등으로

경제중심의 국정운영이 어려웠다. 198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는 民主化의 물결과 그에 따른 체제싸움 및 6.29 선언, 그리고 민주화 등으로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大邱의 경우는 1981년 直轄市로 승격되면서 1980년대에는 행정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수반되었다. 직할시 승격 이후 대구의 人口는 1981년에 184만에서 1991년에 약 224만명으로서 1.2배 증가하였다. 事業體數의 경우는 동기간중 3,130개에서 5,018개로 1.6배 증가되었다. 인구 1인당 GNP는 1,771 달러에서 3,183으로 약 2배 늘어났다.

II. 企 業

〈表 11-25〉는 직할시 승격이후 대구의 기업체수, 종업원수, 부가가치, 그리고 생산액 등을 업종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비중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

〈表 11-25〉 直轄市 昇格以後 大邱의 企業

區 分 地 域	年度	事業體數	從業員數	附加價值	生 產 額			
					計	製 造 業		
						鑛業	飲食料品	纖維衣服, 가죽
	單位	個所	名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大 邱	1981	3,130	144,115					
	1983	3,458	152,515	950,222	2,246,056	1,051	345,759	1,163,036
	1985	3,580	152,423	1,141,755	2,701,961	1,320	292,608	1,468,019
	1987	4,326	184,359	1,707,314	4,165,191		358,771	2,151,804
	1989	4,656	176,791	2,180,329	5,079,521		502,050	2,341,398
	1990	4,826	164,515	2,547,640	5,783,907		454,371	2,705,054
	1991	5,018	160,696	3,194,102	6,893,391		296,099	3,080,307
慶 北	1981	1,863	138,546	1,599,118	4,218,443	105,479	202,135	538,237
	1983	1,775	137,083	1,860,860	4,948,627	103,649	300,110	684,590
	1985	1,902	151,382	2,470,219	6,554,299	120,406	336,877	919,280
	1987	2,320	197,588	3,860,979	10,140,517	150,859	491,569	1,525,583
	1989	2,804	213,926	5,065,487	13,093,793	157,285	695,711	1,748,541
	1990	3,285	217,651	6,098,450	15,262,170	160,639	774,394	2,063,935
	1991	3,872	223,221	7,411,985	18,389,686	214,139	760,426	2,552,846
全 國	1981	35,357	2,134,305	15,941,487	47,482,362	764,896	6,164,849	8,270,750
	1983	41,088	2,299,976	21,513,143	61,329,871	784,157	8,162,745	9,377,420

區分 地域	연도	事業體數	從業員數	附加價值	生 產 額			
					計	製 造 業		
						鑛業	飲食料品	纖維衣服, 가죽
單位	個所	名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全 國	1985	45,933	2,528,522	27,495,513	78,075,672	1,042,766	9,421,149	11,723,010
	1987	56,318	3,095,652	41,516,075	115,203,631	1,298,451	11,892,010	18,118,867
	1989	67,484	3,167,315	55,901,568	149,758,893	1,281,553	15,357,494	20,654,580
	1990	70,455	3,080,202	71,884,505	178,618,094	1,309,326	17,421,831	21,790,950
	1991	74,001	2,978,998	87,631,611	207,905,194			

區分 地域	연도	生 產 額						
		製 造 業						
		나무, 나무製品	종이 印刷	化學, 石油, 고무	非金屬鑛物	第1次金屬	組立金屬, 機械	其他
單位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百萬원
大 邱	1981							
	1983	29,825	78,251	135,053	63,502	122,271	268,561	38,747
	1985	31,027	94,797	155,392	68,526	135,241	395,052	59,979
	1987	31,395	127,689	273,151	84,854	204,516	826,772	106,239
	1989	35,914	159,197	277,732	116,454	288,347	1,240,386	118,043
	1990	46,735	195,962	268,914	142,222	316,685	1,544,693	108,641
	1991	42,786	234,897	261,177	176,926	351,754	1,596,805	163,651
慶 北	1981	12,064	43,984	201,742	145,841	1,978,560	961,174	29,227
	1983	15,645	40,061	247,021	188,933	2,143,268	1,196,357	28,993
	1985	22,328	79,763	416,022	291,134	2,524,181	1,840,479	3,829
	1987	28,713	122,245	606,294	451,410	3,213,427	3,449,392	101,025
	1989	58,216	183,097	1,006,308	623,550	4,122,822	4,445,880	52,383
	1990	78,485	260,897	1,280,142	841,800	4,491,751	5,248,768	61,359
	1991	90,253	327,186	1,352,345	1,129,837	5,250,610	6,711,011	160,736
全 國	1981	970,145	1,806,273	12,641,940	1,781,118	4,504,127	9,816,804	761,460
	1983	1,167,092	2,489,288	15,148,970	2,517,081	5,805,708	14,948,413	928,997
	1985	1,267,029	3,118,757	18,580,294	3,122,768	6,951,024	21,623,676	1,225,209
	1987	1,636,839	4,743,123	22,943,825	4,243,142	9,680,462	38,175,876	2,471,036
	1989	2,539,263	6,397,810	27,980,882	5,904,075	13,514,176	53,516,149	2,612,911
	1990	3,178,455	7,423,666	34,384,985	7,284,887	15,565,176	67,593,495	2,665,323
	1991							

資料：大邱直轄市，《大邱統計年報》各 年度，慶尙北道，《慶北統計年報》各 年度。

大韓統計協會，《韓國統計年鑑》1992，韓國銀行 大邱支店，《大邱·慶北地域 經濟年報》，1990～1992。

III. 主要 企業人

직할시 승격 이후 대구지역에서 팔목할 만한 經營人들중 자료입수가 가능하였던 기업인들은 다음과 같다.

朴在甲의 타계후, 갑을 그룹은 그의 아들 昌鎬와 동생 在乙이 분할하였다.⁷¹⁾ 朴昌鎬는 갑을방직과 (주) 갑을을 중심으로 11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在乙의 장남 有祥은 동국실업과 갑을합섬을 중심으로 10개 회사를 관할하고 있다. 朴昌鎬는 南加州大 출신으로서, 부친 작고 이후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장, 대구출신으로서 가장 활발한 기업가들 중 한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는 1982년 사업승계후, 섬유업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언론, 전자, 금속, 그리고 기계 등으로 事業을 多角化 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그는 1988년에 갑을기계를, 1989년에 갑을금속, 갑을전자, (주) 영남일보 및 (주) 유진전장을, 1990년에 갑을레이스, (주) 갑을금속을, 그리고 1991년에는 스리랑카의 갑을랑카(주)를 신설 혹은 흡수·합병하였다. 그는 나아가, 종합정보산업도 구상 중이며 사업외에 사회활동도 활발하여 섬유직물수출조합 이사장도 맡고 있다.

李忠坤은 1983년 부친 李海俊으로 부터 三立産業의 경영전권을 위임받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2세 경영인이다.⁷²⁾ 그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경영수업을 쌓은 바 있다. 그는 계속하여 21년 동안이나 노동조합이 있으면서 분규가 일어나지 않았던 전통을 유지하고 90년 대말까지는 세계적인 自動車 部品業體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張亨洙는 남선알미늄을 창업한 장경익의 장남으로서, 성균관대를 졸업하였다.⁷³⁾ 졸업 후 그는 부친의 命에 따라 조흥은행에 입행하여 금융업무를 익인 후, 南鮮에서 경영수업을 받았다. 1983년 부친이 타계하자, 대를 이어 알루미늄 외길로 매진하고 있다.

金大鎬는 직기 전문생산업체인 勝利機械의 사장으로서,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였다.⁷⁴⁾ 1966년 금성방직에 입사한 후 쌍용그룹에 근무하다 1988년 승리기계를 맡았다. 승리기계는 1951년에 勝利機械製作所로 출발하였는데, 쌍용그룹에서 1977년에 인수하였으며, 이는 곧 쌍용기계로 바뀌었다.

李京穆은 1986년 부친 李金龍으로 부터 金龍機械의 경영권을 물려받은 후, 국내 섬유산업의

71) 朴昌鎬에 관한 논의를 위한 자료는 朴在甲에 관한 논의시 활용할 자료와 동일함.

72) 李忠坤에 관한 논의 자료는 李海俊의 것과 동일함.

73) 張亨洙에 관한 논의 자료는 장경익의 것과 동일함.

74) 金大鎬에 관한 논의를 위해 1993년 10월 25일자 <每日經濟新聞>의 “경영인” 등을 참고하였음.

한계를 느끼고 수출시장개척에 나섰다.⁷⁵⁾ 그는 또한 섬유부품에서 나아가 선박엔진부품으로 취급품목을 확대하였다. 1988년에는 附設研究所를 설치하고 기술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1987년 부친으로 부터 (株) 金福酎를 승계받은 金東求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구지역 대표적 2세 경영인 중의 한 사람이다.⁷⁶⁾ 그는 또한 소주에 대한 지역해제로 인한 과당경쟁을 막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구상에 열중이다.

和成産業과 東亞百貨店을 창업한 이윤석의 3남 2녀 중 장남으로서, 1983년 가업을 승계받은 李仁中은 고려대를 졸업하였다.⁷⁷⁾ 그는 대구지역의 가장 활발한 2세 경영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사업을 맡은 후 1984년에는 동아쇼핑을, 1987년에는 덕산기공을, 그리고 1988년에는 뽕렐망을 설립하였으며, 1988년에는 기업을 공개하였다. 그는 유통개방에 대비, 사내에 전문 유통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研修院을 설립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IV. 經營特徵

직할시 승격이후 대구지역 企業經營의 特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지역의 중견기업들이 大企業 및 그룹으로 도약하였다. 그룹 정도로 발전한 대표적인 企業들은 甲乙, 東國, 汎三共, 新羅, 星安, 大邱百貨店, (주) 靑丘, 그리고 和成産業 등이다. 이 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지만 大企業 이상의 수준을 갖춘 기업들로서는 友邦, 三一, 泰旺, 남선정금속, 금복주, 東一, 平和産業, 보성, 그리고 서한 등이다.

둘째, 지역 기업에서 나아가 전국 및 世界的인 무대로 경영활동 영역을 넓혔다. 많은 지역의 중견 기업들이 단순한 수출에서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국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甲乙, 東國, 友邦, 泰旺, 三豐, 그리고 東一 등이다.

셋째, 이러한 지역기업의 대규모화와 국제화와 더불어 自動化가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經營合理化도 박차를 가하여 상당수 기업들이 전문가들의 자문과 자체 노력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75) 1993년 7월 28일자 <嶺南日報>의 “앞서가는 기업인”과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참고하였음.

76) 金泓植의 논의자료와 동일함.

77) 李潤碩의 논의자료와 1991년 8월 24일자 <每日新聞>의 “나의 기업경영” 및 1993년 2월 9일자 每日經濟新聞의 “새해 설계”를 참고하였음.

第8節 要約 및 맺음

총괄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 지역의 경제나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企業, 기업 경영을 담당하는 企業人, 그리고 企業經營의 역사적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本章에서는 대구지역의 기업, 기업인 및 기업경영을 6時期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本章에서 논의한 기업과 자료수집이 가능한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시기별로 發展史를 요약하면 <表 11-26>와 같다. 이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解放까지 지역에서 근대적 경영을 시작한 기업들은 상당히 적었다. 그러나 이 소수의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成長하여 국내 상위 그룹으로 자리잡은 기업들도 있으며, 상당수는 지역 中堅企業의 위치를 굳히고 있다.

해방 이후 6.25동란까지 激動期에는 創業 기업들이 상당수 늘어났다. 戰後再建期에는 전후 재건에 힘입어 지역의 企業이 크게 늘어난 시기이다. 經濟開發初期에는 전국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실현에 따라 지역 기업이 크게 성장한 시기이다. 이 기간에는 특히 纖維業이 기반을 잡았다. 輸出主導成長期에는 지역 기업이 도약한 시기로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섬유업 외에 건설·주택업과 유통업이 크게 성장한 것도 이 기간이다. 直轄市 승격 이후에는 대구의 주요 기업들이 그룹수준이나 대기업 수준으로 대규모화되었으며, 國際化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에는 창업자에서 2세 경영자로 이행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지역의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經濟成長에 편승하여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물론 발전과정에서 景氣不振 등으로 위기를 몇차례 맞았으나, 다행히도 그때 그때마다 特需를 만나 고비를 잘 넘겼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대구지역은 纖維 일변도인데다 그것도 미들스트림에 치중되어 있어 構造的 問題點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아울러 대구지역의 기업인들은 상대적으로 保守的·排他的·폐쇄적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따라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할 課題가 산적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⁷⁸⁾

78) 崔晩基, <지역 섬유산업의 전망과 발전과제> 《大邱地域 經濟分析》, 1988년 11~12월호, pp. 8~28.

〈表 11-26〉 大邱地域 主要企業의 發展史

業種	時代 業體名	解放까지 (~1945)	激動期 (1945~1953)	前後再建期 (1954~1961)	經濟開發初期 (1962~1971)	輸出主導成長期 (1972~1980)	直轄市승격 이후 (1981~1991)
섬유	甲乙그룹		1951 신한견직 (朴在甲)	1958 신한견직 합명회사	1966 동양섬유 공업사	1974 갑을견직(주) 1976 갑을방직(주) (주) 갑을	1981 갑을 비산 염색 공장 1982 갑을견직(주) 을(주) 갑을 로 합병 (朴昌鎬/ (朴在乙) 1988 갑을기계 1989 (합자) 갑을금 속, 갑일전자, 영남일보, 유 진전자, (주) 갑을금속, 갑을개발(주) 1990 갑을레이스 합자 갑을금 속은 (주) 갑 을로 합병 1991 갑을랑카(주)
	國際染織				1965 국제염직사 (李昇柱) 1971 세일공업사	1977 국제염직 공업사 1980 국제염직(공)	
	南鮮織物			1957 동신양행 (尹經普)	1967 남선물산		1987 남선물산 법정관리
	達城絹織		1952 달성염직 (安永祿)		1970 (安道相)	1978 달성견직(주) 으로 변경	
	大院織物	1936 대원직물 공업(주) (崔翼成)					1983 (성상익)
	大河通商					1973 대하섬유 (蔡炳可)	1985 대하염직

業種	時代 業體名	解放까지 (~1945)	激動期 (1945~1953)	前後再建期 (1954~1961)	經濟開發初期 (1962~1971)	輸出主導成長期 (1972~1980)	直轄市승격 이후 (1981~1991)
섬유	東國그룹		1948 평화직물공 장(白煜基) 1950 동국직물 1953 평화상회		1965 동국무역 (주) 1970 동국화섬	1973 우일산업 1976 동국방직(주) 기업공개 1977 동국종합 전자(주) 1978 풍원산업(주)	1982 동국합섬(주) 1983 동국화섬 1989 동국소재(주) 1990 동국창업 투자(주)
	三護그룹	1936 삼호 메리야스 공장 (鄭在護)	1949 삼호방직				
	東山纖維		1947 동산양말공 업사(李禹鉉)			1976 동산섬유(주) (李國鉉)	1982 동산염색
	東信纖維	1940 남선제뉴 (주)(呂相源)	1947 동신섬유		1968 동신섬유 부도		
	東洋染織	1915 동양염직소 (秋仁鎬) 1927 동양염직 (합자) (李相或)					
	汎 三 共			1957 삼공직물공 장(洪載善)	1964 범삼공물산 (주) 1971 삼공섬유 가공(주) 1973 삼공물산 (주)	1976 삼공화섬(주)	1982 (李鍾浩) 1985 (李鍾潤)
	三一紡織					1973 삼일염직 (盧喜燦)	1987 남선직물, 남 선방직, 보성 섬유 인수
	三豐織物				1968 삼풍직물 (丁炳燐)	1979 (丁哲圭)	
	相信工業	1940 일출제사 (鄭相密)		1959 상신공업 (주)			
	雙馬纖維				1956 서도산업사 (韓壽一)		1985 서도염직 1991 (주)제로 포인트

業種	時代 業體名	解放까지 (~1945)	激動期 (1945~1953)	前後再建期 (1954~1961)	經濟開發初期 (1962~1971)	輸出主導成長期 (1972~1980)	直轄市승격 이후 (1981~1991)
섬유	星安그룹		1943 성안직물 (朴龍寬)		1970 원대공장	1976 성안섬유공업 (주) 1980 성안염직 공업사	1983 진안섬유공업 사 1985 한명섬유공업 (주) 1989 (주)성안
	新羅그룹		1953 명화직물 (朴城亨)		1967 신라교역 (주) 1968 신라염직 공장 1971 신라수산	1976 신라교역 기업 공개 1977 신라섬유(주) 1978 진흥금고	1983 신안화섬(주) 1985 (박종환) 1987 신라엔지니어 링 1988 현곡개발(주)
	玉紡化纖					1979 옥방직물 (朴鍾玉)	1981 갑을 비산염 색 공장
	第一毛織	1938 삼성상회 (李炳喆)	1949 삼성물산 공사	1954 제일모직 공업(주)			
	朝邦物産				1970 동진산업사 (郭烈圭)	1973 동해염직	1983 조방나염
	코 오 룡		1953 삼경물산 (李源万)	1959 한국나이론 1961 (李東燦)	1964 한국나이론 공업(주)	1972 코오룡으로 변경	
	泰旺物産					1976 태왕섬유 (權星基) 1980 태왕물산	
	회전니트					1976 회전니트 (咸正雄)	
기계 · 철강 · 알루 미늄 · 주물	南鮮 알미늄		1947 남선경금속 공업사 (張景翼)			1978 기업공개	1984 남선산업(주) 1989 (주)남선 익스테리어 (주)남선무역 (주)남선 1990 (주)남선 알미늄
	大鐵工業	1945 대구철공소 (주)			1967 대철공업사		1991 (주)대철
	東洋鐵物			경북철공소 (姜在邱)	1964 영남기업사 1967 (姜在祚) 1968 동양주물		

時代 業體名 業種	解放까지 (~1945)	激動期 (1945~1953)	前後再建期 (1954~1961)	經濟開發初期 (1962~1971)	輸出主導成長期 (1972~1980)	直轄市승격 이후 (1981~1991)
기계 · 철강 · 알루 미늄 · 주물	東一鐵鋼	1946 통일농잡구 사(吳一龍)	1955 제일연마 1960 통일공업사	1967 동일철강 공업(주)	1974 동일전공(주) 1980 (吳舜澤)	1988 세명기업 1992 동일연마 공업(주)
	三立産業		1954 삼립자동차 공업(주) (李海俊)	1961 삼립산업사 1968 (주)삼립 산업		1983 (李忠坤) 1986 (주)성산 1987 삼립전기(주) 세양엔지니어 링 1988 기업공개 1989 삼립전공(주)
	三益工業		1960 삼익줄공업 (陳禹成)			
	勝利機械	1951 승리기계 제작소		1966 (주)승리기 계(全福殷)	1977 쌍용에서 인수 1980 (金在休)	1988 (金大鎬)
	신광양산			1969 신광양산 (金德鎰)	1980 세화양산	
	亞細亞 綜合機械	1945 아세아산업 공사 (金秋虎)				
	平和産業		1950 평화산업 (金建基)	1970 평화클러치 공업(주)	1975 평화산업(주) 1975 평화오일셀	1985 평화기공(주) 1986 기업공개 1987 (金相大) 1989 한국게이츠 평화부품판매 (주)
건설 · 주택	光明住宅				1978 광명주택 (李秀王)	1983 도산
	大成産業		1947 대성산업공 사(金壽根)	1968 대성산업		
시멘트	雙龍양회	1940 삼공유지 합자회사 (金成坤)	1948 금성방직 1950 금성염직	1962 쌍용양회	1975 (金錫元)	
	友邦住宅				1978 우방주택 (李淳牧)	1986 광명인수 1987 우방랜드

業種	時代 業體名	解放까지 (~1945)	激動期 (1945~1953)	前後再建期 (1954~1961)	經濟開發初期 (1962~1971)	輸出主導成長期 (1972~1980)	直轄市승격 이후 (1981~1991)
건설 · 주택 · 시멘트							1991 (주)우방건설
	甬誠住宅					1974 삼보주택 (金相考)	1980 보성주택
	靑丘					1973 청구주택 (張壽弘) 1978 (주)청구주택	1990 (金時學) 1991 (주)청구
	和成産業		1945 삼화토목 (李潤碩)	1958 화성산업			1983 (李仁中)
기타	國際光學		1946 국제세루 로이드 (金在鍊)			1979 (金泰弘)	
	金福耐			1957 삼산물산사 (金泓殖) 1959 삼산양조 합자회사	1971 합자회사 금복양조장	1972 경주법주 양조(주) 1975 (주)금복주 1977 회원동산	1983 경주법주(주) 1987 (金東求)
	大邱 百貨店	1944 대구상회 (具本興)			1969 대구백화점	1980 (李廷武)	1984 대백상호신용 금고 1985 (具永謨) 1986 대백가구 1987 대백쇼핑 1988 기업공개 1990 대백종합건설 대흥양행 1991 대백기획 대백관광
	大邱銀行				1987 대구은행 (金竣成)		
	東亞 百貨店		1945 삼화토목 (李潤碩)	1958 화성산업		1972 동아백화점	1983 (李仁中) 1984 동아쇼핑 1987 덕산기공 1988 기업공개 쁘랭땅
	汎洋食品					1973 범양식품(주) (朴健碩)	1987 (朴承柱)

이제 대구지역의 企業들도 그동안 달려온 족적을 되돌아 보면서 長點은 더욱 살리고 短點을 보완하면서 戰略的 經營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구지역의 기업들은 이점에 있어 未治한 것 같다. 本章을 집필하기 위하여 각종 資料를 수집하는데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상당한 규모를 가진 꽤 오래된 기업들마저 그들의 歷史를 정리하고 전략을 규명하며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경우가 드물었다.

따라서 本章이 이러한 노력을 위한 자극이 되길 바란다. 나아가 本章이 대구지역의 기업을 歷史的 視覺에서 고찰할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第 12 章 勞動運動과 勞使關係

第 1 節 概 觀

I. 解放以前의 勞動運動과 勞使關係

해방 이전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시기구분을 하여 보면 개항(1876년)에서 시작하여 3.1운동 직후까지의 구한말과 일제 초기를 태동기라고 부를 수 있으며, 3.1운동 직후(1920년)에서 1937년 중일전쟁 직전까지의 일제 중기를 발전기라고 볼 수 있으며, 1937년 이후 중일전쟁의 시작에서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일제말기를 노동운동 탄압에 따른 잠복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구한말 및 일제초기(태동기 : 1876~1920, 개항에서 3.1운동 직후까지)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는 개항과 더불어 외국 물자와 자본이 유입되면서 근대적인 의미의 임금노동자가 창출되고 자연발생적이고 산발적으로 노동조합이 생겨나서 노동운동의 싹이 트며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된다. 한일합방 이후 일제 초기에는 토지조사사업으로 말미암아 농토를 잃은 농민들이 대거 도시로 유입되면서 임금노동자를 양산하게 된다.

(2) 일제중기(발전기 : 1920~1937, 3.1운동 직후에서 중일전쟁의 시작까지)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는 1920년 중앙노동조직인 「조선노동공제회」가 생겨나고 이어 중앙조직이 이합집산하면서 본격적인 노동운동과 노사관계가 발전하게 되며 그 절정은 1929년의 원산대파업이라 할 수 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 노동운동에 제약이 가해지기 시작한다.

(3) 일제말기(잠복기 : 1937~1945, 중일전쟁의 시작에서 민족해방까지)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는 노동단체 활동이 금지된 채, 지하로 잠복하여 주로 적색 노동운동이 주도하면서 검거와 투옥선봉이 불던 시대이다.

구한말에는 노동운동이 제대로 노동권을 행사할 만큼 성숙되지 못했고 본격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 일제시대는 일본자본이 유입되면서 사용자나 자본가는 곧 일본인이었으므로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노동운동은 항일운동과 혼동된 채 노사관계는 참된 위상을 찾지 못했었다.

II. 解放以後 勞動運動 및 勞使關係

해방 이후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시기구분을 해 보면 해방 직후 및 미군정기(1945~1948), 정부수립과 전후 재건기(1948~1961. 5.), 경제개발초기(1961. 5.~1971), 수출주도성장기(1972~1978) 및 직할시 승격전후기(1979~현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해방 직후 및 미군정기(1945. 8~1948. 8.)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는 해방으로 인한 정치적 공백과 경제적 단절현상 속에서 과도기의 혼란상황을 빚어 냈으며, 미군정에 의한 민주적·대등적 노사관계의 도입 등 노사관계의 미국화 정책이 전개되었다. 해방 직후 노동운동에 기선을 제압한 적색노조인 전국노동조합 평의회(전평)에 의한 공산화를 막기 위한 반공 보루를 구축하기 위해 미군정은 대한독립촉성 노동총동맹(대한노총)을 지원하여 1947년 후반 이후 전평은 불법화되고 대한노총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 시기에 남전대구지점 쟁의, 10.1폭동사건, 3월 총파업, 2.7총파업 등이 있었다.

2. 정부수립과 전후 재건기(1948. 8.~1961. 5.)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25동란(1950. 6.~1953. 7.) 및 그 후의 복구기와 4.19이후 제2공화국기를 포함한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면서 노동 3권과 이익균점권을 보장했는데,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1953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만들어져 노동법 시대를 연다. 전후 대한노총은 자유당의 기간단체화되는데, 이에 반기를 들고 1959년에는 선명 노동운동을 제창하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노협)가 생겨난다. 이 시기의 대표적 쟁의로는 대한방직, 내외방직 쟁의 등을 들 수 있다. 이어 4·19 후에는 대한노총의 어용화에 대한 규탄이 행해지면서 전국노협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가운데 두 단체의 통합을 선언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교원노조 결성, 제일모직 대구공장 여공들의 노동운동 등이 있었다.

3. 경제개발 초기(1961. 5.~1971)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산업화의 정지작업이 이루어진다.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상으로는 노동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의 잔재가 강해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4. 수출주도성장기(1972~1978)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는 월남이 공산화하고 북한이 남침 야욕을 격화시키면서 닛슨 독트린에 의해 미군철수가 기정사실화 되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이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유신헌정이 시작되면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제약된 가운데 공장 새마을운동과 노사협조가 강조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중화

학공업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이 실시되었는데, 1,2차 석유파동 속에서도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시기였다. 노동운동의 제약에 따라 운동성격이 과격화, 폭력화되고 도시산업선교회, 카톨릭청년회 등 종교 차원의 노동운동이 성행하고 자생적 공산주의가 싹튼 시기이다. 대표적 쟁의로는 아리아악기 노사분규 등을 들 수 있다.

5. 직할시 승격전후(1979~현재)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는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및 문민정부시대로 나뉘 볼 수 있다. 1980년 초에 노동운동이 제법 활발하다가 5월 광주사태 이후 정화바람과 더불어 비상계엄하에 노동운동이 제약되었고, 1983년 말 이후 다시 활성화되고, 1987년 6.29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노사분규가 다발하여 1980년대 말에 노사의 의식구조를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민주화 이후 3년여 동안에 임금이 2배 가량 상승했고, 그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문제가 되었으며,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동시에 과소비와 3D현상으로 여성, 장애인 중고년 등 유휴인력활용을 위한 법을 제도화했으나, 해외인력유입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0년 이후는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선회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 쟁의로는 1984년의 대구 택시기사 파업과 민주화 후의 전국자동차 노련 대구지부 임금투쟁, 계명대 동산의료원, 파티마병원 노사분규, 남선물산, 남선경금속 임금투쟁, 대동공업 노사분규 등을 들 수 있다.

第2節 解放以前의 大邱 勞動運動과 勞使關係

I. 舊韓末과 日帝 初期의 勞動運動과 勞使關係：胎動期 (1867~1920)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의 발전은 자본주의 경제형태의 발전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한국의 전통사회 내부에서 발전하여 농업, 광업, 수공업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초기 형태인 매뉴팩처(manufacture)가 대두했으며, 외세침략이 없었더라도 한국은 자생적으로 근대화할 수 있었으리라는 견해가, 특히 해방 후에 나오고 있다.¹⁾

농업분야에서는 廣農이나 경영형 富農이 있었으며 고용노동을 바탕으로 한 상업적 농업을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p. 3.

행하였다. 이 때 고용된 임금노동자로는 낱품팔이인 일용노동자와 머슴으로서 雇工이 있었다.

광업분야에서도 17·8세기 潛採형식으로 민간에서 금, 은, 동이 활발히 개발되었는데, 18세기에 들어와 정부에서는 設店收稅라는 형식으로 민영광업으로부터 수세하는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하였고, 뒤이어 다시 광산개발을 금하였으나 19세기까지 민영광업은 꾸준히 발전하였다. 당시 민영광업은 상인이나 지주가 물주로서 자금을 대고 德大가 물주로부터 자금을 받아 광산노동자인 鑛店軍을 모아 고용, 운영했다. 당시 광산지대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도시적 양상을 띠기도 했으며 곡물, 일용잡화 등이 거래되었다. 수공업에서는 유기, 야철, 자기 등의 업종이 발달했다. 이와 같은 수공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을 募作 혹은 모작배라 하였다. 그들은 대개 11~12명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작업반을 이루고 그들 간에는 분업적 협업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순수한 임금노동자로서 수공업 장주와의 일정한 계약관계가 끝나면 일자리를 구하러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니는 방랑자의 무리이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선 말엽에 자본주의적 맹아의 성립과 근대적 노동자계급의 발생이 엿보이기는 하나 아직도 연구가 가설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농업, 공업, 수공업 분야에 있어서 연구가 불명확한 점이 많고, 또 그것이 개항 이후의 시기와 직결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전과 노동자의 출현은 개항 이후 이 식자본주의부터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이식자본주의 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한 개항후 1894년 전후라고 볼 수 있다. 제4차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11)에 의하면 설립년도가 가장 오래된 것은 1883년에 설립되었던 부산의 산본(山本)장유양조장이 있으며 1886년에 1개 공장, 1888년에 1개 공장, 1892년에 4개 공장, 1894년에 1개 공장이 설립되었는데, 각 공장들의 고용노동자수는 15명이 1개 공장, 9명이 3개 공장, 나머지는 4~1명이었다. 다음 <表 12-1>은 1909년말 현재 가동되고 있었던 공장현황이다.

<表 12-1> 舊韓末 工場設立의 年度別 推移 (단위: 개)

공	장	별	1894년 이전	1895~1904	1905~1909	합 계
정	미	업		3	28	32
청	주	업	5	4	11	20
요		업		3	10	13
철	공	업	1	2	7	11
기		타	2	4	29	35
합		계	8	16	85	111

資料: 《제4차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09년 말 당시 가동되고 있었던 것을 보면 1894년 이전에 설립된 공장은 8개, 1895~1904년 사이에 설립된 것은 16개, 1905~1909년 사이에 설립된 것은 85개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적 공장은 1894년을 전후하여 설립되기 시작하여 19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1911년에는 공장수가 252개, 자본금 1천 61만 3,830원, 직공수 1만 4,575명(조선인 12,160명), 생산액 1천 9백 63만 9,655원으로 늘어난다.(*《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3)

17~18세기 사료에서 전자본주의 시대의 雇工, 賃用私工, 傭民, 店民, 匠工 등의 임금노동자가 있었으나 노임만으로 생활하지 않고 半農半工이었으며 동일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일하지 않았으며,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있었으므로 자본주의적 임금노동과는 구분된다. 근대적인 임금노동이 되려면 전국적 규모의 노동운동과 전국적 규모의 단결이 중앙조직에 집결되고, 그것이 노동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근대적 임금노동자의 창출은 19세기말 광산채굴권을 외국인에 넘겨준 뒤 생겨난 광산노동자를 필두로 하여 개항후에 부두 노동자, 특히 영남지역에서는 부산 부두노동자를 들 수 있으며, 부두하역 작업을 하여 당시 영남지역의 중심부이고 경상감영이 있던 대구로 물품을 옮기기 위해 운수 관련 노동자가 있었을 것이며, 뒤이어 제조공업부분 노동자의 순으로 파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 그리하여 19세기 말에는 광산노동자가 약 2만명이었고 1910년에 부두노동자는 약 1만명이었으며 1911년 제조노동자는 약 1만 5천명이었다. 이같이 근대적 임금노동자가 창출되면서 산발적 자연발생적으로 노동조합이 생성되었는데, 1898년 성진에서 李奎順이 47명의 부두노동자들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필두로 하여 1919년까지 약 26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3,823명이었다.³⁾

태동기에 있어서 노동조합운동의 시대적 사명과 목표는 ① 반봉건주의, ② 외국자본의 추방, ③ 반식민·반제국주의, ④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을 유지개선, ⑤ 일본인의 차별대우 반대 등이었다. 조합의 범위는 좁고, 조직상의 특성은 지방적 노동조합이 소박한 노동단체로서 산발적 자연발생적이며 비조직적이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노동운동은 항일운동으로 특징지어져서 정치적 조합주의 색채가 짙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투쟁이념은 없었으나 외국자본, 특히 일본자본에 대한 배타적 감정은 공통이었다. 활동내용은 주로 공제부조활동과 계몽활동이었으며 쟁의는 기계파괴운동, 파업

2) 김윤환·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 일조각, 1970, p. 10.

3) 김윤환외, 위의 책, p. 15. 조창화, 《한국노동조합운동사상》, 한국노동문제연구원, 1978, pp. 29~30.

등으로 거의 맹목적 쟁의라고 할 수 있다. 구한말 1907~8년에는 대구에서 斷煙을 통해 국채보상을 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어 항일 민족자주정신을 고취한 바 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은 헌병경찰정치 등 무단정치를 하였으며 아울러 토지조사사업(1912~1918)을 벌여 근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제도를 확립한다고 선전했다. 이로 인해 우리 농민은 토지소유에 필요한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부 신고제의 번잡한 수속을 밟아야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었는데, 신고를 기피하거나 기회를 놓친 한국인의 농토나 공공기관의 토지는 거의 조선총독부의 소유가 되고 이를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에 넘겨주었다. 이로 인하여 불법적으로 탈취당한 토지는 전국 농토의 약 40%였다. 이는 한국 농민의 생활을 크게 위협했는데, 토지를 잃은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되거나 만주,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게 되어 이른바 한국형 엔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이라 할 수 있다. 즉 농민의 임금노동자화를 촉진했던 것이다.

태동기, 특히 일제시대의 노동운동은 대부분 일본의 식민지 공업화 추진에 따른 것으로 가혹한 노동조건 때문에 일어났다. 노동쟁의는 대부분 일본인 사업주 하에서 값싼 임금문제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일어났으며 반제, 반일 투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었다. 1910년대 노동쟁의 상황을 보면 <表 12-2>와 같다.

<表 12-2> 1910年代 勞動爭議 狀況 (단위: 건수, 명)

연도	건수	참 가 인 원				원 인			결 과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계	임금	대우	기타	성공	불성공	타협
1912	6		1,573		1,573	6			3	3	
1913	4		420	67	487	4			3	1	
1914	1		130		130	1			1		
1915	9	23	828	1,100	1,951	6	1	2	3	3	3
1916	8	8	362	88	458	7	1		6	2	
1917	8	20	1,128		1,148	6	1	1	4	1	3
1918	50	475	4,443	1,187	6,105	43	2	5	18	18	14
1919	84	401	8,383	327	9,011	76	4	4	12	35	37
계	134	904	17,267	2,767	20,863	149	9	12	50	63	57

資料: 조선총독부 경무국, 《최근에 있어서 조선 치안상황》, 1934, p. 143.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10년대에 노동쟁의는 해가 갈수록 건수도 늘어나고 참가인원도 격증해 가고 있었다. 이 같은 노동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적용한 법은 1900년의

「치안경찰법」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 그 내용은 영국의 단결금지법(Combination Act : 1799~1800)과 유사한 것이었다.⁴⁾

1919년까지 한국에 있었던 공장수는 약 1,900개이며, 여기에 종사하던 노동자 수는 4만 8,705명으로 이 중 한국인 종업원 수는 4만 1,873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약 86%에 이르렀다.⁵⁾ 이런 공장들의 대부분이 일본 본토의 보완공장의 역할을 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까지 한국에는 아직 소규모의 직업별, 직장별(기업별) 또는 지역별(직업별+산업별) 지방조합만 발생했는데 그 수는 28개에 약 4천명의 노동자를 포용하고 있었다.

태동기에 대구·경북지역에서 알려진 노동자 파업으로는 1919년 5월 30일 경북 선산군에 위치한 보과고사길 밸러스트(ballast : 배에 실은 짐이 적을 때 배의 안전을 위해 바닥에 싣는 돌, 모래) 운반소에서 노동자 70명이 일급 1원을 1원 50전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1일 동안 파업을 하였으나 20명이 해고당하고 50명이 무조건 복업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II. 日帝中期의 労働運動과 勞使關係 : 發展期(1920~1937)

1. 勞使關係의 環境

발전기에 있어서 정치·경제 상황은 3.1운동으로 헌병·경찰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현역 군인으로 조선총독을 임명, 파견하던 것을 고쳐 문관도 그 자리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제복만 바꾸어 입히는데 지나지 않고 오히려 경찰수와 장비, 그리고 유지비는 3.1운동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민족 감정의 융화를 기도하여 제국주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경제 상황을 보면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독점자본주의의 기반을 키울 수 있었으므로 공업경제 침략정책을 본격화하였다. 한국인에 대한 일시적 투자개방을 하여 민족 기업은 한편으로는 지주출신 기업인이 지주와 거상의 자본을 모아 대규모 공장을 세웠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경성방직 주식회사이다. 다른 한편 서민출신의 상인들이 자본을 모아 새로운 기업분야를 개척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평양 메리야스공장 및 양말공장, 그리고 고무신 공장이었다. 이 민족기업들은 순수 한국인만으로 운영되었다. 일본은 한편으로 불경기 극복정책을 쓰고,

4) 김성진, 《한국의 노동조합》, 한국노동문제 연구원, 1979, p. 58.

5) 조창화, 앞의 책, p. 16 〈표 3-3〉 참조.

다른 한편으로는 남경, 북중국 등에 산업정책을 추진했으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산업정책은 일본 경제의 보완부분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노동상황은 초년기에는 문화정치로 노동정책을 완화했으나 점차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단속하기 시작했다. 1925년에 일본은 「보통선거법」을 제정하고 그 대신 「치안유지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1926년에는 「치안경찰법」 17조를 폐지하고 그 대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노동쟁의조정법」을 제정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노동운동 단속 법이었다.

「치안유지법」은 과격화하는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도 집단적 폭력행위의 처벌이라는 견지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엄격한 속박을 가했다. 「노동쟁의조정법」도 형식적으로는 쟁의의 자주적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勞・使・政 3자구성으로 된 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지만 군수공장 및 공익기업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임의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는 노동쟁의에 대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을 예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쟁의의 강권적 해결 색채가 농후했다. 이는 그 후 관헌의 힘으로 노사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산업보국운동’에의 길을 열어주는 단서로 되었다. 1930년대는 노동운동의 분열, 결사금지(1937), 산업보국 구락부(산보클럽;1939), 노동조합해산(1940)으로 연결되었다.⁶⁾

1930년대에 들어서서는 1931년 만주사변으로 한국을 일본의 대륙침략 병참기지화하는 데 따른 일련의 정책이 펼쳐진다. 또 1929년 이래 세계적 대공황은 기업을 파탄으로 몰아넣었고 실업자를 범람시켜 사회불안이 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늘어난 노동자 계층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및 사회주의 운동이 급격히 일어나서 일본의 지배체제는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위기에 대처해서 일본 독점자본은 군부와 결탁하여 안으로는 파쇼적인 방법으로 노동운동, 농민운동 및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고, 밖으로는 만주사변이라는 침략전쟁을 일으켜서 이 위기를 타개하려 했다. 30년대초 노동운동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조합주의’가 지배적이었으며, 중반에는 소박한 경제적 조합주의로 선회했다.

1920년대 민족기업이 점차 활기를 띠어 갈 때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대구 서문시장에서 시작된 물산장려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내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하에 조선물산장려회의의 지휘 하에 국산품 애용운동이 전개되었다.

6) 沼田稱節次外 2人, 《勞動組合讀本》, 東洋經濟, 1971, pp. 32~52. 우재현, 《세계노동운동사》, 대구대, p. 159 참조.

2. 勤勞條件과 爭議

일제 식민지하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한 것이었다. 구한말 개화기 이래 고한제도(sweating system)로 대표되는 原生的 勞動關係는 식민기에 토지조사사업(1912~1918)으로 농민들이 토지에서 분리되면서 무산자계급으로 전락되어 임금노동자의 과잉공급현상을 초래함에 따라 노동조건은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최저수준에서 동결되었다. 당시 한국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보면 세계적으로 저임금이라 불리우던 일본인 노동자에 비하여 절반도 채 안되는 수준이었다. 1929년 일본인 성인 남자는 1일 2원 32전이었는데, 한국인 성인 남자는 1원, 한국인 성인 여자는 59전, 유년 남자는 44전, 유년 여자는 32전을 받고 있었다. 이 조사는 50인 이상의 공장이었으므로 실체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⁷⁾ 또 노동시간은 1930년 일본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8시간 미만인 1.4%, 8~10시간이 45.3%, 10~12시간이 43.6%, 12시간 이상이 0.3%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한국노동자들은 1931년말 현재 8시간 미만인 0.8%, 8~10시간이 28.7%, 10~12시간이 11.9%, 12시간 이상이 46.9% 부정이 0.3%로, 한국노동자의 대부분은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휴일상태를 보면 연중 무휴인 공장이 전체 공장수의 27.6%이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수는 전체 노동자수의 23.3%였으며, 광산에서는 연중 무휴인 광산수가 전체 광산의 23.3%,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 광산노동자의 8.5%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연중무휴의 노동자들이 이같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평균 한달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연간 휴일 10일 미만의 공장노동자 및 광산노동자 수가 각각 68.7%, 65.7%나 되었다.⁸⁾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노동자들의 재해, 이병, 사고율은 매우 높았는데, 광산 노동자의 재해사고 회수는 1924년 1,210건이었던 것이 1929년에는 3,169건으로 증가했으며, 총 광부수에 대한 사망자수도 1924년에 0.038%였던 것이 1929년에는 0.103%로 증가했다.⁹⁾

1920년대의 노동쟁의와 동맹파업 원인별 결과를 보면 <表 12-3> 및 <表 12-4>, <表 12-5>와 같다.

7) 高橋龜吉, 《現代朝鮮經濟論》, 1935, pp. 429~430.

8) 조선총독부, 《공장 및 광산에 있어서 노동상황조사》, 1933.

9) 조선총독부 광무과, 《조선광업의 추세》, 1933, pp. 140~144.

〈表 12-3〉 1920年代 勞動爭議 (단위: 건수, 명)

연도	발생건수	참가인원
1920	81	4,599
1921	36	3,403
1922	46	1,799
1923	72	6,041
1924	45	6,751
1925	55	5,700
1926	81	5,984
1927	94	10,523
1928	119	7,759
1929	102	8,293
계	731	60,840

資料: 조선총독부 경무국, 《최근에 있어서 조선치안 상황》, 1933.

1930년대 전반기에는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공장수 및 종업원수도 해마다 증대되어 1930~36년 사이 공장수는 4,261개에서 5,929개로 39.1% 증가하고, 종업원 수는 8만 3,900명에서 14만 8,799명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¹⁰⁾ 광산 노동자의 수도 1930년에 3만 1,100명이던 것이 1936년에는 13만 9,934명으로 약 4.5배 증가를 보이고 있다.¹¹⁾ 이같이 노동자계층 성장으로 1936년 10월 현재 급료생활자 22만 7,854명, 일용노동자 55만 7,000명, 기타 노동자 34만 4,796명 합계 1백 12만 9,650명이라고 조선총독부

조사월보는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 및 중국인 노동자를 제외하고 있어 한국노동자만으로도 약 1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반농반노가 약 100만명 있었다). 1930년대 전반의 근로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2-4〉 1920年代 勞動爭議

구 분	1921~1924				1925~1929			
	건수	참가인원	지역별 구성비		건수	참가인원	지역별 구성비	
			건수	참가인원			건수	참가인원
계	199	17,994	100.0	100.0	451	38,269	100.0	100.0
경 북	12	781	6.0	4.3	27	2,408	6.0	6.3

資料: 조선총독부, 《최근에 있어서 조선치안 상황》, 1933, pp. 144~145.

1935년 일본인 성인남자의 임금이 1.83원, 유년 0.81원 일본인 성인여자 1.06원 유년여자 0.43원인데 반해 한국 성인남자는 0.90원, 유년남자는 0.49원, 성인여자는 0.49원, 유년여자는

10)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8, p. 150.

11) 《광업의 추세》, 1938, p. 152.

0.30원이었으며¹²⁾ 금속광산 광부는 70.2전, 석탄광부는 87.1전, 비금속 광산광부는 68.1전으로 총괄해 보면 76.3전이였다. 1935년 현재 한국인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성년남자는 10.3시간 유년남자는 11시간, 성년여자는 10.36시간, 유년여자는 10.56시간이었으며 광부는 8시간 미만이 1.6%, 9시간이 10.3%, 10시간이 47.5%로 약 반수를 차지하며 11시간이 14.4%, 12시간 이상이 12.5%였다.¹³⁾ 1930년대도 20년대와 마찬가지로 노동재해는 저임금으로 인한 영양실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 작업장의 노동안전시설의 不備 등으로 재해가 늘어났다. 1936년 광산재해 전수는 7,949건으로 사망 310, 중상 623, 경상 7,150이었다.

〈表 12-5〉 1920年代 同盟罷業의 原因別 結果 (단위: 건수, %)

연차	원인	결과	거 절	관 철	철 회	타 협	미해결	계	원인별 구성비
1921 ∫ 1924	임 금 인 상 요 구	3	10	19	23	—	—	85	42.7
	임 금 인 하 반 대	1	12	37	27	—	—	77	38.7
	대 우 개 선	2	2	4	1	—	—	9	4.5
	기 타	4	11	9	4	—	—	28	14.0
	계	10	65	69	55	—	—	199	100.0
	결과별 구성비	5.6	32.5	34.6	27.7	—	—	100.0	
1925 ∫ 1929	임 금 인 상 요 구	35	49	35	51	—	—	170	37.0
	임 금 인 하 반 대	15	14	14	21	—	—	78	17.2
	대 우 개 선	9	12	15	18	—	—	54	11.9
	기 타	18	64	16	65	—	—	183	40.1
	계	77	239	80	155	—	—	451	100.0
	결과별 구성비	17.0	30.8	17.7	34.4	—	—	100.0	

資料: 조선총독부 경무국, 《최근에 있어서 조선치안 상황》, 1933, pp.150~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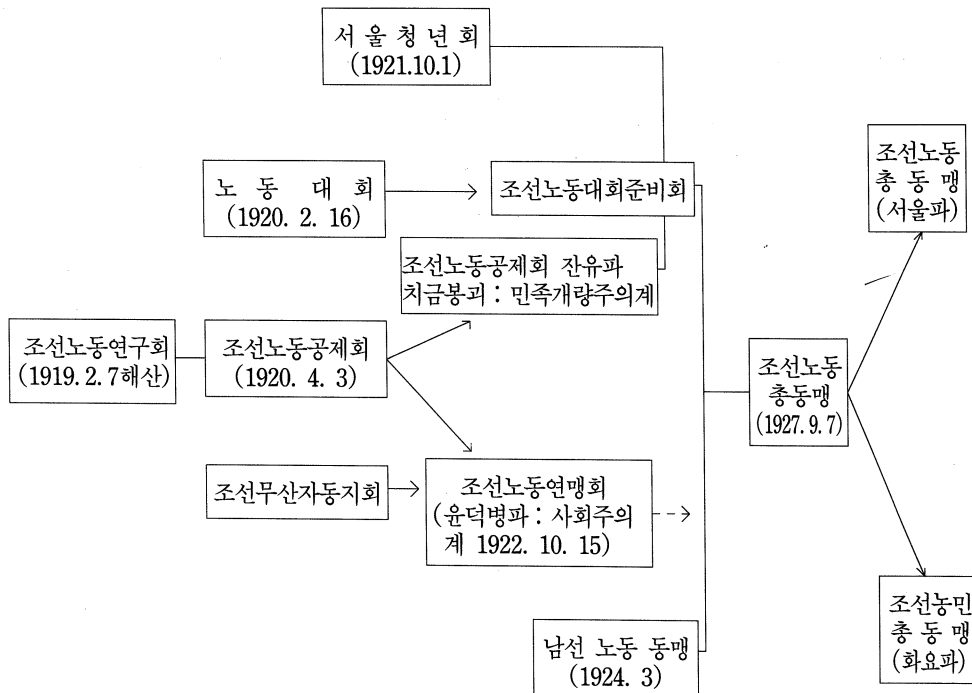
3. 朝鮮勞動共濟會 大邱支會

발전기는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일어난 민족자각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동자, 농민의 조직화 필요성을 깨닫고 민족운동의 한 형태로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전개했다. 1919년의 조선노동연구회, 1920년의 노동대회, 조

12) 鈴木正文, 《朝鮮經濟の現段階》, 1938, p. 298.

13) 姫野實, 《朝鮮經濟國表》, 1940, p. 259.

선노동공제회, 1922년의 조선노동연맹회, 1924년의 조선노동총동맹 등의 제형태로 이합집산하면서 조직화되었는데, 이것을 도표로 보면 <圖 12-1>과 같다.¹⁴⁾



<圖 12-1>

發展期 勞動組合運動의 發展過程

資料 : 우재현, 《세계노동운동사》, 대구대, 1982, p. 163.

1920년대 4월 3일 서울시내 명월관 지점에서 창립된 조선노동공제회는 ①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평가 ②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③ 중간착취의 배제 ④ 차별대우의 금지 ⑤ 만민평등의 복지사회 실현 등의 취지를 내걸고, 사업으로 ① 지식계발 ② 저축장려 ③ 위생장려 ④ 환난구제 ⑤ 직업소개 ⑥ 기타 일반 노동상황의 조사연구 ⑦ 기관지 《공제》의 발간을 통해 노동문화를 보급할 목적으로 朴重華가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는데,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지회 등이 창립되었다. 그 창립 상황을 보면 다음 <表 12-6>과 같다.

14) 이반송, 《조선사회사상운동 연혁사》, 1934, p. 55.

〈表 12-6〉 大邱·慶北地域 朝鮮勞動共濟會 支會創立 狀況

창립일자	조선노동공제회 지회창립내용
1920. 5. 27.	대구노동공제회 발기대회
1920. 9. 23.	조선노동공제회 안동지회 창립
1921. 5. 29.	조선노동공제회 경주지회 창립
1922. 2. 10.	대구노동공제회 소비조합 창립

조선노동공제회 대구지회는 1921년에 인쇄직공조합과 이발직공조합 및 이듬해 1922년에 토목공려회 등을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결성 초기부터 그 산하에 지역별 소작인회를 조직하여 농민운동에 관심을 기울였다.¹⁵⁾

그러나 조선노동공제회 대구지회는 중앙의 조선노동공제회가 변동됨에 따라 1923년 2월에 ‘대구노동공제회’로 개칭하고 회장제를 집행위원회제로 변경하였다. 이후 노동공제회는 3월에 농민대회를 개최하여 각 면단위로 위원을 선정하였으며, 그해 10월에는 산하의 농민군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근 달성군까지 조직을 확장했다. 이후 노동공제회의 농민군 활동은 계속되어 1925년에는 정기총회에서 소작쟁의를 후원하고 소작인회를 개최하고 악덕 지주의 박멸을 결의하기도 했다.¹⁶⁾ 대체로 이 시기 이후 노동공제회의 활동은 노동운동보다는 농민운동에 더 치중했다. 1924년 3월 9일에 노동자 농민을 포함한 총 가맹단체 141개의 참석 하에 대구에서 가졌던 ‘남조선 노동동맹’의 결의사항이 압도적으로 농민문제에 중점을 두었던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 조건을 반영하여 노동자들의 조직이 미약했던 조건하에서 농민운동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지속되었다. 서울, 평양, 부산과는 달리 대구는 사회경제적 기반중 공업발전이 취약한 지역이었으므로 자연 농민문제에 관심을 쏟을 수 밖에 없었다.

노동소년회는 노동공제회관 내 노동강습회 강습생 100여명을 중심으로 1925년 2월에 조직된 것인데, 노동공제회 대구지회와 노동소년회가 전문노동운동 단체로서의 지향이 강했다.

4. 勞動夜學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1920년대 한국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전례없이 양양되고 있던 시기에 당시 지식인들 중에 노동문제와 농민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근로대중이 각성해야 함을 인식하여, 1920년대에 노동야학의 설립을 보게 된다. 1924년 11월 경북 안동군 임동면 노야마을에서 권녕두가

15) 신용하, 《조선노동공제회 창립과 노동운동》 문학과 지성사, 1986, p. 40.

16) 신용하, 위의 책, p. 41.

발기한 노동야학이 설립되어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계동학원에서 운영했으며, 1925년 9월 안동군 풍산면에서 마을유지청년회를 중심으로 노동야학이 설립되어 민족계몽운동과 자각운동이 시작되었다.

5. 勞動親睦會 青年會

노동자계층과 소작농민의 단결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24년부터 1926년 사이 지방노동자들에 의한 자주적 노동자 친목조직이 결성되어 노동자 계층의 전체적 이익을 옹호하는 통일적이며 전국적 단체결성 노력이 있었다. 그들은 중앙 노동운동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여러 정치단체, 사회단체와도 긴밀한 연대를 갖고 민족해방을 위해 꾸준한 투쟁을 했다. 대구 경북지역의 노동자 친목단체 결성상황을 보면 <表 12-7>과 같다.

<表 12-7> 大邱·慶北地域 勞働者 親睦團體 結成 現況

설 립 일 자	노동자 친목단체 출현내용
1925. 7. 27.	대구 노동친목회 창립
1925. 11. 5.	대구 재봉직공 청년회 조직
1925. 12. 8.	임화 노동친목회 창립
1925. 12. 18.	상주 노동친목회 창립
1926. 8. 16.	포항 여자청년회 창립

이들 노동친목회는 실제로는 직업별 노조에 가까웠으며, 주로 정미공장을 중심으로 하고 각 운송점에 가입한 운반인부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대구노동회’는 1920년대 중반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영향 하에서 노동친목회가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¹⁷⁾

6. 其他 勞動團體

1920년대 대구지역 노동단체 상황을 보면 <表 12-8>과 같다.

1920년대 전국수준에서 조직활동이 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지역의 노동운동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그 이유는 ① 일본인 경영이 압도적이고, ② 토착자본의 발전이 미미했으며, ③ 보수성으로 말미암아 노동운동에 대한 민족주의 계열의 관심이 적었으며, ④ 반면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사상운동과 청년운동이 조기에 발전하면서 노동운동이 대중운동과 분리된 상태에서 사상단체 중심으로 상층지식인들에 의한 파벌투쟁이 전형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¹⁸⁾

17) 김정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 비평사, 1992. p. 15.

18) 김정일, 위의 책, p. 27.

〈表 12-8〉

發展期の 大邱勞動團體 現況

(단위 : 명)

(1) 직업별(15개)					
번호	명 칭	창립일자	기 구	회원수	자 료
1	인쇄직공조합	21. 7.	조합장제 「노동운동개황」	200	동아 22. 2. 11.
2	이발직공조합	21.			1924. 228면
3	토목공려회	22. 2. 26.			동아 22. 3. 8.
4	인력거노우회	24. 2. 1.			동아 24. 2. 7.
5	양말공공조합	24. 6. 22.			동아 24. 6. 26.
6	우차조합	25. 8. 17.	집행위원제	150	동아 26. 11. 17.
7	신문배달부조합	25. 10. 17.	집행위원제	140	동아 26. 11. 17.
8	재봉직공청년회	25. 11. 1.	집행위원제	50	동아 25. 11. 3.
9	양말직공조합	25. 12. 9.	집행위원제	57	조선 25. 12. 9.
10	재봉직공조합	25.			동아 27. 12. 12.
11	冠物商상조회	26. 5. 19.	집행위원제	120	동아 26. 11. 17.
12	인쇄직공청년회	26. 9. 1.	집행위원제	60	동아 26. 11. 17.
13	목공조합	27. 12. 23.	조합장제	200	중외 27. 12. 27.
14	양화직공조합	30. 4. 15(발)		100	중외 30. 4. 18.
15	모자조합				지중세편

(2) 지역별 및 기타(4개)					
번호	명 칭	창립일자	기 구	회원수	자 료
1	노동공제회대구지회	20. 6. 6.	회장제	989	동아 20. 6. 12.
2	노동소년회	25. 2. 21.			조선 25. 2. 24.
3	노동친목회	25. 6. 13.	회장제		조선 25. 7. 26.
4	대구노동회	27. 6. 1.	회장제		동아 27. 6. 4.

7. 大邱·慶北地域 爭議와 事例

노동공제회, 노동야학, 노동친목회 등을 설립한 후 대구·경북노동자들의 단결의식과 권익옹호를 위한 자각의 일환으로 1925년부터 운송부, 인력거부, 재봉공, 정미공, 공사장 인부, 탄광부, 직공 등 전직종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동맹파업을 일으켰다.

그들은 상당부분 그들의 요구를 관철했는데 당시 주요 파업내용을 보면 〈表 12-9〉와 같다.

〈表 12-9〉

日帝中期의 大邱 慶北地域 主要 罷業現況

파업연월일	파업사태 발생내용
1925. 10. 10.	대구 노동친목회 임금증액요구 동맹파업
1925. 10. 13.	대구 노동친목회 파업, 운송부 재파업
1926. 2. 3.	대구 노동친목회 동맹파업
1926. 2. 6.	대구 인력거부 동맹파업
1926. 4. 22.	김천 운부 동맹파업
1926. 6. 14.	김천 인력거부 동맹파업
1926. 10. 28.	김천 재봉공 동맹파업
1926. 11. 18.	상주 금광 파업
1926. 6. 30.	문경 조선인 광부 파업
1927. 1. 9.	대구 노동회 소속 정미공 200명 파업
1930. 1. 24.	대구 대노동쟁의 노동자 순사에 2천여명 노동자 동정 파업
1931. 3. 11.	조철 경부선공사 인부 동맹파업
1931. 9. 18.	김천 운송점인부 90명 동맹파업
1931. 12. 5.	신천개수 공사장 인부 20명 파업
1932. 5. 27.	경북 흑연탄광 광부 70명 파업
1934. 7. 11.	대구 조운인부 80명 동맹파업
1934. 10. 15.	문경 무연탄 광부 60명 파업

〈사례 1〉 대구 제사여공의 동맹파업

1924년 4월 20일 대구에 있던 일본인 경영의 조선제사공장에서 노동하는 나이 어린 소녀들이 인간 이하의 대우, 하루 13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노동에 견디다 못해 마침내 동맹파업을 단행했다. 13~18세 소녀들은 대우는 말 못할 지경이고 거처하는 방은 불결하며 또 음식도 가끔 먹을 수 없는 것을 주었고, 하루 평균 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항의하여 동맹파업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인 공장지배인은 “일본 내지에서는 공장법이 있는데도 제사공장에 한해서는 13시간 노동을 묵인 받고 있소. 그리고 우리는 직공에 대하여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베풀고 대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었소. 지금까지 아무 말없이 해 나왔는데”라고 말했다고 한다.

동맹파업한 여공들은 갈곳 없이 헤매다가 주린 배를 채우려고 다시 공장에 모여 들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어린 가슴에 사무친 고통의 덩어리가 어느 날, 어느 때 또다시 폭발할런지, 모처럼 주인에 항거하고 나왔다가 일시 일각 숨쉴 곳도 없으며, 밥 한 때 먹을 데가 없어서 어린 가슴에 쓰라림을 참고 나왔던 공장을 향하여 다시 발길을 돌린 것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파업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이 파업을 통하여 당시 한국 소녀공들의 바참한 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파업의 실패는 투쟁을 지도할 만한 노조나 지도부가 없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투쟁을 잘 지도하지 못한데 큰 요인이 있었다고 하겠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p. 55 참조〉.

이 외에도 1928년 10월에 대구 시내 23개 재봉소의 여직공 30여명이 16일부터 재봉임금의 통일과 임금인하를 반대하여 일제히 동맹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Ⅲ. 日帝末期의 勞動運動과 勞使關係：潛伏期(1937~1945)

1. 勞使關係의 環境

일제말기(잠복기)에 있어서 정치 사회상황을 보면, 이 시기에는 일본의 대륙침략정책이 개시되었는데, 1931년 만주사변에 이어 1937년의 중일전쟁, 1941년의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전쟁수행을 위해서 한국을 병참기지화하는 일련의 정책이 따른다. 법적으로는 사회운동의 불법화를 시행했는데, 「훈령 7호」, 「치안유지법」, 「조선 불온문서 임시취체령」, 「사상범 보호 감시법」 등을 들 수 있다. 또 한국민의 황국신민화 정책과 이와 병행된 한글 말살운동 등 민족문화 말살운동 등이 있었다. 경제상황을 보면 1929년 이래 세계적 대공황의 영향으로 사회가 불안한 가운데 노동운동 탄압이 가중되고, 만주사변(1931)이래 전쟁수행을 위해 병참기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에 중화학공업을 설치되었다. 1937년 「2.26 사건」을 계기로 군부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뒤이어 중일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군수경제체제가 확립되고 통제경제, 초긴축재정 경제정책, 중요산업통제법, 임금통제법 등이 실시되었다.

노동운동은 1937년 이후 파시즘적 탄압과 노동운동의 불법화되자 파괴적, 급진적 노동조합주의인 생디칼리즘(syndicalism)적 운동으로 전환되었고, 불황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임금절하를 단행함에 따라 임금절하 반대투쟁과 근로조건 유지투쟁을 전개했다. 또 일본인 감독의 횡포에 대한 반대투쟁, 노동운동 농민운동 및 사회운동 탄압에 대한 반대투쟁이 행해졌으며, 폭력적 파업, 파괴행위, 태업 등이 행해졌다. 이에 따라 검거가 심해지고 노동조합은 탄압에 못이겨 소멸하거나 지하로 잠복하여 좌경화되었다. 일제말기의 한국내 노동자수를 보면 다음 〈表 12-10〉과 같다.

〈表 12-10〉 日帝末期 韓國內 勞動者數 (단위: 명, %)

산 업 별	노동자수	구성비	조 사 시 기
공 업	591,494	27.9	1945. 1. 총독부 지도과
토목건축	437,752	20.6	
육상운수	179,544	8.5	
임 업	205,911	9.7	1944. 10. 총독부
수 산 업	211,520	10.0	
광 산	273,863	12.9	1944. 9. 조선광산연맹
탄 광	72,561	3.4	1944. 9. 총독부 연료과
농 업	130,377	6.1	1943. 12. 지주및농업피용자
해상운수	18,352	0.9	1943. 12. 총독부
총 계	2,122,374	100.0	

資料: 조선경제사편, 《조선경제통계요람》, 1948, p. 134 및 《산업노동시보》, 제1권 제2호

2. 勤勞條件

임금부문에서 일제는 임금의 등귀가 생품의 생산과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실 하에 1937년 이후 「가격등 통제령」, 「지대가임 통제령」, 「임금 임시조치령」, 「회사직원 급여 임시조치령」, 「선원급여 임시조치규칙」 등을 차례로 공포 실시하여 임금의 상승을 억제했다. 일제말기의 실질임금지수를 보면 다음 〈表 12-11〉과 같다.

〈表 12-11〉 日帝末期 實質賃金 指數

연도	전생산액지수	물가지수	실질임금지수
1936	100	100	100
1938	142	139	100
1940	198	180	86
1942	210	195	92
1944	254	241	99

資料: 조선은행 조사부편, 《조선경제연보》, 1948, pp. 1~139.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질임금지수는 1936년을 100으로 할 때 1940년에는 86, 1944년에는 99로 하락하고 있다. 당시 한국노동자의 임금은 물가가 급속히 등귀하는 가운데 통제되어 있었으므로 말할 수 없이 저임금인데다가 일본인 노동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1942년을 100으로 할 때 한국공장의 남자는 대체로 50~55%, 여자는

60~65%였으며 광산에서는 남자는 48~52%, 여자는 38~43% 정도였다.

일제말기 한국인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직제상의 차별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국에는 일본 국내에서의 빈약하고 형식적인 「노동보호법」조차 없었고 중일전쟁 이후는 어떤 명칭의 노동자 서클도 존립이 곤란한 조건 하에서 한국인 노동자는 무제한으로 노동시간의 연장을 강요받았다. 당시 대부분의 공장은 8시간제는 거의 없고 대부분 10시간이었으며 13시간을 넘는 곳도 있었다.

일제 말인 1942년의 노동재해율은 최고 8%, 이병률은 16%, 결근율은 10%였고, 광산 노동자의 경우 재해율은 최고 10%, 이병률은 7%, 결근율은 18%였다.¹⁹⁾ 1941년 12월 8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후부터 일제는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재해에 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당시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동안전보호 시설이 불충분한 환경 하에서 재해가 다발할 수 밖에 없었다.

3. 労働運動의 彈壓

1930년대에 들어서서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자 조직적 노동운동이 비합법적 좌익 적색 노동운동의 방향으로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 적색노동운동도 중일전쟁 이후 더욱 혹독해진 군사파쇼화 정책 하에서 견뎌내기는 어려웠다. <表 12-12>에서 볼 수 있듯이 1937년 이래 1944년까지 매년 평균 168건에 1,070명이 검거되었다.

<表 12-12> 사상범죄 검거상황 (단위: 건수, 명)

구 분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계
건 수	134	145	95	103	232	183	322	132	1,346
인 원	1,637	1,434	1,042	1,193	861	1,142	1,002	337	8,558

資料: 1937, 1938년은 조선총독부 경무국, 《최근에 있어서 조선치안상황》, 1939, pp. 16~17.

1940년 이후는 近藤劔一編, 《太平洋戦争下終末期の朝鮮政治》, pp. 67~68.

이 시기에 제기된 노동쟁의 상황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발표에 의하면 1937년 이후 1940년까지 4년 동안에 430건, 2만 4,697명의 노동자가 참가했다. 이것은 연평균 107건에 6,267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것이다.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쟁의로는 1938년 12월 18일 대구 직물회사 등 각 직물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약 300명이 한필당 60전의 공임으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하여 필당 30전씩

19) 조선식산은행, 《식은조사월보》, 1942 참조.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맹파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주모자 10여명을 검거하여 파업의 파급을 막았다.²⁰⁾

지금까지 구한말 개화기에서 일제초기에 이르기까지 태동기(1876~1920), 일제중기: 발전기(1920~1937), 일제말기: 잠복기(1937~1945)의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를 개관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의 노동조합은 우리 경제발전의 내재적 요인이 조합조직을 필연화한 면도 있지만 주로 입법에 힘입어 사회기구로 인정되어 조직된 것이다. 식민지 하에서 한국 최초의 노동단체조직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20년대의 이러한 조직들은 단순한 노동자의 단체라기 보다는 사회개량 단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며 노동자의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본질적 사업보다는 교육, 계몽, 강습, 야학 등 문화산업에 주력하였다.²¹⁾

1930년대 중반이래 잠복기에는 일제탄압의 강화로, 정치투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의 요구는 동시에 식민자본이 곧 자본가 계급이라는 맥락에서 적대의식이 보다 확고해져 1920년대보다도 강한 항일 광복운동적 성격을 나타냈고, 지하투쟁을 전개했던 것이다.²²⁾

第3節 解放直後 및 美軍政期の 勞動運動과 勞使關係

I. 勞使關係 環境과 勤勞生活 條件

해방 직후부터 정부 수립까지의 약 3년의 시기는 이후 한국사의 흐름을 세계사적 및 구조적으로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전환기라 볼 수 있다. 노동운동이라는 관점에서도 조선말, 개항초 임금노동력에 기초한 생산관계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한국노동운동사 1세기 동안 이 시기(해방직후)와 1960년 4.19 이후 및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삼대 산맥을 형성할 정도로 노동운동이 빈발한 극성기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모체가 탄생함으로써 한국노동운동사의 이해를 위해 전제적으로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한국 정치세력들의 평가에 입각해서 미국정부는 이미 종전 전에 한국을 신탁통치할 계획을 세웠다. 카이로 선언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한다’고 모

20) <동아일보>, 1938. 12. 22.

21) 탁희준, 《임금제도와 노동경제》, p. 63.

22) 우재현, 《세계노동운동사》, 대구대, 1982, p. 173.

호하게 선언했으며, 알타회담에서 루즈벨트는 한국을 20년 내지 30년간 신탁통치할 것을 제의했으나 실행되지 못했고 종전에 임박하여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해 내려오자 미국은 38도선을 책정하여 분할점령을 제의함으로써 미군정의 단초를 마련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제의 항복이 임박한 1944년 8월 10일 민중에 뿌리를 둔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하고 항일 민족주의자, 자유주의적 지식인을 주변세력으로 하는 국내 항일운동세력의 집결체인 「조선전국동맹」이 결성되었으며, 이는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지하운동세력,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 우익의 상당부분까지 포함하는 통일전선인 「조선전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이라 한다)를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 그러나 우익 민족주의자들 대부분은 사유재산제도의 변혁을 포함한 사회주의적 개혁을 기도하는 좌익세력 주류의 건준에 협력하지 않고 미군의 진주를 기다렸다.

건준은 그해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이하 “인공”이라 한다)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지방조직인 지방의 「인민위원회」는 실제로 수십년간 저항운동을 수행한 기층민중을 기반으로 한 조직체였다. 미군정의 주요 목표가 한국의 토착적인 좌익세력을 분쇄함으로써 한국 자체내에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요새’를 건설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²³⁾

이러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 노동운동면에서 좌익에서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약칭 “전평”이라 한다), 우익에서는 「대한독립촉성 노동총연맹」(약칭 : 대한노총)으로 나타나게 된다.

해방직후 미군정하의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는 해방과 더불어 80~90%를 차지하던 일본자본과 기술이 물러감으로써 일본과 경제관계가 단절되었다. 또 일제가 남긴 기형적 식민지 경제구조, 즉 중화학, 에너지, 광물자원 중심의 북한과 경공업 농업자원이 편재된 남한으로 분할됨으로써 더욱 기형화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태에서 한국은 공업생산은 위축되었고, 인플레이는 격심(그 원인은 ① 통제경제의 해체와 반동적 투기 성행 ② 패전 직전 일제의 통화남발과 미군당국의 통화남발 ③ 해외 동포귀환에 따른 수요격증 등)했다. 미군정 당국은 한국경제를 자유자본주의로 편입정책을 추진했으나 실재는 통제정책을 썼다.

이로 인해 실업자가 누적되고 노동쟁의가 빈발했다. 전국적으로 1944년 6월 사업장 수가 9,323개이던 것이 43.7%가 감소하여 1946년 11월 5,249개로 줄었으며, 남녀 근로자수도 30만에서 59.3% 감소하여 12.2만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노동쟁의가 1946년 169건에 5만 2,729명이 참가했으며 1947년에는 129건에 2만 7,084명이 참가했다.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의 경우 사업장 수가 1,424(1944년 6월)개이던 것이 44.7% 감소하여

23) E. Grant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Y., 1951, p.52.

788(1946년 11월)개로 줄어들고 남녀 근로자 수도 2만 9,085명(44년)이던 것이 57.7% 감소하여 1만 2,314(46년)으로 줄어들었다. 쟁의 건수도 1946년 47건에 7,525명이 참가했고, 1947년에는 20건에 1,702명이 참가했다.²⁴⁾ 1946년 11월 15일 당시 우리나라의 실업, 무직자 실태를 보면 전제 63.7만명, 실업 46.4만명으로 합계 110.1만명이었으며 대구·경북의 경우도 전제 15.2만, 실업 19.7만 합계 34.9만명이나 되었다.²⁵⁾

물가지수는 1936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44년은 241, 1945년 2,817, 1946년 1만 3,479, 47년은 무려 4만 203명으로 402배나 늘어났다. 1945년을 100으로 해도 1947년은 2,295로 22배나 오른 셈이다.²⁶⁾ 이렇게하여 실질임금이 저하된 속에서 근로자들은 생존을 위협받았다.

II. 勞動政策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초기단계인 일제치하에서는 노동문제가 치안유지라는 견지에서 경찰행정의 대상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산업정책의 입장에서 상공행정의 소관이었다. 해방 후 미군정 하에서도 초기에는 상무부 광공국에 노동과를 두고 지방에도 노동과를 두었다.

당시 노동경제의 악화와 노사대립의 격화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1945년 10월 30일 공포된 미군정법령 제19호에서는 노동자의 보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개인 또는 개인집단의 직업을 구하고 방해없이 근무하는 권리는 이를 존중하고 보호함. 이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임. 조선군정청은 공장의 생산, 민중의 생활상 필요한 것을 선언하고 그 정지 또는 저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건에 관한 분쟁은 조선군정청이 설치한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함. 해당 위원회의 결정은 확정적 구속력을 가짐, 문제가 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생산을 계속할 것」

이어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1945년 12월 8일 노동조정위원회법(법령 제 34호)이 공포되고 중앙과 지방에 노동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동위원회는 5명의 한국인과 7명의 군정장교로 구성하여 노동쟁의를 조정하였다. 1946년 4월에는 광공국 노동과를 상무부 노동국으로 승격시켰다가 7월 23일에는 법령 제97호로 노동부로 승격시켰다. 미 군정기의 노동행정조직의

24) 조흥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 I》, 1948, pp. 201~2 및 pp. 208~210.

25) 위의 책, pp. 1~203.

26) 위의 책 III, pp. 119~121.

변천을 보면 <表 12-13>과 같다.

법령에 의하면, 노동부는 ‘노동정책을 달성하고 조선경제의 유능한 기능을 조장하기 위하여

<表 12-13> 美軍政期の 勞動行政組織의 變遷

연 월 일	내 용	근 거
1945. 9.	상무부 광공국 노동과로 발족	군정법령 34호
1945. 12. 8.	노동조정위원회 설치	
1946. 4.	상무부 노동국으로 승격	
1946. 7. 23.	노동부로 승격	

설치하며, ……조선의 임금노동자의 복지를 조성, 증진, 발전시키며, 그 노동조건을 개량하고 유리한 고용에 대한 기회를 진척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동부의 임무와 기능을 보면, 노동정책 및 계획을 계통적으로 기술

하고 노동문제에 관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범위안에서 고용조건, 고용주와 정부와의 노동관계 및 노동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에 관한 일반 감독을 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유효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조정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 고용사무 및 노동 정보사무의 관리 감독과 노동법을 군정장관에게 추천하게 하여 노동관계 법령과 규칙을 관보에 발표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미군정의 노동정책에 관하여는 법령 제 97호의 노동문제에 관한 공공정책으로 ‘민주주의적 노동조합의 발전을 장려할 것 ② 노동자는 자율적 노동조합을 통하여 노동조합회를 조직하고 가입하며, 타 노동조합을 원조하고 또는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고용주와 그 대리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고용기간 및 조건을 협정할 목적으로 자기가 선거한 대표자를 지명할 권리가 있음 ③ 고용계약서에 있어 고용주와 노동조합간의 합의된 노임, 노동시간 및 기타 고용조건을 명기한 평화적 협정을 장려할 것’ 등이 선포되고 있다.²⁷⁾

2차대전후 미국의 점령지구에서 행한 일련의 노동정책은 미국화(Americanization)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내용은 ① 노동조합의 발전을 인정 ② 단체교섭 인정 ③ 노동분쟁조정기구 설치 ④ 사회정책 실시 ⑤ 주택, 노동시간, 급료, 노동조건을 조정 ⑥ 나치적 파쇼적 독재숙청 등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 아래 일제가 우리 국민과 근로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제정했던 여러가지 악법을 폐기하고 노동문제를 합법적 민주적으로 처리하며 노동행정기구를 정비, 강화하였다.

군정시 중요 법령을 보면 법령 제 19호(1945. 10. 30 : 직업을 가질 권리, 공업생산의 중지. 감축의 방지, 노동조정위원회 설치), 법령 제 34호(1945. 12. 8 : 군정노동조정위원회 <노자

27)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 83연감》, 1983, p. 206.

중재위원회> 설치), 법령 제 97호(1946. 7. 23.: 노동부 설치), 법령 제 112호(1946. 9. 2.: 소년 노동법), 법령 제 121호(1946. 11. 17.: 최고노동시간) 등이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 경제적 혼란, 미군정의 한국에 대한 인식부족과 그 과도적 성격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해방 직후 미군정기의 사용자 단체로서는 1894년 한성상업회의소로 출발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었고, 1946년 7월 21일에는 우리나라 무역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무역협회가 창립되었다.

III. 朝鮮勞動組合 全國評議會와 大韓獨立促成 勞動總同盟

한국이 일본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자 한국 노동자들은 1930년대 이래 일제에 의해 금지되어 왔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노동조합은 8.15해방 직후부터 전국 각지에서 조직되었는데, 1945년 11월에는 전국에 1000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었으며 11월 1일 조선광산 노동조합 결성을 비롯하여 16개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되었다. 이는 1945년 11월 5일에 있었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약칭, 전평)의 창립대회에 전국 1,194개 노동조합이 대표로 파견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미군정청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1946년 11월 30일 현재 노동조합원수가 남한에서만도 1,179개 노조, 조합원 30만 4,005명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8.15직후에 30년대 이래 지하에서 적색노동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던 사람들이 풀려나면서 각지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노동조합을 산업별로 묶어 이를 기초로 불과 80일이란 단기간 내에 하나의 전국적 노동자조직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전평이다. 1945년 11월 5일 오전 11시 서울 소재 중앙극장에서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회」(전평)의 결성대회가 이틀간 열렸다. 전국 13도의 50만 노조원을 대표하는 505명의 대의원이 참가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각 지방에 있는 산업별 지부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는 「지방평의회」를 경성, 대구 등 11개소에 두기로 결정했다.

산업별로는 광산, 금속, 철도, 출판, 통신, 섬유, 토건, 화학, 봉급인, 식료, 목재, 전기, 조선, 해운 등이 있었는데, 대구는 철도, 통신, 출판, 섬유, 토건, 화학, 식료, 전기 등이 지부를 두었다. 전평의 결성대회는 박헌영, 김일성, 레온주오(세계노련<WFTU>서기장) 모택동 등이 명예의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위원장에는 허정택, 부위원장에 박세영, 지한중, 서기국에 한철이 임명되었다.

다른 한편 해방직후 좌익 노동조직인 전평의 확대강화를 저지하고 반공투쟁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민족진영의 청년과 노동자들은 「대한독립촉성 노동총연맹」(대한노총의 전신)을 조직했다. 「대한독립촉성 노동총연맹」은 전평처럼 이미 조직된 전국산별 단일노조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된 것은 아니었고, 지방적 노동조합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우익 민족진영의 청년단체 및 정당관계 인사들에 의해 상층지도부만 먼저 조직된 것이었다. 따라서 대한노총은 산별조직에 뿌리박고 있었던 전평산하 노조를 분쇄, 축출하는 반공투쟁을 통해 참다운 의미의 노조지도부를 건설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1946년 3월 10일에 결성된 대한노총의 실질적 모체라 할 수 있는 ‘대한독립촉성 전국청년총연맹’(약칭: 독청)은 산발적인 우익단체 40여개가 윤보선, 유진산, 김산 등에 의해 지도되어 오던 것을 1945년 11월 21일 통합하여 조직한 것이다. 임원은 총재 이승만, 부총재 金九 위원장 전진한, 부위원장 이찬우, 백석기, 유진산, 총무부장 한민홍 등이었다.²⁸⁾

그 후 1946년 1, 2월 반탁시위의 과정에서 청년운동 단체와는 독립된 우익노동단체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우익지도자들은 독청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노동단체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즉, 독청의 청년부장 金龜는 미군정 노동부 차장 朴澤을 찾아가 전평을 상대로 할 노동조합운동을 일으킬 의사를 표시하여 그 자리에서 합의하고 즉시 노동조합조직에 착수했다.

대한노총의 결성대회는 국내에서 노동운동이 크게 양양되고 있던 1946년 3월 10일 상오 10시에 서울시내 시천교당에서 金九, 안재홍, 조소앙, 엄항섭 등 우익 정치인을 내빈으로 하여 용산공작소, 경성철도공장, 경성전기회사 등 15개 직장에서 대표 48명이 참가했다. 위원장에는 洪允玉, 부위원장 이일성, 金龜, 서북 사무국장 권영빈, 후생부장 김재희, 조직부장 배창우 등이 선출되었다.

시드니 웨브(Sidney Webb)²⁹⁾의 노동조합에 관한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란 임금노동자가 노동생활의 제조건을 유지·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항구적 단체이다.’ 이러한 웨브의 정의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① 노동조합은 임금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이어야 한다는 점, ② 노동생활의 제조건을 유지·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③ 항구적 단체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1946년 3월 10일 결성된 대한노총은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정치인에 의해 하향식

28) 선우기성, 《한국청년운동사》, p. 653.

29) Sidney & Beatrice Webb, *History of Trade Unionism*, rev.ed. 1920, p. 1.

조직, 제 1차적 목표로 노동생활의 제조건의 유지·개선이 아니라 반공투쟁에 두었으며, 항구적 단체로 조직되었다기 보다는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단기간에 급조되었던 것이다.

기능면에서도 노동조합의 3대 기능을 복지적 기능(공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산업적 기능), 정치적 기능(외연적 기능)을 들고 있으나 복지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은 경제적 기능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통일적으로 이해된다.³⁰⁾ 이렇게 볼 때 미군정 하에서 대한노총은 본래적 중심적 기능인 경제적 기능이 거의 수행되지 못하고, 보완적 기능인 복지적 기능도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기능만 기형적으로 비대화되었다.

이상과 같이 좌익사상을 대변하는 노동자조직 전평과 우익사상을 대변하는 노동자 조직 대한노총의 시대적 사명과 목표를 대비하여 보면 <表 12-14>와 같다.

<表 12-14> 全評과 大韓勞總의 時代的 使命 對備表

전 평	구 분	대 한 노 총
공산주의(좌익)	기본사상	자유 민주주의(우익)
북한공산당 건준계	지원단체	미군정 한민당계
찬성	신탁통치	반대
독립지연 불사	독립문제	조속한 독립
공산국가 수립	국가에 대한 견해	자유민주국가 수립
정치적, 파괴적	조합운동의 성격	정치적, 노동자 생활안정

資料 : 우재현 편저, 《세계노동운동사》, 대구대, 1982, p. 174.

이후 대한노총의 전평 분쇄는 크게 진전되어 1946년 말 1947년초에는 대구를 포함한 대도시에서 거점을 확보하여 분회조직을 만들어 갔다.

IV. 勞動爭議와 地域事例

미군정청 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해방이후 1947년 12월말까지 노동쟁의 총건수는 305건, 참가 인원수는 9만 3,078명에 달한다. 쟁의발생 원인별로는 임금인상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해고 반대로 63건, 감독자 배척이 20건, 노조 승인이 5건, 휴일임금지불이 4건, 공장폐쇄 반대, 노동시간 단축, 미지불 급료가 각 2건이고 기타가 84건이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1946년에 47건, 쟁의참가 노동자수는 7,979명이며, 해결방법은 조정 6건, 행정조정 10건, 기타가 31건이고, 1947년에는 20건에 해당기업 노동자수 2,742명중 1,636

30) 大河内一男, 《勞動問題》, 弘文堂, 1955, pp. 137~147 參照.

(59.7%)명이 쟁의에 참가했는데, 원인별로 보면 해고반대 6건, 임금인상 1건, 기타 13건이었으며, 파업건수는 13건이고 파업참가 인원은 1,595명이며, 손실작업 연일수는 1,533일이고, 해결방법은 조정 3건, 행정조정 7건, 기타 10건인데, 요구가 관철된 건수가 5건, 요구 불관철 건수가 5건이었다.³¹⁾

전평은 노동쟁의의 형태로서 산업별 조합의 연대하에 행하여지는 파업, 즉 총파업(genest)을 주무기로 사용하였다. 전평은 미군정기 3년 동안에 무려 4차례의 총파업 즉 1946년 9월 총파업(군정청 운수부 소관 경성 철도공장 노동자의 쌀배급 임금인상 요구가 발단), 1947년 3월 총파업(전평산하철도, 경전, 출판노조의 24시간 시한부 총파업), 1948년 2.7총파업(1948년 2월 8일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준비하려고 남한에 올 유엔 한국위원단의 입국을 반대하여 전평이 일으킨 파업), 1948년 5.8총파업(남조선 단선 단정 반대투쟁을 위한 총파업)을 감행했다.

미군정하에서 총파업은 철도, 전기 등 미군정이 직접 관할하는 귀속업체나 기간산업의 노조를 구심점으로 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그 동기나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결과로서 정치적 성질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9월 총파업과 같이 당초에는 철도부분의 경제투쟁이었으나 그것이 전산업의 총파업으로 확대되자 미군정은 이것을 체제의 위기로 간주하고 제동을 걸었고, 이에 따라 경제투쟁은 정치투쟁으로 전화·통일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전평에 대립하고 있었던 것은 개별 사업주와 우익정치인 및 미군정이 되었다.

또 신탁통치의 찬반을 빌미로 하여 좌우익 노동단체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화하는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혼란이 야기되고 미군정의 과도적 성격이 갖는 한계점과 아울러 일제하의 관료나 친일파들이 민족의 역사앞에 심판받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더 득세를 하게 됨에 따라 민족 정통성이 훼손되었으며, 그래서 특히 노동쟁의는 친일파가 경영하는 기업체에서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1946년 9월 총파업 이전에 전국적으로 보아 백화점 화신 종업원 파업, 신탁통치 반대를 위한 전국적 파업, 남전 대구지점 쟁의, 경전 전차 승무원 파업, 동양방직공장 파업 등이 유명한데 대구지역에서 일어난 남전 대구지점 쟁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2〉 남전 대구지점 쟁의

해방직후 노동운동이 가장 강력하게 전개된 곳 중의 하나가 대구였다. 대구에서는 1946년

31)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Ⅲ》, 1948, p. 158.

2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대구 전체 노동자들의 쟁의가 계속되었고 이 쟁의가 일단락 한 후 곧 남조선전기주식회사, 즉 남전 대구지점에서 새로운 쟁의가 시작되었다.

남부지방을 시장으로 하는 남전은 서울 및 중부지방의 경전, 관서지방의 서선전기와 함께 손꼽는 큰 전기회사였다. 이 남전에 해방직후 사장으로 된 자는 일제하에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장직상이었다. 그가 취임한 후 남전 경북지점에서 박과장을 비롯한 백, 김 양사원을 무조건 해고하는 인사파동이 있었다. 이 사건이 도화선으로 되어 대구지점 전 종업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

즉 1946년 3월 4일 남전 대구지점에서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전종업원의 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 ① 전종업원의 무조건 해고 반대
- ② 박과장과 백, 김 양사원의 무조건 해고 반대
- ③ 현 경북지점장 축출
- ④ 친일파, 민족반역자인 장직상 절대배격
- ⑤ 대우개선 등 5개 조건이었다.

남전 대구지점에서 쟁의가 일어나자 남전 사장 장직상은 탄압적 방법으로 이 파업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러한 장직상의 태도에 격분한 대구지점 전종업원들은 양심적 투쟁을 전개했으며, 미군정 당국은 이 파업을 중지하고 노동조정위원회에 위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속 탄압적 방법으로 파업을 진압하려는 장직상의 기도는 대구지점 종업원들의 ‘양심적 투쟁’을 급기야 ‘피의 투쟁’으로 치닫게 하고 말았다. 이 남전종업원들의 파업투쟁에 대하여 대구 시내에 있던 큰 공장의 노동자들도 이를 격려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등 남전파업의 영향은 점차 확대되어 후일 9월 총파업, 10.1대구폭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되었다.

〈사례 3〉 9월 총파업과 대구 10.1폭동사건

당초 9월 총파업의 발단은 1946년 9월 13일 서울 경성철도 공장의 3,000여 전평산하 노동자들이 급등하는 물가와 식량난 때문에 종전과 같은 생활비의 절반도 안되는 급료로서는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여 ① 일급제 반대, ② 기본급료 인상, ③ 가족수당 1인당 600원 지불, ④ 현물가수당 1,120원을 2,000원으로 증액, ⑤ 식량은 본인에게 4홉, 가족에게 3홉씩을 배급, ⑥ 운수부 직원에 대해 동등대우 등의 요구조건을 내건 경제투쟁이었다. 동년 9월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여러가지 경과를 거쳐 9월 30일 수도 경찰청 경관 3,000여명을 동원하여 철도종업원

약 1,000명을 검거하여 진압되었다. 서울에서 투쟁위원회 총본부가 붕괴되자 10월 1일부터 일부 열차가 운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의 파업사건은 더욱 심각했다. 특히 대구에 있어서는 9월 25일 이후에 철도총파업에 합세한 파업공장수는 40여개나 되었는데, 마침내 그들 파업노동자들은 10월 1일 집회를 한후 학생과 일반시민이 합세하여 약 만여명의 군중이 시위를 개시했다.

그들 군중들은 경찰과 대치하여 하루밤을 철야하고 10월 2일에는 저지선을 뚫고 나아가 아침 10시 반 경에는 대구경찰서를 포위공격하여 한때는 경찰서를 점령한 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대구 인근 지서들도 군중의 포위공격을 받아 무기를 강탈당하거나 청사까지 점령당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1946년 10월 1일에서 2일에 걸친 대구 10.1폭동사건으로 경찰측은 사망 20명, 부상자 50여명, 행방불명 30여명이라는 큰 피해를 입었고, 인근 각군에서서도 이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미군정 당국은 10월 2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대구 10.1폭동사건을 계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폭동이 확산되어 갔다. 통영, 마산폭동은 경찰희생자 53명, 폭민피해자 200여명이었으며, 왜관, 성주, 군위, 영천, 고성, 함천, 거창에서도 폭동이 일어났고, 10월 4일에는 충북 영동에서 농민폭동으로 경찰서를 점령했었다. 또 대구에서 형무소 죄수 100명 탈옥사건등 서울의 각 노동조합 파업이 퇴조하기 시작한 후, 대구 10.1폭동사건을 계기로하여 영남일대는 소동이 늦게까지 계속되어 10월 중순까지 큰 소동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점차 전라, 충청, 제주지방까지 파급되어 많은 경찰서, 지서가 파괴되고 인명피해가 있었다. 10월 하순에는 전라남북도 각 지방에서, 11월에는 강원도 산골까지 소요와 폭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또 한때 잠잠해지는 듯한 영남 각지방이 10월 중순부터 다시 소요가 일어나 11월경까지 계속되었으며, 10월 20일경부터는 경기도, 충청도로 확산되었다.

〈사례 4〉 3월 총파업과 대구지역 파업

1947년에 접어든 후에도 남한의 사회경제 정세는 호전되지 않아 쌀 부족에 기인한 기근과 실업문제 등 전년도 못지 않게 심각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평은 또 다시 제 2차 총파업을 일으켰다. 이 3월 총파업은 9월 총파업보다 범위나 규모가 적고 24시간 시한부 파업이기는 했지만 각지에서 농민, 노동자에 의한 관청, 경찰서 습격과 같은 폭동을 수반했다. 그러나 대한노총, 서북청년단 등 반공청년단원과 경찰의 기민한 저지로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끝맺을 수 있었다.

1947년 3월 22일 10시를 기하여 서울을 비롯한 남한의 주요 도시에 있던 철도 기관구, 채신기관, 기타 많은 공장과 기업체들이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다. 요구조건은 생활확보, 구금된 전평간부

석방, 실직방지, 테러의 박멸, 국대안 반대 등이었다. 대구에서는 남조선 전기회사, 수도시설, 철도기관구, 우편국의 일부와 방직공장 등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안동에서도 철도 등 몇몇 기관이 파업에 참가했다. 대구에서 철도기관구의 승무원은 대부분 결근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안동에서는 불온폐차를 역에 살포했다.

〈사례 5〉 2.7총파업

1947년 7월부터 미군정은 사실상 전평을 불법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전평은 1948년에 들어와서는 그 세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대한 노총의 활동이 활성화 되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전평이 강행한 파업사건이 이른바 2.7투쟁과 5.8 남조선 單選 單政 반대투쟁 총파업이라는 두 파업이었다. 2.7투쟁이라 불리워진 이 파업은 1948년 2월 8일에 당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준비하려고 남한에 올 유엔 한국위원단의 입국을 반대하여 전평이 일으킨 파업이다.

2.7파업은 1946년 9월 총파업이나 1947년 3월 총파업에 비하면 그 규모가 적은 것이었지만 그래도 경향 각지에서 상당한 소요를 야기했던 것이다. 2.7파업은 전평이 지하로 들어간 후에 일으킨 것이었고 그 당시 이미 노동자의 상당한 부분이 대한 노총산하에 잠식되었기 때문에 대규모로 조직화될 수는 없었다. 9월 총파업이나 3월 총파업이 경제투쟁에서 출발하여 정치투쟁화한 것인데 반하여, 2.7파업과 5.8총파업은 처음부터 정치투쟁에서 시작한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폭동은 전국에 걸쳐 인민봉기 70건, 데모 103건, 방화 204건, 파업 50건, 맹휴 34건을 수반했고 8,479명이 체포되어 1,290명이 송청되었다고 발표했다.³²⁾ 그러나 전평에 의하면 그보다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에서는 철도보선구 전원 250명을 선두로 전 철도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변전소의 전원, 군시제사 메리야스, 동방전직, 남선제철금속공장 등 각 공장이 파업하였고 민성일보를 제외한 전 신문이 파업으로 휴간되었다. 전문, 중학의 각 학교가 일제히 맹휴하였고, 시가행진은 7일에 30개소, 8, 9일에 각각 15개소, 총인원 55,000명이 참가했으며, 폐차 10만대가 살포되었다.

포항에서는 부두노동자 400명이 쌀증배 요구 시가데모 6,500명, 학생도 2,000명이 참가했다. 성주에서는 중학생 전원 맹휴, 4개 면에서 데모가 있었고, 100여명이 검거되었다. 청도에서는 7개면에 5,000명이 데모, 선산에서도 5개면에서 1,500명이 데모, 경산에서 8개면에 1,500명 데모, 산마다 봉화 시위가 있었고 폐차 100,000대가 살포되었다. 문경에서 2,000명이

32) 〈조선일보〉, 1948. 2. 12., 부록 pp. 3~5 참조.

2개소에서 데모, 달성광산에서 광부 7,800명과 가족 2,000명이 데모했다고 한다.³³⁾

〈사례 6〉 5.8총파업

붕괴 일보직전에 있던 전평은 2.7파업으로 인하여 더욱 혹심한 탄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평은 1948년 5월 8일 또다시 남한에 그들 최후의 제네스트인 소위 5.8총파업을 강행하였다. 이 5.8 총파업은 남한에서 단독정부로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하여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치르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조직된 소위 남조선 단선단정(單選單政) 반대투쟁 총파업위원회가 주동한 것이다. 여기서 이들은 미국 및 미군정을 명백히 제국주의로 규정하는가 하면 유엔은 이들 제국주의의 하수인으로 규탄하고, 이승만, 김성수 등 우익계열을 제국주의와 야합한 매판 반동세력으로 모는 등 앞서 다른 파업들의 선언문이나 요구조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노골적인 공산주의 정치선전을 자행함으로써, 5.8 총파업 역시 2.7투쟁과 마찬가지로 좌익계열의 총본부인 남로당의 지하지령에 의해 조직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³⁴⁾

이와 같은 정치적 요구조건을 갖고 전개된 5.8총파업은 경찰, 청년단체, 대한노총의 기민한 진압작전에 의해 쉽사리 분쇄되었지만 이 총파업 역시 이전의 제네스트와 마찬가지로 전국 규모의 폭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산발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5.8총파업 이후 전평은 사실상 와해되고 대한노총에 의한 노동조합 주도권 탈취공작은 일단 마무리되었으며, 계급투쟁적·사회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第4節 政府樹立과 戰後 再建期の 勞動運動과 勞使關係

I. 第1共和國時期

1. 勞使關係 環境과 勤勞生活 條件

1948년 5월 10일 이른바 5.10총선거에 의해 제헌의회가 만들어지고 동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고 동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제헌의회에 노동자 대표가 5명 당선되었는데 문경에서 전진한, 나주에서 이항발, 시흥에서 이재형, 순천에서 황두연, 광주에서 이석주이다.

33) 〈독립신보〉, 1948. 2. 26.

34) 〈독립신보〉, 1948. 5. 9.

정부수립과 동시에 전진한이 초대 사회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초대 노동국장에는 일제때 원산파업 당시 원산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옥고를 치른 金瓊植이 취임했다. 전진한은 노조의 중앙위원장이 현직 장관을 겸임하는 비정상적 현상이 분파의 씨가 되어 4개월만에 그만두었다. 1950년 6월 25일에는 한국동란이 벌어져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가고 부산에서 정치파동등을 겪으며 환도 후 1953년에는 노동관계 4법이 제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질서가 지켜지기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첫째, 전쟁기간(1950. 6. 25~1953. 7. 27)을 통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또 직장을 잃지 않은 노동자도 실업의 위협과 인구증가에 의해 범람된 실업은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들었다. 전후 경제정책도 안정위주의 전채복구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고용증대를 위한 경제건설을 하지 못했다. 즉, 경제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법대로의 노동운동의 이루어질 경제적 환경이 미숙했다. 더욱이 공업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노동력이 약했고 사용자나 정치권력에 이용되기 쉬웠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둘째, 정치면에서 민주주의적 법질서가 존중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노동 제법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었다. 예컨대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이 되는 헌법질서가 수차에 걸쳐 대통령에 의하여 유린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산업화가 뒤지고 노동력이 과잉공급상태에 있으며, 노동력이 미약한 가운데서, 그리고 일반 법질서가 존중되지 않는 정권 하에서 노동관계법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었다.

한편 해방으로 인해 일제시대의 비정상적인 노사관계(한국인 노동자 대 일본인 사용자)는 해소되었으나 일본자본의 철수, 남북분단과 동란으로 말미암아 공업은 일시 중단, 위축되었다. 1941년 대비 1948년의 경영규모를 보면 공장수가 40.3%, 노동자수가 29%, 공업생산액이 83%로 각각 축소되었다. 일본인의 귀속기업체가 민간에 불하되고 휴전이 된 수년 후에 미국원조에 의해 제분, 제당, 방직업 등 경공업이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아 가면서 삼성, 럭희(금성), 쌍용 등 대표적 기업이 발흥하기 시작했다. 1958년을 고비로 상대적 경제 안정기로 접어 들었는데 동년에 제조기업의 총수는 1만 2,971사인데, 소규모(5~29명)가 87.1%, 중규모가 10.4%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100명 이상의 대규모는 325사로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산업은행, 공업센서스, 1964). 국내경제 정세로 보면 1950년대 후반기의 생산기반의 증강, 개발금융체제의 정비등이 밑거름이 되어 1959년, 1960년은 외국원조의 감소로 약간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환경여건이 갖추어져 1958~1959년의 실질 경제성장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1953~60년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가

이룩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6%로서 같은 기간의 후진 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 4.0%보다 높았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도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2. 勞動政策

1948년에 선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의 법정과 여자, 소년근로의 특별보호,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보장과 이익균점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노동보호시책과 아울러 민주적 노동운동의 보장을 국가 기본시책으로 채택하였다. 행정조직에 있어서는 미군정시의 보건후생부와 노동부가 폐지되어 사회부가 되고 노동정책을 구현할 행정조직은 노동국으로 격하되어 4개과가 설치되고 불과 32명의 직원이 노동행정을 맡고 있었으며, 지방에는 도에 노동과가 설치되었다.

한국 최초로 노동입법이 행해진 것은 1953년인데 이는 1949년에 사회부 노동국이 초안을 작성하여 법제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려고 추진하던 중 6.25동란이 발생했다. 그러나 조선방직 쟁의와 대한노총 분규로 대통령에 의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錢鎮漢 의원은 1952년 12월 당시 조야에서 팽배했던 노동관계입법 요구에 응하여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 조정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상정 심의하자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통과시키고자 하였다.

결국 긴급동의안은 부결되어 제14회 정기국회에서 우선 심의하기로 되어 1953년 3월 8일 「노동조합법(법률 제280호)」과 「노동위원회법(법률 제281호)」은 1953년 1월 27일에, 「노동쟁의조정법(법률 제279호)」은 1953년 1월 30일에 통과되었고, 「근로기준법(법률 제286호)」이 동년 4월 15일에 통과됨으로써 한국 최초의 노동관계법이 만들어졌다. 노동조합법은 자유설립주의의 원칙 하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확보, 그리고 협약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었다.

노동위원회법도 당사자의 이해에 대한 자주적 조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또 노동쟁의조정법도 자유로운 쟁의권의 행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1953년의 노동관계법은 자유주의적 노사자치주의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³⁵⁾ 이밖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은 그 당시의 현실에 비추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것이라는 여론도 있었다.³⁶⁾

35)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1976. pp. 67~69.

36) 우재현, 앞의 책, pp. 185~186.

1953년에 근로조건 보호시책을 담당하는 기준과를 신설했지만 전체 조직면에서는 3과에 지나지 않았다. 그 후 1955년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보건부와 사회부가 폐합됨으로써 보건사회부 노동국이 되고, 조사지도과를 신설하여 4과가 되었으며, 인원은 78명으로 늘어났다. 결국 제1공화국 시대는 초기의 사회 경제적 혼란과 6.25동란, 그리고 전후 부흥기로서 전쟁수행 및 경제부흥, 그리고 물가안정의 경제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하는 여건 하에 노동정책은 일제 이래의 유제와 미군정하에 비상정책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노동행정도 그 조직면에서 볼 수 있듯이 보건사회행정의 일환으로서 소극적인 사회정책적 노동시책의 범주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초기의 노동행정은 미군정하에서 무질서하게 난맥상을 보였던 노동조합운동을 지도하고 노사분규를 조정하는데 비중이 두어졌으며, 6.25동란 중에는 1953년에 제정된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전지에서의 포탄, 급식운반, 부대 정지작업에 필요한 인원의동원과 처우에 관한 일들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정된 노동관계 제법을 적용하여 노동보호시책을 구현하기에는 동란으로 인한 파괴와 사업부진 등으로 실시에 애로와 지장이 많았고, 당시의 기구나 인원으로는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은 그 시행에 필요한 부속 규정이 완비되지 못하고 감독체제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노동관계법의 이념이나 내용을 노사에 지도·계몽하여 점진적이며 합리적인 노무관리 개선으로 시정시켜 나가는 데 그쳤다.

직업안정사업도 종전의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동태와 임금 및 생계비를 파악하는 정도였으며, 적극적인 고용정책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근로복지사업도 독신근로자를 위하여 서울, 부산, 인천 등지에 대규모 근로자 합숙소를 설치하여 의지할 곳 없는 독신근로자를 수용, 보호하는 정도에 그쳤다.

요컨대 해방후 1950년대까지의 노동행정은 미군정 하에서 싹튼 민주적 노동행정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가냘프게 자라면서 발전적 기초를 마련해 온 요람기였다고 할 수 있다.³⁷⁾ 제1공화국기의 노동행정조직의 변천을 보면 <表 12-15>와 같다.

37)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의 책, p. 207.

〈表 12-15〉

第1共和國期 勞動行政組織의 變遷

(단위: 명)

연 월 일	기구	내 용	정원	근 거
1948. 11. 4	4과	사회부 노동국으로 개편(노동과, 직업과, 복리과, 조정과)	32	령25호
1950. 3. 31	3과	복리과, 조정과 폐지 조합지도과 신설	32	령311호
1953. 3. 20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 신설		령784호
1953. 11. 2	3과	조합지도과 폐지, 기준과 신설	32	령841호
1955. 2. 7	4과	보건사회부 노동국으로 개편, 조사지도과 신설	78	령1004호

3. 大韓勞總과 全國勞協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진영의 의사를 결집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대한노총은 좌익 노동단체인 전평을 완전히 분쇄하고 유일 합법적인 노동단체가 되었다. 정부수립과 더불어 종래의 반공단체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본질적 노동운동을 전개해 갈 계기를 맞게 되었다. 정부수립후 시도별 노동조합조직 현황을 보면 〈表 12-16〉과 같다.

〈表 12-16〉政府樹立後 市道別 全國勞動組合組織 現況表(49. 6. 30) (단위: 개, 명)

시 도 별	노 동 조 합 수	조 합 원 수
서울특별시	167	28,516
경 기 도	149	16,542
충 북	11	2,616
충 남	44	10,820
전 북	54	2,491
전 남	13	12,546
경 북	117	14,918
경 남	87	26,897
강 원	41	12,690
제 주	—	—
계	683	128,028

資料: 김중열, 《노동문제 총론》, p. 280.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구·경북지역은 서울 경기에 이어 세번째로 많아 조합수가 117개, 조합원 수가 1만 4,918명이었다.

대한 노총은 정부수립시 당시 위원장이던 전진한이 사회부 장관에 취임한 것을 계기로 내분이 일어났는데, 1948년 8월 26~27 양일간에 명동 시공관에서 열린 대한 노총임시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규약 수정후 위원장 유임여부 문제로 지도부에 내분이 일어났다.

전진한씨는 1948년 12월에 장관직에서 물러났으나 겸임을 반대했던 劉起台씨 일파가 1949년 3월 대의원 대회에서 주도권 쟁탈에 성공했다. 전진한씨 일파는 3월 대회를 부정하고 퇴장하여 4월에 대회를 열고 전진한 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때를 계기로 하여 3월 대회파(혁신파)와 4월 대회파(보수파)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으나 동년 7월에 대통령의 화해지시로 최고위원제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화

해했다. 노총이 1950년 3월 집단지도제를 위원장제로 규약개정을 하게됨에 따라 전진한씨는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노동세력은 임시수도 부산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대하여 원외자유당파를 동조하는 조광섭 일파와 원내 자유당파를 동조하는 전진한씨 일파로 나뉘어 정치세력에 휘말려 싸우게 되었고, 1952년 5월 31일과 6월 9일로 정기대의원 대회를 각각 따로 소집하게까지 되었다. 파장에 휘말린 자들을 제외한 통합대회를 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52년 11월 대회가 열리어 趙瓊圭, 宋元道, 李鎭洙 등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얼마 안가서 이들이 자유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대한 노총은 명실상부한 자유당의 기간단체가 되었다.

이같은 내부파쟁과 6.25동란, 그리고 노총이 자유당 기간단체화 됨에 따라 대한노총은 본질적인 운동자세를 정비하지 못한 채 정치적 운동단체로 깊이 말려 들어갔다. 당시 자유당이 대한 노총을 기간단체로 만든 이유는 ① 강력한 노동자 농민세력으로써 자유당을 반대하는 도시세력의 장악, ② 당시의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를 정치세력을 통하여 조합 내부에서 해소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대한노총 측에서는 ① 노동조합간부가 정치적으로 입신출세하려는 경향, ② 정치세력을 이용하여 자기 조직의 유지, ③ 정치세력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노동조건의 개선 등이었다. 노동 4법등은 대한노총이 기간단체로서 충실히 봉사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자유당 시절에 대한노총의 어용화와 파벌투쟁에서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민주적 노동운동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의파 노조간부들과 노동운동간부 속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58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노총 제11차 대회에서 어용적 노동 귀족의 표본인 김기옥이 불법적으로 대한 노총의 전권을 장악하게 되면서부터 표면화 되었다.

金琪玉이 유일한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즉각 이에 대한 반대투쟁을 시작한 것은 대한노총 석탄광업 노련위원장 노응벽, 대한노총 대구지구 노련위원장 김말룡과 대한노총 광산노련 대명광업소 노조위원장 김관호, 대한노총 부산지구 노련위원장 최종자 등이었다. 이들은 보사부 장관에게 58년 10월 29~30일자 대한 노총 제11차 대회 결의 사항중 규약변경 및 임원개선결의가 불법 무효이므로 취소하도록 해달라는 이의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보사부 장관은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므로 묵살되고 말았다. 이에 노응벽, 김말룡은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기옥은 59년 7월 31일 대구 제일예식장 별관에서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집행위원을 반대파라는 이유로 폭행죄에 의해 입장을 거부시키고 일방적으로 자파

중심으로(중앙위원 139명중 86명 참석) 강행했다. 여기에서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방직공 과중노동사태와 부산 부두노조 노임횡령사건은 거론되지 않았다. 당시 대구를 위시하여 전국적으로 방직공들은 12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으로 혹사하면서 1일 임금이 70~100환이라는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었으나 이를 대한노총은 묵인한 셈이다. 또 부산 부두노조에서는 위원장 김기옥이 노동운동지도자로서 수고하고 노력한 동지들을 금력, 폭력으로 테러, 투옥, 직장 추방을 감행하여 한국 노동운동사상 오점을 남겼으며, 또 노임횡령을 한 사실도 드러났으나 이를 은폐하고 말았다.³⁸⁾

이에 정통파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대한노총 내부 자체에서 정화하고 노동운동을 민주화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대한노총과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전국적 중앙조직 결성을 위한 운동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59년 8월 11일 서울 경전노조 회의실에서 32명의 산업별 또는 지역별 노조대표가 참석하여 「전국노동조합협의회」(약칭 전국노협)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전국적 규모의 결성대회를 9월 25~26일에 개최하기로 정하고 맹렬한 조직활동을 전개한 결과, 당시 전국노협 준비위원회측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 541개 단위 조합중 311개 조합이 가입의사를 나타냈으며, 전국 27만 조합원 중 14만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⁹⁾

한편 대한 노총의 사무총장 이주기가 퇴진하여 전국노협에 가담한 반면, 핵심멤버였던 경전노조의 丁大夫는 자유당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10월 6일부로 전국노협과 손을 끊고 대한노총으로 들어감으로써 9월 25~26일 개최 예정이던 노협 결성이 지연되었다. 그때 마침 서울 지방법원에서는 1958년 11월 魯應壁과 金末龍 등이 제소한 대한노총 제11차 대회에 관한 소송의 승소 판결이 내려져 노동운동의 민주화 투쟁은 크게 고무되었다.

그리하여 1959년 10월 26일 서울 태화관에서 비밀리에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대회에는 대한생사 노조를 비롯하여 14개 노조대표 21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 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의장에는 지역출신인 김말룡이, 중앙위원에는 심순택, 강수면, 김말룡, 김갑수, 이팔갑, 김운한, 이세영, 김호택, 박월식, 楊義成, 裴亨을 선출하고 사무총장에는 韓泰淵을 선임했다.

1960년 3월 10일 노동절에는 대한노총과는 별도로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며 노동자들로 하여금 419 민주혁명의 대열에 나서게 했다.⁴⁰⁾

38) <조선일보>, 1959. 8. 19, 이주기(李周基), 대한노총사무총장의 퇴진 성명에서

39) <조선일보>, 1959. 8. 23.

40) 김윤환·김낙중, 앞의 책, pp.208~212 참조.

제1공화국기의 노동조합 신장상황을 보면 다음 <表 12-17>과 같다.

<表 12-17> 第1共和國期の 勞動組合 組織伸張 狀況 (단위: 개)

연도	구분	노 동 조 합		조 합 원	
		수	지 수	수	지 수
1949		683		128,028	
1955		562	100.0	205,511	100.0
1956		578	102.8	233,904	113.8
1957		572	101.8	241,680	117.6
1958		634	112.8	248,507	120.9
1959		558	99.3	280,438	136.5
1960		914	162.6	321,079	156.2

資料: 김윤환 외, 앞의 책, p.172.

4. 勞動爭議와 地域事例

정부수립후 우선 크게 대두된 노동문제는 철도부분이나 전업부분의 종사자들이 공무원 내지 준공무원이란 구실 아래 노조 결성을 방해당한 데 대한 철도 노동조합과 조선전업 노동조합의 반대운동이다. 이 문제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시시로 해결을 보아 한국노동운동의 중추세력을 이루는 두 노동조합의 존속을 가능하게 했다.

6.25동란이 일어나 노동운동은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나 전시하에서도 1951년 12월에 조선방직 쟁의, 1952년 2월의 상동광산 쟁의, 동년 7월에 부산 부두노동자 파업 등이 일어났다.

1953년 노동법 제정으로 노동운동이 법적 보장을 받게 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이 확대되고 노동운동이 크게 양양되었다. 1953년에는 대한 피혁공장, 대한석공, 미군관계 하역 노동자쟁의, 1955년에는 남전노조결성투쟁, 서울 버스노동조합, 부산 부두노동조합의 쟁의, 1957년에는 인천 미군유류보급창(POL), 동양시멘트공장 등의 쟁의, 1958년에는 철도 노동조합등의 쟁의, 1959년에는 섬유업체등의 쟁의가 일어났다. 제1공화국기의 노동쟁의 발생처리 상황표를 보면 <表 12-18>과 같다.

〈表 12-18〉

第1共和國期 勞動爭議 發生處理 狀況

(단위: 건수, 명)

연 도	발생상황		처 리 상 황							구 별					쟁 의 원 인 별									
	발 생 건 수	참 가 인 원	총 수	알 선	조 정	중 재	처 별	공 업	노 송	총 수	동 업	태 업	직 쇄	기 타	총 수	임 금	근 간	보 생	감 독 자 배	조 합 에 대 한 요 구	해 고 반 대	공 장 폐 쇄 반 대	기 타	
1949	—	—	—	—	—	—	—	—	—	—	—	—	—	—	—	—	—	—	—	—	—	—	—	—
1952	—	—	—	—	—	—	—	—	—	—	—	—	—	—	—	—	—	—	—	—	—	—	—	—
1953	9	2,271	9	5	—	—	3	1	—	9	2	1	—	6	9	9	—	—	—	—	—	—	—	—
1954	26	26,896	26	14	11	1	—	—	—	26	10	1	—	15	27	18	—	—	—	1	7	—	—	—
1956	—	—	—	—	—	—	—	—	—	—	—	—	—	—	—	—	—	—	—	—	—	—	—	—
1957	45	9,394	45	37	7	—	1	—	—	45	—	—	1	44	77	38	26	—	1	1	3	2	4	—
1958	41	10,031	41	24	6	9	2	—	—	41	2	—	—	39	41	21	—	—	—	1	13	—	6	—
1959	95	49,813	95	52	7	17	12	2	5	95	1	—	—	94	113	76	8	4	4	3	11	1	6	—
1960	227	64,335	227	150	54	4	—	9	10	227	44	2	1	180	256	127	6	2	10	7	33	4	74	—

資料: 보건사회부 총무과, 《통계보고》

자유당 정권의 제1공화국 기간 중 대구·경북지역 주요 쟁의로는 내외방직 쟁의, 그리고 최장의 법정 투쟁을 벌린 대한방직 대구공장 쟁의, 대구이용사노조 파업, 문경탄광 채불임금요구 쟁의, 달성광산 해고반대 쟁의, 대구합동직물노조 일요일휴무요구 쟁의 등을 들 수 있다.

자유당 정권의 제1공화국 기간중 대구·경북지역 주요 쟁의로는 내외방직 쟁의, 그리고 최장기 법정 투쟁을 벌린 대한방직 대구공장 쟁의, 대구이용사노조 파업, 문경탄광 채불임금요구 쟁의, 달성광산 해고반대 쟁의, 대구합동직물노조 일요일휴무요구 쟁의 등을 들 수 있다.

〈사례 7〉 내외방직 쟁의⁴¹⁾

1954년 10월 20일 대구 내외방직 노조에서는 노동자들이 최저생활 확보를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쟁의를 벌였다.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필요성까지 부인하는 한편, 노조위원장 許根營을 해고하고 金增道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41) 한국노총, 앞의 책, p. 40.

그러나 또 임금 60%인상을 요구하자 다시 이를 거부하였고 노조에서도 부득이 임금인상쟁의를 제기하면서 일부에서는 태업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전국섬유연맹에서는 간부를 파견하여 노사간의 조정애 나섰고, 1954년 10월 30일에는 임금을 40%인상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이 쟁의가 종결되고 난 1주일뒤에 회사 사장인 李淳熙는 노조위원장 김증도를 개인사정 운운하여 해고처분하였다. 노조에서는 다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고, 1954년 11월 11일에 다시 쟁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노조의 쟁의 통고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폭력배와 상이군인들을 동원하여 위협을 가하였고 날인을 강요하며 연판장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노조 사무국장 洪思郁을 대구지검에 구속하도록 하는 한편, 김증도를 비롯한 다수의 노조간부들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하였고 기숙생과 종업원들에게 급식을 단절하였다. 그러나 그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회사에서는 해고를 취소하고 노사 쌍방이 타협을 보게되어 5일간 계속된 파업은 중지 되었으나, 그 후에 회사측에서는 또 파업을 불법화하여 김증도와 그 이하의 노조간부들을 경찰 당국에 문초·조사하도록 하였고, 노조를 불신임하는 연판장에 날인하도록 노동자들에게 강요하여 일방적으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고 노조의 임원을 개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불법 어용노조가 등장하였고, 이 노조에서는 쟁의 당시에 노조를 지지했다는 구실을 들어 37명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등 제약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당 말기에 이르러 다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사례 8〉 대한방직(주) 대구공장 쟁의⁴²⁾

1) 事件의 概要

자유당 정권의 제1공화국 시기에 지역에서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노동쟁의로 대한방직(주) 대구공장의 노사분규사태를 들 수 있는 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42) 앞의 책, pp. 402~404.

張在吉 (전 대한방직 노조위원장), 《대한방직 노조쟁의 투쟁보고서》 참조.

〈表 12-19〉

大韓紡織(株) 大邱工場 勞使紛糾 概要

회 사 명	대한방직(주) 대구공장	대 표 자	설 경 동
생 산 품	섬유(방직)	종업원수	2,600여명
조 합 명	대한방직(주) 대구공장 노동조합	대 표 자	김상연, 배 형
분류이슈	1955. 5. 20 정부의 공장불하시 2,600여명 전원 일시 해고후 1,300여명만 순차적인 재취업의 인원 정리		
경과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측에서 200여명의 소수인원만 채용 어용노조 결성 · 1956. 2. 1 김상연을 위원장으로 하는 종업원대표의 노조를 구성하여 임금인상 및 입사 예정자 1,392명의 조속 채용등의 6개항 요구 · 1956. 3. 12 노사양측의 합의로 협정서와 쟁의종결협정서 체결 이후 사업주의 불이행으로 분쟁 재발 · 국회의 권고와 당국의 알선조정에도 사용자의 묵살로 근로자의 파업에 폭력과 경찰력을 동원하고 집단해고 조치로 사태 악화 · 해고무효소송으로 법정까지 확산되었으나 제2의 어용노조 등장 · 상급노동단체의 묵인과 법정의 일방적 판결로 기존 노조측 패소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노동단체의 어용화에 반발하여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 · 1960. 4. 19의거로 기존 어용 노조 퇴장과 회사측의 굴복으로 쟁의 · 당시 해고 근로자 105명의 회사측 무조건 복직 수락으로 종결 		

資料：대한방직(주) 대구공장 노동조합 장재길 전위원장, 《임금투쟁보고서》

2) 事業主의 獨斷的 行爲

대한방직(주) 대구공장은 해방후 정부의 귀속재산 불하사업체로서 조선방직 대구공장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1955년 5월 20일 설경동이 이 공장을 불하받아 공장인수에 따른 인원정리가 노사분규의 시발이 되었다. 이 공장을 불하받을 당시 정부측에서나 인수자측 모두가 사업장 인수에 따른 종업원의 근무조건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자본주에 의해 공장이 인수되고 운영상태와 인사제도가 급작스럽게 달라짐에 따라 종업원의 신상에는 큰 변동이 생겼다. 사장인 설경동은 공장을 인수받은 즉시 2,600여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해고수당이나 법정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시에 생존권을 빼앗긴 근로자들과 당시의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항의하고 해고철회를 주장하는 소란을 피웠으나 이를 귀찮게 생각한 설경동은 노후기체보수라는 구실하에 기계가동을 중지하고 공장을 수개월동안 폐업상태로 만들고 말았다. 6.25 동란으로 산업시설이 대구와 부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실의에 빠진 종

업원이 자살소동까지 벌이는 참혹한 상황으로 사회적 물의와 빗발치듯 일어나는 비난에 못이겨 회사는 2,600여명중 1,300명은 기계가동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취업시킬 것을 약속하고 부득이 자신과 밀접한 측근을 중심으로 200여명의 소수의 종업원을 채용하여 어용노조까지 결성하였다. 이에 격분한 노동자들은 투쟁을 강화하였고, 회사에서는 약 600명의 종업원을 채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회사 간부들의 종업원들에 대한 태도와 처사는 마치 금수를 다루듯 하는 비인도적인 폭언을 예사로 자행하였으며, 새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12시간의 장시간 노동 및 인권의 모독 등을 감수하여야 할 실정이었다.

3) 紛爭의 爆發

이와 같이 회사측은 집단해고, 인권모독, 차별대우 등 불공정 노동행위를 마음대로 자행하였으므로 이에 격분한 노동자들이 기본권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尹應龍 경비실장 중심의 어용노조를 전복 타도하고, 金相淵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노조를 구성하고 1956년 2월 1일 사내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6개항의 요구조건을 채택하고 실천을 위해 쟁의에 돌입하였다.

- ① 임금인상(4,500환을 최저 2,500환 인상)
- ② 휴업보상금 지급(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휴업한 날의 법정보상금 지급)
- ③ 입사예정자 조속채용(불하당시 채용예정자, 1,392명 완전채용)
- ④ 부당해고 철회(부당해고자 즉시 해고조치 철회)
- ⑤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배제
- ⑥ 단체협약 체결

이에 대하여 회사측에서는 종업원들의 노조출입을 방해하고 외부로부터 폭력배들을 불러들여 노동조합에 협력하려는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가했고, 여자종업원들에게도 부상을 입히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과거나 지금이나 노사분규의 절대다수가 사용자의 불공정 노동행위에 의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당시 후진 제국의 노동운동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생성과정이나 그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그 불공정 정도와 강도는 클 뿐만 아니라 잔혹한 것이었다.

이는 노동조합운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의 양식부족으로 기업경영의 합리화로서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려 하지 않고 제도적인 결함을 이용하려는 심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자유당 정권의 제1공화국 하의 대표적인 노동쟁의로는 조선방직의 쟁의와 대한방직의 쟁의를 들 수 있는데, 특히 대한방직은 일시에 대량해고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한 사

건이다. 근로자 한 사람의 불공정 해고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무려 2,600여명의 일터를 일시에 빼앗아 버린 것은 지역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결국 대한방직 기업주의 처사는 사회문제화되고 말았으며, 수많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노동조합활동을 강압하는 기업주의 부당한 행위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측의 투쟁은 중앙무대까지 비화했다. 소속상급단체인 섬유노련과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은 이 문제를 중시하고 보건사회부에 건의하였고, 보사부에서도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경상북도 당국에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결국 노동자들의 철저한 투쟁기세와 대한노총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쳐 회사측은 1956년 3월 12일에 일단 타협을 지어 사태를 종식시켰으나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 그 후 노조간부들을 매수·협박하여 굴복시키는 공작을 진행하여 쟁의가 재발되었다.

4) 爭議의 調停

경상북도 당국의 조정으로 1956년 2월 22일 조정을 위한 노사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당국의 성의있는 조정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어 임금인상을 제외한 5개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임금인상에 대하여는 2월 25일 다시 토의하기로 하였다.

임금인상을 제외한 5개 항목이 합의되기까지는 보사부와 경상북도 당국의 조정역할이 컸으나 직·간접으로 대한노총의 지원과 섬유노총의 개입, 그리고 대한노총 대구지구연합회의 막후 역할이 조정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회사측에서는 상호방직이나 내외방직의 임금수준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태도를 표시한 데 대해 노동조합에서는 타회사와 동일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이리하여 동년 3월 1일 노사 쌍방대표는 앞서 합의된 5개항에다 임금인상은 내외방직과 동일수준으로 한다는 데 완전 합의를 보고 쌍방이 이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그후 임금문제에 있어서는 내외방직의 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합의하였던 것이 회사측에서 조정한 내용이 상호 차이가 있어 노사 회담은 한때 결렬되어 임금인상 진행작업은 잠시 정지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쌍방의 임금차액은 월간 1인당 4천여원이었다. 야근반 근무자 4백명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공장사무실 주위에서 집단시위를 감행하였고, 12시 30분부터 13시까지는 주간 근로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사태가 이와 같이 악화되자 노동조합측은 파업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반하여 회사측은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이 절대 정확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분규는 재연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회사의 임금실태를 조사한 내용의 차이로 인한 분규는 노사간 대화에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모든 노사교섭은 담보상태에 놓였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집단시위가 확대되면서 다시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려한 대한노총은 보건 사회부에 대한방직쟁의 수습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하였고, 보사부도 이를 받아들여 조정을 하게 되었다. 양측 대표들은 여러 차례 회합을 거쳐 동년 3월 12일 월간 임금총액의 차이 120여만원의 절반인 60여만원으로 인상 지불기로 협의 결정하였다.

5) 協定 不履行과 紛爭의 再演

대한노총과 보사부의 주선으로 합의하고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약정기간이 두번이나 지나도 협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협정이행 촉구에 대해 돌연 3월 29일 노동조합간부 가운데 13명을 해고하였다. 당시 설경동은 집권당인 자유당의 재정부장으로 있음을 기화로 권력과 금력을 동원하여 노조간부들을 매수 또는 협박하여 굴복시키는 공작을 시도한 결과 당시의 노조위원장 김상연이 노조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투쟁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다반사로 하였다.

이와같은 설경동의 처사에 분을 참지못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임원의 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서명 날인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여 개최된 4월 2일의 노조 대의원대회는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탄과 매수당한 임원들의 자진사퇴서를 수리함과 아울러 배형(1961년 10월 36세의 나이로 작고)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원을 보완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신임 노조위원장 등 38명의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을 해고시켰고, 무장경관 20여명을 동원하여 노조사무실의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회사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종업원을 해고시키고 새로운 종업원을 고용하여 5월 31일 약 100명이 부당해고 되었고, 약 200명이 신규 채용되었다. 또한 설경동은 자유당의 권력을 배경으로 경찰을 동원하여 쟁의투쟁에 앞장서는 10여명의 여공들을 업무방해라는 죄명으로 구속하려 하였으나, 법원의 영장이 발급되지 않아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측에서 경범죄로 치안재판에 회부한 사건이 있었다. 대한노총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방직회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전국적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태도를 표명하였다.

6) 國會의 勸告와 當局의 斡旋

대한방직쟁의가 더욱 악화되고 물의를 일으키자 경무대에서도 조사차 내려왔고, 국회에서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당시 국회에서는 대한노총의 최고위원인 정대천 의원과 김두환 의원을 위시하여 노총 출신의 전진한, 조경규, 김재곤, 하태환 의원 등이 있어 적극성을 띄었다.

특히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결의하기까지에는 정대천 의원의 노력이 컸다. 6월 19일에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국회조사보고서에는 사용자의 부당성이 지적되는 동시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함과 아울러 정부 당국이 근로자들의 자주적 단결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 자유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이해에 편중하여 노사분쟁의 조정을 불공정하고 태만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당국이 심하게 편파적임을 비난하고, 다음과 같은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 ① 경상북도에 노동위원회를 조직할 것
- ② 3월 20일자 노사간 협약을 완전히 실시하도록 할 것
- ③ 부당해고한 자를 복직케 할 것
- ④ 노사간 협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휴업보상금 100만환을 각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불할 것
- ⑤ 노동조합법을 제정한 본래의 정신에 위배되는 운동은 이를 금할 것

한편 정부는 노동조합측의 정당한 행동임을 인정하는 국회의 견해와 일치하는 태도를 보이고 국회로부터의 권고안과 현지조사 결과에 나타난 쟁의 전모에 대해 보사부는 알선안을 제시하여 꾸준한 노력의 결과 알선안의 성안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사는 1956년 3월 1일 및 12일자 협정중 임금인상 이외의 문제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 ② 회사는 1956년 2월 2일 이후의 해고면직자 이외의 노동자를 복직시킬 것

이 알선안 내용은 성문화되어 7월 10일 설경동에게 제시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당국의 알선에도 불구하고 설 사장은 자기 입장만 고집함으로써 난관에 봉착하여 보사부 당국은 하는 수 없이 1956년 8월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송하였으며, 이를 접수한 중앙노동위원회는 5개월간의 심의과정을 거쳐 12월 10일에야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국회의 권고와 보사부의 알선마저 무시한 설경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도 수락하지 않고 거부하고 말았다.

당시 해고된 노동조합 간부들이 관계 요로에 발송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 「사장 설경동은 사악한 폭군으로서 자신의 사리사욕에만 급급하고 선량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흠혈마와 같은 존재로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반역자이다.」 급기야 보건사회부 장관은 1957년 2월 27일 설경동을 노동조합법 및 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서울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7) 最惡의 紛爭事態

보사부의 알선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까지 저버린 회사측의 태도에 분개한 노동조합은

평화적인 교섭으로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같은 파업과 데모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여 제압하는 한편 깡패를 투입시켜 근로자들을 구타하는 등 그 폭거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하였다. 그뿐 아니라 회사측은 스스로 저지른 부당한 처사에 불안함을 느꼈음인지 노동조합 간부 13명을 해고한 후에도 파업동조와 데모 가담을 구실로 대의원 및 열성조합원 등 많은 근로자를 해고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회사내 출입마저 제지하였다. 이에 노조간부들은 투쟁본부를 대한노총 대구지역연합회에 설치하고 회사 밖에서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 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5월 31일까지 노동조합 간부를 포함하여 무려 105명을 해고하였다.

8) 第2 勞動組合의 登場

사내외에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동안 사용자는 100여명을 부당해고하고 약 20여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1조 사용주의 채용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처사였으나 설경동은 이를 무시하고 종업원을 불법으로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또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들게 하였던 것이다. 제2 노조의 설립에 있어서 설경동과 당시 섬유노련간부간에 모종의 거래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로 상급단체노조들에 대한 비판과 규탄의 소리가 높아지자 1958년 6월 27일에 개최된 대한노총 제10차 중앙상무위원회에서는 高一河 중심의 제2 노조는 즉시 해체할 것을 결의하는 동시, 쟁의관철을 위하여 투쟁을 계속하고 裴亨 중심의 현 노동조합을 정당한 대한노총의 노동조합임을 의결하고, 사장의 명령에 의하여 설립된 제2 노조는 대한노총의 규약에 저촉될뿐만 아니라 투쟁기간중에 불법으로 채용된 자들로 조직되었으므로 부당한 노동조합이라고 밝혔다.

1957년 10월 25일 대구매일신문사를 비롯하여 관계요로에 발송한 호소문 일부를 살펴보면, 「...쟁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설 사장은 진정한 근로자들의 부르짖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간사한 아부분자들을 규합하여 불과 20여명으로 어용조직을 형성하여 가소롭게도 기업주의 앞잡이 노릇을 자행하여 근로자를 마음대로 혹사하고 괴롭혔다. 이러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은 실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암흑속에서 생사를 걸고 투쟁하는 마당에 기업주의 앞잡이로 들어와서 조직의 파괴행위를 일삼는 암적 존재들을 마땅히 근로자로부터 축출 제거되어야 한다.」⁴³⁾고 기술되어 있어 당시 근로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다.

43) 〈대구매일신문〉, 1957. 10. 25.

9) 法廷鬭爭

대한방직이 회사내에서 자행한 부당한 처사는 실로 치외법권적인 영역으로 오인할 정도로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같은 사용자측의 행동으로 볼 때 쟁의를 수습함에 있어 노사간 대화나 알선 등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은 노동조합에서는 보건사회부의 고발조치에 이어 부당하게 해고된 105명의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1957년 4월 13일 설경동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복직 및 해고 이후의 임금(3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이 내릴 때까지 굶어죽을 지경임을 들어 가직위 및 임금지불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였다. 원고측인 노동자들은 소송비용이 없어 승소할 때까지의 경비를 법원이 우선 부담해 달라는 소송구조신청을 냈다. 이리하여 1심과 2심에서 소송구조 허락을 받았지만 1958년 3월 9일 고재호 대법관에 의해 항고기각이 내렸다. 기각내용을 살펴보면 “資料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신청을 용인한 서울지법의 결정은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항고인의 주장은 독선이라 일침하고 결국 규명자료의 취사선택에 관한 법원의 직권을 논란한데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사용자측은 또다시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는데, 신청인 중 배형의 증명서만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부를 구조사유규명자료로 인정하고 구조신청을 허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며, 신청자가 승소의 가망이 있을때 한하여 허용하게 되어 있으나 본안은 특수사건으로서 해고가 무효냐 아니냐 또는 임금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등 극히 복잡하므로 일견 승소여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그 신청인의 규명자료의 내용을 보면 「소송비용을 지불할 재력이 없는 자이고 신청인등이 장차 제출할 소장의 사본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소송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소송구조를 부여한 제1심 법원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본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회사측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1957년 2월 28일 설경동에 대해 보사부가 서울지검에 노동조합법과 부당노동행위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조사결과 불기소처분하였으며, 이에 보사부는 고검에 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근로자의 권익옹호라는 입장에서 제정 실시된 노동입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면서 보사부 장관은 지검과 고검에서 행한 기각조치를 법무부에 항의할 대책을 강구하였다.

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당연한 것이며, 특히 대한방직과 같이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이를 시정하고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기하려는 보사부 당국의 자세는 당연한 것이라 하겠으나 결국 보사부가 바라던 악덕 기업주에 대한 철퇴는 내

려지지 못한 채 사건은 진행되어 갔다.

이같은 설정동에 대한 고발조치는 수포로 돌아갔지만 대법원에 의해 내려진 소송구조의 확립으로서 근 1년동안 서울지법에 파묻혔던 해고무효 및 임금지불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0) 公判에서의 證言

대한방직 설정동 사장을 상대로 해고된 배형 외 104명이 제기한 「복직 및 임금청구소송」 사건은 그동안 서울지법에서 민사 제5부 주홍점 부장판사 주심으로 원고 및 피고인측에 대한 사실심리를 끝마치고 1958년 6월 17일과 6월 30일의 양공판에서는 피고인측 증인으로 쟁의 발생 당시 노조위원장인 김상연과 공장장인 김규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을 마치고 7월 14일에는 정식 공판으로 들어가 원고측 증인인 당시 대한노총 대구지구연합회 위원장 김말룡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동 사건 심리에는 원고대리인 김은호 변호사 참석하에 6월 30일 상오 10시 서울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개최된 제9회 공판에서는 재판중 주홍점 부장판사로부터 증인 김규에 대한 심문이 있었는데, 쟁의 당시 동 공장 공장장이었던 김규는 증언에서 「당시 공장종업원을 해고한 것은 사규에 의하여 해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변호사의 보충심문에 의하여 「원고가 쟁의결의에 참가한 것이 미워서 해고한 것은 아니나 참가한 것을 환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6월 17일에 행한 공판에서 피고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였던 김상연 증언은 돌연 이날 공판에서 「앞서 증언한 것은 허위증언이다」라고 번복하는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당시 배형 외 13명의 노조간부를 해고시킨 것은 노동조합과 쟁의를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해고한 것이며, 노동자의 출근을 폭행과 협박으로 방해해 놓고 무단결근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그 해고진상을 폭로하였다. 또한 김상연은 이 사건에 직접 관련된 사람으로 특히 쟁의 당시 (1956년 3월 10일 및 3월 12일자 협정체결시)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협정을 체결한 경위와 그 진상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였다.

① 1956년 3월 10일 및 3월 12일자 협정을 회사는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동 이행을 촉구하는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했는데, 본인은 회사의 강압에 못이겨 협정이 이행된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허위였다.

② 배형 외 13명은 노조조직과 쟁의를 약화시키고 협정을 불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해고한 것이었다.

③ 원고 등을 해고한 직접적인 원인은 결근에 있는게 아니라 쟁의에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회사는 폭력을 사용하여 정문에서 제지한 것으로써 결국 폭력과 협박으로 출근을 강제로 방해해 놓고 무단결근이라 조작한 것이다.

④ 고일하는 쟁의기간 중 불법채용된 자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회사의 어용노동조합이며, 노동조합법에 저촉되는 불법노동조합이다.

⑤ 쟁의기간 중 사임된 것이 사실이며 보사부에서는 배형을 합법적인 대한방직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6월 19일 공판에서 전 대한방직 노조위원장 김상연의 증언으로 당시 회사측이 노동조합 대표에 대하여 얼마나 강압적이고 협박으로 협정이행을 위장하였는가는 앞의 증언에서 명백히 밝혀졌고 회사측이 행한 집단해고는 불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11) 原告側의 敗訴와 抗告

7월 14일부터 공식재판에 들어가게 된 소송은 양측의 증인심문과 사실심리를 마쳤으나 서울지방법원은 사실에 입각한 증언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주측 부당노동행위를 진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원고측이 제출한 「복직 및 임금청구소송」은 기각되고 말았다. 그러나 대한방직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다. 원고측인 근로자들이 제소한 소송이 서울고법에서 기각되기까지는 피고측인 사용주의 적극적인 공작이 주효하였겠지만, 1958년 10월 29일 부산의 국제극장에서 개최된 대한노총 전국대회에서 임원 및 규약개정과 더불어 조직 전면개편을 단행한 이후 동 쟁의를 목살하고 고일하를 위원장으로 한 어용노조 집행부를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한데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노총은 1958년 10월대회 이전까지는 대한방직 제2노조의 해체를 결의한 바 있고, 이에 앞서 1957년 10월 25일에 개최된 대한노총 전국대회가 분열되고 자유, 전업, 해상, 광산연맹등이 중심이 되어 10월 26일 대한노동조합총협의회 결성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 설립취지를 보면 “해고된 근로자들은 비장한 결의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근로자들의 기본권익을 위하여 대한노총의 본연의 자세를 찾기 위하여 그들의 불법을 선언하고 백만 노동자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대한노총의 혁신을 목적”으로 결성하였다. 한편 대한노총은 10월 전국대회 이후 합리화된 대한방직의 제2노조를 자유당정권 붕괴시까지 합법적으로 활동하도록 방관하였다.

12) 大韓紡織 勞動組合의 復活과 解雇者의 復職

1960년 4.19로 인하여 대한노총이 수습됨에 따라 노총산하 각 조직이 수습대회를 열게되었으며, 이에 대한방직 노조도 새로운 대회가 개최되었으나 이미 고일하 중심의 제2 노조는 간부들이 전원 사퇴하고 말았다.

이로써 4.19에 의해 득세하게 된 전국노협 세력이 실권을 장악하자 대한방직 대구공장내에서도 구 대한방직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근로자들이 조직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장장 5년간에 걸쳐 투쟁을 벌여오던 배형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세력이 1960년 6월 수습대회에서 과거 수년간 갇은 탄압속에서 법정투쟁을 계속하여 온 구 대한방직 노동조합이 이 대회로 빛을 보게 되었다. 회사측도 정치적인 변화와 노조세력의 판도가 달라짐에 따라 개편된 노동조합측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었다. 민주당과 긴밀한 연관을 맺게 된 전국노협 세력의 진출이 대한노총과의 통합 속에서도 강력한 발언권을 가짐으로써 노동조합의 판세는 반 자유당세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조세력의 변화에 따라 대한방직 대구공장에서의 노동조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전개되었고 4.19의 불을 탄 동 노동조합은 지난 날의 쟁의를 다시 벌였으며, 이 무렵 서울지법에서 기각되어 고법에 항고된 「복직 및 임금청구소송」이 계속 서울고법에 있었던 것으로서 당시 정치정세로 보아 회사측이 극히 불리하였음은 두말할 여지도 없었다.

이같은 여건을 감안한 대한방직 측은 노동조합 측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무조건 복직을 수락함으로써 쟁의 당시 해고자 105명중 타직장으로 전출한 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복직하게 됨으로써 노동조합측은 서울고법에 항고중인 「복직 및 해고후의 임금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상 최장의 법정투쟁을 벌인 대한방직 대구공장의 노동쟁의는 끝을 맺었다. 비록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노동자들이 권력과 금력의 압제 밑에서도 단결을 유지하며 투쟁하였고, 민주적 노동운동을 위한 새로운 단결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1952년 부산의 조선방직쟁의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노동제법의 제정과 공포를 촉진하였듯이 1956년 대한방직 대구공장의 투쟁은 그 자체가 심한 패배로 종결되었지만 노동자들로 하여금 쟁의과정 중에 어용적인 태도를 취한 대한노총 경북지구연맹에 반발하여 새로이 대한노총 대구지구연맹을 구성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대구지구연맹은 1959년에 대한노총 광산노련과 더불어 대한노총 자체의 부패와 어용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국노동운동의 민주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조직을 시도한 주축적 세력이 되었으며, 이러한 투쟁정신은 4.19이후 교원노조운동에까지 이어졌다.

〈사례 9〉 대구 이용사노조의 파업⁴⁴⁾

대구 시내에 산재해 있는 280개 이발관 종업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대한노총 대구지부 이용사노동조합에 집결되어 있었다. 이들은 1957년 말경부터 사용자측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교섭을 벌여왔으나 업자측이 불응하여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1958년 1월 13일 대구지부 이용사노조는 대구 노총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① 현재 업주 6할, 종업원 4할의 수입분배 비율을 5대 5제로 할 것, ② 노동시간을 여름에는 11시간, 겨울에는 10시간으로 종업시간을 단축할 것, ③ 매월 1일 11일, 22일을 정기휴일로 정할 것」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쟁의를 제기하기로 결정, 요구사항을 사용자측에 제시하는 한편 경상북도 당국에 쟁의발생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 측은 냉각기간 만료일인 2월 12일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노동조합 측은 긴급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협의한 결과, 파업을 단행하지 않고는 사용자 측의 반응을 불러 일으킬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2월 15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을 단행키로 결정, 이 사실을 모든 사용자들에게 통고하였다.

2월 15일 음력 정월을 앞둔 대목에서 대구 시내의 대부분 이발관이 일제히 파업에 들어가니 사용자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어리둥절 하였다. 그날 낮 몇개 업소에서는 경찰이 간섭하여 파업이 중단된 입장에 놓인 곳도 있었으며, 또 주인이 직접 이발을 하는 곳, 업주가 다른 사람을 채용하여 일을 시키는 곳 등이 있어 파업 유지는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노조 측은 분산해 있는 280개 이발관의 파업을 유지하기 위해 6개반으로 감찰대를 편성하여, 쉴 새없이 행동통일을 호소하고 다녔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쟁의 중에 다른 이발사를 고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이발의자에 앉은 채 버티기도 하였다. 경상북도 당국에서는 파업사태가 벌어지자 노사간에서 알선을 힘썼지만 쌍방의 의견은 외고집 일변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음력 선달 그믐의 대목도 별 수 없이 파업상태로 넘어갔다. 경상북도 당국은 할 수 없이 경상북도 노무위원회에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였으며, 경상북도 노무위원회는 대구 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학생, 사용자 위원 각 1명과 근로자 위원 2명으로 구성되었다. 노무위원회는 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노사 쌍방 대표를 불러 회의를 열고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쌍방을 설득하여 드디어 그날 오후 3시 조정에 성공하였다.

노사 쌍방은 「① 임금은 현행대로 실시할 것, ② 노동시간은 종래보다 30분씩 단축할 것, ③ 월 2회 공휴를 월 3회로 할 것, ④ 업자는 일방적인 해고를 하지 않고 해고시에는 노사협의회에

44) 김락중, 《한국노동운동사》, 청사, 1982, pp. 213~214.

통고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에 합의함으로써 무려 8일간에 걸친 이용사 파업은 끝을 맺었다.⁴⁵⁾

〈사례 10〉 경북지역 탄광의 체불임금 지불요구 쟁의⁴⁶⁾

1959년 2월 5일 문경탄광 노동자들이 체불된 임금 1958년 12월분과 1959년 1월분 300만환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농성투쟁을 벌였으며, 이 농성으로 광산광부와 노동자대표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한편 영일탄광에서도 노동자 156명에 대한 임금 170만환을 1년이 지나도록 지불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1959년 5월 23일 경상북도 당국에 이의 해결을 호소했고, 또 당국에서는 영일탄광 사장 金省三의 거처를 알아내 보사부 당국의 의법조치를 요청하였다.

〈사례 11〉 달성광산 해고반대 쟁의⁴⁷⁾

1959년 8월 27일 달성광산 노조에서는 회사 측에서 광산노조위원장 金治純을 비롯하여 다른 8명의 노조간부를 8월 17일에 해고한 것에 대한 불법해고 시정 등 10개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쟁의를 제기하였는데, 행정 당국의 조정과 도노동위원회의 중재로 1959년 9월 19일 회사측에서 요구조건 10개중 8개조항을 수락하고 쟁의 발생 25일만에 일단 해결을 보았다. 그런데 그해 9월 25일에는 이 쟁의의 중심적인 문제였던 노동조합의 구성과 관련하여 임원선거를 실시하였다.

도 노동위원 4명, 경찰관 그리고 회사의 간부들이 여러명 임회한 가운데에서 선거가 진행되었으나 김치순이 위원장에, 金明善, 申敬昌 두 사람이 부위원장에 직선됨으로써 회사의 노조 침투 공세를 누르고 노조측이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기업주의 어용세력을 밀치고 조직을 강화한 달성광산 노조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규약을 다시 체결하자는 움직임으로 1959년 10월 22일 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다시 쟁의를 결의하고 덕대 鄭鉉標에게 통고했다. 쟁의의 조건은 그해 9월 19일의 도 노동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사항을 이행할 것, 下德大제도를 없앨 것, 그리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등이었다.

그 쟁의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노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하여 노조 간부를 부당 해고하는데 실패한 사용주인 덕대측에서는 규정이 모호한 하덕대를 두어 ① 무단 결근 3일 이상 ② 월간 결근 6일 이상, 지각 조퇴 7일 이상, ③ 하덕대의 지시없이 작업장을 이탈하는 등의

45) 〈대구 매일신문〉, 1958. 1. 28., 同 1958. 2. pp. 14~15.

46)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운동사》, p. 453.

47)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운동사》, pp. 454~455.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고하여도 이의 없다는 6개 조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노조측에서 이를 노동자의 권익과 노조의 기능을 박탈하는 것이며 자체의 취업규칙도 없이 무계약 상태에서 서약서만 받아서 노동자의 권익을 짓밟으려는 속셈이라고 하여 198명 전원이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자 덕대 측에서는 취업을 거부하여 10월 18일 이래로 휴광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재연된 쟁의에 대하여 도 당국도 여러 차례에 걸쳐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정을 보지 못하고 1959년 11월 14일에 실시된 투표에서 200명중 112명이 파업 찬성투표를 하였다. 이어서 한편으로는 11월 15일에는 행동대를 조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총 경상북도연맹에서도 정현표가 그 해 7월말부터 체불한 약 2천만원의 임금을 지불받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재산차압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갖추었다.

노조측의 강력한 태도에 회사측은 덕대를 없애고 노조측과 계약하려는 기미를 보여 노조에서는 파업을 11월 18일까지 연기하였다. 그리고 파업을 6시간 앞둔 11월 19일 새벽에 회사측에서 제출한 최종 타협안을 받아들여서 평화적인 해결을 보았다. 즉 11월 19일 8시에 회사측 대표 정현표와 노조위원장 김치순이 8개 조항의 협약에 조인하였다. 그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장제도를 과거와 같이 인정하되 조장은 2개조 이상을 장악할 수 없게 한다.
- ② 광산측은 하덕대 제도와 서약서를 11월 19일로서 철회한다.
- ③ 공상자에게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 ④ 면직된 노조간부 박옥출과 정갑생을 11월 23일까지 원상복귀시킨다.
- ⑤ 휴직자 강복선 외 27명을 11월 19일 부터 취업시킨다.
- ⑥ 9시간 30분의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11월 23일부터 실시한다.
- ⑦ 종업원을 해고할 때에는 언제나 수당을 지불한다.
- ⑧ 체불된 노임 4개월분을 연내에 지불한다.

〈사례 12〉 대구 합동직물조직 일요휴무요구 쟁의

1959년 2월 21일 대한노총 섬유노조 산하의 15개 방직공장의 단위노조에서 8시간 노동의 실현을 요구하는 쟁의를 제기하였으며, 그 해 10월 대구합동직물 노조에서 일요휴무를 요구하고 쟁의를 벌였다. 직물업자 182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구지방 검찰청에 집단고발하고 다시 400명을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대구지검에 고발하려다가 11월 20일 대구 합동직물 노조위원장인 柳時柱는 신천직물 등 82명의 공장 고용주들을 임금체불, 착취, 노동자들의 노조가입방해, 연중무휴, 노동시간 위반, 부당해고의 6개항목에 걸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하였다.

II. 第2共和國時期

1. 勞使關係 環境과 勤勞生活 條件

4.19혁명 후 許政씨의 과도정권을 거쳐 7월에 총선거를 실시한 결과 한민당의 법통을 이어받은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어 민주당 구과의 尹潽善대통령하의 민주당 신과의 張勉내각이 출범했다. 장면내각은 경제 제일주의를 내거는 동시에 장차 유엔 감시하의 남북통일 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신구과 파벌간의 권력투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경제 제일주의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서 민생고가 가중되었으며, 대중의 민주화 요구가 강한 압력으로 작용하여 의사당 앞에는 데모가 끊일 사이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도 불안했다.

4.19 혁명에 의한 민주화 요구의 물결속에서 노·사·정이 올바른 자세로 노사관계의 질서를 확립하려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혼란을 질서로 이끌지 못한 채 장면정권은 5.16 군사혁명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2. 勞動政策

제2공화국시기는 노동쟁의의 강도가 높아졌고 불법적 파괴적 노동운동이 감행되기 일췌였다. 카리스마적 권력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은 스스로 의무를 망각하고 파업과 태업을 일삼았으며 난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자유당 정권의 압제정치가 무너지자 노동계도 그 당시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해방감에 젖었다. 많은 공장과 사업장에는 새로운 노조결성과 노동쟁의가 속출하였다. 정치적 해방감과 노동자의 누적된 욕구불만과 더불어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산업의 위축과 경기후퇴 및 물가양등은 더 한층 노동쟁의를 유발하게 했다.

한편 건전한 노사관계에 경험이 거의 없거나 부족했던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성급한 노동공세 앞에 무조건 머리를 숙이거나 직장폐쇄(lock-out)로 맞서는 등 노사관계는 노동정책 공백상태 속에서 무질서하게 전개되기는 했으나, 이 시기에 있어서 노동운동의 특징은 ① 한국 최초로 노동자가 노동활동을 정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 ② 자유방임적 노동정책이었으며, ③ 노동쟁의 사유의 다양성(임금인상, 어용간부축출, 노조의 중간착취 규탄, 악덕 기업주 배척, 사회기구문제, 해고자 복직문제 등), ④ 비합법적 쟁의(투쟁방법,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합법적 파업 등의 절차무시 경향), ⑤ 철도, 체신 등 국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에서 조합의 자중(8.15직후의 전평이 취했던 투쟁방법과는 대조적) 등을 들 수 있다.

3. 勞使의 組織

4.19혁명에 따라 12년간의 자유당 독재가 붕괴됨에 따라 과도정부를 거쳐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며 각계에서는 민주적 개혁운동의 선풍이 일기 시작하였다. 노동계에 있어서도 지도층은 대중의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노동조합 조직에서는 자율성이 증대되고 대중투쟁이 발전하게 되었다. 언제나 정치정세의 흐름에 의하여 그 성격이 규정되었던 대한노총도 4.19이후의 일정한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었다. 1960년 4월 23일 대한노총위원장 김기옥의 주재 아래 소집된 회무처리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비롯한 각종 성명서는 변화에 적응하고자 노력한 단면을 보여준다.⁴⁸⁾ 그러나 이미 정치권력의 그늘 밑에서 노동자들을 발판으로 하여 사용자들과 야합을 일삼아온 어용적 과오를 지울 수 없었고, 그로 인한 조직의 파란도 그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대한노총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하부조직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노동자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김기옥을 규탄대상으로 하여 전개되었는데, 1960년 4월 26일 부산 부두노동자들은 학생들의 시위에 합세하여 어용노조 간부의 축출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였고,⁴⁹⁾ 4월 27일에는 자유연맹의 중진간부들이 반기를 들고 산하 부두노동자들과 합세하여 김기옥의 집을 급습하고 규탄시위를 벌였다.⁵⁰⁾

한편 1960년 4월 29일에는 대한노총 섬유노조연맹에서 어용노조간부의 규탄과 노조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5월 2일에는 한국운수 대구지점 노조원들이 위원장 김상진의 사표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속에서 5월 2일 정대천과 김주홍, 5월 3일 김기옥이 사퇴를 선언하여 대한노총은 그 기능을 상실했으며, 5월 9일에는 대한노총 간부가 총사퇴하여 해산 상태에 있었고, 10여명의 수습위원이 연명책을 찾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전부터 대한노총과 대립하여 별도로 노동조직을 구성해 온 전국노동조합 협의회(의장 김말룡)는 5월 한달동안에 170여개의 단위노조를 개편 포섭하여 16만명의 조합원을 흡수하였다.⁵¹⁾ 전국노협은 1960년 5월 1일에 노동착취 피해보상, 대한노총간부 즉각사퇴, 경찰참여 반대 등을 내용으로 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4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 책, p. 492 참조.

49) 전국부두 노동조합, 《한국부두노동운동백년사》, 1979, p. 302.

50) 〈세계일보〉, 1960. 5. 10.

51) 조창화, 《한국노동조합 운동사》 하, 한국노동문제연구원, p. 50.

전국노협은 4.19와 더불어 매우 유리한 지위를 얻었다. 노동계를 장악하기에는 조직적 역량과 배경이 너무 미약했고, 그 산하의 간부들 역시 과거 자유당 시대 다소간 어용에 가담했던 인물이 적지 않았으므로 민주노동조합운동을 영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통일된 노동조합운동을 이루지 못하고 과도적 혼란이 거듭되었다. 그러던 중 대한노총을 비롯한 전국의 각급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 간부의 사퇴와 새 지도자의 선출, 조직의 재편성 등이 진행되었고, 또 미조직 노동자의 새로운 조합결성활동이 활발해졌다.⁵²⁾

이러한 추세는 9월 14일 대한노총 대표 成周甲, 전국노협 대표 金末龍의 공동명의로 통합대회 소집을 공고하는 동시에 ① 우리는 4.19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노동운동의 새출발을 기한다.

② 우리는 노동조합운동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기한다. ③ 우리는 당면한 교원노조의 합법성 전취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원한다고 선언했다. 1960년 10월 1일 대한노총과 전국노협의 대표가 노동자들의 권익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통일대회를 소집, 전국 18개 지역별 대의원과 17개 산업별 대의원 600여명이 참석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대회소집위원에 金周洪, 李鍾南, 梁一東, 宋元道, 鄭璿, 錢鎮漢 등을 추대하고 통합선언을 발표했다.

이리하여 1960년 11월 25~27일 철도회관에서 통합대회는 명칭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약칭, 한국노련)으로 합의했으나 집단지도체제, 단일지도체제, 중앙이사회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3일째는 의장, 부의장, 사무장 선거와 직선 간선의 의견대립으로 임시 의장단이 사퇴하고 정회로 끝났다.

이에 전국노련은 1960년 11월 30일 서울 태화관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의장에 金末龍, 부의장에 李奎喆, 成周甲, 金正元 등 3명을 선출했다. 그러나 신·구파의 내부갈등으로 완전한 단합을 이루지 못한 채 5.16을 맞았다.⁵³⁾

4.19 당시 노동운동을 올바르게 해 보려는 역사적 흐름은 해방후 자유당 치하를 통해 상실된 일제하 노동운동의 정통성을 되찾으려는 것으로 노동운동 정상화의 정신적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4.19당시의 노동운동은 정통적인 것과 비정통적인 것, 민주적인 것과 비민주적인 것의 갈등 속에서 정통성을 살리지 못하고 4.19혁명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다만 4.19정신은 노동자 대중속에 뿌리박혀 그들을 각성하게 하여 그후 노동운동의 새로운 맥을 형성하게 되었다. 노동운동에 있어서 4.19의 의의는 과거를 반성하고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아

52) 우재현 앞의 책, p. 194.

53) 조창화, 앞의 책, pp. 55~56 참조.

노동운동의 정상화를 시도해 본 데 있다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의 막을 내리자 뜻있는 기업인들이 경제운리를 확립하고 경제인의 권위를 재정립하고 민주국가의 경제건설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경제협의회」를 1961년 1월 14일에 창립했다. 이것이 5.16혁명 후 「경제재건추진회」, 「한국경제인협회」로 맥을 이어오다가 1968년 3월 28일 「전국경제인 연합회」(약칭, 전경련)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회는 회원들의 공동노력의 지침으로서 자립경제의 확립,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힘을 다하며,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함으로써 이 땅에 올바른 기업풍토를 건설하고 기업인의 명예를 존중할 것을 회구한다고 선언했다.

4. 敎員勞組運動

1) 敎員勞組運動의 胎動과 結成

교원 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은 1958년 후반기에 들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방대학의 교수들 사이에 나타났다. 그들은 학교 경영자의 독단적인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원노조의 결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한노총의 내부 분쟁으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고, 선거 열풍 속에서 제대로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며 1960년대에 들어서서 결실을 보게 된다.

정부는 교원노조 결성운동을 계기로 1959년 3월 16일 법무부와 보사부 공동명의로 순수한 노무종사자 이외의 어떤 일반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한을 발송했고, 이에 대해 대한노총은 헌법 제18조, 제6조, 노동조합법 제4조, 제6조의 위반이라고 헌법심의위원회, 고등법원에 제소할 예정임을 발표하고, 법조문 부당해석 시정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4.19 이후 노동운동은 ① 교원노조운동, ② 실업자 구호대책 문제를 들고 나온 전국실업자 구호대책 투쟁위원회 발족, ③ 정치활동 참여를 위한 가두 진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데, 교원노조의 결성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 4월 29일, 대구시내의 공·사립 중고등학교 교원들은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교권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복리 단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교원 60여명이 모여 대구시 교원 조합결성 준비위원회를 열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교원노조 구성문제를 4.19를 계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대구에서 제일 먼저 제기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 명칭과

12개 항목의 강령을 채택하고 결성준비위원회를 두기로 했는데, 그들은 교원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학원의 완전 자유보장 등을 강령 속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전국 교원동지의 분기를 촉구한다는 그들의 결의문에는 진한 자유쟁취 의지가 들어 있다. 또한 이와 때를 같이하여 대구시내 각급 대학교수들의 노동조합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5월 3일에는 대구시내 국민학교 교원들도 초등교원노조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학원의 민주화와 자유화, 교원의 권익 옹호와 지위보장을 쟁취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들은 10여년간의 압제밑에서 아동들에게 허위를 가르치고 아동들의 경멸을 받았다고 말하며,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참다운 교육을 되찾겠다고 결의한 것이다. 그리하여 1960년 5월 7일에는 대구시내 중고등학교 및 국민학교 교원들의 노동조합이 각각 결성되었다. 그 임원들은 중고교 교직원 노조위원장 金章洙, 부위원장 呂學龍, 孫永基, 국민학교 교직원 노조위원장 정호강, 부위원장 소효용, 신우영 등이 선출되었으며, 그리고 여기에서 채택된 중고등학교 노조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 ① 우리 노조는 대한교육연합회에서 탈퇴한다.
- ② 우리 노조는 대구시내 중고등학교 교육회에서 탈퇴한다.
- ③ 우리 노조는 교육위원회를 구성·촉진을 기한다.
- ④ 우리 노조는 교육공무원법에 저촉되는 법규는 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 한다.
- ⑤ 우리 노조는 전국노조협의회와 제휴한다.

대구 초등학교 교원노조 결의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는 학원의 민주화를 위하여 교원노조를 조직하여 학원의 자유를 쟁취하는 데에 총력기한다.
- ② 우리는 교육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자의 질적 향상과 교육행정의 쇄신을 주장한다.
- ③ 우리는 교육자의 율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교육자의 권익옹호와 사회적 경제적 지위보장을 주장한다.

한편 1960년 5월 22일에는 전국의 교원 300여명이 서울대학교 문리대 스타디움에서 한국교원노동조합연합회의 결성대회를 열고 연합회 위원장에 趙一文(건국대), 초등교원노조위원장에 嚴虎鎮, 중고교노조위원장에 金日龍, 대학교수노조 임시위원장에 조일문을 선출했다.

2) 大邱·慶北地區 敎員勞組聯合會 結成

한편, 대구에서는 6월 29일 경북지구 교원노조연합회 결성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22개의 시·군 대의원과 대구시내 중·고 회원 200여명이 참석하였고 임시의장에 이 목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5개항의 강령과 전문 50개조의 규약을 채택하였다. 채택된 강령은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원의 민주화를 기한다.
- ② 우리는 총단결로서 여하한 정당 및 관권에서의 독립을 기한다.
- ③ 우리는 신분보장을 확립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한다.
- ④ 우리는 교육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기한다.
- 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육성과 세계평화에의 공헌을 기한다.

3) 大邱·慶北敎員勞組의 鬭爭

한편 1960년의 8월 9일 경북 초·중고 교원 400여명을 대량으로 이동 발령한 당국의 조치는 교원노조운동을 크게 자극하였다. 즉 전국에서 집결한 교원들이 지원하는 가운데 나흘간 계속된 경북교원노조 연좌데모대는 8월 13일 도 학무과장실에서 농성하고, 14일에는 700여명의 교원들이 경북도지사의 사임까지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대한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철도, 체신, 전매 그리고 남전노조 등이 이들을 지원하고 나서게 되어 이들의 투쟁은 한층 격화된 것으로 보였다. 연 나흘 동안 데모를 하고 난 교원노조는 8월 15일부터 경북지구 교원노조 긴급대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는 경남, 충남, 전북 등지에서 모인 대표진이 약 1,500여명이나 참석하였다. 이 대회는 경북 도지사 趙俊泳의 부당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월성군 교원노조 대표들로부터 전교원의 집단사퇴 제안을 받아들여 사퇴원에 전원이 서명하고 참석하지 못한 교원노조원은 학교의 분회를 통하여 받아들여 함으로써 결국 약 9,500명의 사퇴원이 의장단에 제출되었다. 이와 아울러 경북교원노조연합회는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노조 간부에 대한 이동처분 취소 등을 이유로 8월 16일 대구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교원노조의 부당 인사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이러한 투쟁은 당국이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8월 20일의 전국교원노조 대의원대회를 맞았으며,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해산시킨 바 있는 민주당 정부는 8월 18일에 문교부에서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교원노조 투쟁이 불법적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국제자유노련(ICFTU)에서 특파원을 파견하여 정부와 교섭하였으나 끝내 거부한 바 있으며,⁵⁴⁾ 교원노조에서도 그들의 요구를 전국대회에까지 관철시키기 위하여 계속 사퇴서를 모으고 있었으며, 앞에서 설명한 공무원 공동투쟁위원회도 대표자 회의를 갖고 교원노조 부당인사조치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상북도의 철회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계

54) 우재현, 《세계노동운동사》, 대구대학교, 1982, p. 195.

속하여 투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교원노조 탄압반대 전국조합원 총 쟁기대회는 3,0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0일 예정대로 대구 달성공원에서 개최되 었다. 그 대회에 대회는 “민주학원 건설에 선봉역할을 맡으려는 교원노조를 탄압하려는 불 의에 대하여 모든 교육자는 쟁기하자.”는 것이며 “젊은 학도들이 흘린 피에 보답하자.”는 것 이었다. 그리고 결의문의 요지는 “제2공화국의 신정부는 교원노조의 합법성을 천명하라. 경 북도지사는 교원노조를 해체하기 위한 부당인사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의 요구가 8월 25 일까지 관철되지 않을 때는 총사퇴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시가행진 뒤에 대회는 평 온하게 해산되었다. 다음으로 8월 25일에는 2,000여명의 교원이 모여 수천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북교원노조 조합원 약 9,000명이 총사퇴할 것을 결의하며 선언하는데, 이 대회의 선언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것이었다.

“우리는 민주학원의 순교자가 되고 초석이 되기 위하여 경북 교원노조원 전원이 1960년 8월 20일 5시를 기하여 총사퇴한다. 전국의 각 도 교원노조원 전원은 8월 28일까지 전원 사표제출을 완료하고 비상대기태세를 취한다.”

한편, 해산한 전원은 그날 밤 10시에 발표되는 국무회의의 교원노조문제 결정을 듣기 위하여 각기 학교에서 대기하였고 대의원과 상집위원은 종로국민학교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앞으로의 투쟁방법을 토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경남교원노조에서도 25일 긴급상집회의에서 경북교원노조와 보조를 같이하여 총사퇴의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이렇게 정부와의 대결이 지속되던 막바지에 이르러 대구고등법원에서는 교원노조가 합 법단체라고 판시하고 전근 교원의 인사 정지를 판정함으로써 교원노조는 법적 승리를 쟁 취하였다. 그리고 정부도 경북 도지사에게 고등법원의 판정에 항고하지 말라고 시달하였고 내각에서도 교원노조의 문제를 3장관에게 일임함으로써 당국의 기도는 후퇴되고 교원노조는 일차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유리한 사태의 진전을 보자 대구교원노조 상임집행위원회 에서도 총사퇴 결의를 보류하고 도내 각급 학교에서 정상수업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원노조는 정치적 압력을 받아 결국 해산되고 말았다.

그 후 국제자유노련(ICFTU)에서 특파원을 파견하여⁵⁵⁾정부와 교섭한 일도 있으나 끝내 빛을 보지 못했다.

55) 김종일, 앞의 책, p. 234 참조.

5. 勞動爭議와 地域事例

4.19혁명 이후 전국적으로 노동조합 수가 증대되었는데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새로 신고 설립한 노동조합이 48개나 되었다(〈表 12-20〉 참조).

〈表 12-20〉 勞動組合 및 組合員 申告 設立 取消 및 變更 狀況(1960) (단위: 개, 명)

구 분	노동조합				노 동 조 합 원							
	신 고 설 립	취 소	변 경	연 현 재 조 합 말수	신 고 설 립	취 소	변 경	연말 현재 조합원수				
								총 수	사무원		노무원	
									남	녀	남	녀
총 수	388	32	203	914	83,761	43,102	103,601	321,097	18,830	5,365	248,962	47,940
서울특별시	122	11	123	232	29,928	19,663	90,012	89,235	10,009	2,046	65,856	11,324
경 기 도	65	1	—	109	15,708	16,249	—	33,247	467	64	27,764	4,952
충청북도	12	—	—	36	2,155	—	—	5,959	62	46	4,020	1,831
충청남도	16	3	—	58	2,064	191	—	12,721	241	10	10,068	2,402
전라북도	24	3	43	90	3,134	645	—	16,169	682	18	13,459	2,010
전라남도	29	—	—	83	2,850	—	—	17,425	343	17	15,080	1,985
경상북도	48	4	13	93	4,836	1,263	3,965	17,069	707	54	11,433	4,875
경상남도	52	4	—	153	17,967	3,606	—	108,445	5,246	3,054	82,144	18,001
강 원 도	18	6	24	49	5,056	1,485	9,624	20,478	1,065	56	18,797	560
제 주 도	2	—	—	11	63	—	—	349	8	—	341	—

資料: 保健社會部, 《保健社會部 統計年報》, 1960, p.479.

한편 자유당 말기의 노동운동은 임금문제와 해고반대 및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일차적인 노동쟁의가 대부분이었고,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실패로 끝나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 그 특징이었다.

그러나 4.19이후에는 오랜 기간동안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지 못한 불만이 그 분출구를 찾았고, 그에 따라서 노동운동도 고조되었다. 4.19이후 노동운동은 ① 과도정부 하에서 자유당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노조로 개편 신설하는 시기, ② 민주당 정부 수립 후(1960. 7.)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련)이 결성되기까지의 시기로 단위 노조정비위에 노동조건과 생활향상을

위해 정상적 노동쟁의활동이 전개된 시기, ③ 1960년 말부터 5.16 군사혁명까지의 시기를 노동운동이 단위노조의 분산적 형태로부터 산별노조의 전국적 규모로 발전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⁵⁶⁾ 대구·경북지역에서 제2공화국 시기에 일어난 주요 노동쟁의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3〉 대한방직 대구공장 쟁의의 마무리

앞서 대한방직 대구공장의 노동쟁의가 자유당 말기부터 몇년간에 걸쳐 전개되어 오다가 1960년 3.15선거를 앞두고 미해결인 채 종결되었었다. 노조간부를 비롯한 105명의 노동자를 부당해고한 것으로 인하여 4년동안 끌어온 대한방직 대구공장 쟁의는 1960년 4월 28일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을 회사측이 수락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⁵⁷⁾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은 부당해고자 105명의 무조건 복직과 쟁의기간 중의 불법 채용자 정리 등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노동운동을 방해해 온 어용노조는 해체되고 새로운 노조가 들어서게 되었다. 새로운 노조의 주요임원은 김말룡이 지도하는 전국노협산하 경상북도 노련부위원장 金甲壽 쟁의부장 李東熏, 대구 지구 섬유노련 쟁의부장 權五鳳 그리고 裴亨, 朴基浩 등이었다.

〈사례 14〉 내외방직 쟁의의 종결

전국노협 경상북도 노련에서는 1960년 5월 2일 대구내외방직 회사에 대해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했다. 대구 내외방직에서는 1954년 12월 4일 노임인상을 요구하는 쟁의가 발생하여 52시간 농성파업 후에 그해 7월에 원만한 해결을 본 바 있었으나, 회사에서는 1954년 12월 31일에 당시 노조위원장 金增道와 전국노협 중앙위원장 金末龍 등을 비롯하여 남녀 공원 10여명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약 200명의 노동자를 해고시킨 바 있었다.

이러한 회사측의 조치를 비난하고 당시의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는 전국노협의 요구에 대하여 사장 李淳熙는 신병을 빙자하여 노사회담을 거부하였으나 다음날인 1960년 5월 3일에 가서야 김중도 이외의 4명의 노조간부를 5월 4일부터 복직시키고 나머지 부당해고자들은 점차적으로 복직시킨다고 발표하여 쟁의의 종결을 보았다.

또 동년 6월 26일에는 내외방직 공장의 직공 680여명이 노임 5할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27일에도 투쟁을 계속했으나 노동자들의 과격한 행태는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

56) 한국노총, 앞의 책, p. 496 참조.

57) 〈대구일보〉, 1960. 4. 29.

〈사례 15〉 제일모직 대구공장 여공노조운동 방해투쟁⁵⁸⁾

1960년 6월 14일에는 제일모직 대구공장에서 여공 약 400여명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 ② 152명에 대한 불법휴직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
- ③ 불법 폐업을 중지하고 정상작업을 실시하라.

그들은 회사측의 휴업조치가 노조운동 방해행위임을 간파하고 이와 같은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다. 대구지구 계엄사령관과 전국노협 회장은 이 노사분규를 중대시하고 조정에 나섰지만 결렬되었다.

이 분규로 인해 전국노협과 삼성재벌 사이에 투쟁이 심화될 것이 예기되었고, 전국노협에서는 노동운동 방해책동을 비난하고 6월 18일까지 위의 세가지 조건을 받아들이고 조업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당시에 노동운동이 치열할 때에는 조업 중단과 폐업조치가 핑계를 꾸밀 수 있는 노조방해 책략임을 회사측에서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노조내에 분규가 야기된 원인이 회사에서 노조에 간부를 침투시켜 노조가 소위 공장파와 사원파로 분열된 데에 있음을 보면 삼성재벌이 저임금 착취에 기민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운동을 어용화하는 데에도 민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노동자들은 6월 17일 소위 사원과 노조의 어용화를 지적하고 이의 타도를 요구하는 농성투쟁을 전개하였고, 경북도내에서도 회사의 공장폐쇄가 위법임을 들어 그 시정을 촉구하게 되어 6월 20일부터 조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어떤 대책과 조치도 취하지 않아 제일모직 노조에서는 6월 22일 경북도 당국에 쟁의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노조결성 및 노동운동의 불법방해 즉시 중지
- ② 152명의 공원에 대한 부당 휴직조치 즉시 철회
- ③ 공장조업 즉시 재개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회사측에서는 응락할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게 되자 제일모직 노조원 300여명은 7월 4일 공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투쟁을 전개하였다. 회사측의 고발로 200여명의 경찰들이 출동하여 전 공원에 대하여 강권을 발동하였고, 1시간 이상의 충돌로 인하여 사무실은 여공들의 울음바다로 변하였고 여공 李淑子 등을 비롯한 상당수가 부상을

58) 한국노총, 앞의 책, p. 516.

입었다. 그러나 7월 4일 밤에는 다른 기업체에서 1,500여명 노조원들이 대오를 이루어 밀려와 농성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날 강권행사로 사태를 진압하려다 실패한 경찰과 계엄부대를 대신하여 헌병들이 회사내의 경비를 맡았다. 이러한 사태는 8월 10일에 이르러서야 종결을 보게 되었다. 보사부 당국의 발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신·구 양파 노조는 노조의 통합 단일화를 위해 해산한다.
- ② 회사는 양 노조의 해산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조업을 개시한다.
- ③ 단일노조는 조업개시후 40일 이내에 결성하기로 하고 외부인사 및 외부단체의 개입 또는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일모직에서 일어난 노사간의 싸움은 경찰이 회사의 입장을 옹호하고 강권을 노동자들에게 행사하는 등 대자본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조를 어용화하려는 회사의 기도에 반대하여 쟁의를 제기한 것이다.

〈사례 16〉 대구 시내 버스 및 택시 총파업⁵⁹⁾

1960년 9월 16일에는 대구 시내에서 시내버스와 택시 860대가 2시간 동안 총파업을 감행하였다. 이 파업은 대한노총 산하의 대구 자동차노조원들이 협성자동차노조가 별개의 독립 노조를 결성하려는 데에 대하여 대구 자동차노조원들이 이 대회가 불법임을 알고 대회장에 몰려와 경찰의 제지에 대하여 반발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다. 파업이 단행된 후 노조와 경찰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 경찰이 협성 노조의 불법 여부를 조사한다는 조건으로 태업을 중지시킴으로써 이 파업은 종결되었다.

〈사례 17〉 대한중석 달성광산 덕대권 투쟁⁶⁰⁾

대한중석 달성광산에서 실질적인 광산운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덕대권을 둘러싼 노동쟁의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다. 덕대권을 둘러싼 분쟁은 1961년까지 계속되었다. 즉 달성광산에서는 1961년 2월 15일부터 채광작업이 중단되어 4월 21일까지 백지상태의 생산율을 보이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하여 회사와 상공부 당국이 중석 덕대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발표하고, 4월 21일부터 극한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회사측에서는 상공부의 승인을 얻어 徐廷鎬, 全大燮 등을 지명하여 덕대권을 계약하도록 지시하여 왔었다. 그리고 노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59) 한국노총, 앞의 책, p. 519.

60) 위의 책, p. 524.

농성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 ① 공백기간을 조속히 해소시킬 것.
- ② 계약 후에는 현재의 노조를 덕대계약에 사용할 것.
- ③ 계약과 동시에 회사 측은 일단 퇴직수당과 3개월 분의 체불노임(약 4,500만원)을 지불할 것.

한편 1961년 5월 5일에는 부산, 도계, 영월, 장성, 운성, 화순 등의 6개 광산노조에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약 9,000여명에 달하는 노조원들은 4월 26일에 5만여환의 현행 임금을 97,000환으로 인상하라는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24시간의 파업을 단행했지만 회사측에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아 파업을 다시 재개한 것이다. 이러한 파업사태에 당면한 대한석탄공사에서는 현 임금의 20%까지 인상하겠다고 함으로써 사태를 종결지으려 했지만 노조측에서는 90,000환 베이스로의 인상을 계속 주장하고 5월 10일에 석탄공사 산하의 6개 광산노조는 또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5.16으로 인하여 어떤 궁극적 해결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기운이 솟아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례 18〉 대구전매청 노동쟁의⁶¹⁾

반혁명 청장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대구전매청장 朴永達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 운동을 벌여 온 대구전매청 노조에서는 1960년 11월 17일 위원장 金泳鎭을 비롯한 41명의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한 데 대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11월 21일에는 노조간부들의 단식투쟁이 전개되었고 11월 23일에는 일부 여공들이 더불어 단식투쟁을 전개하는 등 사태는 점차 심화되었다. 같은 날 전국전매청노련에서도 대구전매청 종업원 42명의 복직과 노임 100% 인상을 요구하고 쟁의에 들어갔다. 그 요구조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① 집단해고된 42명의 즉각적인 복귀
- ② 노임 100% 인상
- ③ 초과생산 장려금의 지불
- ④ 기술보장금의 지불

전매청의 공정은 하루만 못어도 약 2억환의 국고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노사 쌍방은 해고자 42명의 해고조치를 철회하고 노조에서는 전매청 배척을 철회한다는 조항 등 모두 5개조의 협상안에 합의를 보는 듯하였다. 그런데 전매청에서 해고된 42명 중 金重燮과 慎弼順의

61) 앞의 책, p. 524.

두 사람에 대한 해고철회를 거부하자 전매노조에서는 다시 연좌데모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철야농성을 전개하였다. 1960년 11월 25일에는 전주 지방전매청에 종사하는 2,000여명의 종업원들도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쟁의를 전개하였다.

- ① 기본임금 100%를 인상할 것
- ② 생산수당제를 실시할 것
- ③ 기술수당제를 확장 증액 실시할 것
- ④ 지난 17일 부당하게 해고된 대구 지방전매청 노조원 42명을 즉각 복직시킬 것.

결국 12월 23일에 전매청노조의 임금인상 쟁의는 다음과 같은 노사간의 타협을 봄으로써 종결되었다.

- ① 단체협약 갱신체결
- ② 노임인상은 정부의 일률적 노임인상안에 의존한다.

第5節 經濟開發初期의 勞動運動과 勞使關係

I. 勞使關係 環境과 勤勞生活 條件

미소 냉전체제에서 쿠바사태를 고비로 두 나라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시련 속에서 후진국들은 새 민족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비동맹의 움직임이 일고 일본의 재등장과 중공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시기에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는 등 6개항의 혁명공약을 내걸고 일어난 5.16군사정변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새로운 전환기를 이룩했다.

1962년부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이 마련되어 실시되고 이어서 제3공화국이 탄생된다. 1964년 한일국교 정상화와 더불어 6.3사태가 일어나고 3선개헌과 더불어 월남파병,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선언, 동년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등과 더불어 유신과 함께 제4공화국으로 들어선다.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1961년 5월 22일자 포고령 제6호에 의해 한국노련은 해산당하였으나 동년 8월 3일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이 만들어져 노동단체의 활동이 재개된다. 국내 경제정세를 보면 1960~1961년에는 4.19와 5.16 등의 급격한 사회정세의 변화가 정

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경제요인으로 작용했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내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국제경제 측면에서도 몇가지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다. 즉 미국이 1958년 이후 계속되는 국제수지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1961년부터 「바이·아메리칸 정책」을 실시함과 더불어 대외 원조를 삭감하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단행하기 시작했으며, 일본도 왕성한 시설 투자에서 비롯된 국제수지면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1961년부터 수입대체력의 강화와 수출진흥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전환기를 맞아 5.16 군사정변정부는 소극적이던 제반 경제시책을 더욱 적극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 작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소비지출의 억제, 세제합리화 등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조정하고, 금융면에서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체제개편과 동시에 산업부문에서는 장기개발 계획의 틀 안에서 부문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1961년 6월 부정축재처리법,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등이 공포되어 1957년 이래 민영화되어 오던 일반은행이 다시 정부에 귀속되었다. 또 농어촌고리채정리법 등을 제정·시행했다.

1962~1966년 간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기본 정책으로 삼아 외부경제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전력,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을 비롯하여 비료, 시멘트, 철강 등 기초산업과 정유화학 등의 신규 산업건설등의 사업으로 수출증대와 수입대체라는 방향에서 급속도로 추진되고 농업생산력의 증대 등을 도모하면서 당초 목표성장률 7.1%를 크게 초과하여 8.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1967~1971년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철강, 기계 등을 바탕으로 한 공업구조의 고도화,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와 수입대체의 촉진, 농수산업 등의 생산기반 증강과 농업소득의 증대 과학 기술의 진흥 등과 함께 제1차 5개년계획을 통해 나타난 성장애로요인을 해소시키는데 중점목표를 삼으면서 연평균 10.5%란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1960년대 산업화 초기에 근로생활조건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나름대로 노사가 빈곤에서 해방되려는 의지로 뭉쳤던 시기라 할 수 있다.

II. 勞動政策

노동정책은 한편으로 경제정책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개선하며, 근로의 권리로 실현하고 노사간 실질적 대응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정책적 역할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노동행정은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는 이같은 양 측면의 어느 쪽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고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노동행정은 종래의 소극적인 노동보호행정에서 탈피하여 경제개발의 주요 전략요소인 인력의 종합적인 관리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1963년 8월 31일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勞動廳으로 승격·발족시키고 노동조합, 노동위원회, 근로감독, 근로조건, 안전보건, 재해보상 및 산재보험, 직업안정, 노동력 수급조정, 실업대책, 노동통계, 근로복지 기타 노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했다. 당초에는 廳長, 차장 밑에 2국 6과를 두고 정원 147명으로 종래 노동국을 다소 확장한 정도였으나 점차 확대 강화되었다. 1960년대 노동정책의 전개와 행정조직 변화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⁶²⁾

1. 직업훈련 부문의 확대 강화 : 경제개발에 따라 인력개발이 중요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기능, 기술인력의 양성이 시급하자 1966년 6월 기획관리실에 직업훈련 담당관을 두고, 동년 12월에 직업안정국에 직업훈련과 기능검정과를 신설했다. 1967년 직업훈련법이 제정되고, 1968년 6월에는 2급 직업훈련관을 두었으며, 1968년에는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이 설치되었다.

2. 산재보험사업과 지방기구설치 :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만들어지고 64년 실시에 따라 7개 지방 산재보험사무소가 신설됨으로써 처음으로 노동행정 고유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보았으며, 그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설되었고 직업안정소와 통합될 때까지 34개소로 확장되었다.

3. 해외 인력 진출의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의 발전 : 1963년말 서독에 우리나라 광부 제1진이 파견된 후 월남, 일본, 괌, 인도네시아, 중동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해외 주재 노무관이 늘어나 1976년 3월 해외개발공사를 설립, 업무 대행했으나 업무량 증가에 따라 66년 12월 직업안정국에 해외고용과를 신설했으며, 1977년 10월 해외근로국이 신설되었다.

4. 직업안정 조직의 개편 : 경제개발의 필요에 따라 직업훈련 행정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데 반해 인력수급, 조정등 직업안정기능은 큰 신장을 보지 못했다. 1961년 직업안정법이 제정되고 노동청 소속기관으로 옮겼으며, 1974년 10월 산재보험사무소와 통합되어 34개 지방사무소가 되었다.

5. 인력개발 행정체제의 형성 : 노동청 발족과 더불어 노동행정은 경제개발의 기본요소인 노동력을 형성, 배분, 활용 및 보전하는 인력관리 행정으로서의 기능을 확인하고 그 체제를 정비하는데 주력하였다. 또 이를 위해서 중장기계획의 수립이 요청되어 1968년에는 기획관

62)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감》, 1983, pp. 203~204.

리실에 노동통제담당관(3급)을 설치했고, 1970년 4월에는 인력개발 담당관(2급)을 따로 두어 노동력개발 담당(3급), 실업대책 담당(3급)을 통할하게 하였다. 이는 그후 고용통제, 임금통제 등 노동통제와 그 資料처리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변모하였다.

6. 노동관계법의 재정비: 1961년 9월에 공포된 「정부관리기업체 보수통제법」과 1963년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법」의 개정이 있었으나 1962년 12월 4일 퇴직금, 해고, 유급휴가 및 벌칙강화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재정되어 노동완화정책의 기미를 보였다. 1963년 12월 7일에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및 「노동위원회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대체로 법조문을 현실화했다는 점과 「노동조합법」과 「노동위원회법」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노총은 대체로 환영하는 태도였으나 「노동쟁의조정법」에서 통제규정이 완화된 점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법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여 그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사용자측에서는 「유니언 샵」협약의 정당성을 명분으로 뒷받침한 점이나 벌칙규정의 대폭 강화에 대하여 매우 불만스런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그 후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보수통제법)은 노총이 위헌법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1964년 3월 3일 폐지되었다. 대구지역에 노동관련사무소가 생긴 것은 1964년 8월 25일 노동청 경북산재사무소가 개소되고, 1968년 8월 12일 노동청 대구직업안정소가 개소되었으며, 1970년 4월 7일 경북산재사무소와 대구직업안정소가 「노동청 대구지방사무소」로 통합·개편되었다.

5.16과 제3공화국에서 노동행정은 인력관리 행정으로서 경제정책의 일익을 담당하여 성과를 올리고 노동행정 본연의 영역을 정립하고 체제를 정비하는데 진일보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III. 勞使의 組織

1. 使用者 團體의 整備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제휴는 고도성장을 추진하는 활력소가 되었지만 정부의 기업에 대한 과보호 속에서 경제관료화가 싹터 정부주도형이란 말이 생기게 되었고 기업의 정부에 대한 과의존 속에서 안이하고 방만한 기업경영이 이루어져 부실기업이 속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고도성장 제일주의 하에서 노동정책은 성장정책의 시너로서 제 구실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 1960년대 말에 정부와 기업에 의한 과보호·과의존에서 오는 정부주도형 경제의 모순을 시정하고자 한때 민간주도형 경제로 전환이 주장되었으나 1970년대의 강력한 중화학 공업화의 추진으로 정부주도형 경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우리나라 기업은 1960년대, 특히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으로 고도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크게 성장하여 현대, 한진, 선경, 한국화약, 대농, 동아건설, 한일합섬, OB맥주, 대우실업 등과 같은 대기업을 형성시켰다. 이들 대기업을 수출에 의해 급성장을 하는 수 많은 전략기업을 흡수하여 거대한 재벌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본, 기술, 경영자원, 인력 등을 급속히 축적한 재벌들은 1970년대 중화학 공업분야에까지 진출을 도모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급성장했기 때문에 그 체질이 전근대적이며 경영기반이 확고하지 못했다. 즉 가족이나 동족에 의한 경영지배의 색채가 농후하여 이른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진전되지 않았고,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며 외자의존도가 높았다. 이러한 불건전한 기업경영은 정부지원 하에서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기피하는 태도를 취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계에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질서확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961년 12월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공존을 위한 동업자적인 협동조합이 조직되어 연합회가 만들어지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직되었다. 기존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에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만들어지고 다시 전국 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만들어져 1960년대 산업화 과정 속에서 경영자 및 자본가 단체가 정비되고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2. 韓國勞總의 整備

5.16이후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1961년 5월 22일 「포고령 제6호」를 기하여 기존 노동단체를 모두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교원 노동조합운동도 이로 인하여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나 동년 8월에 다시 단체활동이 보장되어 8월 4일 전국의 각 산업별 노조지도자들은 혁명정부의 시책에 따라 참신하고 민주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을 재건하기 위하여 「한국노동단체 재건조직 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한국노총)이 결성되었으며, 위원장에 李奎喆씨가, 사무총장에 韓基洙가 당선되고 운동방향으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재정자립을 내걸고 1950년대 어용화의 누명을 씻고자 하였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종래의 기업별 형태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로 바뀌었다.

1963년 민정이양 후에는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노조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등 노동운동이 활발한 양상을 띠는 듯 했다.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노동조합의 정치적 발언권 강화가 노동자의 지위향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李贊赫위원장 시대는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지방의회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노조간부를 적극 진출시킬 뜻을 밝히고 노동조합법 제12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1960년대의 노동운동은 4.19혁명의 여파가 남은 가운데 혼미했으며, 정부와 기업의 대노동대책 강화,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등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재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제3공화국 시기의 경제성장과 노동조합 조직신장율을 보면 다음 <表 12-21>과 같다.⁶³⁾

第3共和國 時期의 經濟成長과 組合組織 伸張率(1962-72)
<表 12-21> (성장률: 1970년 불변 가격)

연도 \ 구분	경제성장률(지수)	조직성장률(지수)
1962	100.0	100.0
1963	108.8	127.4
1964	118.1	154.2
1965	125.3	171.2
1966	140.8	192.3
1967	151.8	211.4
1968	170.9	234.4
1969	196.6	252.5
1970	212.1	268.6
1971	231.5	282.5
1972	247.6	292.5

資料: 한국은행, 《한국의 국민소득》, 1975, pp. 146~147.

金聖珍, 《노동자와 기업운동》, 한국노동문제연구소, 1977, p. 37.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성장은 1962년을 100.0으로 했을 때 1972년은 247.6%로 신장되었으며 노동조합조직률도 경제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92.5% 신장되었다. 이것은 경제성장과 조직성장이 상대적으로 비례한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962년 6월 9일 실시된 화폐개혁으로 인한 물가등귀 현상때문에 생활에 압박을 받는 노동자들은 1963년 이래 쟁의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조직이 성장한 것이다.

이 같은 전국적 추세를 반영하여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노동조합 설립이 활발하였다. 1961년 8월 3일 「근로자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된 후 1961년 11월 15일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상북도협의회」가 결성되고 동 총회에서 초대 의장에 김상진씨가 당선되었다. 제3공화국 시기의 경상북도협의회 현황을 보면 <表 12-22>와 같다.

63) 우재현, 앞의 책, p. 199.

〈表 12-22〉 韓國勞總 慶尙北道協議會 任員, 支部數 및 組合員數 (단위: 개, 명)

정기총회 일자	대	의 장	사무국장	지부수	조합원수
1961. 11. 15.	초대	김 상 진			
1963. 4. 25.	2 대	이 성 락			
1964. 4. 17.	3 대	김 기 동		29	41,259
1965. 4. 28.		김 기 동	김 주 호	30	42,150
1966. 4. 30.		김 기 동	김 주 호	30	43,325
1967. 2. 2.	4 대	신 용 권	김 주 호	33	43,730
1968. 12. 8.	5 대	손중국(보선)	노진호(보선)		
1969. 5. 6.		손 중 국	하 준	33	44,358

資料: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노조설립시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정부의 통제를 받아왔으나 정부 투자기업체 및 금속산업체를 중심으로 노조가 활발히 설립되었는데, 1961년부터 1971년 사이의 대구·경북지역 노조설립현황을 보면 〈表 12-23〉과 같다.

〈表 12-23〉 第3共和國 時期的 大邱 慶北地域 主要 組合設立 現況(1961~1971)

설 립 연 월 일	설 립 노 동 조 합 명
1961. 9. 5.	대구 경북 향운 노동조합 (전국운수노조경북지부: 당시명칭)
1961. 10. 26.	한국전력노조 경북지부
1964. 7. 19.	주한 미군 노조 대구지부
1965. 8. 15.	주한 미군 노조 왜관지부 설립
1967. 11. 2.	대구은행 노동조합
1968. 3. 27.	조광산업 노동조합
1968. 6. 18.	삼립산업 노동조합
1968. 8. 25.	남선알미늄 노동조합
1969. 2. 5.	승리기계 노동조합
1969. 7. 10.	평화산업 노동조합
1970. 7. 26.	대철공업 노동조합
1970. 11. 9.	담배인삼공사노조 영주제조창지부
1971. 5. 7.	체신노조 대구 경북지부
1971. 10. 1.	영남주물 노동조합

資料: 한국노총 대구직할시·경상북도 협의회

IV. 勞動爭議와 地域事例

우리 나라의 1960년대 주요 쟁의를 보면 1963년의 금성사 단결권 수호투쟁, 64년의 철도노조 생활급확보 투쟁, 1965년의 통신화학 쟁의보복 집단해고 사건, 한국유리공장 파업 및 직장폐쇄, 1966년 주한 일본인 7개 상사 한국인 종업원 파업,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자 유린에 대한 외기노조의 투쟁, 1967년 광산노조의 主油從炭政策 반대투쟁, 1968년 강화도 심도직물 카톨릭 신자 집단해고 사건, 일본항공쟁의, 외국투자 기업인 오크 시그네틱전자 쟁의, 1969년 綿紡爭議, 조선공사 쟁의 등 중요 쟁의가 발생하였다. 이들 쟁의는 1960년대 초보다도 1960년대 말 가까이 와서 갈수록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그 규모가 커지고 그 내용이 격화된 면은 있지만 폭력화되지는 않았다.

대구·경북지역의 주요 노동쟁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⁶⁴⁾

〈사례 19〉 삼호방직 노동쟁의

1964년 11월 20일 삼호방직에서 노후시설 폐쇄를 이유로 노동자 110명을 집단해고하고 1965년 1월 7일 해고노동자에게 1개월분의 위로금만 지급하여 노동자의 심한 반발을 받아 1월 14일 삼호방직 노동자 1,759명 전원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쟁의를 벌였으며, 1968년 4월 30일 노동자들은 계속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청에 고발하고, 연이어서 그해 6월 21일 단체 협약체결 쟁의에 돌입하였고, 7월 1일에는 임금인상쟁의에 돌입하였다.

〈사례 20〉 대성산업 도급제 실시 집단해고

문경군에서 채광산업을 하고 있는 대성산업에서 월급제로 지급하던 임금을 도급제로 전환 실시하여 25명을 해고하였으나,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집단행동에 부딪혀 그해 11월 16일 해고노동자 25명 전원을 복직시켰다.

64) 송성윤, 앞의 논문, p. 69.

第6節 輸出主導成長期の 勞動運動과 勞使關係

I. 勞使關係 環境과 勤勞生活 條件

1970년대에 들어와 중화학 공업화의 강력한 추진과 국가안보 우선이 앞세워짐에 따라 노동 운동에 국가통제가 강화된 시기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1970년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10.7%로 지속적 고도성장이 행해진 시기이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76)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도 11.1%였다. 또 이 1970년대 후반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는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시킨 시기이기도 하다. 1970년대 전반에는 월남이 공산화하면서 북한이 남침야욕을 격화시켰던 시기인 동시에 닉슨독트린 이래 미군철수가 기정사실화된 시기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고, 12월 27일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국가보위법)」이 공포되었다.

1972년 10월 17일에는 국회를 해산하고 제3공화국의 모든 헌법적 기능을 정지시키고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이어서 국민투표를 거쳐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노동 3권은 제약을 받게 되었고 노동관계법에 의해 노동운동은 제약되고, 노동복지향상과 인력개발의 확충을 보다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보다 앞서 1970년 1월과 5월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공포시행되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제약을 받았다.

유신헌법의 제정에 따라 1973년 3월 13일 「노동조합법(법률 제2610호)」, 「노동쟁의 조정법(법률 제2608호)」, 「노동위원회법(법률 제2609호)」을 개정하는 동시에 「직업훈련법(법률 제2606호)」을 개정하고 재해보상을 강화하였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불황을 맞이하여 기업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이 빈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1974년 1월 14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1. 14조치)를 공포실시하였는데 동 조치의 제4장에서 도산기업체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단체협약 비준수자 및 부당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였다.

1.14 긴급조치 해제를 앞두고 정부는 1974년 12월 24일에 「근로기준법(법률 제2708호)」,

「노동조합법(법률 제2706호)」, 「노동쟁의 조정법(법률 제2707호)」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립적 노사관계를 정부주도적 노사관계로 전환하려는 것이었다. 급속한 경제발전 앞에서 그를 위해 억압되어 온 정치 사회발전 사이의 모순은 급기야 10.26사태를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모든 질서가 재조정되고 헌법이 바뀌고 정부가 새로 구성되어 제5공화국이 시작된다.

한편 노동 3권의 제약하에서 1973년이래 공장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근로환경개선과 기업복지 부문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근로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계속되었으나 참여를 통해 분배문제를 풀어갔고 근로의식을 제고했는데, 이는 「당근과 채찍정책」중 「당근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I. 勞働政策

1960년대에 두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산업발전과 수출증대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고용도 증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고도성장과정에서 은폐되었던 사실들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볼 때, 1970년말의 평화시장사건, 1971년 강원도 穴岩 탄광사고(13명 사망), 한진상사 파월근로자 분규사건, 대연각호텔 화재사망 근로자 보상문제, 노총의 정치참여선언, 1974년 현대조선소 노사분규 등은 근로조건보호, 노사관계안정, 산업재해 대책 등의 여러 부문에 걸쳐 새로운 정책과제를 부각시켰다.

특히 정치·사회적 여건에 따라 1971년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규제되었는데, 이같은 채찍 정책에 따른 당근정책으로서 국가 행정력에 의한 근로자 보호시책의 강화는 필연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1960년대에 이루어진 직업훈련, 산재보험, 해외인력 진출등의 분야는 계속 확대 발전해 갔다. 1970년대 노동행정기구 및 정원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정책 전개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조건 보호행정의 강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제약 하에서 노사자율교섭에 의한 근로조건 향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감독행정이 강화되었다. 1973년 석유파동의 여파로 생기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1974년 1.14조치가 선포되고 노동관계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1973년 6월에는 적정임금지불과 부당한 저임금 해소에 정부가 개입하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저임금해소를 위한 강력한 행정지도가 행해졌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수는 1972년 92명에서 1973년에는 151명으로 증원되고 1979년에는 296명에 이르렀다.

근로기준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로는 1953년 기준과가 생기고 노동청 발족 후에도 노동국내에 근로기준과만 있었는데 1970년에 근로기준담당관(2급)을 두고 근로기준 부녀소년, 산업안전 등 3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노동국에서 분리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 감독행정을 강화시켰다.

(2) 산업재해 예방업무의 확대: 경제발전과 산업규모의 확대에 따른 산업재해의 증가와 중대 재해의 빈발에 자극되어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호행정이 강화되었다. 1977년 4월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연구개발과 요원훈련을 위해 ILO, UNDP와의 국제협력사업으로서 「노동과학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1979년에는 산업안전관(2급) 제도를 신설했다.

(3) 노사협력증진 시책: 노동청은 시동에 노동조정, 결정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1972년 노동국에 노사조정 담당관(3급)을 두었으며, 1975년에는 이를 노동조합과로 개편하였다.

(4) 소속기관의 정비·확충: 노동청 소속기관은 1970년까지는 지방에 산재보험사무소(16개소), 직업안전소(25개소)와 중앙직업훈련원이 있었으나 1974년에 산재보험사무소와 직업안전소를 통합하여 34개 지방사무소를 설치했고, 1978년에는 다시 1개소를 증설했다. 직업훈련원은 1971년 부산 한독 공공직업훈련원이 신설되고, 1974년에는 대구, 춘천, 그리고 1975년에는 광주와 인천 등에 공공직업훈련원이 설립되었다.

중앙소속기관으로는 1971년에 산업재활원이 신설되고, 1957년 노동과학연구소, 1979년 노동연수원과 국립직업안전소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행정 공무원 수는 노동청 발족 당시 147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1,538명으로 10배를 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1970년대는 노동행정이 인력관리행정으로서 기반을 다지면서 노동자 보호시책과 노사관계 안정시책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 체계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III. 勞使의 組織

1. 使用者 組織

사용자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그들의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대구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중소기업 협동조합 대구경북지부)등을 통해 노

사문제의 해결방향을 모색했고, 1960년대 이후 경험도 축적되고 각종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1970년 7월 16일 사용자들의 노동문제 전담기구라 할 「한국경영자협회」가 산업평화의 정착화를 목표로 창립되었다. 이 단체는 경영자측 입장에서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활동, 출판활동, 교육, 계몽활동, 전문가양성을 위한 강좌개설을 통해 대국민적 시각에서 통일적인 경영방침, 노무관리의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노사관계에 지도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성격도 다양하여 연락기관, 계몽기관, 지도실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2. 労働組織

제4공화국 시기의 경제성장률과 노조조직 신장률을 보면 <表 12-24>와 같다.

<表 12-24> 經濟成長率과 組合組織 伸張率(1973~78) (1970년대 불변가격)

연도 \ 구분	경제성장률(지수)	조합조직 신장률(지수)
1962	100.0	100.0
1973	288.5	301.4
1974	313.3	364.2
1975	338.2	404.4
1976	390.5	467.2
1977	430.8	520.0
1978	—	577.1

資料：한국의 국민소득 1975, pp. 146~147.

김성진, 앞의 책, p. 37 참조.

1970년대 노동조직 신장률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 노동조합의 경제적(산업적)기능이 많은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신장된 이유는 ① 각종 규제하에서도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위해 봉사했고, ② 경제성장으로 인해 근로자의 수가 증가했으며, ③ 유니언 샵(union shop)으로 조직된 기업들의 규모 확대로 조합원수가 자동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⁶⁵⁾

제4공화국 시기의 한국노총 경상북도협의회 임원, 지부수 및 조합원 현황을 보면 다음 <表 12-25>와 같다.

65) 김성진, 앞의 책, p. 70.

〈表 12-25〉 第4共和國 時期韓國勞總 慶北協議會 任員, 支部 및 組合員 現況 (단위: 개, 명)

정기총회 일자	대	의 장	사무국장	지부수	조합원수
1972. 1. 19.	6 대	윤 재 열	최 송 학	39	43,238
1972. 5. 4.	7 대	노 진 호	하 준	37	65,374
1978. 6. 8.		노 진 호	신 상 훈	37	67,345
1979. 6. 8.	8 대	하준(보선)	신 상 훈	40	70,010
				(분회 417)	(남 47,499 여 22,511)

IV. 勞動爭議와 地域事例

1970년대에 들어와 노동운동에 외부제약이 가해져 자유로운 노동운동이 불가능한 상태하에서 노동쟁의는 1960년대의 그것과는 판이한 성격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첫째, 노동운동이 극한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예컨대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의 전태일분신자살사건, 동년 11월 15일 조선히텔 이상찬의 분신자살기도사건, 1971년 2월 2일 서울한국회관 종업원 金巨湖의 분신자살기도사건, 1973년 12월 9일 조일철 강사, 崔在瑩의 자살기도사건, 1974년 2월 22일 鄭世達의 자살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노동운동이 폭발적, 폭력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예컨대 1971년 9월 15일 한진상사 본사건물(KAL빌딩)에 불을 지르는 폭동사태, 1974년 9월 19일 현대조선소의 폭동사태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정상적인 노동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기존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예컨대 1970년 11월 20일 서울대 문리대생, 법대생을 비롯한 몇몇 대학교 학생들의 노동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과 시위, 1974년 동아일보, 한국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한 언론노조 결성사건에 의한 지식인의 운동참여, 1973~75년에 걸친, 그리고 그 이후의 도시산업선교회에 의한 한국노총의 운동방향 비난 성명 등이 그것이다.

1970년도 후반기에도 동일방직사건을 비롯하여 이상과 같은 성격을 띤 노동쟁의가 계속 일어났고, 특히 1979년의 Y.H무역 노동자의 노사분규와 이들의 신민당사 농성사건은 정치 경제를 좌우하는 크나큰 사건으로까지 번졌다.

1960년대의 급속한 경제건설, 1970년대의 중화학 공업화에 의한 공업단지화가 가져온 노동자연대의 용이화, 특히 석유과동이후의 경제난은 노동문제를 심각하게 하였고, 그것을 표면화시키지 않으려는 외부압력에 의한 균형유지는 노동운동과 마찰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여 한

국노동운동은 기존노동운동과 밀로부터 올라오는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노동운동의 이중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대구지역의 노사분규의 대표적인 것으로 아리아 약기사건을 들 수 있다.

〈사례 21〉 아리아약기 勞使紛糾

1. 事件概要

아리아약기는 전자오르겐 및 리드오르겐을 생산하여 국내에는 주로 교회용으로 판매하고, 일부는 유럽 등지에 수출하고 있는데, 1978년도에는 수출 30만불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종업원은 130여명이었다. 실질적인 경영은 부사장 정구웅씨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다. 사건의 발단은 1978년 1월 21일 오후 8시경 부사장 정구웅 집에서 저임금과 폭력에 불만을 품은 노조분회장 등 근로자 5명이 과도를 들고 찾아가 가족들을 인질로 삼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8시간 후인 22일 오전 4시경 농성을 풀고 경찰에 구속되었는데, 이들 사건의 개요를 정리해 보면 다음 〈表 12-26〉과 같다.

〈表 12-26〉 1978년 아리아약기(주) 勞使紛糾 内容

회 사 명	아리아약기 주식회사	대 표 자	하태봉
주생산물	전자오르겐 리드오르겐	종업원수	130여명
조 합 명	전국연합노조 경북서지역지구	대 표 자	분회장 정재경
분규이슈 분규발단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 전자과장 김영길(金永吉)에 의한 근로자 구타사건		
경과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5명 실질경영주 부사장 정구웅집 방문면담 요청 · 근로자면담거절목살 부사장 위협 5개항 요구조건 수락촉구 · 부사장 도피한 후 가족 6명인질 농성 · 부사장 정구웅의 요구조건 수락후 농성해제와 동시 경찰연행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1.31, 근로자 5명 검찰구속송치 · 부사장 정구웅 단체협약 불이행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벌금 15만원 구형 · 전자과장 김영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의해 구속 		

2. 事件經緯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은 전자과장 金永吉(28)에 의한 근로자 구타사건이 도화선이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근로자 천시에 대한 항거였다.

1) 毆打事件

1977년 11월 10일 김영길 전자과장이 서혁교(19)군 등 3명을 작업에 태만하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때렸으며, 1978년 1월 13일에는 이상열(19)군이 '앰프TR'취급 중 부주의로 깨뜨려 버리자 김과장이 변상을 요구하면서 따귀를 때렸다. 이에 전자과 소속 27명의 전종업원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사건의 주모자를 전자과장에게 색출하라고 지시하여 전자과장은 평소에 자기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던 근로자 5명의 명단을 제출하고 이들 5명을 해고시키자 종업원들은 이에 반발, 출근을 거부해 오다가 1978년 1월 21일 오전 10시쯤 대구시 봉덕동 봉덕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여 이들 해고자 5명을 대표로 선출, 이날 밤 부사장집을 찾아갈 것을 모의했다. 이들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때에 경리장부 등을 압수, 세상에 회사의 비리사실을 폭로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3시 남문시장에서 과도 5개를 구입하여 부사장 집을 찾아갔다.

2) 副社長집 人質籠城 事件

부사장이 다음 월요일 회사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며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자 이를 미리부터 예상한 근로자들이 미리 준비해 간 과도를 꺼내들고 부사장을 위협, 다음과 같은 5개항의 요구조건을 즉각 수락하도록 촉구했다.

- ① 전자과장 김영길의 즉각 교체
- ② 임금 50%인상
- ③ 약기부품의 즉시 공급
- ④ 자격증을 가진 기능공의 우대
- ⑤ 공구의 개개인별 지급 등.

부사장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커녕 폭력으로 이들을 위압할 생각에만 급급, 이들 중 한 사람이 내민 칼을 손으로 뺏으려다 상대방에게 칼을 뺏기지 않으려고 칼을 빼는 바람에 손바닥에 자상(刺傷)을 입었다. 부사장은 가족을 남겨둔 채 자기 혼자만 탈출하여 경찰에 강도신고를 하였는데, 이때부터 이들 근로자들은 부사장의 가족 5명을 인질로 잡고 요구조건의 관철을 위해 농성에 들어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밤 9시경 남부경찰서 權重邦 서장을 비롯 약 200여명이 출동하여 대치했으나 이들은 계속 요구조건의 즉각 수락을 요구, 결국 22일 오전 4시 10분경이 되어서야 부사장 정구웅씨가 나타나 요구조건의 무조건수락 언질을 받고, 부사장도 같이 구속한다는 조건

아래 농성을 풀고 경찰에 연행되었다(정구응씨는 경찰서까지만 수갑을 채워 동행했다).

3) 法的 措置

경찰은 24일 정재종씨 등 근로자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하여 1월 31일에 검찰에 송치했으며, 노동청은 폭력을 휘두른 전자과장 김영길씨를 근로기준법 위반(7조: 폭행)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부사장 정구응씨는 지난 18일 노조와의 단체협약 불이행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대구지검에 의해 벌금 15만원 구형으로 약식 기소하였다.

3. 事件의 根本要因

1) 低賃金

급여가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로 매주 휴일마다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당은 지급하지 않아 타회사 임금의 60%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정전일(停電日)에는 휴무라도 통상임금의 60%를 휴업수당으로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전후 이틀간 4시간씩의 추가작업시 연장근로 가산금 50% 지불도 정전일에 대한 대신 근무로 취급하는 등의 행동으로 1977년 11월 종업원으로부터 노동청 대구지방사무소에 고발당해 입건 기소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1977년 4월 1일 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종업원 41명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퇴직금 누진세를 사전에 차단, 막대한 이익을 꾀하고 퇴직금 산정방식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일할 계산을 월할(月割)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축소 지급하기도 하는 등 임금착취가 심하였다.

2) 劣惡한 勤勞條件

작업장에 분진이 많아 방진마스크 없이는 작업이 곤란할 실정이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수도를 설치하지 않아 잦은 배탈이 났으며, 무임금의 연장근로작업으로 노동력 착취, 부속품 공급의 부족, 공장주변 쓰레기 방치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산재해 있었다.

3) 暴言 및 非人間的 待遇

실질적인 경영주인 부사장의 폭언과 현장 책임자인 전자과장이 쇠파이프로 종업원을 구타하는 폭행 등으로 비인간적인 대우로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항의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하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

4) 強制禮拜

회장과 부회장이 교회장로와 집사이며 매주 월요일마다 정상 출근시각보다 30분 조기 출근시켜

예배를 강요하고 일부 타종교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에 차등대우를 하는 등 종교탄압까지 자행하여 제반 근로조건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들의 반발을 더욱 더 누적시키기도 하였다.

4. 結 果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기업주의 멸시천대에 대한 근로자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며 노동자의 적법한 건의나 요구 및 노동청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정부에서 기업주만 옹호하고 근로자를 소외시킨 당시의 노동정책을 엿볼 수 있는 경우다. 이같은 정부의 성장 제일주의 경제방침에 기업주는 노동자의 임금과 여타 복지후생관련 제반비용을 착취, 개인의 사리사욕만 채워간 결과 집단으로 흥기를 소지하여 인질극을 벌이게 된 사건으로 가식적인 종교적 권위주의의 맹종을 거부하고 교회의 권위를 앞세워 근로자들을 혹사하는 기업주를 질타하며 허식된 예배의식을 통하여 획일적인 노동관리를 피한 일부 기독교실업인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으로 기업주와 행정관청, 교회와 사회각층의 지도자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다.

第7節 直轄市 昇格前後의 大邱勞動運動과 勞使關係

I. 第5共和國期の 勞動運動과 勞使關係

1. 勞使關係 環境과 勤勞生活 條件

1980년대에 신군부세력을 주축으로 한 민주정의당 정권의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1980년 5.18광주사태에 따른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의 확대실시와 노동계 정화조치가 뒤따랐다. 동년 7월 1일 비상계엄하 노동조합활동 지침을 시달하고 8월 20일 노동조합 정화지침, 9월 15일 노동조합 정화추진 계획 시달, 11월 4일 정화된 조합간부의 노조활동 금지, 11월 22일 노동조합 운영지침 및 노사협의회 운영준칙 시달 등의 정화지침을 통해 노동조합 임원의 자진사퇴강요, 지역지부의 해산, 정화대상자의 강제사직 종용, 노동조합 전임자수 축소 등의 내용을 시달했다. 한국노총 정화추진위원회(위원장: 노총사무차장)는 1980년 8월 20일 제1차로 산별노조 위원장급 12명을 정화하였는데, 부정축재자, 노사분규 야기자, 호화생활자란 명목으로 사임케

하였다. 또 전국 106개 지역 지부를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해산시켰다. 제2차 정화조치는 9월 20일 단행되었는데, 주된 대상이 5.17이전에 산업별 노동조합의 민주화운동, 노총에서 기본권 쟁기대회 참가자, 개별 기업에서 강력한 단체행동을 추진했던 노조간부 191명에 대한 강제 정화였다. 이같은 정화조치와 함께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불법적 수사와 소위 “삼청교육대”라는 순화교육도 실시하였다. 대구지역에서 승리기계의 한준, 대구물산의 박정덕, 영남주물의 이창기 등 다수가 정화의 대상이 되었다.

계엄 당국의 물리적, 폭력적 노동계의 정화조치는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동조합을 떠나게 만들었고 결국은 노동운동을 위축하게 하였다. 이같은 노동운동과 조합활동이 위축되어 오다가 1983년 후반기 이후 1985년의 총선,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권의 안정화 필요성과 미국, 일본, 중국 및 동유럽의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노동운동 탄압이 느슨해지면서 1980년 5.17이후 지속된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1983년말부터 1987년 6월 29일 민주화 선언까지를 노동운동 회복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단위 노조설립이 활발하였다.

한편 1980년대 한국경제는 1980년대 초반(1980~1982)불황과 축적구조의 위기가 심화된 반면 중반(1983~1985)은 국가권력에 의한 축적조건의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출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으로 수출증가와 국제수지 적자가 감소되고 도매 및 소매 물가가 현저히 안정세를 보였다. 1980년대 후반(1986~1989)은 3저호황 속에 경제의 양적 팽창(고성장)이 가속되다가 원화절상과 시장개방의 본격화에 따라 산업구조 조정이 모색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⁶⁶⁾

이 같은 정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노동운동은 광주사태와 불황을 반영하여 1980~1983년은 노동운동의 전반적 후퇴기였으나 1983~1986년은 노동운동의 회복기였으며, 1987년 6월 29일 정치적 민주화 선언이후 노동운동의 꽃을 피우는 성장기를 맞게 된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괄목할 만한 상승을 하였고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실질 임금을 따지더라도 1980년의 실질임금은 1970년 4.4배에 달하여 상당한 생활수준이 상승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질임금의 추이를 물적 노동생산성의 추이와 비교할 때 임금이 생산성 향상 수준에 훨씬 뒤떨어져 이 기간 동안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화해 왔다. 1980년대(1980~1990)에는 노동생산성은 10.9% 상승했으나 실질임금 증가율은 7.1%에 그쳤다. 게다가 제조업 노동시간은 87년 현재 미국 41.1시간, 일본 41.3시간, 서독 40.0시간, 대만 48.1시간인데 비해 한국은 54.0시간으로 세계최장 노동시간이었다. 80년대 대구 경북의

66)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 《금속노동운동 30년사》, 1993.

임금수준을 보면 다음〈表 12-27〉과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 부산은 저임금 제조업이 많아 전국에서도 최저 수준이었다.

大邱・慶北의 賃金水準 (단위: 원, %)

〈表 12-27〉

연도 시도	1985		1980		1975	
		수준		수준		수준
전국	314,213	86.3	173,150	84.4	46,654	86.6
서울	365,462	100.0	205,161	100.0	53,884	100.0
부산	257,569	70.5	146,115	71.2	40,024	74.3
대구	285,136	78.0	—	—	—	—
경북	295,362	80.8	154,466	74.3	44,647	82.9

資料: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서》

1979년까지는 노동청의 권유 형식으로 최저임금선을 정하여 임금인상작업을 추진해 왔고, 이로 인하여 매년 명목상 임금은 인상되어 왔으나 물가와 생계비 상승률을 뒤따르지 못해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더우기 1980년부터는 임금인상을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업종간 임금 불균형으로 노사간 분류 요인이 증가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수준을 확보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하였다.

勤勞者賃金 現況 (단위: 원)

〈表 12-28〉

연도별 구분	전국평균임금 (A)	대구지역평균임금 (B)	대 비 (B-A)
1981	223,254	188,273	-34,981
1982	244,819	200,156	-44,663
1983	271,178	230,649	-40,590
1984	294,980	259,649	-35,331
1985	314,213	285,136	-29,007
1986	345,242	321,983	-23,259
1987	378,560	362,252	-16,308
1988	446,800	386,423	-60,377
1989	524,638	449,701	-74,937
1990	542,329	476,250	-66,079

資料: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서》

2. 勞動政策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경제사회에 부응하는 노사협조관계로 증진과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이 보다 능률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동부의 설치문제가 수차 논의되었으나 실현을 보지 못했다. 정의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지향하는 제5공화국은 헌법에서 과거에 규정되었던 근로자의 모든 권리 외에 적정임금의 보장과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특히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1980년 개혁입법을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노사자치와 노사협의를제를 기반으로 노사협조풍토를 정착시키고 근로조건을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강한 정책의지를 표시하고 노동 5법을 통해 제도화하였다.

이 노동 5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 산별노조체제에서 기업별 노조체제로 전환하고 단체교섭 중심의 노사대립에서 노사협조를 강조하여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당사자 중심운영체제로 전환했다. 즉 기업내 노사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고 노사문제에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의 개입을 금지시켜 다른 세력의 간섭이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도록 했다. 이것은 기업내 노사분규 등 갈등은 기업 자체내에서 소화하도록 하고 외부의 간섭을 배제시켜 사태의 악화나 외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진 것이나 노동층의 끈질긴 반발이 있었다. 기타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상향조정(질권, 저당권 다음의 3순위), 체불임금에 대한 안전장치(체불업주에 대한 벌칙 강화), 직종에 따라 다른 직급제도의 통일, 근로시간의 탄력성 부여 등을 들 수 있으며, 노동쟁의조정법 중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익사업, 공기업, 방위산업체의 쟁의금지, 당사자주의, 직권중재의 강화, 종래 시·도지사에 의해 관리되던 지방노동위원회 관리권이 노동부로 이관, 노동위원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새로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은 노사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조직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비상임 무보수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 사항으로는 ①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증진, ② 근로자 교육문제, ③ 노사분규예방, ④ 근로자의 고충처리, ⑤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 ⑥ 기타 노사협조사항을 다루며, 보고사항으로는 ⑦ 경영방침 및 실적, ⑧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⑨ 인력 계획 등이다. 또 이 법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상 위원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1981년에는 10년동안 노동관계를 규제하고 있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였고, 노동부가 1981년 4월에 설치되었다. 이같이 종래 보건사회부의 외청이던 것을 부로 승격시킨 것은 노동행정을 적극적으로 정책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복지지향의 노동정책을 기

대하는 새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정책은 경제정책적인 측면과 사회정책적인 임무를 조화있게 추진하도록 기대되었는데, 그 후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조 체제의 정착 : 1980년 사회적 혼란 속에서 건잡을 수 없는 노사관계의 격렬한 분규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노사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선진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가 공동운명체임을 인식하고 협조하는 한국적 노사관계의 형성과 정착이 필요한 것이다. 노동부는 노정국에 노사협조과를 신설하고 2급심의관을 두어 노사간의 분규나 노사협조관계를 담당하게 하다가 노사지도관으로 변경했으며, 지방노동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하였다. 이 시기에 「노사협조 전진대회」등 행사가 추진되었다.

2) 근로복지의 향상 : 헌법에서 적정임금의 보장과 인간존중의 근로조건을 강조한 정신에 비추어 임금과를 노정국 임금복지과로 변경한 것은 적정 임금보장과 근로복지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부너지도관(2급)을 신설한 것은 산업화에 따라 여성근로자와 연소층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3) 인력개발정책의 합리적인 확충 : 1982년 한국직업훈련공단법에 따라 종래 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던 공공직업훈련원 등 훈련시설과 연구소 등을 관장하도록 하고, 기능검정 업무를 총괄케 하여 인력개발 업무를 일원화했다. 그러나 산업구조변화에 부응하는 직업안정행정 체제의 확대강화는 이루어지지 못해 과제로 남아 있다.

3. 勞使의 組織

1979년 Y.H 무역 노동자의 신민당사 농성사건과 노동운동의 부재 속에서 10.26사태 이후 사북탄광, 동국제강 등의 폭발적이고 폭력적인 노동쟁의가 잇달아 일어나자 사용자단체도 보다 강화, 정비되었으며, 정부에서도 노동부가 생기게 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81년 이후 매년 노동경제연감을 발행하여 노동문제관련 제자료를 발표하여 교섭력을 높여갔으며, 노무관리자들을 교육시켜 협회가 인정하는 「노무관리사」를 양성했다.

한편 대구지역내 사용자들의 긴밀한 유대강화로 노사간의 화합과 이해증진을 제고하여 건전한 노사협조풍토를 조성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경영자협회」가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1981년 4월 29일 최익성 등이 발기하여 1981년 5월 29일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최익성씨를 선출했다. 그리하여 1981년 말에 77개 회

원사를 확보하고 이어 「고용윤리위원회」(82. 8. 20.) 「고용서비스센터」(82. 8. 30.)를 설치했다. 이어 1983년 2월에는 2대 회장으로 박용관씨를 선출했으며 1983년말에는 회원사가 187개로 늘어났다. 1984년 2월 23일에는 3대 회장으로 金龍基씨를 선출하고, 4, 5, 6, 7대를 연임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 협회는 86년에는 산재보험 사무조합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구경영자협회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① 노사간의 이해증진 및 협조에 관한 사항, ② 노동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참여에 관한 사항, ③ 노동법 및 노동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④ 원의 교육훈련, ⑤ 관계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⑥ 고용윤리에 관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전국대회에서 의욕적인 운동방침을 결의하였으나, 동년 5월 17일 광주사태로 인한 비상계엄이 선포됨으로써 무산되고 오히려 노동계 정화바람과 노동 5법의 개정 또는 제정을 보게 되었다. 또 1980년 8월 21일에는 노동청 지침에 의거 산업별 지역지부가 폐지됨에 따라 업종별 및 지역협의회가 인수말도록 했다.

1979년 이후 계속적인 실질임금의 하락과 노동시간의 연장,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급속한 증가등 이 시기의 노동사정은 매우 열악하였다. 한편 1983년 말부터 유화정책에 따른 탄압의 이완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노동운동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3년에는 블랙리스트 철폐투쟁이 있었고, 이어 청계피복노동조합 복구 대회와 아울러 신규노조의 설립이 뒤따랐다. 제5공화국 시기의 노동조합수와 조합원수를 보면 <表 12-29>와 같다.

<表 12-29> 第5共和國 時期의 年度別 勞動組合數 및 組合員數 (단위: 개, 명)

구분	조 합 수		조 합 원 수		
	본조합수	분회수	계	남	여
1980	16	2,618	948,134	566,368	381,766
1981	16	2,141	966,738	628,259	338,479
1982	16	2,194	984,136	633,106	351,030
구분	조 합 수		조 합 원 수		
	산별연맹	단위노조	계	남	여
1983	16	2,338	1,009,881	673,411	336,470
1984	16	2,365	1,010,552	683,542	326,980
1985	16	2,534	1,004,398	691,311	312,487
1986	16	2,658	1,035,890	724,566	311,324
1987	16	4,086	1,267,457	900,129	367,328

資料: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92(1980.12.31자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지부분회가 단위노조로 통합함)

또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조직된 「한국노동자 복지협의회」가 탄생되었으며, 이들은 향후 1980년대에 개악노동법 개정운동에 적극 나서게 된다. 1983년 들어서서 노동쟁의도 점차 증가하였다. 제5공화국 시기의 한국노총 경북협의회 및 대구직할시 협의회 임원, 지부 및 조합원 현황을 보면 다음 <表 12-30>과 같다.

地域協議會 任員, 支部數 및 組合員數 現況 (단위: 개, 명)

<表 12-30>

정기총회일자	대	의장	사무국장	지부수	조합원수
1980. 6. 5.		하 준	신 상 훈	45	76,185
		경북: 유해용		(분회 482)	(남 50,333
1981. 7. 1.		대구: 신상훈			여 25,852)
1984. 1. 24.	초대	신 상 훈	김 상 호		
1986. 5. 9.	2 대	신 상 훈	백 인 명		

1980년대 대구지역 근로자 현황을 보면 다음 <表 12-31>과 같다.

大邱地域 勤勞者 現況 (단위: 명, %)

<表 12-31>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49,484	226,189	205,753	210,834	218,810	235,200	263,323	275,361	281,491	263,947

資料: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2년말 대구 경북의 노조조직 상황을 보면 다음 <表 12-32>과 같다.

大邱·慶北地域 勞動組合 組織狀況(1982.12.31.) (단위: 명, %)

<表 12-32>

구분 산별	전 국		대 구		경 북	
	남	여	남	여	남	여
철 도	30,879	1,375	860	22	3,451	90
섬 유	20,561	88,528	509	2,192	735	3,855
광 산	49,656	1,668			6,425	216
전 력	16,574	577	1,272	21	442	5
외 기	16,325	2,144	1,189	280	956	126
우편통신	35,906	23,869	1,818	938	2,733	2,607
항 운	36,733	1,605			2,245	56
해 원	64,552				3,034	
금 융	41,627	30,287	1,890	1,508	607	523
선 박	9,281	3,902	1,501	842	663	111
화 학	74,280	71,915	567	494	770	198

구분 산별	전 국		대 구		경 북	
	남	여	남	여	남	여
금속	49,108	16,743	213	50	2,469	823
출판	4,191	1,425				
자동차	46,644	26,433	802	808	3,601	1,781
연합	51,582	18,569	2,134	36		
관광	4,542	2,797	145	107	52	13
계	561,430	291,827	12,890	7,298	28,173	10,404
합 계	843,257 (100.0)		20,188 (2.4)		38,577 (4.6)	

資料：한국노총, 《사업보고》, 1982 p. 238.

1980년대 대구지역 노동조합조직 추이를 보면 다음 〈表 12-33〉과 같다.

〈表 12-33〉 大邱地域 勞動組合 組織推移 (단위: 개, 명)

연도별	조합수	조 합 원		
		계	남	여
1981	120	20,745	12,649	8,096
1982	121	20,852	12,909	7,943
1983	131	28,908	18,151	10,757
1984	219	34,573	24,338	10,235
1985	228	36,759	26,275	10,484
1986	225	33,913	24,897	9,106
1987	248	45,737	33,839	11,898
1988	344	52,914	39,147	13,767
1989	416	59,018	42,478	16,540
1990	415	60,884	43,545	17,339

資料：대구직할시, 《대구통계연보》

한국노총 대구직할시 협의회는 1983년 이래 오스티리아 스타이마크 지역 노동조합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이후 상호방문 및 정보교환 등이 원활하게 행해졌다. 한편 81년 7월 1일 이후 대구직할시 승격에 따라 경상북도 협의회(의장 유해용)와 대구직할시 협의회(의장, 신상훈)가 분리함에 따라, 종래 동구 효목동 663번지에서 경북협의회와 공동으로 회관을 사용하여 많은 불편을 겪어 오다가 1984년 정부의 배려 하에 의장단과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대구직할시 협의회 화관 건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시와 노동부에 건의하여 노동부 국고보조와 시 예산으로 총 3억

8천 만원을 들여 달서구 성당 1동 72-18의 시유지 3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건평 450평)의 노동복지회관을 1985~87년 간에 건설하여 1987년 3월 30일 완공을 보게 되었다.

또 이 시기에 협의회는 영남노동교육원과 제휴하여 노동조합지도자 교육과정인 「노동대학」을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 이 시기에 지역 노·사·정·연이 정기적 간담회를 가졌다. 이 모임에는 시청보사국장 및 사회과장, 대구 경영자협회회장, 노총 대구직할시협의회 의장 및 사무국장, 노총 경북지역협의회 의장 및 사무국장, 노동부 대구·경북사무소 소장, 대구대학교 교수 우재현, 가톨릭근로자회관 관장 박기홍, 영남노동교육원 원장 조우호 등이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대구지역 산업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교환·의견교환을 하여 지역노동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4. 勞動爭議와 地域事例

10.26사태 이후 권력의 재편성과정에서 권력의 공백현상을 이용하여 그간 억제되었던 노동자들의 요구는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다. 1976년 110건, 1977년 1996건, 1978년 102건, 1979년 105건으로 평균 100여건에 머물던 노동쟁의가 1980년에 407건으로 급증한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쟁의 형태도 농성 102건, 작업 거부 76건, 시위 10건 등 대부분 격렬하게 진행되었음을

〈表 12-34〉 大邱直轄市 勞使紛糾 現況 (단위: 건수)

구분 연도별	노 사 분 류		
	계	적 법	불 법
총 계	502	314	188
1981			
1982	—	—	—
1983	1	1	—
1984	1	—	—
1985	1	1	—
1986	3	3	—
1987	166	—	166
1988	139	128	11
1989	158	148	10
1990	33	33	—

資料: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 연도

알 수 있다.

10.26이후 노동운동은 신규노조 결성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 1월부터 구로공단 남화전자를 비롯하여 대성모방, 서울통상, 마산의 북릉, 한국 정상화섬, 한국 쌍협정밀, 울산의 한국 카프로락담 등 전국적으로 약 8만여명의 신규조합원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같이 불붙기 시작한 노동운동은 1980년 봄 임투시기를 맞이하여 호남전기, 삼성제약의 농성과업을 필두로 고려피혁, 반도상사 등에서 파업농성 등의 실력 행사를 통해 높은 임금인상을 하였고 일신제강, 인

천제철 등은 기존 노조 집행부를 제치고 일반조합원 주도하에 임금인상 투쟁을 격렬하게 전개하였으며 또 노조가 없는 사업장인 동국제강, 강원산업 등도 법외적 파업농성을 통해 임금

인상을 했고 택시업계에서는 사납금 반대 투쟁을 전개하여 요구조건을 관철시켰다.

1980년에 노동운동의 일대 전환을 이룬 사복 동원탄좌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어용노조 퇴진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경찰병력을 농성과 시위로 철수시키고 4일간 사복을 장악한 투쟁이었다. 이 사건은 저임금과 불평등의 심화하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공권력의 폭력적 탄압과 어용노조, 회사의 일방적 억압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폭동적 노동운동이었다. 이같은 노동쟁의는 인천제철, 일신제강, 동국제강 등에서 연이어 전개되었고, 원진레이온의 경우는 5.17이 일어난 후에도 3일이 지나도록 농성투쟁을 계속하였다.

이후 노동운동은 곧바로 5.17을 맞아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광주사태를 배경으로 등장한 제5공화국은 노동운동을 철저히 파괴하고 정화운동을 벌였다. 또 제5공화국은 민주노조의 파괴로 이어져 1981년 청계피복노조의 강제해산을 시발로 반도상사, 남화전자, CDK의 폐업에 의한 노조해산으로 이어졌고, 원풍모방노조의 파괴로 마무리되었다. 강제 해산에 저항하여 청계피복노조 간부 20여명이 서초동 아프리(AAFLI)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여 11명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表 12-35〉 大邱地域 勞使紛糾 原因 (단위: 건수)

구분 연도별	계	분 규 원 인		
		임 금	단체협약	기 타
1981				
1982	1			1
1983				
1984	1			1
1985	1			1
1986	3	2		1
1987	166	159	7	
1988	139	116	23	
1989	158	74	84	
1990	33	20	13	

資料: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 연도

1983년 말부터 정부의 유화정책에 따라 노동운동이 점차 살아나기 시작하여 1984년 4월에는 법외 노조로서 청계피복노동조합을 복구하였으며, 또한 대도시 지역 운수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임금개선투쟁이 있었다. 1985년에는 자동차공업의 금속노동자와 광업노동자를 이 노조집행부를 대신한 투쟁위원회를 주축으로 파업을 벌였으며, 6월에는 공단지역에서 연대투쟁이 있었다.

1986년에는 신보수 야당의 개헌 투쟁전개에 따라 학생운동권의 정파 분

립 등 노동자의 정치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다양하게 주어졌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5.3인권투쟁을 들 수 있다. 1986년에 노동쟁의는 적었으나 조직은 크게 증가하였다.

1981년부터 1990년 12월 말까지 대구지역 노동쟁의의 발생은 총 502건으로서 이중 1987년

6.29선언 이후의 노사분규가 99%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表 12-34〉 참조). 분규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문제로 인한 분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1989년도 이후 근로자 복지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주택문제, 학자금, 복지시설 등이 점차 중요도를 더하고 있다(〈表 12-35〉).

〈表 12-36〉 大邱慶北地域 大邱地方勞組委員會 救濟申請事件 判定現況 (단위: 건수)

연도	지역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해고예정 이유인정	휴업 지불	업무상 과실	노조법상의 결요청사건	기타사건	계
1979	경북	8		8					16
1980	경북	10		3	4			1	18
1981	경북			10	2				12
1982	경북	4		8	1			1	14
	대구	6		4					10
1983	경북	5		10				1	16
	대구	2		2					4
1984	경북	24		8				8	41
	대구	7		4			1		11
1985	경북	51		20				2	73
	대구	8		2			2		12
1986	경북	37		10			12	2	61
	대구	10		8					

資料: 중앙노동위원회, 판례집 참조

〈表 12-37〉 1980년대 大邱·慶北地域 主要 不當勞動行爲 救濟申請 勞動組合 現況

설립일	조합명	지역	설립일	조합명	지역
1980. 5. 6	한일섬유노조	대구	4. 22	대영 교통 노조	〃
5. 14	삼혁기계노조	〃	5. 29	삼일 택시 노조	영주
1984. 6. 23	한우택시노조	〃	6. 12	삼광 택시 노조	포항
6. 25	대화택시노조	〃	7. 2	영원 운수 노조	영주
〃	화랑택시노조	경주	12. 16	금오산관광버스	구미
〃	원화택시노조	〃	1986. 6. 12	상주여객자동차	상주
〃	신흥택시노조	김천	1986. 7. 5	대림 교통 노조	대구
1985. 1. 27	제일운수노조	경주	8. 17	한 보 노 조	김천
3. 19	육일교통노조	포항	12. 22	홍명 공업 노조	구미
〃	영진교통노조	〃	1987. 6. 8	상창 택시 노조	상주
4. 7	대보운수노조	〃	6. 26	의성 택시 노조	의성

資料: 중앙노동위원회 판례집 참조

제5공화국 시기의 대구·경북지역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사건 현황을 보면 <表 12-36>과 같다. 또 동기의 대구·경북지역 부상노동행위 구제 신청 노동조합현황을 보면 다음 <表 12-37>과 같다.

제5공화국 시기의 주요 노동쟁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22> 대구 택시기사 파업

1) 事件의 概要

사건의 개요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表 12-38> 1984年 大邱 택시기사 怠業概要

회 사 명	대구시내택시회사	대 표 자	최용찬 외
주생 산품	운수(대중교통)	종업원수	
분규이슈	사납금인하, 부제완화, 노조결성 허용		
분규발달	84.5.25. 새벽 1시경 대구시청 앞에서 택시기사 5명이 사납금 인하와 부제 완화를 관계기관에 요구하자며 지나가던 다른 택시기사 동료 설득		
경영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4.5.25. 동대구역 대기택시 100여대중 5-6대만 고객승차할 정도로 불황 · 5명의 택시기사의 제의로 84.5.25. 오전 8시 900여명의 택시기사가 대구시장 및 대구택시 사업조합이사장 최용찬 면담요구 · 택시운송사업조합 긴급이사회 의 사납금 4,000인하 등의 결의에 일부 기사들이 최용찬집의 가재도구파손 및 비번택시 뒤엎음 · 84.5.26. 농성 택시기사 9명 구속 및 47명 구류처분 · 동대구역 및 대구역 등지에서 구속운전기사 서명운동 및 석방 요구농성을 경찰이 강제 해산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으로 택시 운전기사 시위 전개 · 택시회사의 노조설립 급증 · 택시운전기사 월급제 실시제기 마련 		

資料 : 한국노총, 《한국노총보》, 1984. 6. 30(대구택시사건 조사보고서).

2) 事件의 發端

1984년 5월 25일 새벽 1시경 동대구역 광장에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기차의 고객을 태우기 위해 모인 택시 100여대 중 5~6대만이 고객을 태우는데 불과하여 이에 대기 중이던 몇몇 운전기사가 “이렇게 영업이 안되어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예년에 내리던 사납금도 5월말이 다 되어가는데 내리지 않고 있으니 사납금 인하와 부제 완화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이 일치되면서 분위기가 격양되었으며, 그 중 일부 기사가 시청 앞으로 몰려가 지나가던 동료 택시기사들을 설득하여 농성한 것이 발단이 되어 새벽 6시 30분경 일부 택시기사 500여명이 대

구시경, 중앙주유소, 대구역, 태평지하도 등 대구 시내 중심가에서 모여 집단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조합장들의 설득과 경찰의 해산 권유로 시청 앞에 집결해 있던 200여명은 해산을 시작했으나 중앙주유소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운전기사들이 합세로 시위가 확대되어 900여명이 모였고 기사들이 농성하여 대구 시내 교통이 거의 마비되었는데, 사건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⁶⁷⁾

① 과중한 사납금(61,000-64,000) : 통금해제로 인한 사납금 인상으로 새벽 4시까지 운행하였다.

② 생활비의 불안정 택시기사들은 일정한 급료나 상여금없이 매일의 사납금을 채운 나머지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생활비가 불안정한 상태였다.

③ 노사간 대화통로 전무 5공출범으로 산별체제에서 단위기업별 노조로 전환된 가운데 택시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노조결성을 하려 했으며, 당시 128개 택시회사중 14개만이 노조가 결성되었으며, 그나마 회사의 방해로 무력화 내지 어용화되어 있었다.

④ 기업의 영세성과 사용자의 횡포로 운전자의 고용불안 상존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20대 이상의 택시보유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대규모 사업주로부터 독립한 기업이 많았으며, 이때 택시 1대당 천여만원이상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기도 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운전기사들에게만 전가시켰고, 영세사업주와 대규모사업주와의 대립으로 사용자측의 의견집약이 어려웠다.

⑤ 계속적인 수입감소 보완책 미흡 통상 매년 농번기철에는 사납금을 3천원 인하시켰으나 1984년에도 그런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고, 승객이 적어 남은 LPG분에 대해 차액금을 반납해 주지 않아 운전기사들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켰다.

3) 要求事項⁶⁸⁾

① 사납금 1일 5천원인하

② 10부제 근무를 6부제로 조정할 것

③ 지정 LPG 충전 폐지

택시회사가 LPG 판매점과 계약전담 전표를 발부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운전기사들이 자유로이 LPG 충전소를 직접 거래할 경우에 비하여 1일 2천원-3천원의 이득을 사용자가 획득하고 있다고 한다.

④ 노조조합 결성 허용

⑤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중지

67) 한국노총, 《한국노총보》, 대구택시사건 조사보고서, 1984. 6. 30.

68) 위와 같음.

4) 事態 進行過程⁶⁹⁾

① 5월 25일 새벽 1시경 5명의 운전기사들이 「사납금인하와 부제 완화를 요구하자」고 지나가던 택시운전기사들을 설득하여 불과 3시간 만에 중앙주유소, 대구시청, 대구역 등 중심가에 5백여명이 모였고 새벽 8시에는 900여명이 운집, 집단농성하여 대구시청으로 물려가 시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시장은 부재중이었다.

② 대구시 부시장이 중재하였으나 운전기사들은 이 사건의 실제 책임자인 대구 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인 최용찬을 면회 요구하였는데, 막상 최용찬 이사장이 나타났을 때는 흥분하여 폭언을 하자 그는 피신하였다.

③ 중부서장의 설득과 12개 단위 노조조합장의 노력으로 운전기사 대표들과 부시장이 대화를 갖고 운전기사들의 요구조건을 완전히 받아주기로 약속받고, 그 시점까지의 모든 문제(동료기사 설득과정에서 불응하는 기사의 택시 몇 대를 파괴하였음) 등은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오후 3시경 애국가와 만세를 부른 뒤 자진 해산했다.

④ 오후 6시경 과격한 운전기사 60여명이 실권자의 확답을 받아야 한다며 이사장 최용찬을 만나러 제일택시(주) 주차장에 모여 농성을 시작하자 전경대의 만류에 흥분한 운전기사들이 비번 택시 19대를 파괴하고 집까지 들어가 가재도구를 파괴함에 따라 모두 연행되어 9명은 구속되고 2명이 입건되었으며, 47명이 구류처분을 받았다.

5) 結 果

5월 25일 오전 10시 20분경 시청 상황실에서 대구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긴급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 ① 사납금 4천원 인하
- ② 토·일요일·공휴일, 추가사납금 2,000원 철폐
- ③ 10부제를 6부제로 완화
- ④ 예비군 훈련시 기본급 지급
- ⑤ 차량수리시 운송수입금 공제는 해당 차량의 운행시간과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공제
- ⑥ 한시 사업자의 의료보험조합은 중앙에 건의
- ⑦ 퇴직금으로 법인체 총사원만 지급되고 있으나 한시택시 종사원에 대해서도 지급
- ⑧ LPG 충전의 자율화는 택시조합 총회 개최시 결정

69) 앞과 같음.

6) 波及效果

5월 25일 대구택시사건으로 5월 26일 경산지역과 5월 29일 구미지역에서도 사납금 인하 등의 농성과 요구가 시작되었고, 5월 30일에는 대전지역에서, 6월에 들어서는 서울 및 부산에서 대규모 택시시위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자 이에 택시사업주들이 자진하여 노사협의회를 열어 사납금 인하와 노동조건의 부분적 개선에 노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노동조합 설립도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1984년 4월말 330여개 택시회사에 조직되어 있던 노조가 2개월 후에는 423개로 증가하는 등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 81년 이후 대구지역 택시회사 노조설립현황을 보면 <表 12-39>와 같다.

<表 12-39> 1981年以後 大邱地域 택시會社 勞組 設立 現況 (단위: 개)

연 도 별	노조설립회사수	연도별	노조설립회사수
1981	·	1987	11
1982	4	1988	1
1983	1	1989	2
1984. 4월이전	5	1990	6
1985. 5월이전	57	1991	2
1985	5	1992	1
1986	3	계	98

資料: 韓國勞總 大邱直轄市 地域本部, 《組合現況》, 1992, 7월말 現在

<사례 23> 대구은행노조 대리급 노조가입 추진⁷⁰⁾

1967년 11월 2일 결성된 대구은행 노동조합이 대구 시내에 소재한 단위기업 중에서 1983년 12월말 기준으로 총직원수 2,290명에 조합원수 1,797명을 보유한 대구시내 최대의 단위노조로 조합원 구성이 숫적으로는 많으나, 남여 행원과 서무원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소 취약한 일면이 있었다.

이에 金相浩 위원장을 위시한 노조집행부에서는 조직확대의 숙원사업인 4급 대리급 직원 노조가입을 추진한 결과 1983년 10월 11일 제16년차 정기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으로 확정하고 1983년 12월 12일 대리급 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조가입안내 및 협조를 내용으로

70) 대구은행노동조합, 《대은노조 25년사》, 1992, p. 415, 송성윤, <대구·경북지역 노동운동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참조.

한 친서를 위원장 명의로 발송함과 아울러 전직원에 대하여는 가입에 따른 상황 설명을 주제로 한 홍보지를 발간 배부하여 행내의 여론 환기 및 분위기 조성을 순탄하게 다져놓고, 다음 날인 12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약 보름간에 걸쳐 金相浩 위원장, 金甲洙 부위원장, 白鍾甲 총무부장, 宋盛潤 교육선전부장으로 구성된 4명의 전상임간부가 분회를 매일 순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단체협약상 노조가입 유보 대상자인 인사부와 임원부속실을 제외한 총 대상자 262명중 절대 다수인 258명의 호응을 얻어 12월 29일 집행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일괄하여 가입승인을 얻어 84년 1월 6일 가입승락 통지서 및 위원장 명의의 인사장을 노조가입 대리급 조합원 각자에 발송하여 대리급 노조가입 추진을 보름만에 완결지었다. 대리급 노조가입실시 호응도는 금융노조 역사상 일찌기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것으로 대구은행 노동조합 전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노조의 안정적인 활동과 재정적 뒷받침으로 대구은행노조가 급속히 성장하여 왔다. 대리급 노조가입 추진 결과는 <表 12-40>과 같다.

<表 12-40> 大邱銀行勞組 代理級 勞組加入推進 結果 (단위: 회수, 명)

일 자	방문분회수	당일가입자수	총가입자수	미가입자수
1983.12.13	10	26	26	236
12.14	7	27	53	209
12.15	11	29	82	180
12.16	9	19	101	161
12.17	3	24	125	137
12.19	19	67	192	70
12.20	9	16	208	54
12.22	4	6	214	48
12.23	3	5	219	43
12.24	3	3	222	40
12.26	6	18	240	22
12.27	5	10	250	12
12.28	3	3	253	9
12.29	3	5	258	4

資料: 《대구은행노조 25년사》, 1992, p. 416.

II. 第6共和國期の 勞動運動과 勞使關係

1. 勞使關係 環境과 勤勞生活 條件

제1차적 민주주의로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제2차적 민주주의로서 경제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

내지는 사회적 민주주의(social democracy)를 촉진시키는 정치작업적인 역할을 한다. 1987년 6.29 정치적 민주화 선언은 산업민주주의를 양양시키는 기폭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주헌법 제정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6.26 대행진은 「6.10」, 「6.18」에 이어 국민의 민주화 열망이 폭발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이 대회는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군중수가 많았으며 시민·학생들은 끝까지 비폭력·평화적으로 대처하는 슬기를 보였다. 「6.26」은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6.29 선언」을 통하여 대통령 직선제 수락, 김대중 민주협 공동의장의 사면 복권을 골자로 하는 8개항의 시국수습안을 발표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이같은 민주화 선언은 7~8월 노동자 대파업을 일으켰는데, 이는 한국노동운동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우선 독과점 대기업을 비롯하여 대규모 기업과 수많은 중소기업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450여개가 늘어났다. 이렇게 하여 단결된 힘에 의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경험은 노동자 의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했으며, 다른 한편 독과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청계열화 체계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과 1989년 총선을 전후하여 노동운동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특히 1989년 총선에서는 여소야대(與小野大) 현상을 맞아 노동운동은 야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많은 성장을 이룩했다. 한편 노동운동 내부의 갈등이 민주화 선언 이후 표면화되어 이념적 갈등을 가져왔으며, 대기업 노동조합이 연두에 임금투쟁 등을 전개하여 선도하면서 봄에 투쟁을 전개하는 이른바 한국형 春鬭가 이 시기에 정착되게 되었다.

다른 한편 경제적으로는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3저현상과 대내적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저달러화 예고 등을 배경으로 하여 1980년대 초의 불황에서 벗어나 1985~1987년 안에 한국 경제를 호황으로 반전시켰다.

그런데 한국경제발전의 필연적 결과로서 노동자 세력의 증대와 민주화 과정에서 확대된 정치적 공간이라는 복합 국면의 표출이었던 1987년 7, 8월의 노동쟁의는 지금까지 성장의 기본축의 하나였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이용에 일정한 한계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전국적 노동쟁의 이후 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1988년부터 실시되는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연대의 틀을 넓히는 장으로 활용됨으로써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초한 성장방식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⁷¹⁾

대구지역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2차산업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3차산업의 비중이 높고, 또한 관리·사무직 비중이 높은 본사(점)가 많아 69만 5,029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업종구성상 저임제조업체가 많은 대구 부산지역은 생산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 임금수준이

7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87 사업보고》, 1988, p. 26.

타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表 12-41〉 年度別·地域別 賃金 (단위: 원, %)

연도	1990		1989		1988		1987	
시도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전 국	616,765	88.7	524,638	89.9	446,800	88.4	378,560	87.8
서 울	695,029	100.0	583,320	100.0	505,261	100.0	431,429	100.0
부 산	528,757	76.1	435,243	74.6	365,806	72.8	323,771	75.0
대 구	532,105	76.6	449,701	77.1	386,423	76.5	362,252	84.0
경 북	621,422	89.4	543,181	93.1	448,717	88.8	355,360	82.4

資料: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상, 1990, p. 21.

2. 勞動政策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지속되어 온 정부의 강력한 노동통제는 민주화 후에 노사 자율에 맡기는 노동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해방 직후와 4.19 이후에 이어 한국노사관계사에 있어서 세번째로 노동운동이 꽃을 피운 시기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자유방임적 노동정책은 1989년 말, 특히 1990년도에 들어 서서 법에 의한 통제방식으로 노동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한편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법률 제4027호)」이 만들어져 1987년 6월 30일까지 심의회가 구성되고 1988년 1월부터 최저 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저임금으로 알려진 대구지역의 저임금 지대를 어느 정도 일소할 수 있게 되었다. 연도별 최저 임금액과 적용범위를 보면 다음 〈表 12-42〉와 같다.

〈表 12-42〉 年度別 最低賃金 適用範圍 및 最低賃金額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적용업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제조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전산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전산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전산업
최저임금액	1그룹: 시간급: 462,5원 일 급: 3,700원 (월환산 11,000원) 2그룹: 시간급: 487,5원 일 급: 3,900원 (월환산 117,000원)	시간급: 600원 일 급: 4,800원 (월환산 144,000원)	시간급: 690원 일 급: 5,520원 (월환산 165,600원)	시간급: 820원 일 급: 6,500원 (월환산 188,700원)	시간급: 925원 일 급: 7,400원 (월환산 209,050원)

資料: 노동부, 《노동백서》, 1992, p. 68.

다른 한편 민주화 후의 3~4년 사이에 임금이 약 2배 이상 오르게 됨에 따라 정부는 희석화 정책(dilution policy)의 일환으로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1987년 12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 3989호)」, 1990년 1월 13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4219호)」 1991년 12월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이 제정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이른바 과소비와 3D(dirty, dangerous, difficult) 현상의 만연으로 더럽고 위험하고 까다로운 일을 기피함에 따라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해외인력을 유입함으로써 희석화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후에 2~3년간 노사 자율에 맡기는 자유방임적 노동정책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우선 긍정적 효과로서 ① 경영자, 관리자의 의식전환, ② 근로자의 자율성 제고와 경영에의 관심 표명, ③ 근로조건 개선과 민주화의 공감대 형성, ④ 노사관계 제도정비 등을 들 수 있으며, 부정적 효과로서는 ① 노사불신고조, ② 경영질서 부재현상(준법의식 부족), ③ 분규의 연례 행사화(한국형 춘투), ④ 사용자의 설비투자 의욕 감소와 제조업 기피현상, ⑤ 사회불안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분쟁인플레로 국제경쟁력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새 시대에 맞도록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등은 1987년 11월 28일에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89년 3월 29일에,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1989년 6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을 1989년 12월에 각각 개정되었다. 1987년 12월 9일에는 「대구지방사무소」가 「노동부 대구지방노동청」으로 승격되어 관리과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과를 두고 산하에 대구 남부, 포항, 구미, 영주, 안동사무소를 지휘하게 되었다.

한편 대구직할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대구직할시 조례 제1897호에 의거 근로청소년의 인성 및 사회생활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민주시민의 역량을 제고하고 건전한 여가활용으로 잠재력 개발을 위하여 1984년 5월 15일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을 달서구 성당동 72~10번지에 대지 6,516평 건물 3,323평(지하 1층 지상 3층)회관 및 근로자 임대아파트 500세대의 시설을 갖추어 근로청소년들의 일반교양교육과 취미생활지도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담도 행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表 12-43>과 같다.

〈表 12-43〉 勤勞靑少年 敎育 및 相談 (단위: 명)

구 분	계	취미敎育	교양敎育	여성예지대학	상 담
계	36,384	9,275	11,523	972	14,614
1984	1,239	261	723		255
1985	3,081	766	1,553		762
1986	3,356	990	1,583		783
1987	4,250	1,189	1,559		1,502
1988	4,314	1,361	1,438		1,515
1989	4,324	1,256	1,202		1,866
1990	4,335	998	1,117		2,220
1991	3,964	852	913	274	1,925
1992	3,794	919	781	358	1,736
1993	3,727	683	654	340	2,050

資料: 대구직할시 사회과 노정계

종합복지회관과는 별도로 대구직할시는 서구 중리동 1082번지에 서대구공단 복지회관을 설립하고 「노동상담실」을 1990년 1월 5일 개설했다. 이 상담실은 근로자들의 근로생활에 따른 제반 문제의 상담을 통해 근로의욕 증진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근로기준 노동법률, 건강, 인생, 민원 등을 취급한다. 운영위원이 12명, 위촉 상담원이 10명, 업무보조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방법을 방문상담, 전화상담, 우편상담, 순회상담 등을 행하고 있다. 1990년에는 551건, 91년 798건, 92년 669건, 93년에 680건을 취급했다.

또 대구직할시는 1990년 6월 29일 조례 제2489호로 「대구직할시 노사화합상」을 제정하여 노사화합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에게 수여함으로서 노사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수상후보자는 각구청장 또는 시장이 추천하며 수상대상자는 근로자, 사용자 각 3인 기타 노사화합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2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노사화합상 수상자 현황은 다음 〈表 12-44〉와 같다.

〈表 12-44〉 勞使和合賞 受賞者 現況

회수	업 체	유 공 자
제1회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승리기계 제작소 · 국제 염직(주) · 회전닛트(주) 	
제2회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양식품(주) · 카톨릭 병원 · 한국염공(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충지역본부 사무국장 · 김경조 · 대구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안상모)
제3회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갑을 · 신라섬유(주) · (주)평화발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영자협회 · 상임부회장(김상기) · 택시기사 상담소 소장(오세환)
제4회 ('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창산업(주) · (주)세원 · 대경교통(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최경생) · 영남노동 교육원 원장(조우호)

資料 : 대구직할시 사회과 노정계

3. 勞使의 組織

경제 5단계는 노동운동의 밀물시대에 대처하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1990년 3월 새로운 경영자단체연합(경단련)을 만들었다. 그리고 경총은 각종 세미나 연구책자 등을 개최 또는 발간 배포하여 월간「경영계」, 「경영회보」, 「경영교실」을, 격월로 「노동판례」도 발간하고 있다. 한편 대구경영자협회는 1987년 노사분규가 폭발적으로 분출하는데 자극을 받아 1987년에는 전년도에 회원사가 284개 업체이던 것이 822개 업체로 크게 늘어났으며, 1988년에는 854개 업체, 1989년에는 1077개, 1990년에는 1142개 업체,

1991년에는 1,254개 업체로 늘어나 국내 지역별 경영자협회중 최대 규모가 되었다.

노동조직은 1986년 6월 말에 조합수가 2,725개이던 것이 1989년 말에는 7,361개로 늘어나 270% 증가했으며 조합원 수도 103만여명에서 193만으로 1.87배로 늘어났다. 제6공화국기의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를 보면 〈表 12-45〉와 같다.

〈表 12-45〉 第6共和國時期의 年度別 勞動組合數 및 組合員數

구 분	조 합 수		조 합 원 수		
	산별연맹	단위노조	계	남	여
1987	21	4,086	1,267,457	900,129	367,328
1988	21	6,142	1,707,456	1,232,400	475,056
1989	21	7,861	1,932,415	1,402,106	530,309
1990	21	7,698	1,886,884	1,384,730	502,154
1991	21	7,656	1,803,408	1,341,745	461,663

資料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92, p. 318.

민주화 이후 대구 노동조합의 현황을 보면 다음 <表 12-46>과 같다.

<表 12-46> 大邱의 勞動組合 現況 (단위: 개, 명)

구 분	조 합 수					조 합 원 수		
		제조업	운수·통신	전기·수도·가스	기타		남	여
1988	344	115	155	2	72	52,914	39,147	13,767
1989	416	159	156	2	99	59,018	43,478	16,540
1990	415	153	154	2	106	60,884	43,545	17,339
1991	426	159	155	2	110	61,300	43,764	17,536
1992	424	156	154	2	112	60,668	43,372	17,296

資料: 대구직할시, 《대구통계월보》, 1993. 9, p. 60.

6.29이후 대구·경북지역 신규노조 설립 현황을 보면 <表 12-47>과 같다.

<表 12-47> 6·29以後 大邱·慶北地域 新規勞組 設立現況 (단위: 개)

구 분	1987. 6. 29이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계
대 구	31	41	32	17	7	1	129
경 북	31	45	35	12	2	11	136
계	62	86	67	29	9	12	265

資料: 한국노총 대구시·경북도협의회, 《조합현황》, 1992. 7.

민주화 이후 노동운동 세력의 내부에 기존 한국노총과는 이데올로기가 다른 새로운 급진적 세력이 싹터왔는데 뒤에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로 구체화되었다. 전노협의 태동경위는 1970년대 유신체제하에서 저항세력이던 재야노동운동권과 1970년대 말 도시산업 선교회, 카톨릭청년회 등 종교단체의 근로자 선교활동 및 노동현장 참여 지식인의 활동 등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노총의 경제적 조합주의 내지는 노사협조적 노동운동에 실망하고 참 노동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과 1988년 말 조직된 「지역별·업종별 노조협의회」체제로는 효과적인 대정부, 대사용자 투쟁을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제력과 집행력을 갖는 통일조직의 필요성 때문에 결성하게 된다.

이들은 한국노총을 대중조직과 거리가 먼 관제 어용노조라고 매도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자주적·민주적 노조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 후의 노동법 개정과 정부의 임금억제정책 등에 기만적·개량적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태동 경위는 1987년 7, 8월 대파업 이래 급격히 성장한 조합원의 정치의식 향상에 따라 이른바 근로자의 「정치인 모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태동 경위를 보면 1987년 11월 4일 「마창노련」 발족이 있은 후 1988년 말에 전국 10개 지역 7개업종 노조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는 1988년 6월 3일 7개 「지역별 노조협의회」와 2개 「업종별 협의회」를 묶은 것이다. 이 「특별위원회」가 소위 민주노조(전노협)의 첫 전국규모 연합체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재야 노동세력도 1988년 6월 7일 「전국노동운동협의회」(노운협)를 구성했다.

이들은 1988년 7월 28일 「전국노동법 개정 투쟁 본부」를 결성하고 1988년 10월 6일 특별 위원회와 노운협이 연합하여 「노동법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노동법 개정 전국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1998년 3월에는 성남에서 「제3차 전국회의」에서 전노협 준비위원회가 설치되어 구체화되었 으며, 1989년 7월 19일에서 20일 사이 서울대학교에서 「제8차 전국회의」에서는 조직강화와 (시기상조론)와 추진위파(즉시추진론)가 대립했으나 추진위파가 승리했다. 1989년 11월 23 일에서 24일 사이에는 울산에서 「제12차 전국회의」를 개최하여 전노협 결성 일정을 확정하고 1989년 12월 17일 준비위원회가 발족하고, 1990년 1월 22일 창립대회를 가짐으로써 공식 출 발하게 되었다. 전노협의 세력은 출범 당시 주최측은 1,082개 단위노조에 28만 6114명이라고 했으나 노동부 분석은 17만 9,500명에 동조세력이 약 20만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직은 전국회의 이래 중집위가 있고 그 밑에 사무처가 있는데, 사무처에는 교육선진국, 조직국, 쟁의지도국, 총 무국을 두고 있다. 또 14개 지역별 협의회를 두고 10개 업종별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그 세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약화의 배경에는 민주화 직후 당초에는 소련을 모델로 했으나 1989년 말 이후 소련 공산주의의 몰락과 시장 경제화의 길을 걷자 폴란드 자유노조와 유고, 루마니아 등을 모델로 했는데, 이들 역시 무너지기 시작함에 따라 1990년대에는 스웨덴 등 북구 모델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같은 이데올로기상의 변천이 한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또 법외 조합이 갖는 여러가지 불리성도 작용했다고 보며, 아울러 1989년 말 이후 한국노총의 선명노동 운동 천명으로 이데올로기상에 상당한 접근을 보게 되어 과거 전노협의 상당수가 한국노총으로 이적하게 된 것도 그 약화요인으로 작용했다. 제6공화국 시기의 한국노총 대구직할시 협의회(지역본부)의 임원 현황을 보면 다음 <表 12-48>과 같다.

〈表 12-48〉 勞總 地域協議會(地域本部) 任員 現況

정기총회 일자	대	의 장	사 무 국 장
1989. 5. 29.	3 대	신 상 훈	백 인 명
1990. 3. 16.	1990. 2. 22.자 노총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명칭변경 (지역협의회에서 「지역본부」로)		
1989. 12. 21.	4 대	백 인 명	김 경 조
1991. 5. 17.	직무대리	박 영 규	김 경 조
1991. 6. 14.	4 대	박 중 기(잔여)	김 경 조
1992. 5. 22.	5 대	박 중 기	김 경 조

資料：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화 이후 한국노총 대구직할시 지역본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8대 중점사업(1990년)으로 집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강화사업으로 장단기 교육계획의 수립하에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양적으로도 확대해 갔다. 1990년의 경우 지역본부 중점의 단위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4일간) 950명, 단체교섭 기법 교육 197명(1일)을 포함해서 금속노련 198명, 화학노련 195명, 연합금융, 정비, 인쇄노련 180명, 통신공사 70명등 연 1,790명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산별 교육부장 세미나, 신입, 신규노조간부 기초교육, 조직교육, 쟁의지도 교육(조직행동대 교육, 사물놀이 교육) 산업안전교육, 기타 정치활동 기초교육 등과 회원조합 강의지원, 노조간부 교재개발 등도 활발히 전개했다. 1990년 이후는 해외연수도 늘어났다.

둘째, 조직확대 사업으로, 조직확대를 위해 미가입 지원활동, “전노협” 가입조직을 산별에 흡수하도록 지원지도를 했으며, 조직의 내실화 및 조직지도를 위해 각 산별과 유대 및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신규조직 취약조직 지원을 하고 조직현황 자료를 발간 배포했으며, 정기대의원 대회, 노동절 행사 각종 규탄 쟁기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를 통해 단결을 다졌다.

셋째, 노동상담소 확대사업인데, 상담소 확대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에 협조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 노총직할로 상담소가 지역본부에 설치되고, 대구직할시는 서대구 노동상담소 등이 개소되었다.

넷째, 정치활동강화 및 대외협력사업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노조정치활동 기본방침을 정립하고 관련자료를 수집,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지방자치체에 정치참여를 권장했다. 그리고 사회단체와의 협력 연대활동도 아울러 추진했다.

다섯째, 노동문화사업으로 노동문화활동의 실태파악 및 정책을 수립하여 지도자로 선정훈련했으며 문화행사(노동가요 경진대회, 사물놀이 경연대회 등)를 추진하고 산별 문화부요원 세미나를 추진했다.

여섯째, 조사통계사업으로, 과학적인 정책수립이나 연구의 전제가 되는 조사사업, 예컨대 임금실태조사, 근로조건조사, 조직실태조사, 미조직 사업장 실태조사, 쟁의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자료집을 제작, 회원조합에 보급했다.

일곱째, 재정운영의 합리화 및 회관증축 사업의 추진으로, 재정운영의 합리화와 재정 자립화 계획을 추진하고 회관 증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증축사업을 추진했다.

여덟째, 근로자 주택문제 해소사업으로, 대구시 노동청 등 주무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조직사업장에 우선 보급을 추진했다.

4. 勞動爭議와 地域事例

6.29 정치적 민주화 선언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 닥쳐 급속도로 파급됨에 따라 5·16이후 줄곧 억눌려왔던 근로자들의 욕구불만이 일시에 불출됨에 따라 87년 7, 8월에는 엄청난 노사분규사태가 벌어졌으며, 그 양상 또한 과격 일변도로 치달았다.

6.29를 전후한 노사분규 발생 건수를 보면 <表 12-49>와 같다.

<表 12-49> 6·29宣言을 前後한 全國 勞使紛糾 發生件數 (단위: 건수)

기 간 별	발 생 건 수	1일 평균건수	대구지역노사분규
1987.(1. 1. - 6.28.)	124	0.7	166
1987.(6.29. - 12.31.)	3,647	19.7	
1988	1,873	5.1	139
1989	1,616	4.4	156
1990	322	0.9	33
1991	234	0.6	23
1992	235	0.6	21
1993.12.13. 현재	143	0.4	8

資料: 노동부 상황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87년 하반기의 분규 발생건수가 3,647건으로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규가 일어났으며 1990년에 들어서서 비로소 정상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表 12-50〉 年度別·原因別 勞使紛糾 狀況 (단위: 건수, %)

구분 연도	계	체불 임금	임금 인상	휴폐업 조업 단축	근로 조건 개선	단체 협약	해고	부당 노동 행위	기타
1985	265 (100.0)	61 (23.0)	62 (23.4)	12 (4.5)	47 (17.8)	(-)	22 (8.3)	12 (4.5)	49 (18.5)
1989	1,616 (100.0)	59 (3.6)	742 (45.9)	30 (1.9)	21 (1.3)	426 (26.4)	81 (5.0)	10 (0.6)	247 (15.3)
1990	322 (100.0)	10 (3.1)	167 (51.9)	6 (1.9)	2 (0.6)	49 (15.2)	18 (5.6)	- (-)	70 (21.7)
1991	234 (100.0)	5 (2.1)	132 (56.4)	- (-)	2 (0.9)	56 (23.9)	7 (3.0)	- (-)	32 (13.7)
1992	235 (100.0)	27 (11.5)	134 (57.0)	49 (20.9)	- (-)	- (-)	4 (1.7)	- (-)	21 (8.9)

資料: 노동부

한편 원인별 노사분규 현황을 보면 〈表 12-50〉과 같다.

1987년 이후 분규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건당 분규 지속 일수는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87년 하반기에 5.3일 이던 것이 1988년 10.1일, 1989년 19.2일, 1990년 19.1일, 1991년 18.2일, 1992년 20.1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민주화 이후 1980년대 말까지는 분규 건당 참가 인원수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대형화 현상도 나타났었다.

민주화 직후는 단체교섭과 임금인상 중심으로 분규가 일어났으나 점차 쟁점이 다양화되어 경영참가, 복지문제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분규 유형은 집단농성, 작업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

6.29이후 대구지역의 주요 노사분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全國自動車勞聯 大邱버스支部 賃金鬭爭

(1) 1989年度 賃金鬭爭⁷²⁾

전국자동차노련 대구버스지부는 전국 6대도시 동일임금 교섭안을 갖고 6월 15일부터 임금

72) 〈영남일보〉, 1989. 7. 11~1989. 8. 31.

29.1%인상, 근속수당 1만원 신설, 교통비 1일 1천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1989년도 임금협상이 7차례 교섭 끝에 결렬됨에 따라 1989년 7월 7일 전국자동차 노련 제3차 시내버스 분과위에서 결정한 「14일 6대 도시 일제투쟁 발생신고 단행」 결정에 따라 7월 11일 지부 사무실에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신고에 대한 위임을 받고 7월 14일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서를 제출한 후 7월 27일 파업찬반 투표 실시 결과 90%의 찬성으로 파업이 결정되어 8월 8일 새벽 4시부터 전국 6대도시 동시파업키로 결정되었으나 8월 7일 밤 11시 30분 대구지방노동위원회의 13% 인상중재안을 수용하여 파업 위기를 간신히 벗어났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노동위원회는 8월 7일 오후 2시부터 대구버스쟁의 중재회의를 개최 노사 양측의 임금인상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들으며 9시간동안 마라톤 회의 및 절충을 벌인 끝에 밤 11시 현행 월임금총액 55만 7,000원으로 중재안을 노사 양측에 통보하였다.

이날 중재회의에서 노조측은 6대 도시 공동 임금인상요구안인 29.1%에서 후퇴, 20%를 요구했으며 사용자측은 4.78%에서 10%까지 제시해 이견 폭이 컸으나 대구지방노동위원회는 90년 1월부터 무임 및 할인제의 일부 폐지에 따른 운송 수입금 증가와 금년도 타업종 임금인상안을 감안 13% 중재안을 최종 결정하였으며, 대구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이와는 별도로 노동쟁의발생신고 내용에 포함시켰던 단체협약안중 미타결 사항 가운데 교통비는 1일 8백원씩 지급조항 신설, 1년 무사고 수당 종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호봉제 실시 등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대구시는 시내버스파업이 물고 올 엄청난 파문에 대비 냉각기간이 끝나는 7월 29일 즉각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하였으며, 대구지방노동위원회는 중재회부결정을 내려 제도적으로 파업의 길이 막혀 있었다.

「전국 6대 도시 동일 인상 동시 파업」이란 전례없는 전략을 들고 나온 노조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30년 노조역사의 노련한 교섭자세가 큰 힘이 되었으며,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 속에 발생했던 대구시내버스 파업 위기는 국민의 우려를 씻으려는 「노, 사, 정」의 노력 속에 해결된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겠다.

(2) 1990年度 賃金鬭爭⁷³⁾

대구지부는 1990년도 임금협상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1990년 8월 9일 밤 10시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실시해 전체 조합원 3,098명 중 2,698명이 참가하고 그 중 92.4%인 2,503명이 찬성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하여 8월 17일 새벽 4시부터 전면 파업을 결정하고, 계속 교섭한 결과 8월 16일 오전 11시 40분부터 마지막 임금교섭에 들어가 17일 새벽 4시 50분 임금 10.49%

73) <영남일보>, 1990. 8. 8~1990. 8. 10.

인상, 상여금 100% 인상, 정기승급분 3천원 인상, 하기 휴가비 3만원 신설 등 5개항에 극적으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휴가비 신설과 정기승급 항목에서 팽팽히 맞서 3, 4차례 결렬되기도 하였는데, 노조측이 당초 휴가비 요구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양보하는 대신 사용주측도 정기승급액을 현행 9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지급하여 타결을 보게 되었다.

2) 聞慶炭鑛 勞使紛糾⁷⁴⁾

1958년부터 1,600여 근로자가 경상북도의 생산량 30.8%, 국내의 생산량 3.3%인 연간 80만 t의 무연탄을 생산해온 민영탄광인 대성탄좌 문경광업소에서 1989년 4월 1일부터 임금 43% 인상, 도급제 철폐, 완전 월급제 등을 요구하며 20여 차례에 걸쳐 노사협의를 벌였으나 결렬되어 5월 3일 노조측이 쟁의발생 신고로 맞서 노사분규가 악화되었다.

그 후 강경일변도인 노조원들도 6월에 접어들면서 회사측의 폐업철회 소문이 나돌자 분위기가 온건쪽으로 선화하여 7월 1일 새 집행부를 구성하여 타협을 기하고, 점촌지역 주민들의 지역 경제발전의 명분아래 폐광반대 의견이 팽배해짐에 따라 74일간의 장기 파업에 폐업을 단행했던 광업소측이 결국 경영합리화 차원의 기업제질 개선으로 사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7월 21일 「광산조업재개」의 대전제를 놓고 점촌 상공회의소에서 점촌지역 발전협의회원 임의회에 「폐광철회 불사」 입장을 회사와 「철회 수용」 입장을 노조가 팽팽히 맞섰으나 조업재개의 급박한 처지에 놓인 노조측이 새로운 법인의 설립, 퇴직금 전원 수령, 임금동결, 근로자 전원채용의 회사측 내용안을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회사의 폐광을 인정하되 대성그룹이 새 회사를 설립하여 광산운업을 새로 시작하면 광원들의 취업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에서 새로운 법인 설립안에 노조가 잠정 합의하였다.

퇴직금보다 일자리가 절실한 광원들은 빠른 조업재개를 바랄 뿐이며 4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하여 생계의 어려움은 물론 석탄장학금마저 끊겨 광부의 가정이 파경에 이르렀으며, 점촌 시내 60여개의 대중음식점과 유흥업소 등이 휴·폐업을 하는 등 점촌 지역 경제조차 침체되어 버렸다. 문경광업소가 한달 정도 뿌리는 돈은 임금 7억원과 자재구입비 등 간접 경비 13억원을 합쳐 20억원 정도로 지방 소도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금액이다.

폐광의 발단은 지난 1989년 5월 3일 노조측이 임금 43% 인상과 도급제 완전 철폐 등을 요구하며 폐업에 들어가자 회사측은 5월 15일 직장폐쇄신고로 맞서면서 비롯되었다.

이후 회사측은 광산노련의 인상선인 15.5% 인상안을 내놓고 11차례나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74) <영남일보>, 1989. 7. 11~1989. 9. 4.

이전을 좁히지 못한 채 폐업 장기화로 갠도가 몰락 또는 침수되는 등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폐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며, 극한 투쟁을 벌인 노조원들도 결국 회사측이 더 주겠다고 15.5% 인상은 커녕 일자리마저 잃게 되어버리자 임금동결은 고사하고 일자리만 되돌려달라고 호소하기에 이르렀던 처절한 입장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이것은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경영한계에 다다른 탄광업체의 대표적 분류였으며, 노조측의 무리한 요구와 강경일변도 투쟁이 급기야 회사의 폐광결정으로까지 몰고 와 결국은 근로자만 임금동결, 새로운 법인체 신설에 따른 퇴직금 감소를 겪는 불행을 초래하였다.

이후 회사측은 1989년 8월 17일 자본금 3억원의 문경탄광(주)를 설립하여 9월 4일부터 광원 1,000명 수준으로 연간 50만톤 생산규모로 4개월만에 다시 조업을 재개하였다.

본 노사분규 과정을 볼 때 노동운동의 궁극적인 방향이 강경일변도의 대결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최상의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볼 수 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주측의 농간이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3) 啓明大學校 東山醫療院 勞動組合 勞使紛糾⁷⁵⁾

1991년도에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노사분규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노동조합의 노사분규를 들 수 있으며 분규내용은 <表 12-51>과 같다.

<表 12-51> 啓明大學校 東山醫療院 勞使紛糾內容

회 사 명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대 표 자	오 준 섭
생 산 품	의 료	조합원수	790명
조 합 명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노동조합	대 표 자	이 상 춘
분규이슈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갱신협상 결렬		
경과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6.3. 노동자의 파업돌입 • 의료원측의 노조간부 19명 고발로 6.13일 노조간부 4명 사전 구속영장발부 • 대구시 및 시민중재단을 구성하여 중재시도에 의료원측이 거부 • 외래옥상 및 원무과 의무기록실 점거 농성에 노조간부 및 • 조합원의 집단해고 및 직위해제 조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7.1 4개항의 합의로 농성철회후 노조간부 연행 • 의료원측의 합의사항 이행지연으로 조합원 불만 고조 • 노조간부 구속으로 노조 와해 		

75) 동산의료원 노조 <91임금투쟁 보고서>.

(1) 紛糾發端

1990년 12월 20일부터 노사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과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19차례 걸쳐 진행하였으나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의견차는 노조측의 기본급 126,000+12.9% 임금인상 요구에 병원측에서는 교수연구비 포함한 기본급 9% 인상으로 맞서 실지 교수연구비는 약 27% 정도 인상효과를 나타내어 이에 노조측에서 고임금자의 인상율이 저임금자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차별인상이 된다면 이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의료원측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 및 직권중재시에도 연구비 인상을 계속 주장하고 중재재정서상의 하후 상박의 원칙에 위배됨을 명백히 밝혔으나 의료원측이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분규가 발단되었는데, 동산의료원측 노사간 임금 및 단체 협약 주요 요구(안)은 <表 12-52>와 같다.

<表 12-52> 啓明大學校 東山醫療院 勞使間 要求(案)

구 분	내 용	노 조 안	의 료 원 안
임 금	기본급 호봉문제 간호조무사호봉간 승급액 미반영 제경력 위협수당 대기수당 간이침대 설치 효행수당	126,000+12.9% 말호봉폐지 8,000원 100원 인정 1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 1일 5천원 신설 환자보호자용 설치	기본급 9%(연구비 포함) 3-5호봉 6,000원 2호봉 추가반영 인상불가 신설불가 연구검토 연2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
단 체 협 약	비조합원범위 조합가입 자격 조합비납부 일반, 기능직승진 인사, 경제위원회 인력충원 사택제공 복지기금 주택자금대출	1.과장급이상 2.교수 3.인사 및 노무담당 4.비서 입사와 동시 자격 비조합원도 납부 직제개선을 위한 연구 위원회 구성 노사동수로 구성 단체협약에 의한 휴직, 휴가시 대체인력 충원 본원보유사택에 무주택 자 우선 입주 예산의 1%를 매년 적립 구입: 2천만원(연리 5%) 전세: 1천만원	1.계장급이상 2.교수 3.인사부서전원 4.비서 5.전산업무 종사자 유니언샵인정 합의불가 현행체제 교수 합의불가 합의불가 합의불가 합의불가 합의불가

資料: 동산의료원 노동조합, 《91임금투쟁 보고서》

(2) 紛糾事態 發展過程

동산의료원 노조조합 집행부에서 5월 11일-5월 13일에 걸쳐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85%의 파업찬성으로 5월 18일과 5월 22일에 걸쳐 두번씩이나 연기하면서 파업을 막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였으나 5월 16일 실시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서 오준섭 의료원장 대신 위임장도 받지 않아 결정권한이 전혀 없는 병원장이 참석하여 노사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급기야 5월 30일 대구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재정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결과 투표자중 44% 찬성, 54% 반대로 노조집행부에서 6월 3일 오전 8시 전면 파업을 단행하여 6월 7일에는 전체조합원 793명중 700여명까지 파업에 참가하였다.

파업에 돌입한 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조측의 의료원측 교섭요청에 불법파업을 이유로 권한없는 제 3자를 내세워 교섭을 거부하다가 십 수일이 경과된 후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오준섭 의료원장의 일방적 불참으로 파업 장기화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노조는 대구시장의 임의중재 요청으로 대구시의 중재시도와 뜻있는 인사의 시민중재단 구성의 중재 시도 등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의료원측의 거부로 중재 시도의 노력도 무산되었다.

1991년 6월 3일 노조측이 파업에 돌입하자 의료원측에서는 6월 3일 노조간부 5명을 고소, 고발하고 이틀 뒤인 6월 5일에 노조간부 14명을 추가로 고소, 고발하여 6월 13일 이상춘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6월 17일 위원장 및 고공사수대 40여명이 외래 옥상에 점거농성을 시작하였으며 6월 18일에는 원무과 의 무기록실도 점거 농성하였고 의료원측에서는 6월 19일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67명을 직위 해제하였으나 이에 6월 20일 노조측의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은 전산실을 점거 농성하다가 6월 22일에는 의료원장실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한편, 의료원측은 6월 22일 농성조합원 39명에 대하여 4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신청하고 6월 29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 노조간부 21명을 직위 해제하였다.

(3) 罷業撤回

6월 30일에 농성조합원 160여명의 전조합원들이 이상춘 노조위원장을 대신하여 강영목 직무대행이 의료원장과 협조문을 수락하기로 하고,

- ① 단체협약, 임금은 지노위 직권중재재정안을 노사가 그대로 수용한다.
- ② 손해배상 청구는 철회한다.
- ③ 병원 내 징계는 최소화한다.

④ 무노동 무임금은 연말 경영 실적 평가후 흑자가 되면 지급을 고려한다.

의 4개항에 협의하여 파업을 철회하고 7월 1일 농성을 풀고 자진 해산되었으나 강영목 직무대행 및 노조간부들이 연행되어 구속 수감됨으로써 노조집행부가 와해되었다.

4) 大邱 파티마病院 勞動組合 勞使紛糾⁷⁶⁾

1991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노사분규는 동산의료원 외에 파티마병원 노조 노사분규를 들 수 있으며 임금인상결렬에 따른 분규내용은 <表 12-53>과 같다.

<表 12-53> 大邱 파티마病院 勞使紛糾 內容

회 사 명	대구 파티마 병원	대 표 자	여 귀 남
생 산 품	의 료	조합원수	120명(직원 : 550명)
조 합 명	대구 파티마병원 노동조합	대 표 자	이 유 자
분규이슈	91년도 임금협상결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 5. 4. 91년도 임금인상 및 주44시간 노동시간 확보 협상결렬로 노동조합에서 쟁의 발생 신고 · 1991. 5. 6. 병원측에서 노조간부 4명 징계위원회 회부 · 1991. 5. 23. 노조측 파업돌입(130명 참석) · 1991. 6. 3. 노조간부 4명 구속영장 발부 · 1991. 6. 5. 파업 14일째 공권력 투입 · 1991. 6. 10. 농성노조조합원 40여명 파업해산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 8. 28. 구속노조간부 해고 · 1991. 9. 24. 제2대 노조집행부 (위원장 : 이미자) 출범 		

(1) 紛糾發端

1991년 3월 18일부터 노사간 임금교섭을 시도하였으나 4차례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노조측의 기본급 49,461원 인상 주장에 병원측의 기본급 5%인상(약 10,000원~20,000원 정도) 주장으로 맞서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측에서 91년 5월 4일 병노련산하 동산병원노조와 연대하여 쟁의발생 신고를 하였다.

이에 병원측에서는 91년 4월 23일 1층 로비에서 임투 중간보고회를 허가없이 개최했다는 이유로 위원장 등 4명의 간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노조측의 반발로 철야농성 및 피켓시위, 리본달기, 사복근무, 집단월차휴가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5. 23일 130여명의 노조원들이 참석하여

76) 대구 파티마병원 노조, 《91 임금투쟁 보고서》.

파업에 돌입하였다.

(2) 紛糾事態 發展過程

파업 5일째인 1991년 5월 27일 징계위원회 철회와 고소, 고발 취하의 거론없는 지노위의 중재재정시에 노조측이 중재안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병원측안을 그대로 베낀 안이라며 거부가 확정되어 그날 밤 파업장소를 1층 로비로 옮겨 파업사태가 장기화되어 갔다. 한편, 6월 3일 위원장 등 노조간부 4명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파업 14일째인 6월 5일 공권력 투입으로 40여명의 파업농성 노조원들을 강제 연행하여 6월 6일 구속영장 발부된 4명의 전조합원들을 훈방 조치하자 새 집행부를 구성하여 조합을 지키고,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자는 조합원 다수의 의견으로 6월 10일 오전 7시 1층 로비에서 조합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진 파업 해산식을 갖고 정상 근무에 들어갔다.

(3) 結 果

위의 분규사태에 병원측에서는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조합원 3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 5명, 출근 정지 9명, 감봉 5명, 견책 11명, 경고 2명으로 징계 결정하였으며 노조측에서는 해고자 복직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9월 13일 제 2대 임원선출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여 이미자 위원장의 새 집행부를 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5) 南鮮物產 賃金鬭爭

(1) 1989年度 賃金鬭爭⁷⁷⁾

남선물산 노조는 32% 인상인 임금 6만 3천 8백원 인상과 상여금 현재 244%에서 366% 지급, 초임 인상 등의 요구 조건의 임금인상안을 제출, 회사측의 임금 89% 인상과 상여금 타회사 수준 등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여 오다가 89년 3월 14일 노동쟁의 발생 신고 후 3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후 8차례의 노사협상에도 불구하고 별 진전이 없이 4월 11일 회사측이 직장폐쇄 신고를 냄으로써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파업 2개월째인 남선물산 비산, 이현공장 노조는 1989년 5월 24일 비산공장 남직원 5만 5천원, 여직원 3만 5천원 임금인상, 상여금 비산공장 300%, 이현공장 현 240%에서 280% 지급, 가족수당 2명에 각 5천원, 월 2회 휴무와 휴일 및 특근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회사측 임금인상 제시안을 노조안 찬반투표에 회부하여 조합원 337명 참석하여 찬성 202명,

77) <대구 매일신문>, 1989. 4. 12.~1989. 5. 30.

반대 126명, 무효 9명으로 가결 수용하고 파업 기간 중의 임금에 대해 기본급의 50%를 생활 보조비로 지급키로 추가 합의한 후 파업 66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어 6월 1일부터 정상조업에 돌입하였다.

(2) 1990年度 賃金鬭爭⁷⁸⁾

남선물산(주) 비산, 이현공장 노조원 830명이 임금 정액 77,388원 인상, 상여금 기본급의 560% 지급,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일요일휴무 4회 실시 등을 요구하고 회사측과 교섭 결과, 회사측의 임금 7% 인상 제시로 8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타결하지 못하고 90년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90년 5월 21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회사측은 5월 26일 노조간부 13명을 불법파업으로 고소하여 고태권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5명이 구속되고 노조간부 3명이 회사 굴뚝에서 60일간 농성을 벌여오던 중 파업 103일째로 접어들어 선조업을 바라는 일부 파업이탈과 함께 60일째 굴뚝 농성중인 노조간부들이 8월 31일 구속됨으로써 110일을 끝어온 파업이 「선조업 후협상」을 원하는 근로자들에 의해 9월 7일 조합원 420명이 참석하여 찬반투표없이 파업철회를 결의, 파업철회신고를 하고 이에 회사측도 직장폐쇄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여 9월 10일부터 조업을 재개하였다.

이후 9월 14일부터 임금협상을 재개하여 염색분야 남자 4만원, 여자 3만원, 상여금 20% 인상과 제직분야 남자 3만 5천원, 여자 2만원 인상, 상여금 10% 인상과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태업기간 중 임금 100% 지급, 고소, 고발 쌍방 취하 등 10개항에 극적으로 합의하여 6개월간 끝어온 임금협상안을 마무리하였다.

노조측은 주동자 원직복직을 요구했으나 사용주측은 완강히 거부해 결국 태업기간 중 임금 지급선에서 노조가 양보 타결을 보게 되었으며,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110일간의 파업기간중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파업일지 내용은 <表 12-54>와 같다.

6) 南鮮輕金屬 賃金鬭爭 罷業籠城⁷⁹⁾

대구시 방촌동 소재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남선경금속 노조원 1천여명이 기본급 10만 5천원 인상, 상여금 200%에서 400% 지급, 가족 및 장기근속수당 인상요구 등의 임금인상협상 결렬에 따라 89년 2월 22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신고 제출후 4월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여

78) <영남일보>, 1990. 5. 1~1990. 9. 15.

79) <영남일보>, <대구 매일신문>, 1989. 4. 24.~1989. 6. 20.

계속 농성중 6월 19일 본사 앞마당에서 논공공장 노조원과 본사 구사대 종업원들과의 집단충돌사태가 발생 28명이 부상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집단폭력사태후 회사측이 20일 논공공장 노조지부장 조기현씨를 기물파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하여 6월 24일 구속됐으며, 남선경금속 본사 노조 간부들은 노조원 김경목이 5월 25일 본사 종업원에 의해 집단폭행 당했다고 신고장을 내는 등 노사 감정이 격화일로로 치달았다. 급기야 6월 19일 오후 1시 30분 방촌동 본사 근로자 150여명이 회사운동장에서 집단 충돌하여 송인옥 등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과정에서 논공공장 노조지부장인 조기현이 온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논공공장 노조원들은 오후 늦게까지 이같은 사태에 대한 회사측 해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자진 해산했다.

〈表 12-54〉 南鮮物産 1990年 賃金協商 罷業日誌

월. 일.	과 업 내 용
4. 30	임금협상결렬로 노동쟁의 발생신고
5. 4	이현공장 노조원 2백명 태업
5. 7	대구공장 노조간부 직기 가동끄고 조업중단
5. 8	대구지방노동위원회 알선 결렬
5. 11	1차 공권력 투입, 파업찬반투표 가결
5. 21	파업 돌입
5. 23	직장폐쇄신고
5. 30	회사측, 노조원 21명을 업무방해 등 고소
5. 31	2차 공권력 투입
6. 16	노조간부 최병원 등 3명 구속
7. 14	고태권 조합장 구속
8. 30	노조간부 채한수 등 4명 굴뚝농성 시작
8. 31	노조임시총회 개최, 비산노조원 2백명 파업 반대
9. 7	경찰투입, 굴뚝농성, 파업철회 결의
9. 10	조업재개

7) 大東工業(株) 勞使紛糾

달성군 논공공단에 소재한 대동공업 노조는 1988년 9월초 평균임금 8만 3천원의 인상안을 제출하고 10여차례 교섭을 벌여왔으나 회사측은 3만원 이상 인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조측은 쟁의발생신고후 9월 10일 오후 부터 회사식당에 모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90%이상이 파업을 찬성해 11일 오전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대동공업(주)를 비롯해 대동인터맷(주), 대동중공업(주), 대동기어(주), 한국체인(주) 등 5개 계열사가 있는데 대동기어 외에 4개사 노조가 똑같은

임금인상안을 내놓고 파업을 들어가자 계열사 회사단이 10월 14일 평균임금 4만 3천원까지 인상해 주기로 결정, 각 노조측에 통보하였으며 노조측이 반발하여 파업을 계속하자 회사측이 10월 18일 휴업을 선언하고 통근버스운행을 중단하자 5백여명의 근로자들이 현풍에서 회사까지 4km를 걸어서 출근하여 회사 마당에서 장기농성을 벌였다.

8) 기타 地域業體 勞使紛糾

1989년과 1990년도에는 부동산 경기 활황에 따른 물가폭등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상당히 낮아져 임금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결렬되어 노사분규가 장기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규업체도 급증하였으며 대구·경주지역의 1988년도부터 1990년까지의 노사분규업체는 <表 12-55> 및 <表 12-56>과 같다.

<表 12-55> 大邱·慶北地域 1988~1990年度 主要 勞使紛糾 日誌

연. 월. 일.	기 업 체	분 규 내 용	분 규 이 슈
1988. 10. 28.	유성모직	작업거부	임금인상 결렬
1988. 11. 9.	오대금속	작업거부	근로자집단폭행
1988. 12. 27.	동국화섬	가두시위	단체협약 결렬
1989. 1. 10.	진안섬유	노동청농성	근로자 2명부당해고
1989. 2. 2.	대하통상	철야농성	임금인상 결렬
1989. 3. 6.	동양어패럴	전면파업	임금인상 결렬
1990. 3. 13.	동산베아링	철야농성	업무감사거부 노조 위원장 구속
1990. 5. 1.	태화염직	파업	임금인상 결렬
1990. 5. 11.	영풍제관	집단연월차휴가	임금협상 결렬
1990. 5. 11.	세한전자(구미)	파업	임금협상 결렬
1990. 5. 19.	강원산업(주)	파업	임금협상 결렬
	포항공장		
1990. 6. 27.	(주) 삼일(포항)	전면파업	임금협상 결렬
1990. 8. 5.	한전산업	전면파업	근로자집단폭행

<表 12-56> 大邱·慶北地域 1989~1990年度 勞使紛糾企業 및 이슈

발생일자	기 업	분 규 이 슈
1989. 10. 12.	대동공업(주) 노조	임금인상결렬 파업
1990. 2. 12.	태양어패럴노조	대구지방노동청 업무감사거부
1990. 3. 13.	동신베아링	동산베아링 업무감사거부 노조위원장 입건에 따른 철야농성
1990. 3. 15.	동신베아링	업무감사거부 13개 노조위원장 고발
1990. 5. 1.	태화염직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결렬 파업
1990. 5. 11.	구미새한전자	임금협상 파업
1990. 5. 11.	영풍제관	노조원 150여명 임금교섭 결렬파업
1990. 5. 19.	강원산업(주) 포항공장	임금협상 파업
1990. 5. 21.	남선물산	임금협상결렬 파업
1990. 5. 29.	동산베아링노조	해산신고
1990. 6. 27.	(주) 삼일	임금인상 전면파업
1990. 8. 5.	한전산업	근로자 집단폭행 전면파업

第8節 課題와 展望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를 정치권력구조와 노동경제적 여건을 기반으로 하여 노동정책, 특히 노동관계법과 노동행정의 개입 정도에 따라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위축, 활성화를 반복하였는데, 대구·경북지역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같은 현상은 해방 이후 줄곧 정치 우위논리로 경제문제를 해결해 온 관행 탓도 있으나 노사관계의 역사가 일천하고 노동조합의 자립기반이 취약한데도 원인이 있다.

이같은 여건 하에서도 노동운동사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있었다. 예컨대 1946년의 10.1 폭동 사건, 제1공화국의 자유당 정권하에서 악덕 기업주와 벌인 대한방직(주) 대구공장의 6년간에 걸친 노사분규로 인하여 민주노동단체인 「대구노동조합협의회」(대구노협)를 결성하게 된 계기를 만든 사건이나, 제2공화국의 민주당 정권하에서 일어난 대구·경북 교원노조 결성은 전국 각 시도별 교원노조 결성 촉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제5 공화국하에서 1984년 5월 25일 발생한 대구택시기사 파업사태는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미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첫째, 대구지역의 보수성이다. 유교적 윤리관과 정신주의적 가치관이 기업에 의제(擬制)되면서 급진주의적 노동운동 세력이 시민(주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여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었다. 둘째, 이와 더불어 경영가족주의적 이념하에 반종신고용제 내지는 연공서열적 고용관행과 인근 경북·경남지역 인력을 중심으로 폐쇄적 연고고용에 의해 과격한 노동운동에 중화작용을 하였으며, 셋째, 기업별 노동조합(1962~1981 사이의 산업별 노조하에서도 기업별 성격이 강했음) 하에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조합이 재정적으로나 교섭력에 있어서 약체를 면치 못한데 반해, 정부나 사업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넷째, 1980년대까지 대구지역의 주종산업인 섬유 등 여성의존도가 높은 경공업이 발달하여 협조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가 비교적 용이했으며, 또 이 부분에서 기숙사 통근버스, 산업체 부설학교 등 근로복지 부문의 발달은 과격한 노동운동의 완충역할을 담당했다. 다섯째, 대기업중심의 공업단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노동세력의 구심점이 형성되지 않아 그 결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못했다.

역내 산업평화의 정착과 노사관계 근대화를 위한 과제를 정부 및 노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노동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생존, 그리고 산업화의 역사가 일천하고 노사협조와 교섭의 경험이 미숙한 여건에서 불가피하게 정부주도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고도화에 따라 노동정책의 영역과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경제발전과 산업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가 정보화사회로 이행해 갈수록 실업, 임금 등의 근로조건, 산업재해, 인력개발, 노사분규 등을 행정적으로 해결,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늘날 산업사회 발전의 일반적 추세가 정부 주도 방식을 점차 탈피하여 민간주도의 개방체제로 지향해 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노동정책은 ① 이익분쟁인 경우는 노사자치 정신에 따라 공정성을 기하며 노사 스스로의 협력과 개선 노력을 조장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근로조건 개선도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에 그치고 노사협의, 협력기구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하며, ② 권리분쟁이나 직업안정, 직업훈련 등 민간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정부는 제도나 지원행정을 강화해 가야 하고, ③ 산업복지나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등 복지정책을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행정기사도 정신의 구현).

한편 노사는 공존공명을 위하여 서로가 자기의 주장과 요구를 다소 양보하여 동반자의식(partnership)을 통해 공감대를 확대해 가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이룩해 보겠다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추는 것, 즉 노사의 의식개혁이 선결과제이다. 그러자면 노사 대화의 공통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① 가치관에 있어서 최소한 공통적인 것이 있어야 하며, ② 각자의 이해나 이데올로기만을 고집하지 않고 신축성있는 태도로 양보의 미덕을 살려 공통적인 것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③ 정보, 교섭, 조정, 참가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이나 노사 동반자 의식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공통사항과 공통사항을 향한 양보의 미덕은 노사간 의견일치를 보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노사가 신뢰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공동의 입장은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정의의 실현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건전한 윤리의식으로 능력을 발휘하고(노동기사도 정신의 구현), 기업은 올바른 경영철학과 노사동반자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올바른 윤리의식으로 분배와 교환의 공정을 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경영기사도 정신의 구현) 공영할 수 있으며,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이 합치하는 점에서 사회정의가 구현된다.

21세기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사회방향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즉 복지국가,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하에서 능률의 논리를 내세우는 산업화는 역사가 가르쳐 주는 바와 같이 분배의 불공평, 공해, 노동소외 등의 비인간화를 초래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이라는 산업화 본래의 목적을 위배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복지사회는 능률의 원리에 공정의 원리가 가미되어 산업화와 인간화, 성장과 복지, 생산과 생활이 양립하는 가운데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이 합치되도록 하는데 있다. 대구지역 노사관계는 모든 시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최적 복지 경제체제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한 정신적 복지 터전위에 노동력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소득보장기회를 향상하고 분배의 공정을 기하며, 나아가 사회보장의 확대를 기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사·정 세 노사관계 주체가 대화를 통해 전개해 가야 할 것이다.